발 간 등 록 번 호
51-6110000-001899-01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 사업 결과보고서 부록

2018.9.10.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기억발전소

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 사업 결과보고서 부록

2018.9.10.

목차

1. 서울기록화 업무 설계 방안 ····· 1

1.1. 개요 ····· 1

1.1.1. 목적 및 배경 ····· 1

1.1.2. 업무 설계 절차 ····· 2

1.2. 서울기록화 사업 업무 설계안 ····· 3

1.2.1. 업무 설계 및 내용 ····· 3

2. 시민 기록화 키트 구성 ····· 12

2.1. 개요 ····· 12

2.1.1. 목적 및 배경 ····· 12

2.1.2. 구성 방안 ····· 12

2.2. 시민 기록화 키트 내용 ····· 12

2.2.1. 협력네트워크 목록 ····· 12

2.2.2. 리드파일 ····· 13

2.2.3. 케이스파일 ····· 18

2.2.4. 사업소개서 ····· 21

2.2.5. 사전설문지 ····· 25

2.2.6. 동의서 ····· 29

2.2.7. 업무협약서 ····· 31

2.2.8. 인수인계서 ····· 32

2.3. 소결 ····· 33

2.3.1. SDA와의 연결 기대 지점 ····· 33

2.3.2. 디지털아카이브 수집 업무 모듈 설계 ····· 33

2.3.3. 입수기록 양식 개발 ····· 33

3. 면담 내용 ····· 34
3.1. 공공영역 면담 내용 ····· 34
3.1.1.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영상방송팀 (서울시청방송) ····· 35
3.1.2.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아카이브展) ····· 38
3.1.3.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서울경관기록화) ····· 41
3.1.4.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옛길영상기록화) ····· 45
3.1.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서울항공사진) ····· 48
3.1.6.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성곽마을 생활문화 기록화) ····· 51
3.1.7.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공동체주택 기록화) ····· 54
3.1.8.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다큐멘터리 제작) ····· 57
3.1.9.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시정백서 발간) ····· 60
3.1.10.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역사구술자료집 발간 및 구술채록) ····· 63
3.1.11. 서울문화재단 (메모리인서울 프로젝트) ····· 66
3.1.12. 금천문화재단 ····· 70
3.1.13. 성북문화재단 ····· 78
3.2. 협치영역 면담 내용 ····· 82
3.2.1. 서울혁신센터 ····· 83
3.2.2.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86
3.2.3.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96
3.2.4.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99
3.3. 민간영역 면담 내용 ····· 104
3.3.1. 마을에숨어 ····· 105
3.3.2. 해방촌마을기록단 ····· 111
3.3.3. 디자인스튜디오 203 ····· 124
3.3.4. 정릉마을기록주민이야기마당 ····· 132
3.3.5. 사진아카이브연구소 ····· 144
3.3.6. 금천구마을아카이브TF ····· 154
3.3.7. 성북신나&성북문화재단 ····· 164
3.3.8. 창신숭인도시재생협동조합 ····· 167
3.3.9. 기억발전소 ····· 173

3.3.10.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 176
3.3.11. 매거진충무로 ····· 179

1. 서울기록화 업무 설계 방안

1.1. 개요

1.1.1. 목적 및 배경

가. 목적

- 본 사업을 통해 자생적인 기록활동을 발굴하고, 협력대상과의 면담, 협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협력사항과 역할을 설정하여 협력네트워크 구축함.
- 이 과정에서 기록물을 인수해 디지털아카이브에 등록하여 서비스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시도함.
- 업무담당자가 업무 과정에서 다수의 협력대상의 정보를 파악하거나 지속적으로 교환하며 보다 복잡해지는 업무 절차와 산출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체적인 과정을 일목요연하게(논리적으로) 정리하고자 함.
- 이와 함께 과정을 경험한 사업단 내에서의 이슈와 노하우가 업무담당자에게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고려해 업무 설계안을 작성함.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흐름도와 업무안내서'를 통해 기술함.

나. 배경

- 서울기록원은 서울특별시의 영구기록을 정기적으로 이관 받아 관리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성격과 동시에 시민기록을 적극적으로 수집[1]하여 총체적인 서울기록화를 추구하는 지방아카이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자 함.
- 기존의 기록학에서 정의된 이관 또는 수집 체계에 따른 업무 관행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 기존의 업무 관행을 고려하되 사업 뱡향에 맞는 서울기록원만의 기록화 업무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이전 사업과의 연속성을 가지고, 서울기록의 정의, 서울기록화를 위한 시범 수집프로세스를 반영해 서울시민의 자생적인 기록활동을 발굴하고,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기록정보를 함께 수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민의 자생적 기록활동 가운데 민간 아카이브(공동체 아카이브)의 성향을 이해해 업무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1) 수집(acquisiiton)은 기록학용어사전에 따르면, "보존기록관(archive)이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기록을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한다.

1.1.2. 업무 설계 절차

- 기존의 기록화 업무 프로세스는 수집 전 – 수집 중 – 수집 후 또는 수집정보 조사 – 수집 실행 – 수집기록 정리 등 '수집' 업무 자체를 수행하기 위한 전후 단계로 구성됨.[2)]
- 본 사업은 총체적인 서울기록화를 위해 당대에 생산되는 다양한 영역에서 자생적으로 이뤄지는 기록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 그 정보를 확보하고, 기록활동의 지속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므로 기존의 수집 업무 관행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수집한 결과물은 크게 '기록 활동 정보'와 '기록 생산을 통해 생산된 기록'으로 볼 수 있음. 수집하기 위해 면담의 준비와 진행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민간 아카이브의 성향과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과물을 수집하기 어려움.

<표 1> 서울기록원의 두 가지 수집 대상 구분

수집의 종류별 구분	수집 정보를 통해 구성 가능한 결과물
기록활동 정보	· 리드파일(lead file) · 케이스파일(case file)
기록 정보	· 입수기록 파일(accession records) · 기록집합체(aggregation) · 건(item) · 컴포넌트(component) · 카탈로그(catalo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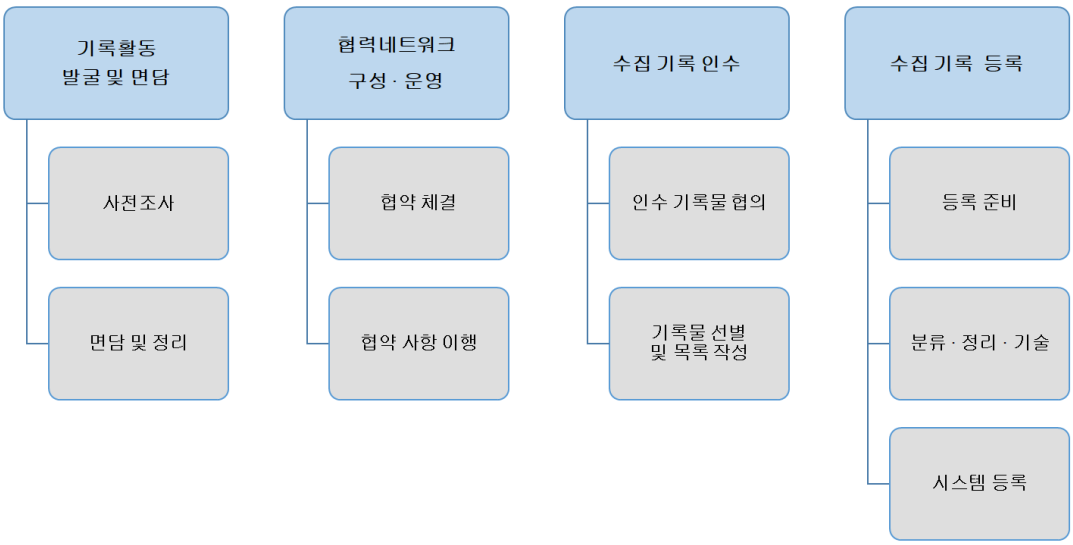
- 본 사업에서는 '수집 정보 조사 단계'에서 기록 수집을 위한 정보 수집 외에 기록활동 자체의 정보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재설정함. 협력대상을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 몇 차례의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 후 파악한 정보를 갈무리하여 협약 및 지원 가능성을 판단해 장기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업무 과정을 설계함.

2) 출처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 기록관리 매뉴얼』, 2013; 이현정, 김진성, 최윤하, 『아시아문화정보원 준비관 수집매뉴얼』, 2010,

1.2. 서울기록화 사업 업무 설계안

1.2.1. 업무 설계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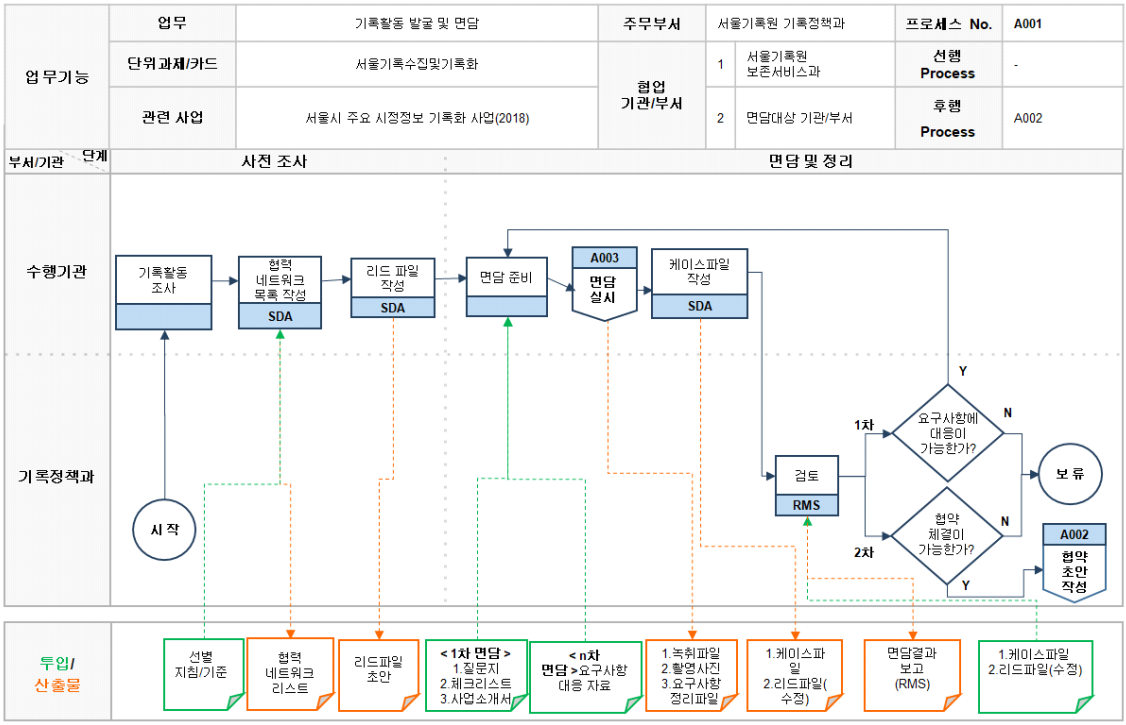
- 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업무 단계는 기록활동 발굴 및 면담 – 협력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수집기록 인수 – 수집기록 등록으로, 총 4단계로 구성하였음.



<그림 1> 기록화 업무 전체 흐름도

나. 업무 세부 내용

- 기록활동 발굴 및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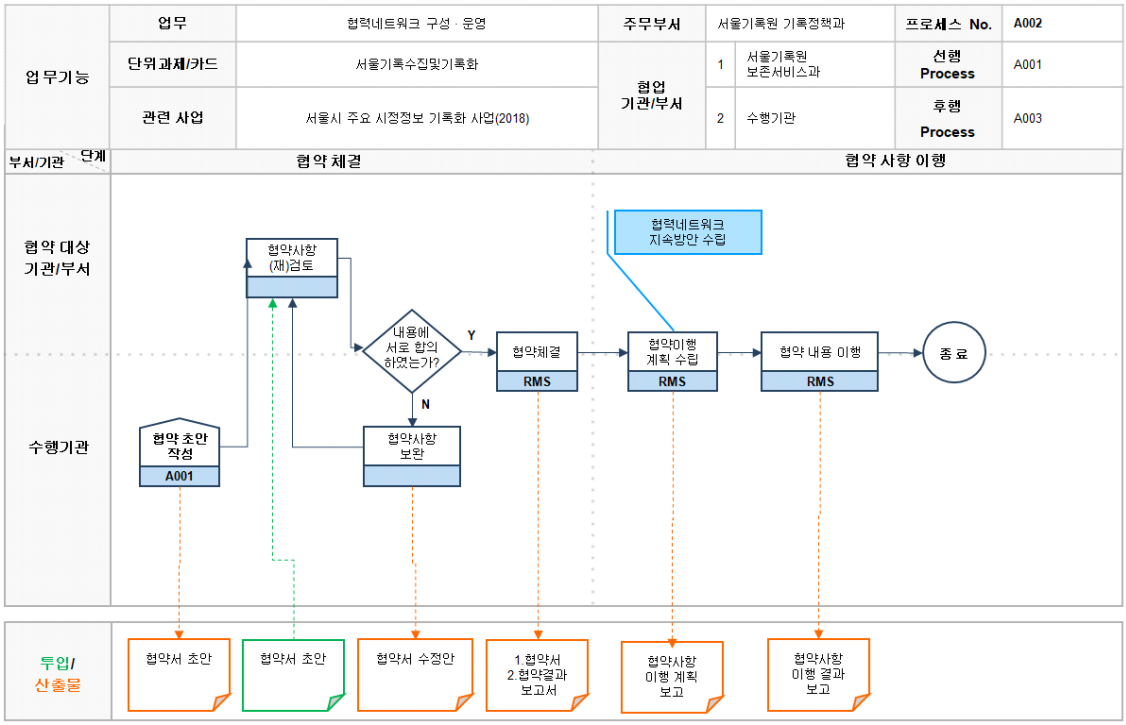


<그림 2> 기록활동 발굴 및 면담 업무 프로세스 맵

<표 2> 기록활동 발굴 및 면담 업무 세부 내용

구분	내용
업무과정 번호	P.1
업무명	기록활동 발굴 및 면담
단위과제/카드	서울기록수집 및 기록화
주무 부서/기관	1.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2. 수행기관
협업 부서/기관	1.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 2. 면담대상 기관/부서
관련사업	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 사업(2018)
업무 목적	서울에서 벌어지는 공공, 협치, 시민 영역의 기록 활동을 조사, 발굴, 면담하여 그 내역을 파악한다.
업무 세부 내용	P.1.1 사전 준비 P.1.1.1 기록활동 조사 P.1.1.2 협력네트워크 목록 작성 P.1.1.3 리드파일 작성 시작 P.1.2 면담 및 정리 P.1.2.1 면담 준비 P.1.2.2 면담 실시 P.1.2.3 케이스파일 작성 P.1.2.4 면담 후 협약 여부 판단 P.1.2.5 협약 초안 작성 시작 (→P.2.1.1 협력 초안 작성)

▪ 협력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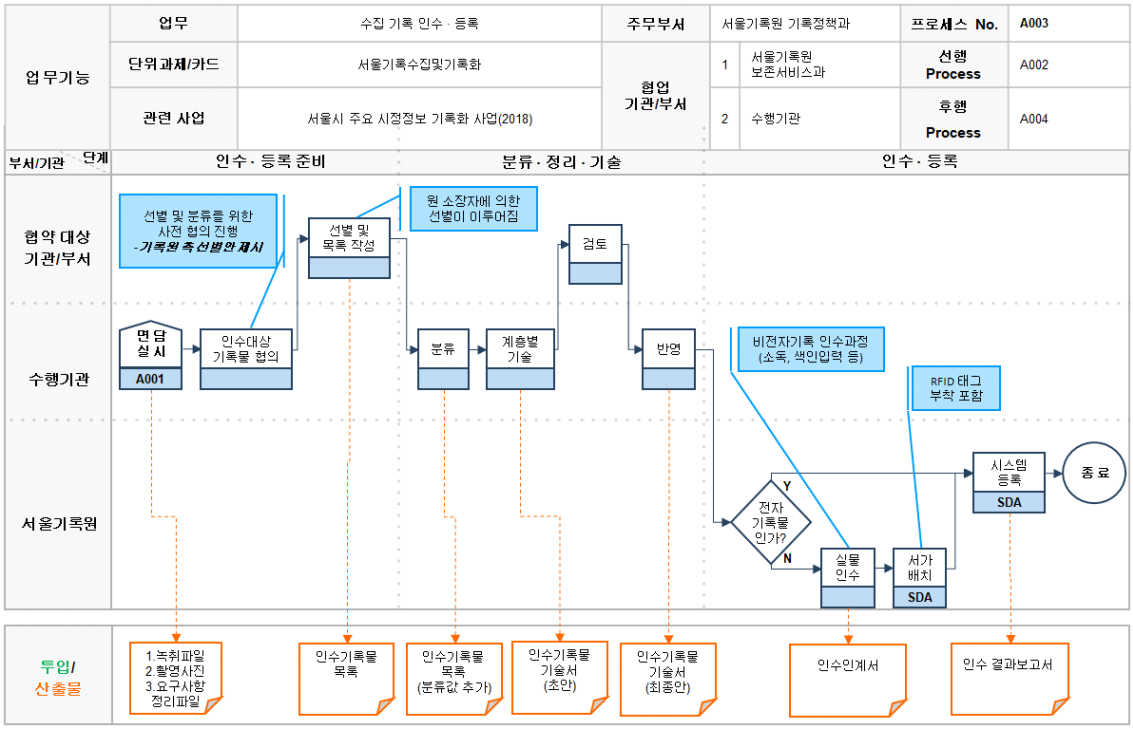


<그림 3> 협력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업무 프로세스 맵

<표 3> 협력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업무 세부 내용

구분	내용
업무과정 번호	P.2
업무명	협력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단위과제/카드	서울기록수집 및 기록화
주무 부서/기관	1. 수행기관 2.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3. 협약 대상 기관/부서
협업 부서/기관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
관련사업	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 사업(2018)
업무 목적	협력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협력대상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사항을 이행한다.
업무 세부 내용	P.2.1 협약 체결 P.2.1.1 협약 초안 작성 P.2.1.2 협약사항 (재)검토 P.2.1.3 협약사항 보완 P.2.1.4 협약 체결 P.2.2 협약 사항 이행 P.2.2.1 협약이행 계획 수립 P.2.2.2 협약 내용 이행 P.2.2.3 인수 협의 시작 (→P.3.1.1 인수 협의)

▪ 수집기록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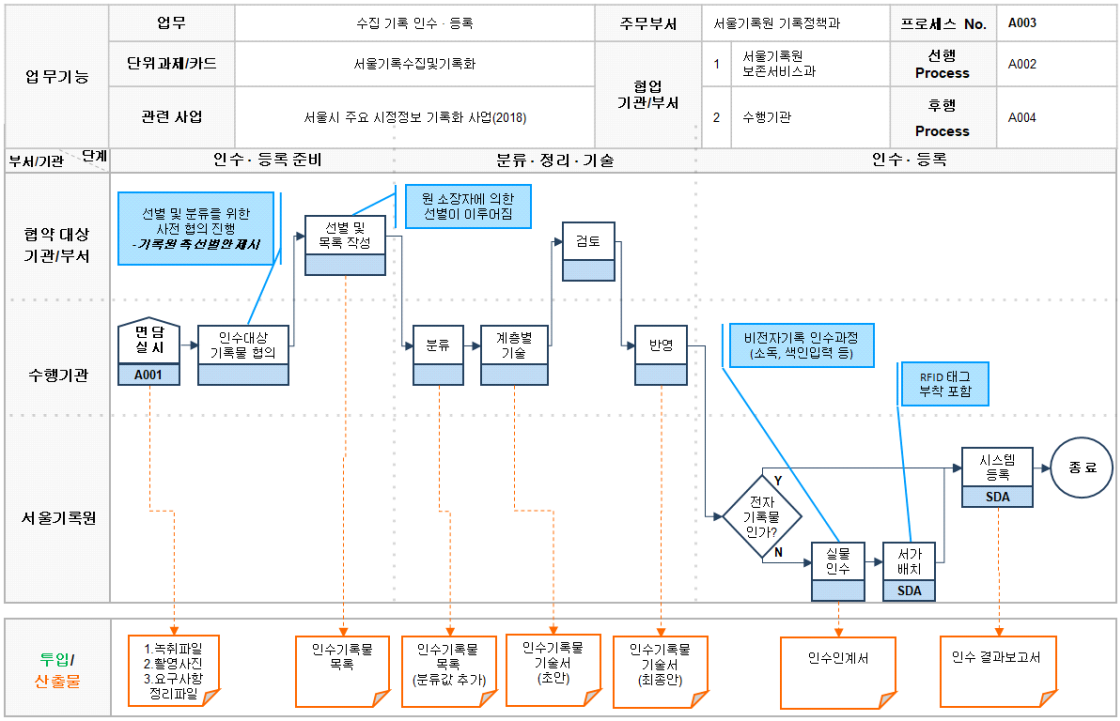


<그림 4> 수집 기록 인수·등록 업무 프로세스 맵

<표 4> 수집 기록 인수·등록 업무 세부 내용

구분	내용
업무과정 번호	P.3
업무명	수집 기록 인수
단위과제/카드	서울기록수집 및 기록화
주무 부서/기관	1.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2.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 3. 수행기관 4. 협약대상 기관/부서
협업 부서/기관	
관련사업	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 사업(2018)
업무 목적	협약대상의 기록물 중 서울기록원이 수집 가능한 기록물을 선별, 분류하여 인수한다.
업무 세부 내용	P.3.1 인수 준비 P.3.1.1 인수대상 기록물 협의 P.3.1.2 선별 및 목록 작업 P.3.2 인수 P.3.2.1 선별 기록물 인수

▪ 수집기록 분류 정리 기술 등록



<그림 5> 수집 기록 인수·등록 업무 프로세스 맵

<표 5> 수집기록 분류 정리 기술 등록 업무 세부 내용

구분	내용
업무과정 번호	P.4
업무명	수집 분류·정리·기술 및 등록
단위과제/카드	서울기록수집 및 기록화
주무 부서/기관	1.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2.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 3. 수행기관 4. 협약대상 기관/부서
협업 부서/기관	-
관련사업	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 사업(2018)
업무 목적	
업무 세부 내용	P.4.1. 분류·정리·기술·등록 P.4.1.1 분류 P.4.1.2 계층별 기술 P.4.1.3 실물 인수 및 서가 배치 P.4.1.4 시스템 등록

2. 시민 기록화 키트 구성

2.1. 개요

2.1.1. 배경 및 목적

가. 목적

- 업무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양식을 개발하고자 함.

나. 배경

- 사업을 수행하며 협력대상, 특히 협치/민간영역 (공동체) 아카이브 담당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이러한 차이를 줄일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생김.
- 기존의 양식으로는 다양한 영역의 기록활동의 정보를 담을 수 없음. 각 영역별 기록활동의 특징을 반영한 양식이 필요해짐.

2.1.2. 구성 방안

가. 구성개요

- 시민 기록화 키트(kit)는 협력네트워크 목록, 리드파일, 케이스파일, 사업소개서 및 사전설문지, 동의서, 업무협약서, 인수인계서 등 7개의 양식으로 구성됨.
- 협력네트워크 목록, 리드파일, 케이스파일은 수집사업 업무담당자가 사용하며 면담 준비와 진행 이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SDA)에 작성하는 것을 염두하여 구성함.
- 사업소개서 및 사전설문지, 업무협약서, 인수인계서는 협력대상과의 면담과 협약 과정에서 함께 작성하도록 구상함.

2.2. 시민 기록화 키트 내용

2.2.1. 협력네트워크 목록

가. 목적

- 발굴된 자생적인 기록활동의 정보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함.

나. 내용

- 사전조사를 통해 서울을 근거로 공공/협치/민간영역의 기관, 단체, 개인과 기록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대상을 선별, 면담, 협약에 이르는 진행과정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음.

다. 협력네트워크 목록 양식

<표 6> 협력네트워크 목록

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사업 협력네트워크 목록																
최신 업데이트 : 180000 [담당자명]																
리드 식별 번호	리드명	영역	영역 상세	주제	주요 기록 활동	주요 기록 유형	(예상) 산출물	우선 순위	접촉 담당	비고	기술 담당	리드 파일	케이스 파일	N차 접촉	요구 사항	대응

2.2.2. 리드파일

가. 목적

- 파악된 협력대상의 기록활동 정보를 확인함.

나. 내용

- 리드파일은 수집을 위한 리드 접촉 전 사전 정보를 파악하여 정리한 파일을 의미함.
- 본 사업에서는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사전조사 정보와 협력대상과의 면담을 통해 파악한 기록활동 정보와 협의사항이 리드파일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둠.
- 리드파일의 항목은 서울기록원 아키비스트가 작성·수정해 내부에서 공유되는 업무용 자료로 '리드' '수집' 등의 기록(표준)용어는 그대로 사용함.
- 그러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기록활동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화하고자 할 때를 염두하여 공개/비공개 자료를 설정하였음.

다. 리드파일 양식

서울기록화 활동 수집을 위한 리드파일 샘플

000 리드파일						
식별번호		[리드 식별번호] -LE	**버전 정보**	v.1.0	**최근수정일**	2018.00.00
리드 정보	**리드명**			리드 유형	□ 개인 □ 가문 □ 단체	
	리드의 다른 이름			리드 영역	□ 공공 □ 협치 □ 민간	
	리드 연락처			리드 이메일		
	리드 주소			리드 웹주소		
	리드 소개 및 연혁					
	리드 대표자명					
	리드 대표자 연락처					
	리드 구성원 정보	리드 구성원명		리드 구성원 역할	리드 구성원 연락처	리드 구성원 이메일
		(+) 추가 가능				
	리드 관계 정보	리드 관계 단체/인물명		관계 범주 /형식	관계 내용	
				□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 기타		
				□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 기타		
		(+) 추가 가능				
리드 접촉정보	**접촉회차별 식별번호**	인터뷰 일시	인터뷰 장소	인터뷰어명	인터뷰이명	최근 수정일
	(+) 추가 가능					

<table>
<tr><td rowspan="11">보유
기록물 정보</td><td>아카이브명</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4">주요 컬렉션
소개</td><td>컬렉션명</td><td>구분</td><td>설명</td></tr>
<tr><td></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td></tr>
<tr><td></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td></tr>
<tr><td colspan="3">(+) 추가 가능</td></tr>
<tr><td>시정기록
연계 링크</td><td colspan="3"></td></tr>
<tr><td>보유기록물
구분</td><td colspan="3">□ 전자 □ 비전자</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유형</td><td>전자</td><td colspan="2">□ 문서 □ 사진 □ 영상 □ 음성 □ 기타 ( )</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 문서 □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 기타 ( )</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규모</td><td>전자</td><td colspan="2"></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평, m, kg 등)</td></tr>
<tr><td>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보존 관리
현황</td><td rowspan="2">보유기록물
상태</td><td>전자</td><td colspan="2">(PC, 외장하드, 웹하드, 웹드라이브 등에 저장. 마이그레이션 필요 기록 보유 등)</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td></tr>
<tr><td>관리 현황</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협력방안</td><td>리드 요구</td><td colspan="3"></td></tr>
<tr><td>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td><td colspan="3">□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 □ 기타 ( )</td></tr>
<tr><td>수집 협의
내용</td><td colspan="3"></td></tr>
<tr><td>특이사항</td><td>아키비스트
주기</td><td colspan="3"></td></tr>
</table>

리드식별번호 1뎁스	리드식별번호 2뎁스	모듈명	설명	필수/선택	공개/비공개	반복여부
LE-1	리드명		리드명(예) 정릉마을기록당 리드파일	필수	공개	N
LE-1	LE-1-1	식별번호	본 리드파일의 식별번호 형식 : 리드 식별번호+LE - 리드 식별번호 : '협력네트워크 리스트'에 나와있는 각 소장처 별 리드파일의 식별번호 - LE: 리드파일(Lead File)의 약자 (예) 정릉마을기록당 식별번호 : 01, 정릉마을기록당 리드파일 : 01-LE	필수	비공개	N
	LE-1-2	버전 정보	변동 사항 갱신 버전 정보. 각 리드파일별 최초 업데이트를 v.1.0으로 설정. 이후 인터뷰 회차에 따라 정보가 갱신될 경우 버전 업데이트	필수	공개	N
	LE-1-3	최근 수정일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 한 일자	필수	공개	N
LE-2	리드 정보		각 소장처의 일반적 정보			
	LE-2-1	리드명	기록에 대한 소유권/보관권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의 기록 활동 대표어. 리드명을 정할 경우, 출처 조직/기관명의 변경가능성을 고려해 기록활동/프로젝트명으로 설정. 리드의 상황에 따라 리드명이 바뀔 수 있음. 이 경우, 바뀐 리드명은 리드 소개 및 연혁(01-LE-2-09)에 기입 (예) 정릉마을기록당, 메모리인서울 프로젝트	필수	공개	N
	LE-2-2	리드의 다른 이름	리드명의 이형명, 즉 대등명 또는 비대표어를 기재. 여러 개일 경우 ',(컴마)'를 이용해 덧붙여 쓸 수 있음 - 대등명 : 리드명 대표어의 다른 언어나 문자 형태. (예)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 비대표어 : 리드명 대표어와 대등명 이외의 모든 이형 표현. (예) '서울기록원', SMA	선택	공개	N
	LE-2-3	리드 유형	리드의 유형을 개인, 가문, 단체로 구분.	필수	공개	N
	LE-2-4	리드 영역	리드가 단체일 경우, 공공, 협치,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제시	필수	공개	N
	LE-2-5	리드 연락처	리드의 대표 전화번호. 리드가 단체일 경우, 단체 대표 연락처 기재.	선택	공개	N
	LE-2-6	리드 이메일	리드의 대표 이메일. 리드가 단체일 경우, 단체 대표 이메일 기재.	선택	공개	N
	LE-2-7	리드 주소	리드의 대표 주소	선택	공개	N
	LE-2-8	리드 웹주소	리드의 웹주소. 홈페이지, SNS 등	선택	공개	N
	LE-2-9	리드 소개 및 연혁	리드에 대한 소개 및 연혁	필수	공개	N
	LE-2-10	리드 대표자명	리드 접촉 시, 대표로 연락할 담당자의 이름과 직위	선택	비공개	N
	[LE-2-11	리드 대표자 연락처	리드 접촉 시, 대표로 연락할 담당자의 연락처. 리드가 개인일 경우, 리드 연락처([리드 식별번호]-LE-2-5)와 중복될 수 있음	선택	비공개	N
	LE-2-12	리드 구성원 정보	리드에 소속된 복수의 구성원 정보를 기술. 리드가 단체인 경우, 리드에 소속된 복수의 인터뷰어 후보군을 파악하기 위함. 모든 구성원 명단을 적을 필요 없음. 구성원 후보군이 2명 이상일 경우 필드 추가 가능. 필요에 따라 조직도를 첨부할 수 있음. - 리드 구성원 명 : 리드 구성원의 이름 - 리드 구성원 역할 : 각 구성원의 리드에서의 역할. (예) 팀장, 팀원 - 리드 구성원 연락처 : 각 구성원의 전화번호 - 리드 구성원 이메일 : 각 구성원의 이메일 주소	선택	비공개	Y
	LE-2-13	리드 관계 정보	리드 및 소장기록의 생산, 관리, 활용, 권한 등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 또는 단체에 대한 정보. 리드의 전임 업무담당자 또는 유관/상위 기관 등 리드 소장기록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리드 관계 단체/인물이 2명 이상일 경우 필드 추가 가능 - 리드 관계 단체/인물명 : 리드와 관계된 단체/인물명의 대표어. - 관계 범주/형식 :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 기타 로 구분. 5개 구분 중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만 체크. 중복 체크 가능. - 관계 내용 : 리드와 관계 단체/인물 간의 관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예) '국가기록원'의 경우 이전 : 정부기록보존소 / 상위 : 행정자치부 / 참여 : 다음세대재단 / 지원 : 독립기념관 기타 : 서울기록원(유관 기관)	선택	비공개	Y
LE-3	리드 접촉정보		리드 접촉 과정에 대한 정보. 케이스파일 모듈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기입. 접촉일이 2회 이상일 경우 필드 추가 가능. - 접촉회차별 식별번호 : 01-CA-2(1st)-1 - 인터뷰 일시 : 01-CA-2(1st)-2 - 인터뷰 장소 : 01-CA-2(1st)-3 - 인터뷰어명 : 01-CA-2(1st)-4 - 인터뷰이명 : 01-CA-2(1st)-5 - 최근 수정일 : 01-CA-1-3	필수	비공개	Y

LE-4	보유 기록물 정보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주요 정보			
	LE-4-1	주요 컬렉션 소개	리드가 생산/수집한 아카이브에 포함된 기록물의 주요 컬렉션 소개 - 컬렉션명 : 주요 컬렉션명 - 구분 : 생산 / 수집 / 지원사업 으로 구분. 3개 구분 중 관련 정보 있는 경우 체크. 중복 체크 가능 - 설명 : 생산/수집연도, 담당자, 컬렉션의 약사, 소유 및 보관권, 유일본/희귀본 여부 등 기술. 추가적인 내용은 자유롭게 기술 가능 (예) 컬렉션명 : 버스종점이야기 구분 : 설명 : 2013년 , 정릉마을기록단 최연희 생산.	필수	공개	Y
	LE-4-2	시정기록 연계 링크	시정기록 연계 관련 문서 링크. 서울정보소통광장, 조달청 웹사이트 등에서 주요 컬렉션 소개([리드 식별번호]-LE-4-2)에서 제시된 기록 컬렉션과 연관된 내용을 링크로 연계할 수 있음	선택	비공개	N
	LE-4-3	보유기록물 구분	아카이브에서 전자(디지털 파일 형태), 비전자 기록물(전자 외 형태 모두)을 보유하고 있을 시 체크	필수	비공개	N
	LE-4-4	보유기록물 유형	아카이브가 다음에서 제시한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을 시 체크. 제시된 유형 이외의 기록물이 있을 경우 '기타'를 체크하고 세부 내용을 기입 - 전자기록물 : 전자 형태의 문서 / 사진 / 영상 / 음성 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체크. 중복 체크 가능. 기타 기록이 있을 경우 체크 하고 자유롭게 기술 가능 - 비전자기록물 : 비전자 형태의 문서 /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체크. 중복 체크 가능. 기타 기록이 있을 경우 체크하고 자유롭게 기술 가능	필수	비공개	N N
	LE-4-5	보유기록물 규모	전자기록물의 경우 보유 총량의 용량(GB, MB 등) 기입. 비전자기록물의 경우 박스 단위, 또는 공간 단위로 기입	필수	비공개	N N
	LE-4-6	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	아카이브가 보유한 기록물의 이미지가 담긴 드라이브 링크 (구글 포토 앨범 등) 기입	선택	비공개	N
LE-5	보존 관리 현황		기록물의 보존관리 현황			
	LE-5-1	보유기록물 상태(전자)	리드가 보유한 전자기록물의 상태 기술. 저장공간의 경우 PC, 외장하드, 웹하드, 웹드라이브 등 저장 형태 기술 마이그레이션(버전업)이 필요한 디지털 자료(플로피디스크 등)이 있을 경우 기술.	선택	비공개	N
	LE-5-2	보유기록물 상태(비전자)	리드가 보유한 비전자 기록물의 상태 기술. 보존 공간은 유형 및 부피로 설명. 보존 상태는 비전자 기록물의 상태를 지속성과 연관지어 서술.	선택	비공개	N
	LE-5-3	관리 현황	각 리드별 기록물 현황 및 의지에 대한 기술. 기록관리 인력의 인원수 및 전문성, 예산, 향후 추가 투자할 만한 자체적 자원 및 계획 등	선택	비공개	N
LE-6	협력방안		소장처 기록물의 수집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서술			
	LE-6-1	리드 요구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리드의 요구사항 기술. 회차별 인터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선택	비공개	N
	LE-6-2	예상 지원 방안	지원방안을 서술. 아래와 같은 지원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음 ex) 물리적 지원 : 실물기록 저장공간, 디지털 저장공간, 보존상자 등 ex) 재정적 지원 : 저장공간 유지 비용 등 ex) 교육적 지원 : 정리 방법, 디지털 아카이브 활용방안 등 파견 교육	선택	비공개	N
	LE-6-3	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	리드의 기록물 수집의 유형을 기술.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를 선택하거나, 기타를 선택하여 관련 방법을 기술	선택	비공개	N
	LE-6-4	수집 협의 내용	CA-4-04에서 기술한 수집방법과 관련, 인터뷰 과정에서 논의한 상세 이슈를 기술	선택	비공개	N
LE-7	특이사항		기타 특이사항			
	LE-7-1	아키비스트 주기	앞서 모듈 1, 2, 3, 4에 들어가지 못한 내용 및 추가적인 아키비스트의 주관적인 기술,주기, 주석	선택	비공개	N
모듈번호 설명	- 형식 : [리드식별번호]-LE-[1뎁스 번호]-[2뎁스 번호] - 설명 - 리드식별번호 : '협력네트워크 리스트'에 나와있는 각 소장처 별 리드파일의 식별번호 - LE : 리드파일(Lead File)의 약자 - 1뎁스 번호 : 1뎁스 모듈 번호 - 2뎁스 번호 : 2뎁스 모듈 번호 (예) 01-LE-6-1					
옵션 설명	- 필수/선택 : 리드파일 필드값의 필수 여부에 따라 [필수], [선택]으로 구분 - 공개/비공개 : 리드파일 필드값의 대시민 공개여부에 따라 [공개], [비공개]로 구분 - 반복여부 : 리드파일 필드값의 반복 가능 여부에 따라 [(반복)Y)], [(반복)N]으로 구분					

주요 업데이트 내용

<그림 6> 리드파일 양식

2.2.3. 케이스파일

가. 목적

- 협력대상과의 면담 내용을 작성해 차수별 논의사항을 확인함.

나. 내용

- 케이스파일은 기록학용어사전에 따르면, 접촉 과정을 정리한 파일로 정의함.
- 본 사업에서는 구체적인 면담 내용을 기록한 파일로, 차수별로 면담 일정, 면담 참여자 정보를 함께 작성하도록 하였음. 또한 면담 차수별로 협력대상의 요구사항과 제안사항, 협의사항을 적도록 하여 면담을 통해 논의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음.
- 면담 과정에서 생산되는 사진, 녹취파일, 녹취록은 케이스파일과 별도로 관리되지만, 케이스파일에 링크(혹은 위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케이스 파일 양식

서울기록화 활동 수집을 위한 케이스파일 샘플

000 케이스파일(접촉파일)					
케이스파일 식별번호	[리드 식별번호]-CA	**버전 정보**	v.1.0	**최근수정일**	2018.00.00
소장처 인터뷰 정보					
회차				접촉회차별 식별번호	[리드 식별번호]-CA-N차
1차	인터뷰 일시		인터뷰 장소		
	인터뷰이명		인터뷰이 연락처	인터뷰이 이메일	
	인터뷰어명		녹취파일 링크	사진 링크	
	주요 인터뷰 내용				
	리드 요구사항		기록원 제안사항		
	합의사항				
(+) 인터뷰 회차에 따라 추가 가능					

리드식별번호 1뎁스	리드식별번호 2뎁스	모듈명	설명	필수/선택	공개/비공개	반복여부
CA-1	케이스명		케이스명(예) 정릉마을기록당 케이스파일	필수	비공개	N
CA-1	CA-1-1	식별번호	본 케이스파일의 식별번호 형식 : 리드 식별번호 + CA - 리드 식별번호 : '협력네트워크 리스트'에 나와있는 각 소장처 별 케이스파일의 식별번호 - CA : 케이스파일(Case File)의 약자 (예) 정릉마을기록당 식별번호 : 01, 정릉마을기록당 케이스파일 : 01-CA	필수	비공개	N
	CA-1-2	버전 정보	변동 사항 갱신 버전 정보. 각 케이스파일별 최초 업데이트를 v.1.0으로 설정. 이후 인터뷰 회차에 따라 정보가 갱신될 경우 버전 업데이트	필수	비공개	N
	CA-1-3	최근 수정일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 한 일자	필수	비공개	N
CA-2	소장처 인터뷰 정보		아키비스트가 리드와 인터뷰한 내용을 일지 형식으로 정리. 회차가 추가 될수록 아래에 누적하여 정보를 관리.	필수	비공개	Y
-		회차				
CA-2-(N차)	CA-2-(N차)1	접촉 회차별 식별번호	인터뷰 회차별 식별번호. 형식 : [리드 식별번호] - CA - [서수]. (예) 01-CA-1st	필수	비공개	N
	CA-2-(N차)2	인터뷰 일시	인터뷰 시행한 일시. 날짜, 시간. (예) 2018-06-22 18:00-20:00	필수	비공개	N
	CA-2-(N차)3	인터뷰 장소	인터뷰 시행 장소. (예) 정릉도서관 1층	필수	비공개	N
	CA-2-(N차)4	인터뷰이명	인터뷰에 참여한 리드의 인터뷰이명	필수	비공개	N
	CA-2-(N차)5	인터뷰이 연락처	인터뷰에 참여한 리드 인터뷰이의 휴대폰 연락처	필수	비공개	N
	CA-2-(N차)6	인터뷰이 이메일	인터뷰에 참여한 리드 인터뷰이의 이메일 주소	필수	비공개	N
	CA-2-(N차)7	인터뷰어명	인터뷰에 참여한 아키비스트명	필수	비공개	N
	CA-2-(N차)8	녹취파일 링크	인터뷰 회차별 녹취파일(mp3, mp4 등)을 따로 관리하고, 이를 링크로 연결	필수	비공개	N
	CA-2-(N차)9	사진 링크	인터뷰 회차별 사진 파일을 드라이브에 따로 관리하고, 이를 링크로 연결	필수	비공개	N
	CA-2-(N차)10	인터뷰 내용	인터뷰 주요 내용 요약 서술	필수	비공개	N
	CA-2-(N차)11	리드 요구사항	인터뷰 과정에서 리드가 기록원에게 요구한 사항을 정리하여 기술	선택	비공개	N
	CA-2-(N차)12	기록원 제안사항	인터뷰 과정에서 기록원 아키비스트가 리드에게 제안한 사항을 정리하여 기술	선택	비공개	N
	CA-2-(N차)13	합의사항	인터뷰 과정에서 리드-기록원 간 합의하여 결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	선택	비공개	N
모듈번호 설명	- 형식 : [리드 식별번호]-CA-[1뎁스 번호]-[(N차)]-[2뎁스 번호] - 설명 - 리드식별번호 : '협력네트워크 리스트'에 나와있는 각 소장처 별 리드파일의 식별번호 - CA : 케이스 파일(Case File)의 약자					
옵션 설명	- 필수/선택 : 리드파일 필드값의 필수 여부에 따라 [필수], [선택]으로 구분 - 공개/비공개 : 리드파일 필드값의 대시민 공개여부에 따라 [공개], [비공개]로 구분					

주요 업데이트 내용

<그림 7> 케이스파일 양식

2.2.4. 사업소개서

가.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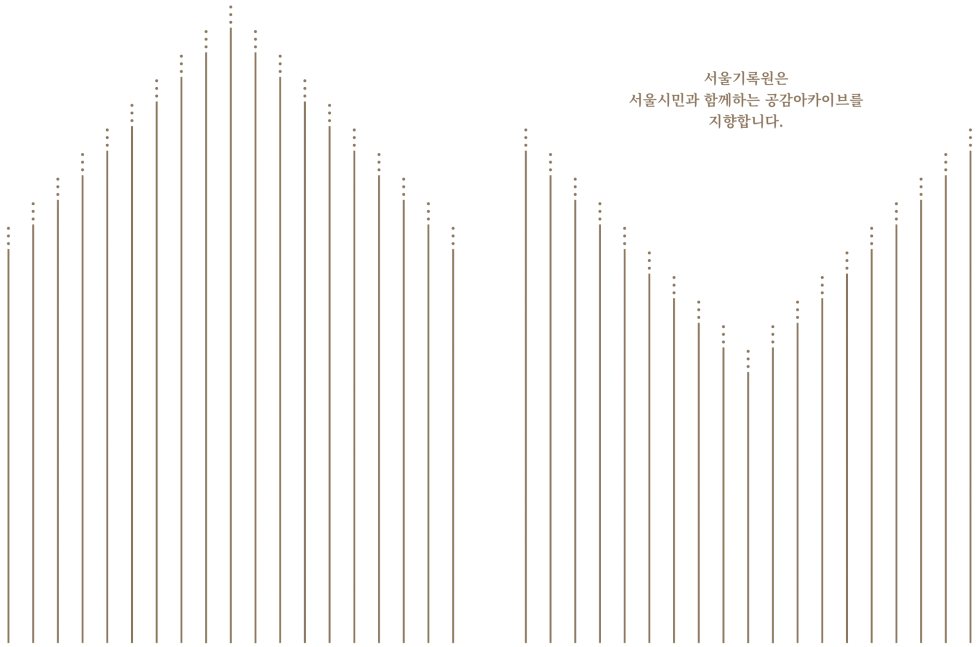
- 서울기록원 업무담당자는 서울기록원과 기록화사업이 낯선 협력대상에게 서울기록원과 사업을 소개함.

나. 내용

- 사업소개서는 초기 면담 과정에서 기록화사업의 목적과 수집, 협력사항을 질의응답의 형태로 소개한 자료임.
- 면담 과정에서 협력대상 담당자들은 “서울기록원 기록화사업 모델 네이버 블로그(Naver Blog)”, “기억과 기록을 모으는 활동을 모으고자 함”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였음. 또한 서울기록원의 디지털아카이브가 무엇인지, 어떤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움, ‘수집’이라는 표현의 불편함 등을 표현하였음.
- 협치/민간영역의 아카이브 담당자들에게는 보다 친숙한, 보다 일상적인 용어로 정해진 사업의 방향성과 면담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였음.
- 공공영역의 협력대상에게 나열식의 소개에 이해도가 낮아 익숙한 형태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였음.
- 본 사업에서는 위와 같은 협치/민간영역, 공공영역 면담 대상자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소개서를 2종으로 구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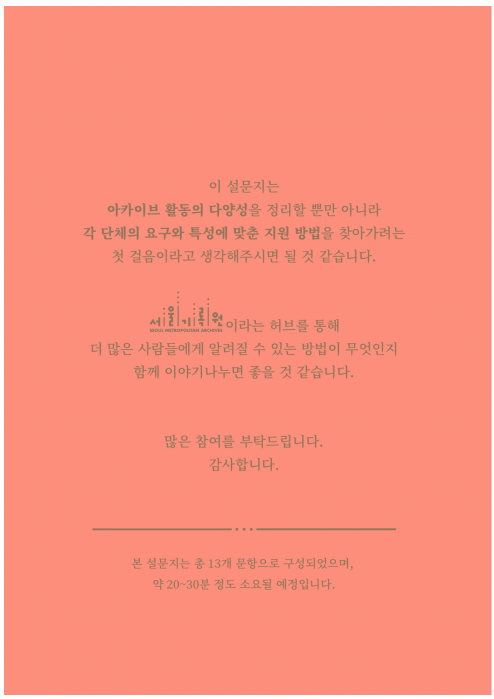
다. 사업소개서 양식

▪ 협치/민간영역 협력대상을 위한 사업소개서









서울기록원 **서울시의 공공아카이브로서**
서울과 서울시민의 기록과 기억을 모아
서울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 **서울기록원 사업의 방향**

서울시민의 삶이 담긴 기록과 기록활동을
모으고자 합니다.

일기, 사진, 동영상, 물품 등
다양한 기록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물을 함께 모아
서울시민의 기억을 보존하고 스토리를 구성해
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해
서울의 삶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 **서울기록원 연대와 협력**

일방적이고 물리적인 수집이 아닌,
서울시민의 삶을 기록하는
기록활동의 주체들과의
연대를 꿈꿉니다.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 방안과 기록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을 마련해
서울시민의 기록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자 합니다.

▶ **서울기록원 공감아카이브를 위한 과정**

현재 각 단체들의
활동 내용 - 기록화 방식 - 수집 내용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자생적으로 기록화 활동을 하며
겪는 어려움, 필요한 도움, 요구 등이 무엇인지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후 민간아카이브 영역이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 **서울기록원은**

서울은 당신을 기억합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행정기록/공공기록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닌
다양한 기록활동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틀과 기록문화를
마련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림 8> 협치/민간영역 대상 사업소개서 예시

▪ 공공영역 협력대상을 위한 사업소개서

시민기록 네트워크 수집을 통한 서울기록화

◆ 서울 각지에서 자생적으로 행해지는 '시민기록활동'들과 협력·지원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형 서울기록화를 추진

1 개 요

○ 목 적

- 시민기록활동과의 협력을 통한 서울기록화를 추진함으로써 서울기록원이 지방 아카이브로서 서울과 서울시민의 기억을 모으고 기록을 매개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민기록활동: 시민들 스스로 그들의 삶과 삶의 터전에 대한 기억을 모으고 기록을 남기는 활동

○ 배 경

- 시민들이 스스로의 삶과 삶의 터전, 소속 공동체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사례 증가
- 시민들의 기록화 의지는 높으나 예산, 인력 및 방법론 부재 등 여건이 열악함
- 기존 수집방식은 수집기관의 관점으로 대상을 재단하기 때문에 고유의 맥락이 유실

○ 기대 효과

-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형 서울기록화로 시민사회의 기록문화 저변 확대
-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민기록의 공유·활용 기반 마련

2 시민기록 네트워크 수집

○ 개 념: 자생적인 시민기록활동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기록화 주체가 되고 서울기록원은 네트워크 허브로서 인프라 및 서비스를 지원

○ 구성/역할: "시민기록 협력·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형 서울기록화"

주 체	시민/단체	서울시 각 기관/부서	서울기록원
역 할	• 네트워크 구성 주체	• 네트워크 연결 주체 • 시민/단체 지원	• 네트워크 유지·관리 주체 (네트워크 허브)
내 용	• 자생적 기록활동	• 중간 연결 및 지원 사업 수행	•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 (체계적 보존·관리 및 서비스)
효 과	• 기록활동 주체가 연대 협력 • 시민기록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정체성 공고화	• 향후 보존·활용 부담 완화 • 서울기록원 인프라 활용으로 효율적인 기록사업 추진	• 시민기록 공유·활용 체계 구축 • 지방아카이브로서 지역기록화의 효율적 추진 및 기록문화 확산
예 시	• 금천마을신문 '금천in'	• 지역공동체담당관 • 금천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서울기록원

3 서울기록화 사업 추진 현황

○ 사업 개요

- 사 업 명: 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 사업(5개월, 99백만원)
- 추진경과: `16~`17년 사업의 한계 보완(시민이 주체가 되는 서울기록화)

1단계('16년)	2단계('17년)	3단계('18년)
〈서울기록화 수집전략 개발〉	〈기록수집 및 콘텐츠 구축〉	〈서울시 시정정보 기록화〉
· 서울기록 정의 · 서울기록화 수집전략 개발 (선발지침 개발방안 제시)	· 서울시 기록화 현황 분석 · 수집선발지침 개발 및 수집 · 서울시민기록단 시범 운영	· 기록활동 발굴 및 네트워크 구성 · 디지털 아카이브에 등록 · 시정기록 연계 컬렉션 구축
기관 중심 모델	기관 중심 모델	민·관 거버넌스형 모델

○ 사업 추진 내용

- 전체 과업

•기록활동 발굴 〉 인수·등록 〉 정리·기술 〉 맥락연계(시점기록) 〉 시민기록컬렉션 구축

- 추진 경과

① 서울기록화 현황 파악 및 방문조사 수행 (공공 8곳, 민간 8곳)

주요 요구사항	협력 방안
- 물리적 보존 공간 필요 - 안정된 온라인(디지털) 저장 공간 필요 - 아카이빙 방법론 컨설팅(매뉴얼) - 온라인 서비스	- 서울기록원 민간기록 보존서고 보존 -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로 인수·등록 - 교육 프로그램 및 컨설팅 지원 - 시민기록 컬렉션 구축

② 기록활동 주체별 맞춤식 협력 모델 설계(진행 중)

③ 기록 인수 및 등록 테스트(진행 중)

4 향후 서울기록화 추진 계획

○ 협력네트워크의 지속적 운영 방안 마련

- 거버넌스형 서울기록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네트워크 모델 고도화
- 지속적인 소통 채널 확보와 다각도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 협력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예산, 인력) 확충 필요

○ 시민기록 컬렉션 구축 및 온·오프라인 전시콘텐츠 제공

- 네트워크 수집한 시민기록의 컬렉션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활용 체계 마련

<그림 9> 공공영역 대상 사업소개서 예시

2.2.5. 사전설문지

가. 목적

- 협력대상의 담당자는 사전에 면담 내용을 예상해 준비할 수 있음.
- 협력대상이 진행한 기록활동과 기록물을 돌아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나. 내용

- 본 사업 초기에는 서울기록원의 업무담당자가 협력대상의 기록활동을 파악하기 위 질문과 면담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사항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였음. 면담 절차와 내용은 업무 안내서로 분리되었고, 협력대상 담당자로부터 "면담을 위해 준비해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질문은 무엇인지"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설문지'로 구성을 달리하였음.
- 사업소개서와 마찬가지로 쉬운, 일상적인 용어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협치/민간 아카이브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자 함.
- 면담 의향이나 내용 등을 주로 메일을 통해 주고받기 때문에 디지털문서나 구글 설문지 형태로 변형하여 작성해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음. 디지털 형태가 익숙지 않은 협력대상 담당자를 위해 사업소개서를 덧붙인 종이매체도 사용할 수 있음.

다. 사전설문지 양식

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사업
사전설문지

질문 리스트

기본 정보
보유 기록물 정보
보존 관리 현황
협력 방안
기타

기록일 . . 담당자 _____... 단체명 _____...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기본 정보

[1] 이곳의 정식 명칭 외에 사용하시거나 부르시는 이름이 있나요?

[2] 함께 하시는 (주요)구성원은 몇 명인가요? 간략한 역할/업무는 무엇인가요?

예시) 구성원 목록, 조직도 첨부 가능

보유 기록물 정보

[1] 보유/생산하고 있는 기록물들은 무엇인가요?

[2] 보유/생산 기록물의 주요 생산자/수집자는 누구인가요?

보존 관리 현황

[1] 보유한 전자 기록물의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중복선택가능)

☐ 문서 ☐ 사진 ☐ 영상 ☐ 음성 ☐ 기타 ( )

[2] 보유한 전자기록물의 대략적인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예시) MB, GB, TB 등의 대략적인 파일 용량

[3] 보유한 비전자 기록물의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중복선택가능)

☐ 문서 ☐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등의 전시 자료

☐ 포스터 ☐ 현수막 ☐ 기타 ( )

[4] 보유한 비전자기록물의 대략적인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예시) **우체국상자 규격** (가로 * 세로 * 높이 cm) : 3호 (34 * 25 * 21) / 4호 (41 * 31 * 28) / 5호 (48 * 38 * 34) / 6호 (52 * 48 * 40)
평 수, 박스 개수 등

[5] 기록물을 생산, 수집, 관리하기 위해 기울인 자체적인 노력이나 참여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협력 방안

[1] 기록물을 생산, 수집, 관리하면서 생긴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2] 기록물을 생산, 수집,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예시) **실물, 디지털 등의 저장공간, 보존상자 등** (물리적 지원) / **기록물 보관 유지 비용 등** (재정적 지원)
정리방법 및 디지털 아카이브의 활용에 관한 교육 등 (교육적 지원) / **그 외 방식**

기타

그 외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그림 10> 사전설문지 양식

2.2.6. 동의서

가. 목적

- 사업에 참여하였음을 사업의 공유와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의 활용하는 데 동의 내용을 담음.

나. 내용

- 서울기록원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와 그에 따른 사진, 영상, 구술기록 등의 자료를 기록과 홍보를 위해 전시, 사진촬영, 영상 및 출판물 제작 등의 활용의 동의여부를 묻고, 이에 대한 동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하기 위한 서류임.

다. 동의서 양식

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사업

참여 동의서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성명 …_____ **한자** …_____

생년월일 …_____ **성별** ☐ 남 ☐ 여

연락처 …_____

주소 …_____ 시, 구, 동까지만

기타 사항 …_____

…_____

…_____

…_____

본인은 서울기록원의 「**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사업**」의 참여자로서 기록 및 출판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사진촬영 및 영상물
제작동의서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본인은 서울기록원의 서울시의 공공아카이브로서
시민들의 삶이 담긴 기록물을 모아 서울의 역사를 남기고자하는
「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현장 및 홍보를 위한 공유와 전시용 사진 촬영, 기록을 위한
영상물 제작에 동의합니다.

▶ 촬영목적
서울기록원의 책 제작 및 출판, 전시와 홍보 전반적인 사항
현장 공유와 성과보고 다큐멘터리로 제작·배포 가능
향후 본 운영사업의 전시자료, 교육자료 및 보도자료 등 결과물로 제작·배포

▶ 활용처
본인, 기억발전소 및 서울기록원
위의 세 곳(사람)에서 승인한 곳

▶ 진행사항
프로젝트 기간 참여자 대상 사진 및 동영상촬영, 인터뷰요청 등
촬영된 기록물은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사용됨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서명)

초상권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본인은 서울기록원의 서울시의 공공아카이브로서
시민들의 삶이 담긴 기록물을 모아 서울의 역사를 남기고자하는
「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초상권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 및 아래와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초상권 및 개인정보 이용 목적
서울기록원 프로젝트의 책 제작 및 출판, 전시와 홍보 전반적인 사항

▶ 초상권 및 개인정보 이용 항목
사진, 영상, 구술기록,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소속 등

▶ 초상권 및 개인정보 이용 방법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만들어진 것은
본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기억발전소, 서울기록원 에서만 사용 가능함.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서명)

<그림 11> 동의서 양식

2.2.7. 업무협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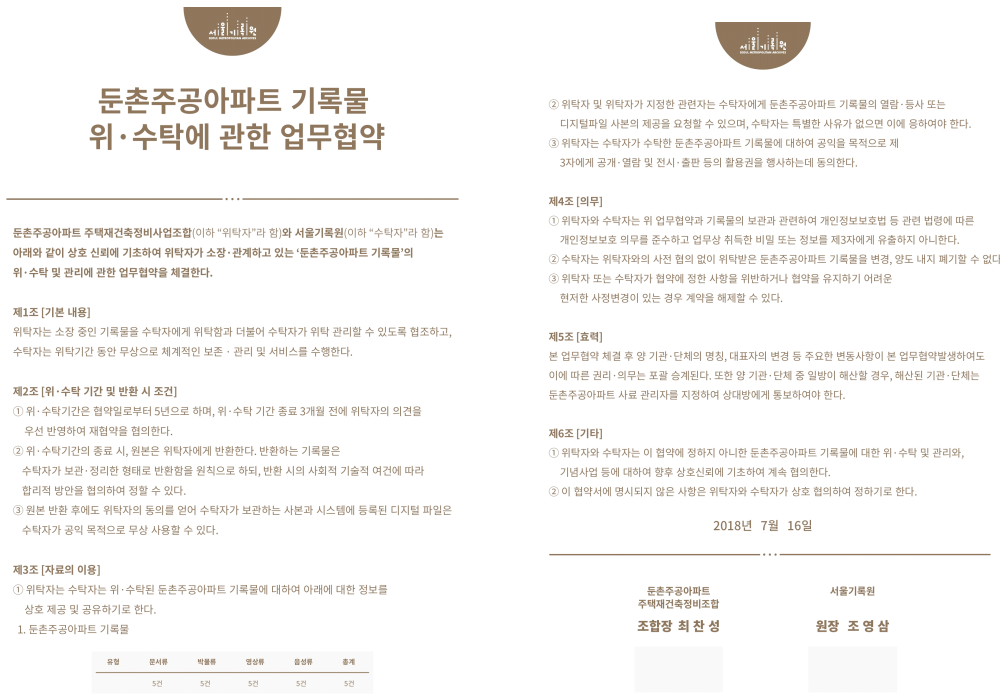
가. 목적

- 협력대상의 요구사항과 서울기록원의 제안사항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결한 협약사항을 작성함.

나. 내용

- 이번 사업에서의 업무협약은 주로 기록물 위탁관리에 관하여 진행되어, 서울기록원과 협력대상이 위탁 관리에 관한 기본 내용과 기간, 반환, 자료이용, 의무, 효력 등 이행하게 될 사항을 서면으로 증명하였음.
- 위탁관리 등과 같은 기록물 보존, 관리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업무 지원과 같은 추상적인 분야의 협약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예시) 사진아카이브연구소, 성북문화재단

다. 업무협약서 양식



둔촌주공아파트 기록물
위·수탁에 관한 업무협약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위탁자"라 함)**와 서울기록원**(이하 "수탁자"라 함)**는 아래와 같이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소장·관계하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기록물'의 위·수탁 및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 내용]
위탁자는 소장 중인 기록물을 수탁자에게 위탁함과 더불어 수탁자가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수탁자는 위탁기간 동안 무상으로 체계적인 보존 · 관리 및 서비스를 수행한다.

제2조 [위·수탁 기간 및 반환 시 조건]
① 위·수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위·수탁 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위탁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 재협약을 협의한다.
② 위·수탁기간의 종료 시, 원본은 위탁자에게 반환한다. 반환하는 기록물은 수탁자가 보관·정리한 형태로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반환 시의 사회적 기술적 여건에 따라 합리적 방안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원본 반환 후에도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가 보관하는 사본과 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 파일은 수탁자가 공익 목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자료의 이용]
① 위탁자는 수탁자는 위·수탁된 둔촌주공아파트 기록물에 대하여 아래에 대한 정보를 상호 제공 및 공유하기로 한다.
1. 둔촌주공아파트 기록물

유형	문서류	박물류	영상류	음성류	총계
	5건	5건	5건	5건	5건

② 위탁자 및 위탁자가 지정한 관련자는 수탁자에게 둔촌주공아파트 기록물의 열람·등사 또는 디지털파일 사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가 수탁한 둔촌주공아파트 기록물에 대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열람 및 전시·출판 등의 활용권을 행사하는데 동의한다.

제4조 [의무]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위 업무협약과 기록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업무상 취득한 비밀 또는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위탁받은 둔촌주공아파트 기록물을 변경, 양도 내지 폐기할 수 없다.
③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협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협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효력]
본 업무협약 체결 후 양 기관·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본 업무협약발생하여도 이에 따른 권리·의무는 포괄 승계된다. 또한 양 기관·단체 중 일방이 해산할 경우, 해산된 기관·단체는 둔촌주공아파트 사료 관리자를 지정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둔촌주공아파트 기록물에 대한 위·수탁 및 관리와, 기념사업 등에 대하여 향후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계속 협의한다.
②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018년 7월 16일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
조합장 최 찬 성

서울기록원
원장 조 영 삼

<그림 12> 업무협약서 양식

2.2.8. 인수인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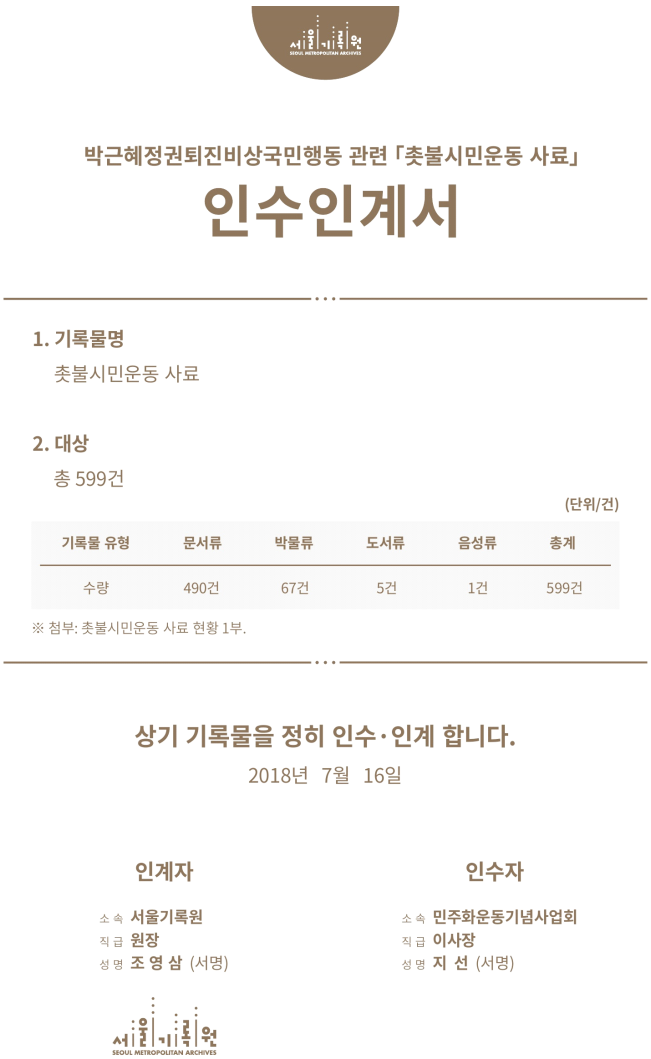
가. 목적

- 협력대상의 기록물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함.

나. 내용

- 협력대상은 서울기록원에 인계한 기록물의 수량과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서울기록원에서는 인수하였음을 증명함.

다. 인수인계서 양식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관련「촛불시민운동 사료」

인수인계서

1. 기록물명

촛불시민운동 사료

2. 대상

총 599건

(단위/건)

기록물 유형	문서류	박물류	도서류	음성류	총계
수량	490건	67건	5건	1건	599건

※ 첨부: 촛불시민운동 사료 현황 1부.

상기 기록물을 정히 인수·인계 합니다.

2018년 7월 16일

인계자	인수자
소속 서울기록원	소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직급 원장	직급 이사장
성명 조 영 삼 (서명)	성명 지 선 (서명)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그림 13> 인수인계서 양식

2.3. 소결

2.3.1. SDA와의 연결 기대 지점

- 협력네트워크 목록-리드파일-케이스파일은 각각의 업무 단계에서 입력되는 필드가 연계되어야 함.
- 이는 이후 SDA 엔진에 구현될 개별 파일과 연계될 수 있음.

2.3.2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 업무 모듈 설계

- 서울기록화 사업 업무 설계 및 시민기록화 키트 구성 파트는 서울기록원에서 기록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한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기록이 생산되고 등록될 SDA 엔진의 개발 과정에 있어, 수집 업무를 분석하여 업무 모듈을 설계하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음.
- 기록화 업무의 각 단계 별로 해당 업무에 맞는 키트의 문서 양식이 SDA 엔진 시스템을 통해 출력되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기록과 정보를 빠트리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생산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아키비스트는 면담 대상, 리드가 소장한 기록물, 리드의 요구사항 등을 파악해야 하고, 지역 아카이브로서의 서울기록원이 어떤 맥락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정보 역시 제공해야 함.
- 리드파일, 케이스파일이 SDA 시스템에 탑재되어, 업무 진행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화될 수 있도록 입력 틀을 모듈화하고, 각 1뎁스 항목을 개별 엔티티로 구성하여 정보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함.

2.3.3. 입수기록 양식 개발

- 기록 입수 단계에서의 과정을 기록한 입수기록(Accession Record)이 새로운 입력 틀로 신설되면, 현재 리드파일 중 '보유기록물정보'와 '보존관리현황' 틀을 사용할 수 있음.

3. 면담 내용

3.1. 공공영역 면담 내용

3.1.1.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영상방송팀 (서울시청방송)

3.1.2.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아카이브展)

3.1.3.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서울경관기록화)

3.1.4.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옛길영상기록화)

3.1.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서울항공사진)

3.1.6.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성곽마을 생활문화 기록화)

3.1.7.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공동체주택기록화)

3.1.8.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다큐멘터리 제작)

3.1.9.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시정백서 발간)

3.1.10.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역사구술자료집 발간 및 구술채록)

3.1.11. 서울문화재단 (메모리인서울 프로젝트)

3.1.12. 금천문화재단

3.1.13. 성북문화재단

3.1.1.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영상방송팀 (서울시청방송)

가. 리드파일

<table>
<tr><th colspan="8">서울시청방송 리드파일</th></tr>
<tr><td colspan="2">식별번호</td><td>39
-LE</td><td>버전 정보</td><td>v.1.1</td><td>최근수정일</td><td colspan="2">2018.07.23</td></tr>
<tr><td rowspan="13">리드 정보</td><td>리드명</td><td colspan="2">서울시청방송</td><td>리드 유형</td><td colspan="3">□ 개인 □ 가문 ■ 단체</td></tr>
<tr><td>리드의
다른 이름</td><td colspan="2">SCN</td><td>리드 영역</td><td colspan="3">■ 공공 □ 협치 □ 민간</td></tr>
<tr><td>리드
연락처</td><td colspan="2">02-2133-5993</td><td>리드 이메일</td><td colspan="3">hyoungkim@seoul.go.kr</td></tr>
<tr><td>리드 주소</td><td colspan="2">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영상방송팀</td><td>리드 웹주소</td><td colspan="3">http//aerogis.seoul.go.kr</td></tr>
<tr><td>리드
소개 및
연혁</td><td colspan="6">1995년 10월 서울시청방송 개국(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59호, 1995.10.16)
1996년 서울시청방송 전면 자체 제작
1996년 음악방송 시작
2011년 5월 '보이는 라디오! 서울' 첫 방송
2013년 10월 서울시청방송 영상방송 개국(정무부시장 방침 제31호, 2013.10.28)
2013년 11월 서울시 5분뉴스「소통방통」 첫 방송
2016년 자동송출시스템 구축</td></tr>
<tr><td>리드
대표자명</td><td colspan="6">윤OO</td></tr>
<tr><td>리드 대표자
연락처</td><td colspan="6">02-2133-6433</td></tr>
<tr><td rowspan="5">리드 구성원
정보</td><td colspan="2">리드 구성원명</td><td>리드 구성원 역할</td><td>리드 구성원
연락처</td><td colspan="2">리드 구성원 이메일</td></tr>
<tr><td colspan="2">박OO</td><td>영상자료 DB관리</td><td>02-2133-
5991</td><td colspan="2">only4praise@seoul.go.kr</td></tr>
<tr><td colspan="2">김OO</td><td>영상자료 DB관리</td><td>02-2133-
5993</td><td colspan="2">hyoungkim@seoul.go.kr</td></tr>
<tr><td colspan="2">최OO</td><td>前 영상자료 관리</td><td>02-2133-
5990</td><td colspan="2">choimo@seoul.go.kr</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5">리드 관계
정보</td><td colspan="2">리드 관계 단체/인물명</td><td>관계 범주/형식</td><td colspan="3">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영상방송팀</td><td>□이전 □상위 □
참여 □지원 ■기타</td><td colspan="3">사업담당 부서</td></tr>
<tr><td colspan="2">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td><td>□이전 ■상위 □
참여 □지원 □기타</td><td colspan="3">상위 부서</td></tr>
<tr><td colspan="2">최OO</td><td>■이전 □상위 □
참여 □지원 □기타</td><td colspan="3">이전 영상자료 관리 담당자</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4">리드
접촉정보</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인터뷰 일시</td><td>인터뷰 장소</td><td>인터뷰어명</td><td>인터뷰이명</td><td colspan="2">최근 수정일</td></tr>
<tr><td>39-CA-1st</td><td>2018.05.30</td><td>서울시청
3층</td><td>임태원, 박지현</td><td>최OO</td><td colspan="2">2018.8.8</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7">(+) 추가 가능</td></tr>
</table>

<table>
<tr><td rowspan="8">보유 기록물 정보</td><td>아카이브명</td><td colspan="3">서울시청방송 컬렉션</td></tr>
<tr><td rowspan="4">주요 컬렉션 소개</td><td>컬렉션명</td><td>구분</td><td>설명</td></tr>
<tr><td></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td></tr>
<tr><td></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td></tr>
<tr><td colspan="3">(+) 추가 가능</td></tr>
<tr><td>시정기록 연계 링크</td><td colspan="3"></td></tr>
<tr><td>보유기록물 구분</td><td colspan="3">■ 전자 ■ 비전자</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유형</td><td>전자</td><td colspan="2">□ 문서 □ 사진 ■ 영상 □ 음성 □ 기타 ( )</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 문서 ■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 기타 (필름)</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규모</td><td>전자</td><td colspan="2">40TB</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평, m, kg 등)</td></tr>
<tr><td>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td><td colspan="3">http//aerogis.seoul.go.kr</td></tr>
<tr><td rowspan="2">보존 관리 현황</td><td rowspan="2">보유기록물 상태</td><td>전자</td><td colspan="2">전자파일은 자체 스토리지에 보관 중이며, 관리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지는 않음</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테이프와 CD는 현재 서울특별시 본청 문서고2에 보관중</td></tr>
<tr><td>관리 현황</td><td colspan="3">□ 기록물의 목록은 담당자가 엑셀로 정리한 상태이나 재정리할 필요가 있음
□ 시청각 기기는 대부분 불용인 상태임</td></tr>
<tr><td rowspan="4">협력방안</td><td>리드 요구</td><td colspan="3">□ 시청각 기기 제공 및 향후 영상의 지속적인 보존관리</td></tr>
<tr><td>예상 지원 방안</td><td colspan="3">□ 시청각 기기 인수</td></tr>
<tr><td>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td><td colspan="3">■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 □ 기타 ( )</td></tr>
<tr><td>수집 협의 내용</td><td colspan="3"></td></tr>
<tr><td>특이사항</td><td>아키비스트 주기</td><td colspan="3"></td></tr>
</table>

나. 케이스파일

<table>
<tr><th colspan="7">서울시청방송 기록화 케이스파일</th></tr>
<tr><td colspan="2">케이스파일 식별번호</td><td>39-CA</td><td>버전 정보</td><td>v.1.1</td><td>최근수정일</td><td>2018.07.23</td></tr>
<tr><th colspan="7">소장처 인터뷰 정보</th></tr>
<tr><td>회차</td><td colspan="4">1</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39-CA-1st</td></tr>
<tr><td rowspan="5">1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05-30 14:00-17:00</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서울특별시청 본청 3층
시민소통담당관 방송영상팀</td></tr>
<tr><td>인터뷰이명</td><td>최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02-2133-7249</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jsb0691
@seoul.go.kr</td></tr>
<tr><td>인터뷰어명</td><td>임태원
박지현</td><td>녹취파일 링크</td><td></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보유 시청각기록물]
□ 테이프 약 3천개, CD 약 2~3천개
□ 기록물 목록 엑셀파일 존재(재정리 필요)
□ 보관 중인 시청각 기기 불용 > 기증의사 밝힘

[생산(2017년 기준)]
□ 생산현황통보 668개(건단위 약 1천개, 묶음단위 200~250개, 마스터본 20여개)
□ 시스템: 아비드(폐쇄용), 맥 MOVAVI 사용

[보관 및 관리]
□ 자체 스토리지(별도의 관리프로그램은 없음)</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colspan="2">□ 서울기록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 시청각 기기 기증
□ 메타데이터 항목 조언</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colspan="2">□ 향후 지속적인 자료 이관 협약</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5">□ 시청각 기기 인수
□ 지속적인 기록물 이관 체계 수립</td></tr>
</table>

3.1.2.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아카이브展)

가. 리드파일

<table>
<tr><th colspan="7">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기획팀 리드파일</th></tr>
<tr><td colspan="2">식별번호</td><td>11
-LE</td><td>버전 정보</td><td>v.1.1</td><td>최근수정일</td><td>2018.07.23</td></tr>
<tr><td rowspan="15">리드
정보</td><td>리드명</td><td colspan="2">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기획팀</td><td>리드 유형</td><td colspan="2">□ 개인 □ 가문 ■ 단체</td></tr>
<tr><td>리드의
다른 이름</td><td colspan="2"></td><td>리드 영역</td><td colspan="2">■ 공공 □ 협치 □ 민간</td></tr>
<tr><td>리드 연락처</td><td colspan="2">02-2133-6333</td><td>리드 이메일</td><td colspan="2">daemoon1@seoul.go.kr</td></tr>
<tr><td>리드 주소</td><td colspan="2">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지역공동체담당관실</td><td>리드 웹주소</td><td colspan="2"></td></tr>
<tr><td>리드
소개 및 연혁</td><td colspan="5">2012년 1월 마을공동체담당관 신설(2012.1.1.)
2016년 2월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조직 개편(2016.2.4.)
지역기획팀 업무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 마을백서 제작
· 마을공동체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
지역생태계팀은 지역협의회, 지역협치정책토론회, 지역협치성과공유회, 시민협력플랫폼 등 운영과 자치구 민-민, 민-관 네트워크 활동지원
마을협력팀은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및 자치구 소통담당
공동체공간조성팀은 마을활력소 운영 및 마을공간 관련 콘텐츠 개발
(영상, 마을지도, 소식지, 매뉴얼 등)</td></tr>
<tr><td>리드 대표자명</td><td colspan="5">이OO</td></tr>
<tr><td>리드 대표자
연락처</td><td colspan="5">02-2133-6332</td></tr>
<tr><td rowspan="5">리드 구성원
정보</td><td colspan="2">리드 구성원명</td><td>리드 구성원 역할</td><td>리드 구성원
연락처</td><td>리드 구성원 이메일</td></tr>
<tr><td colspan="2">김OO</td><td>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마을백서 제작</td><td>02-2133-
5991</td><td>only4praise@seoul.go.kr</td></tr>
<tr><td colspan="2">양OO</td><td>마을공동체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td><td>02-2133-
5993</td><td>hyoungkim@seoul.go.kr</td></tr>
<tr><td colspan="2">허OO</td><td>찾아가는
동주민센터</td><td>02-2133-
5990</td><td>choimo@seoul.go.kr</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7">리드 관계
정보</td><td colspan="2">리드 관계 단체/인물명</td><td>관계 범주/형식</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마을공동체담당관</td><td>■ 이전 ■상위 □
참여 □지원 □기타</td><td colspan="2">지역공동체 담당관 이전 조직</td></tr>
<tr><td colspan="2">지역공동체담당관</td><td>□ 이전 ■상위 □
참여 □지원 □기타</td><td colspan="2">상위 부서</td></tr>
<tr><td colspan="2">지역생태계팀</td><td>□ 이전 □상위 □
참여 □지원 ■기타</td><td colspan="2">지역공동체담당관 하위 부서</td></tr>
<tr><td colspan="2">마을협력팀</td><td>□ 이전 □상위 □
참여 □지원 ■기타</td><td colspan="2">지역공동체담당관 하위 부서</td></tr>
<tr><td colspan="2">공동체공간조성팀</td><td>□ 이전 □상위 □
참여 □지원 ■기타</td><td colspan="2">지역공동체담당관 하위 부서</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able>

<table>
<tr><td rowspan="3">리드
접촉정보</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인터뷰 일시</td><td>인터뷰 장소</td><td>인터뷰어명</td><td>인터뷰이명</td><td>최근 수정일</td></tr>
<tr><td>11-CA-1st</td><td>2018.05.11</td><td>서울시청
3층</td><td>임태원,
박지현</td><td>양OO</td><td>2018.8.13</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9">보유
기록물
정보</td><td>아카이브명</td><td colspan="5">마을아카이브展 컬렉션</td></tr>
<tr><td rowspan="2">주요 컬렉션
소개</td><td>컬렉션명</td><td colspan="2">구분</td><td colspan="2">설명</td></tr>
<tr><td>마을아카이브展 컬렉션</td><td colspan="2">□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colspan="2">2017년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전시
(기억발전소 수행)
자치구의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대여</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r><td>시정기록
연계 링크</td><td colspan="5"></td></tr>
<tr><td>보유기록물
구분</td><td colspan="5">■ 전자 ■ 비전자</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유형</td><td>전자</td><td colspan="4">■ 문서 ■ 사진 ■ 영상 □ 음성 □ 기타 (　　)</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4">□ 문서 □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 기타 (　　)</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규모</td><td>전자</td><td colspan="4"></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4">4박스</td></tr>
<tr><td>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보존
관리
현황</td><td rowspan="2">보유기록물
상태</td><td>전자</td><td colspan="4">외장하드에 보관 중(파악 필요)</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4">마을공동체의 간행물류로 4박스 이관 완료
(본청 지하4층 세월호 추모기록물 작업장 보관)</td></tr>
<tr><td>관리 현황</td><td colspan="5">□ 기록물의 목록은 담당자가 엑셀로 정리한 상태이나 재정리할 필요가 있음
□ 시청각 기기는 대부분 불용인 상태임</td></tr>
<tr><td rowspan="4">협력방안</td><td>리드 요구</td><td colspan="5">전자파일 이관</td></tr>
<tr><td>예상 지원
방안</td><td colspan="5">전자파일 이관</td></tr>
<tr><td>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td><td colspan="5">■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 □ 기타 (　　)</td></tr>
<tr><td>수집 협의
내용</td><td colspan="5"></td></tr>
<tr><td>특이사항</td><td>아키비스트
주기</td><td colspan="5">2차 면담을 통해 전자기록물 인수 추진 및 인수인계서와 협약 체결(공문) 작업 필요</td></tr>
</table>

나. 케이스파일

<table>
<tr><th colspan="7">지역공동체담당관 케이스파일(접촉파일)</th></tr>
<tr><td colspan="2">케이스파일 식별번호</td><td>11-CA</td><td>버전 정보</td><td>v.1.1</td><td>최근수정일</td><td>2018.07.23</td></tr>
<tr><th colspan="7">소장처 인터뷰 정보</th></tr>
<tr><td>회차</td><td colspan="4"></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11-CA-1st</td></tr>
<tr><td rowspan="6">1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05-11 10:00-11:00</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서울특별시청 본청 3층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기획팀</td></tr>
<tr><td>인터뷰이명</td><td>양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02-2133-6333</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daemoon1@seoul.go.kr</td></tr>
<tr><td>인터뷰어명</td><td>임태원
박지현</td><td>녹취파일 링크</td><td></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 지역공동체담당관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혁신 및 시민협력, 공동체활동 공간 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주민 주도의 마을 기록화, 전시, 교육 등 기록을 매개로 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마을 관련 자료들이 축적되고 있음.
□ 특히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지원과 마을활력소, 마을배움터 등의 공동체공간 조성, 자치구 민-민, 민-관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서울 각 지역에 마을공동체들과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 다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에도 벅차 기록의 관리 및 활용에 할애할 여력이 없음
□ 서울기록원과 협력 관계를 통해 서울의 마을공동체들의 자료들이 보존, 관리되고 활용될 수 있으면 함.
□ 2017년 기록으로 보는 마을 이야기 <마을 아카이브 展> 개최 후 전시 자료들을 보관할 곳이 없어 이를 서울기록원에 이관하고자 함.
□ 전자파일은 현재 정리 중에 있으며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이관하고자 함.</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colspan="2">□ 마을아카이브 展 자료 이관 및 위탁관리</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colspan="2">이관 협약</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5"></td></tr>
</table>

3.1.3.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서울경관기록화)

가. 리드파일

<table>
<tr><th colspan="8">서울경관기록화 리드파일</th></tr>
<tr><td colspan="2">식별번호</td><td>02
-LE</td><td>버전 정보</td><td>v.1.3</td><td>최근수정일</td><td colspan="2">2018.08.03</td></tr>
<tr><td rowspan="13">리드
정보</td><td>리드명</td><td colspan="2">서울경관기록화</td><td>리드 유형</td><td colspan="3">□ 개인 □ 가문 ■ 단체</td></tr>
<tr><td>리드의
다른 이름</td><td colspan="2"></td><td>리드 영역</td><td colspan="3">■ 공공 □ 협치 □ 민간</td></tr>
<tr><td>리드 연락처</td><td colspan="2">02-2133-8395</td><td>리드 이메일</td><td colspan="3">heunggi-1111@seoul.go.kr</td></tr>
<tr><td>리드 주소</td><td colspan="2">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3층</td><td>리드 웹주소</td><td colspan="3">http://data.si.re.kr/seoulphoto</td></tr>
<tr><td>리드
소개 및
연혁</td><td colspan="6">□ '95년부터 매 5년 단위로 서울의 경관을 사진으로 담아 기록물로서 보존 관리하는 사업
□ 현재 1차(1995년) ~ 5차(2015년) 사업까지 진행
□ '19년 ~ '20년 6차 사업 추진 예정
□ 웹 사이트를 통해 서울경관사진 서비스 제공 중
· 1차 ~ 5차 사업의 성과물인 약 20,000컷 사진에 대한 기존의 속성 데이터를 확인하여 서비스용 데이터로 재구축</td></tr>
<tr><td>리드 대표자명</td><td colspan="6">박OO</td></tr>
<tr><td>리드 대표자
연락처</td><td colspan="6">02-2133-8395</td></tr>
<tr><td rowspan="4">리드 구성원
정보</td><td colspan="2">리드 구성원명</td><td>리드 구성원 역할</td><td>리드 구성원
연락처</td><td colspan="2">리드 구성원 이메일</td></tr>
<tr><td colspan="2">박OO</td><td>주무관</td><td>02-2133-
8395</td><td colspan="2">heunggi-1111@seoul.go.kr</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3">리드 관계
정보</td><td colspan="2">리드 관계 단체/인물명</td><td>관계 범주/형식</td><td colspan="3">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경관팀</td><td>□ 이전 □상위 □
참여 □지원 ■기타</td><td colspan="3">사업담당 부서</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4">리드
접촉정보</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인터뷰 일시</td><td>인터뷰 장소</td><td>인터뷰어명</td><td>인터뷰이명</td><td colspan="2">최근 수정일</td></tr>
<tr><td>02-CA-1st</td><td>2018.06.15</td><td>서소문청사
2동 3층</td><td>임태원, 박지현</td><td>박OO</td><td colspan="2">2018.07.12</td></tr>
<tr><td>02-CA-2st</td><td>2018.07.25</td><td>서소문청사
2동 3층</td><td>박지현</td><td>박OO</td><td colspan="2">2018.08.03</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3">보유
기록물
정보</td><td>아카이브명</td><td colspan="6">서울경관기록화</td></tr>
<tr><td rowspan="2">주요 컬렉션
소개</td><td colspan="2">컬렉션명</td><td>구분</td><td colspan="3">설명</td></tr>
<tr><td colspan="2">표준기록경관 113지점</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colspan="3">□ 1차(1995년) ~ 5차(2015년) 생산
□ 서울경관기록화사업에서 연속적으로 기록된 43개의 '"연속기록경관"과 설문조사를 통한 "기획선정경관", 서울시 경관계획으로 관리되는 "관리대상경관"을 통합하여 113개 지점의 표준기록경관을 선정하고 촬영</td></tr>
</table>

<table>
<tr><td rowspan="9">보유
기록물
정보</td><td rowspan="2">주요 컬렉션
소개</td><td>서울의 도심지 변화</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1차(1995년) ~ 5차(2015년) 생산
□ 서울의 주요 중심지인 역사도심, 강남, 여의도, 영등포, 잠실, 상암 등의 모습을 촬영</td></tr>
<tr><td colspan="3">(+) 추가 가능</td></tr>
<tr><td>시정기록
연계 링크</td><td colspan="3"></td></tr>
<tr><td>보유기록물
구분</td><td colspan="3">■ 전자 ■ 비전자</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유형</td><td>전자</td><td colspan="2">□ 문서 ■ 사진 □ 영상 □ 음성 □ 기타 ( )</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 문서 ■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 기타 (필름)</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규모</td><td>전자</td><td colspan="2"></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평, m, kg 등)</td></tr>
<tr><td>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td><td colspan="3">http://data.si.re.kr/seoulphoto</td></tr>
<tr><td rowspan="3">보존 관리
현황</td><td rowspan="2">보유기록물
상태</td><td>전자</td><td colspan="2">□ 외장하드 저장</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 1차 ~ 4차 사업의 결과물은 필름으로 존재</td></tr>
<tr><td>관리 현황</td><td colspan="3">□ 서울연구원에서 기록물 위탁관리
□ 1차 ~ 4차 사업의 필름은 서울연구원·역사박물관에서 보관 (보관 중인 필름은 모두 사본)
□ 5차 사업 결과물은 100%디지털화 되어 외장하드에 보관 중인 상황이며,
본청 문서고·서울연구원·서울도서관·서울역사박물관에서 보관 중</td></tr>
<tr><td rowspan="4">협력방안</td><td>리드 요구</td><td colspan="3">□ 서울연구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1차 ~ 4차 필름의 수집</td></tr>
<tr><td>예상 지원
방안</td><td colspan="3">□ 물리적 지원 : 실물기록(필름) 저장공간</td></tr>
<tr><td>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td><td colspan="3">□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 ■ 기타 (조기이관)</td></tr>
<tr><td>수집 협의
내용</td><td colspan="3">□ 서울연구원 보관 슬라이드 필름 이관</td></tr>
<tr><td>특이사항</td><td>아키비스트
주기</td><td colspan="3">□ 서울연구원에서 1차~4차 필름을 보관 중이나 보존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자료실에 보관 중. 때문에 보존처리가 필요한 필름이 존재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기록물을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물 인수·활용에 있어 서울연구원과 협의가 필요
□ 6차 사업 결과물의 수집·활용방안 논의</td></tr>
</table>

나. 케이스파일

<table>
<tr><th colspan="7">서울경관기록화 케이스파일(접촉파일)</th></tr>
<tr><td colspan="2">케이스파일 식별번호</td><td>02-CA</td><td>버전 정보</td><td>v.1.3</td><td>최근수정일</td><td>2018.08.03</td></tr>
<tr><th colspan="7">소장처 인터뷰 정보</th></tr>
<tr><td colspan="2">회차</td><td colspan="3"></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02-CA-1st</td></tr>
<tr><td rowspan="5">1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06-15 14:00-18:00</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서소문청사 2동 3층</td></tr>
<tr><td>인터뷰이명</td><td>박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02-2133-8395</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heunggi-1111@seoul.go.kr</td></tr>
<tr><td>인터뷰어명</td><td>임태원
박지현</td><td>녹취파일 링크</td><td></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 서울경관기록화사업 추진 현황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경관팀에서는 '95년부터 매 5년 단위로 서울의 경관을 사진으로 담아 기록물로서 보존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중
· 경관보존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촬영
· 1차(1995년) ~ 5차(2015년) 사업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매차수당 5천장 정도 생산
· 2019년 ~ 2020년 6차 사업 추진 예정
· 현재까지 25,000여점 생산, 초상권 문제가 있는 사진을 제외한 23,000여점 대시민공개서비스 제공

□ 사진기록물 보관/관리 상황
· 서울연구원에서 기록물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황
· 1차 ~ 4차 사업의 사진은 슬라이드 필름으로 존재하며, 이 필름은 서울연구원·서울역사박물관에서 보관(서울시립대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옮긴것)
· 서울연구원·서울역사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슬라이드 필름은 모두 사본
· 서울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슬라이드 필름은 항온항습 관리가 되지 않는 창고 수준에서 보관 중인 상태
· 5차 사업부터는 100% 디지털화
· 5차 사업결과물은 외장하드에 담아 본청 문서고·서울연구원·서울도서관·서울역사박물관으로 보냄</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colspan="2">□ 서울연구원에서 보관한 1차 ~ 4차 필름의 수집</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colspan="2">□ 서울경관사업 기록물의 정기적 이관</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5"></td></tr>
</table>

<table>
<tr><td>회차</td><td colspan="3"></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02-CA-2st</td></tr>
<tr><td rowspan="6">2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07-25 10:00-11:00</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서소문청사 2동 3층</td></tr>
<tr><td>인터뷰이명</td><td>박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02-2133-
8395</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heunggi-1111
@seoul.go.kr</td></tr>
<tr><td>인터뷰어명</td><td>박지현</td><td>녹취파일 링크</td><td></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 1차 면담을 통해 작성된 리드/케이스파일 주무관 검토
□ 서울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1차~4차 사업의 슬라이드 필름 인수협의
· 인수 시 담당주무관 동행
· 슬라이드 필름의 자세한 현황조사 및 인수일정 협의를 위해 서울연구원 면담 진행
□ 1차~5차 사업의 디지털 파일, 추후 진행될 6차 사업의 디지털파일 인수 협의
· 서울기록원 일정에 맞추어 인수일정 협의</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colspan="2"></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colspan="2"></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5"></td></tr>
</table>

3.1.4.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옛길영상기록화)

가. 리드파일

<table>
<tr><th colspan="8">옛길영상기록화 리드파일</th></tr>
<tr><td colspan="2">식별번호</td><td>05
-LE</td><td>버전 정보</td><td>v.1.3</td><td>최근수정일</td><td colspan="2">2018.08.03</td></tr>
<tr><td rowspan="13">리드
정보</td><td>리드명</td><td colspan="2">옛길영상기록화</td><td>리드 유형</td><td colspan="3">□ 개인 □ 가문 ■ 단체</td></tr>
<tr><td>리드의
다른 이름</td><td colspan="2"></td><td>리드 영역</td><td colspan="3">■ 공공 □ 협치 □ 민간</td></tr>
<tr><td>리드 연락처</td><td colspan="2">02-2133-8491</td><td>리드 이메일</td><td colspan="3">yeoni22@seoul.go.kr</td></tr>
<tr><td>리드 주소</td><td colspan="2">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td><td>리드 웹주소</td><td colspan="3"></td></tr>
<tr><td>리드
소개 및
연혁</td><td colspan="6">□ 서울시는 18세기 조선후기 도성대지도와 2016년 지적도를 비교·대조하여 당시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한양도성 내 옛길 581개를 발굴하였고, 발굴한 581개 옛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는 '서울옛길영상기록화사업'을 진행
□ 사업의 목적은 서울의 사라져가는 옛길을 역사자원으로 인식하고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
□ 추진경위
· 2012.09 ~ 2015.02 : 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
· 2014.07 ~ 2015.02 : 옛길영상기록화 사업 1차 완료_시범사업(돈화문로 주변지역)
· 2016.04 ~ 2016.05 : 옛길 전시회
('돈화문로, 왕의 길에서 오늘의 서울을 보다' 사진전)
· 2016.11 ~ 2018.05 : 옛길영상기록화 사업 2차 추진(역사도심 전체지역)
· 2018.03 ~ 2018.04 : 옛길 전시회('서울옛길 12경')</td></tr>
<tr><td>리드 대표자명</td><td colspan="6">강OO</td></tr>
<tr><td>리드 대표자
연락처</td><td colspan="6">02-2133-8491</td></tr>
<tr><td rowspan="4">리드 구성원
정보</td><td colspan="2">리드 구성원명</td><td>리드 구성원 역할</td><td>리드 구성원
연락처</td><td colspan="2">리드 구성원 이메일</td></tr>
<tr><td colspan="2">강OO</td><td>주무관</td><td>02-2133-
8491</td><td colspan="2">yeoni22@seoul.go.kr</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3">리드 관계
정보</td><td colspan="2">리드 관계 단체/인물명</td><td>관계 범주/형식</td><td colspan="3">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기획관
역사도심재생과
도심정책팀</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 기타</td><td colspan="3">사업담당 부서</td></tr>
<tr><td colspan="2"></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 기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4">리드
접촉정보</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인터뷰 일시</td><td>인터뷰
장소</td><td>인터뷰어명</td><td>인터뷰이명</td><td colspan="2">최근 수정일</td></tr>
<tr><td>05-CA-1st</td><td>2018.06.21</td><td>서울시청
11층</td><td>임태원, 박지현</td><td>강OO</td><td colspan="2">2018.07.12</td></tr>
<tr><td>05-CA-2nd</td><td>2018.07.25</td><td>서울시청
11층</td><td>임태원, 박지현</td><td>강OO</td><td colspan="2">2018.08.03</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able>

<table>
<tr><td rowspan="10">보유
기록물
정보</td><td>아카이브명</td><td colspan="3">옛길영상기록화</td></tr>
<tr><td rowspan="4">주요 컬렉션
소개</td><td>컬렉션명</td><td>구분</td><td>설명</td></tr>
<tr><td></td><td>□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td></tr>
<tr><td></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td></tr>
<tr><td colspan="3">(+) 추가 가능</td></tr>
<tr><td>시정기록
연계 링크</td><td colspan="3"></td></tr>
<tr><td>보유기록물
구분</td><td colspan="3">■ 전자 ■ 비전자</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유형</td><td>전자</td><td colspan="2">□ 문서 ■ 사진 ■ 영상 □ 음성 □ 기타 (　　)</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 문서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 기타 (　결과보고서　)</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규모</td><td>전자</td><td colspan="2">1.60TB</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td></tr>
<tr><td>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보존
관리
현황</td><td rowspan="2">보유기록물
상태</td><td>전자</td><td colspan="2">외장하드 저장</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옛길영상기록화사업 결과보고서</td></tr>
<tr><td>관리 현황</td><td colspan="3">□ 옛길영상기록화사업의 산출물이 적극 공개되길 희망
· 2018년 5월 말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옛길영상기록화사업의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
· 사업 산출물의 서비스 방식에 대하여 내부 논의중</td></tr>
<tr><td rowspan="4">협력방안</td><td>리드 요구</td><td colspan="3">□ 옛길영상기록화사업 산출물에 대한 서비스</td></tr>
<tr><td>예상 지원
방안</td><td colspan="3">□ SDA(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연계</td></tr>
<tr><td>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td><td colspan="3">■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 □ 기타 (　　)</td></tr>
<tr><td>수집 협의
내용</td><td colspan="3">□ 옛길영상기록화사업 산출물에 대한 서비스는 당장 힘들고,
추후 SDA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해나가도록 협의</td></tr>
<tr><td>특이사항</td><td>아키비스트
주기</td><td colspan="3">□ 2차 면담 시 사업 산출물-SDA연계 방안(서비스 방안), 영상자료 초상권 문제에 대한 피드백 드리기</td></tr>
</table>

나. 케이스파일

<table>
<tr><th colspan="7">옛길영상기록화 케이스파일(접촉파일)</th></tr>
<tr><td colspan="2">케이스파일 식별번호</td><td>05-CA</td><td>버전 정보</td><td>v.1.3</td><td>최근수정일</td><td>2018.08.03</td></tr>
<tr><th colspan="7">소장처 인터뷰 정보</th></tr>
<tr><td colspan="2">회차</td><td colspan="3"></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05-CA-1st</td></tr>
<tr><td rowspan="6">1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06-21 10:00-15:00</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서울시청 11층</td></tr>
<tr><td>인터뷰이명</td><td>강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02-2133-8491</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yeoni22 @seoul.go.kr</td></tr>
<tr><td>인터뷰어명</td><td>임태원
박지현</td><td>녹취파일 링크</td><td></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 2016년 ~ 2018년 5월말까지 '옛길영상기록화'사업 진행
□ 2015년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이며, 지속적인 사업계획은 없음
□ 한양도성 내부지역을 과업의 공간적 범위로 지정하고, 역사도심 내 옛길을 대상으로 역사·물리·장소적 특성을 기록
□ 산출물은 원형옛길의 발굴 및 현황지도, 영상기록자료, 보고서 등(관련 디지털 자료는 외장하드 1개에 보관)
□ 사진 저작권은 역사도심재생과 소유이나, 영상자료의 초상권 문제는 해결이 필요</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colspan="2">□ 사업 산출물의 서비스 방안
□ 영상자료 초상권 문제 해결</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colspan="2">□ SDA와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회차</td><td colspan="3"></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05-CA-2nd</td></tr>
<tr><td rowspan="6">2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07-25 15:00-16:00</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서울시청 11층</td></tr>
<tr><td>인터뷰이명</td><td>강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02-2133-8491</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yeoni22 @seoul.go.kr</td></tr>
<tr><td>인터뷰어명</td><td>임태원
박지현</td><td>녹취파일 링크</td><td></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 1차 면담을 통해 작성된 리드/케이스파일 주무관 검토
□ 옛길영상기록화 사업 전자파일 용량 확인
□ 옛길영상기록화사업 산출물 SDA연계 협의
· 담당 주무관은 콘텐츠 개발 의견을 제시
· 현재 SDA와 연계하여 가능한 서비스는 '보존기반의 검색 서비스'임을 안내해 드리고, 콘텐츠 개발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협의</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colspan="2"></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colspan="2"></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5"></td></tr>
</table>

3.1.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서울항공사진)

가. 리드파일

<table>
<tr><th colspan="8">서울항공사진 리드파일</th></tr>
<tr><td colspan="2">식별번호</td><td>06
-LE</td><td>버전 정보</td><td>v.1.3</td><td>최근수정일</td><td colspan="2">2018.08.03</td></tr>
<tr><td rowspan="11">리드 정보</td><td>리드명</td><td colspan="2">서울항공사진</td><td>리드 유형</td><td colspan="3">□ 개인 □ 가문 ■ 단체</td></tr>
<tr><td>리드의 다른 이름</td><td colspan="2"></td><td>리드 영역</td><td colspan="3">■ 공공 □ 협치 □ 민간</td></tr>
<tr><td>리드 연락처</td><td colspan="2">02-2133-7121</td><td>리드 이메일</td><td colspan="3">lk7516@seoul.go.kr</td></tr>
<tr><td>리드 주소</td><td colspan="2">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td><td>리드 웹주소</td><td colspan="3">http://aerogis.seoul.go.kr</td></tr>
<tr><td>리드
소개 및 연혁</td><td colspan="6">□ 1972년부터 서울의 항공사진을 촬영
□ 촬영된 사진은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열람 가능
□ 과거에는 대외비 문건으로 분류되어 일부 관공서 등 정부기관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였으나, 서울시 보안업무규칙 개정 및 관련 조례/규칙 제정·공포에 따라 2003년부터 일반 시민에게도 일부 보안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공개
□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하며, 신규촬영되는 항공사진을 DB구축하여 데이터의 최신성을 확보
□ 항공사진서비스 시스템 운영 경과
· 2011년 : 항공사진 시민 서비스 시스템 구축
· 2012년 : 서울시 항공사진 서비스 사이트 오픈
· 2013년 : 50cm급 항공사진 대시민 서비스 시행
· 2014년 : 전국 최초, 25cm급 고해상도 서비스 시행
· 2015년 : 시민이 어디서나 직접 출력 가능한 서비스 시행
· 2016년 : 항공사진 크로스브라우징 서비스 시행 (웹브라우저의 종류에 상관없이 사이트 레이아웃 위치/모양 등이 동일하게 보여지는 접근성이 향상된 서비스)</td></tr>
<tr><td>리드 대표자명</td><td colspan="6">김OO</td></tr>
<tr><td>리드 대표자 연락처</td><td colspan="6">02-2133-7121</td></tr>
<tr><td rowspan="4">리드 구성원 정보</td><td colspan="2">리드 구성원명</td><td>리드 구성원 역할</td><td>리드 구성원 연락처</td><td colspan="2">리드 구성원 이메일</td></tr>
<tr><td colspan="2">김OO</td><td>주무관</td><td>02-2133-7121</td><td colspan="2">lk7516@seoul.go.kr</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3">리드 관계 정보</td><td colspan="2">리드 관계 단체/인물명</td><td>관계 범주/형식</td><td colspan="3">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건축지원팀</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기타</td><td colspan="3">사업담당 부서</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4">리드 접촉정보</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인터뷰 일시</td><td>인터뷰 장소</td><td>인터뷰어명</td><td>인터뷰이명</td><td colspan="2">최근 수정일</td></tr>
<tr><td>06-CA-1st</td><td>2018.06.21</td><td>서울시청
3층</td><td>임태원, 박지현</td><td>김OO</td><td colspan="2">2018.07.16</td></tr>
<tr><td>06-CA-2st</td><td>2018.07.25</td><td>서소문청사
문서고</td><td>임태원, 박지현</td><td>김OO</td><td colspan="2">2018.08.03</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able>

<table>
<tr><td rowspan="10">보유
기록물
정보</td><td>아카이브명</td><td colspan="3">서울항공사진</td></tr>
<tr><td rowspan="3">주요 컬렉션
소개</td><td>컬렉션명</td><td>구분</td><td>설명</td></tr>
<tr><td>서울항공사진</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1972년부터 촬영.
2011년부터 대시민서비스 제공.</td></tr>
<tr><td></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td></tr>
<tr><td colspan="3">(+) 추가 가능</td></tr>
<tr><td>시정기록
연계 링크</td><td colspan="3"></td></tr>
<tr><td>보유기록물
구분</td><td colspan="3">■ 전자 ■ 비전자</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유형</td><td>전자</td><td colspan="2">□ 문서 ■ 사진 □ 영상 □ 음성 □ 기타 (　　)</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 문서 ■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 기타 (　필름　)</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규모</td><td>전자</td><td colspan="2">40TB</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td></tr>
<tr><td>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td><td colspan="3">http//aerogis.seoul.go.kr</td></tr>
<tr><td rowspan="3">보존
관리
현황</td><td rowspan="2">보유기록물
상태</td><td>전자</td><td colspan="2">□ 나스 저장</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 필름, 인화사진은 역사박물관·서소문청사·본청 문서고에서 보관</td></tr>
<tr><td>관리 현황</td><td colspan="3">□ 서울항공사진시스템을 통하여 서울의 과거·현재 항공사진을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중</td></tr>
<tr><td rowspan="4">협력방안</td><td>리드 요구</td><td colspan="3">□ 심하게 훼손된 필름에 대한 전문적 보존처리
□ 70년대 초반 제작된 확대기(편위수정기)의 처리</td></tr>
<tr><td>예상 지원
방안</td><td colspan="3">□ 지금 당장 기록물의 보존처리는 불가능
(보존처리 환경 구축 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편위수정기 인수</td></tr>
<tr><td>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td><td colspan="3">□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 ■ 기타 (기록물 및 장비이관)</td></tr>
<tr><td>수집 협의
내용</td><td colspan="3">□ 기록물 장비 이관_이관일정은 서울기록원 개관 시에 맞춰 협의</td></tr>
<tr><td>특이사항</td><td>아키비스트
주기</td><td colspan="3">□ 2차 면담시 필름의 보존·편위수정기 처리 문제에 대한 피드백 드리기
□ 항공사진의 인수방법 논의(이미 항공사진은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 일부는 유료 서비스)</td></tr>
</table>

나. 케이스파일

<table>
<tr><th colspan="7">서울항공사진 케이스파일(접촉파일)</th></tr>
<tr><td colspan="2">케이스파일 식별번호</td><td>06-CA</td><td>버전 정보</td><td>v.1.3</td><td>최근수정일</td><td>2018.08.03</td></tr>
<tr><th colspan="7">소장처 인터뷰 정보</th></tr>
<tr><td>회차</td><td colspan="4"></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06-CA-1st</td></tr>
<tr><td rowspan="6">1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06-21 10:00-15:00</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서울시청 3층</td></tr>
<tr><td>인터뷰이명</td><td>김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02-2133-7121</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lk7516 @seoul.go.kr</td></tr>
<tr><td>인터뷰어명</td><td>임태원
박지현</td><td>녹취파일 링크</td><td></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 현재 항공사진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1972년~2017년까지 촬영된 항공사진을 제공
□ 1972년부터 2009년까지의 촬영분은 필름, 인화사진, 스캔파일로 존재하고 2010년 이후 부터는 파일형태로 존재
□ 기록물은 역사박물관, 서소문청사, 본청 문서고에서 보관 중
□ 최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록물(인화필름 일부분, DVD, CD 등)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보관 (소유권은 역사박물관이 가지고 있으나, 민원 등의 문제로 과에서 반출을 요청하면 반출가능)
□ 서소문청사에는 필름, 본청 문서고에는 인화사진 일부분을 보관
□ 촬영사진에는 제한지역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용시 주의 필요
□ 서울기록원에서 사진 복사를 요청한다면 복사가능
(외장하드 등의 장비는 서울기록원에서 준비)</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colspan="2">□ 심하게 훼손된 필름의 보존처리
□ 70년대 초반 제작된 확대기(편위수정기)의 처리</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colspan="2">항공사진 디지털파일 이관</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5"></td></tr>
<tr><td>회차</td><td colspan="4"></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06-CA-2nd</td></tr>
<tr><td rowspan="6">2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07-25 13:30-14:30</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서소문청사 문서고</td></tr>
<tr><td>인터뷰이명</td><td>김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02-2133-7121</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lk7516 @seoul.go.kr</td></tr>
<tr><td>인터뷰어명</td><td>임태원
박지현</td><td>녹취파일 링크</td><td></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 1차 면담을 통해 작성된 리드/케이스파일 주무관 검토
□ 편위수정기 및 훼손필름의 실물 확인
□ 서울항공사진 디지털파일 인수협의
□ 디지털파일과 편위수정기 이관 일정은 서울기록원 일정에 맞추어 협의</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colspan="2"></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colspan="2"></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5"></td></tr>
</table>

3.1.6.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성곽마을 생활문화 기록화)

가. 리드파일

<table>
<tr><th colspan="8">성곽마을 생활문화 기록화 리드파일</th></tr>
<tr><td colspan="2">식별번호</td><td>07
-LE</td><td>버전 정보</td><td>v.1.0</td><td>최근수정일</td><td colspan="2">2018.07.17</td></tr>
<tr><td rowspan="11">리드 정보</td><td>리드명</td><td colspan="2">성곽마을 생활문화 기록화</td><td>리드 유형</td><td colspan="3">□ 개인 □ 가문 ■ 단체</td></tr>
<tr><td>리드의 다른 이름</td><td colspan="2"></td><td>리드 영역</td><td colspan="3">■ 공공 □ 협치 □ 민간</td></tr>
<tr><td>리드 연락처</td><td colspan="2">02-2133-7249</td><td>리드 이메일</td><td colspan="3">jsb0691@seoul.go.kr</td></tr>
<tr><td>리드 주소</td><td colspan="2">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무교동청사) 4층</td><td>리드 웹주소</td><td colspan="3"></td></tr>
<tr><td>리드
소개 및 연혁</td><td colspan="7">□ '성곽마을 생활문화 기록화'는 한양도성 주변 주거지 통합재생을 위한 성곽마을 재생사업 중 도시형태, 생활문화를 조사하고 마을풍경 등을 기록하는 사업
□ 2년여 조사 끝에(2015~2017) 「생활문화 기록집」발간
· 7개 권역 기록화(이화·충신권, 행촌권, 부암권, 다산권, 혜화·명륜권, 삼선권, 성북권)
· 이화·충신권 : 빼어난 도심 조망경관과 대학로와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인들이 다수 거주하며, 서울시 최초 연립주택단지이자 주거사 박물관인 '이화동 국민주택단지'(현재 104채 중 90채가 존치)가 잘 보존되는 등 '예술과 문화가 숨쉬는 하늘동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
· 행촌권 : 조선 후기 자생적인 한양도성 바깥마을로서 근대 서울 실크 생산의 중심지이자. 한국 커피문화의 발상지이며, 4대문안 농산물을 제공하던 경작지이기도 함. 지금은 경사지 특성상 많은 일조량, 여유공지, 저층주택 옥상 등을 활용, 도시농업 시범마을로 특화됨
· 부암권 :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으로, 조선시대 도성 안의 치열한 현장에서 한걸음 벗어나 사회, 문화, 정치를 논하는 중심이었던 안평대군의 '무계정사'가 있던 곳으로, 몽유도원도(안견)의 실제 배경이기도 함. 현재 다양한 분야 전문가, 예술가들이 거주하면서 삶과 깊숙이 맞물려진 다양한 켜의 문화예술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음
· 다산권 : 도성 밖 남산자락에 자리잡은 지역으로 도시민의 일상이 살아있는 남산 아랫마을
· 혜화·명륜권 : 조선시대 유일한 대학촌이자 하숙촌이었던 지역의 특성이 현재까지도 지속
· 삼선권 : 넓고 평평한 들판지역으로 조선시대부터 군사훈련장이자 운동장으로 최초 축구경기, 자전거 경주대회가 열렸던 곳. 최근 장수마을을 시작으로 삼선3, 삼선6구역 등이 재개발구역을 해제하였고, 한성대, 청년 예술가 등과 연계, 예술로 물드는 성곽마을 조성을 통해 지역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성북권 :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일제 강점기 대표적 문인촌이자, 만해 한용운을 중심으로 민족운동의 교류가 일어난 지역. 조선시대에는 메주를 쑤어 궁궐에 납품한 곳으로도 유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도 마을주민이 직접 생산한 된장을 판매하며, 월월(月wall) 축제, 산신제, 원두막 지붕올리기 등 다양한 마을활동을 하고 있음.</td></tr>
<tr><td>리드 대표자명</td><td colspan="7">배OO</td></tr>
<tr><td>리드 대표자 연락처</td><td colspan="7">02-2133-7249</td></tr>
<tr><td rowspan="4">리드 구성원 정보</td><td colspan="2">리드 구성원명</td><td>리드 구성원 역할</td><td>리드 구성원 연락처</td><td colspan="2">리드 구성원 이메일</td></tr>
<tr><td colspan="2">배OO</td><td>주무관</td><td>02-2133-7249</td><td colspan="2">jsb0691@seoul.go.kr</td></tr>
<tr><td colspan="2">한OO</td><td>주무관</td><td>02-2133-7252</td><td colspan="2">hmys1214@seoul.go.kr</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able>

<table>
<tr><td rowspan="3">리드 정보</td><td rowspan="3">리드 관계 정보</td><td>리드 관계 단체/인물명</td><td>관계 범주/형식</td><td>관계 내용</td></tr>
<tr><td>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기획관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정책팀</td><td>□ 이전□ 상위
□ 참여 □지원
■ 기타</td><td>사업담당 부서</td></tr>
<tr><td colspan="3">(+)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4">리드 접촉정보</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인터뷰 일시</td><td>인터뷰 장소</td><td>인터뷰어명</td><td>인터뷰이명</td><td>최근 수정일</td></tr>
<tr><td>07-CA-1st</td><td>2018.07.03</td><td>무교동청사 4층</td><td>임태원, 박지현</td><td>배OO, 한OO</td><td>2018.07.17</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9">보유 기록물 정보</td><td>아카이브명</td><td colspan="5">성곽마을 생활문화 기록화</td></tr>
<tr><td rowspan="4">주요 컬렉션 소개</td><td colspan="2">컬렉션명</td><td>구분</td><td colspan="2">설명</td></tr>
<tr><td colspan="2"></td><td>□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r><td>시정기록 연계 링크</td><td colspan="5"></td></tr>
<tr><td>보유기록물 구분</td><td colspan="5">■ 전자 ■ 비전자</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유형</td><td>전자</td><td colspan="4">□ 문서 ■ 사진 □영상 □ 음성 □ 기타 ( )</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4">□ 문서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 기타 (간행물)</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규모</td><td>전자</td><td colspan="4"></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4"></td></tr>
<tr><td>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보존 관리 현황</td><td rowspan="2">보유기록물 상태</td><td>전자</td><td colspan="4">□ 외장하드 저장</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4">□ 성곽마을 생활문화 기록집</td></tr>
<tr><td></td><td>관리 현황</td><td colspan="5">□ 최종결과물인 보고서(간행물)만 보관 중이며 원소스들은 보관하지 않음
□ 보고서에 담긴 사진들은 외장하드 1개에 보관</td></tr>
<tr><td rowspan="4">협력방안</td><td>리드 요구</td><td colspan="5">□ 사업 담당자의 잦은 부서 이동, 협소한 공간 등으로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우니 서울기록원에서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보존·관리해주길 희망</td></tr>
<tr><td>예상 지원 방안</td><td colspan="5"></td></tr>
<tr><td>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td><td colspan="5">■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 □ 기타 ( )</td></tr>
<tr><td>수집 협의 내용</td><td colspan="5">□ 수집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_추후 협의</td></tr>
<tr><td>특이사항</td><td>아키비스트 주기</td><td colspan="5">□ 업무 매우 바쁨</td></tr>
</table>

나. 케이스파일

<table>
<tr><th colspan="7">성곽마을생활문화 기록화 케이스파일(접촉파일)</th></tr>
<tr><td colspan="2">케이스파일 식별번호</td><td>07-CA</td><td>버전 정보</td><td>v.1.1</td><td>최근수정일</td><td>2018.07.23</td></tr>
<tr><th colspan="7">소장처 인터뷰 정보</th></tr>
<tr><td>회차</td><td colspan="4"></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07-CA-1st</td></tr>
<tr><td rowspan="6">1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07-03 13:00-17:00</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무교동청사 4층</td></tr>
<tr><td>인터뷰이명</td><td>배OO
한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02-2133-7249</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jsb0691
@seoul.go.kr</td></tr>
<tr><td>인터뷰어명</td><td>임태원
박지현</td><td>녹취파일 링크</td><td></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 성곽마을생활문화 기록화 사업 추진현황
· 주거환경개선과에서는 성곽마을 7개 권역에 대한 마을의 역사, 도시형태, 생활문화자료조사, 주민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담아 '성곽마을생활문화 기록집'을 발간
· 이화·충신, 행촌, 부암, 혜화·명륜, 다산, 삼선369, 북정 권역을 다방면으로 조사하여 성곽마을로서의 정체성을 재조명
· '성곽마을생활문화 기록집'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 서울도서관, 해당마을 주민센터에서 열람가능
· 지속적인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음
□ 기록물 보관/관리 상황
· 최종결과물인 책자형태의 보고서만 보관 중이며 원소스들은 보관하고 있지 않음
· 보고서에 담긴 사진들은 외장하드 1개에 보관 중
· 보고서의 관리권한은 주거환경개선과에서 가지고 있지만,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2차적으로 가공하여 활용할 경우 협의가 필요</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colspan="2">□ 사업 담당자의 잦은 부서이동, 협소한 공간 등으로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우니 서울기록원에서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보존·관리해주길 희망</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colspan="2"></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5"></td></tr>
</table>

3.1.7.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공동체주택 기록화)

가. 리드파일

<table>
<tr><th colspan="7">공동체주택 기록화 리드파일</th></tr>
<tr><td colspan="2">식별번호</td><td>12-LE</td><td>버전 정보</td><td>v.1.0</td><td>최근수정일</td><td>2018.07.25</td></tr>
<tr><td rowspan="11">리드
정보</td><td>리드명</td><td colspan="2">공동체주택 기록화</td><td>리드 유형</td><td colspan="2">□ 개인 □ 가문 ■ 단체</td></tr>
<tr><td>리드의
다른 이름</td><td colspan="2"></td><td>리드 영역</td><td colspan="2">■ 공공 □ 협치 □ 민간</td></tr>
<tr><td>리드 연락처</td><td colspan="2">02-2133-7706</td><td>리드 이메일</td><td colspan="2">urbantj@seoul.go.kr</td></tr>
<tr><td>리드 주소</td><td colspan="2">서울시청 3층</td><td>리드 웹주소</td><td colspan="2">http://soco.seoul.go.kr/coHouse/index.do</td></tr>
<tr><td>리드
소개 및 연혁</td><td colspan="5">□ 공동체주택 기록화 사업을 따로 추진한 적은 없음
□ 공동체주택사업 추진경과
· 2014년 3월 31일 협동조합형 공유주택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2014년 10월 공동체주택 종합계획 수립
· 2014년 10월 31 소유형 공동체주택 대출상품 개발
· 2014년 12월 5일 공동체주택 전문가 토론회 개최
· 2015년 3월 2일 ~ 5월 12일 공동체주택 세부종합계획 추진
· 2015년 3월 11일 한국주택도시공사 공동체주택 1만호 공급 발표
· 2015년 5월 28일 사회주택협회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 2015년 8월 20일 ~ 11월 3일 공동체주택 포럼 개최
· 2015년 9월 7일 공동체주택 희망담론한마당 개최
· 2015년 10월 1일 ~ 14일 제1회 공동체주택 전시회
· 2016년 공동체주택 인력풀 200명 마련
· 2016년 7월 공동체주택 토디네이터 육성
· 2016년 10월 17일 공동체주택 추가 금융상품 마련
· 2016년 12월 14일 ~ 15일 제2회 공동체주택 전시회
· 2017년 3월 31일 공동체주택 플랫폼 홈페이지 개설
· 2017년 7월「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 · 시행
· 2017년 9월 공동체주택 인증제 추진
· 2017년 10월 23일 ~ 27일 제3회 공동체주택 전시회
· 2018년 3월 7일 공동체주택 임시지원허브 개소식
· 2018년 4월 11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통합운영체제 사업자 공모 설명회 개최</td></tr>
<tr><td>리드 대표자명</td><td colspan="5">도OO</td></tr>
<tr><td>리드 대표자
연락처</td><td colspan="5">02-2133-7706</td></tr>
<tr><td rowspan="4">리드 구성원
정보</td><td>리드 구성원명</td><td>리드 구성원 역할</td><td>리드 구성원
연락처</td><td colspan="2">리드 구성원 이메일</td></tr>
<tr><td>도OO</td><td>주무관</td><td>02-2133-
7706</td><td colspan="2">urbantj@seoul.go.kr</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3">리드 관계
정보</td><td>리드 관계 단체/인물명</td><td>관계 범주/형식</td><td colspan="3">관계 내용</td></tr>
<tr><td>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td><td>□ 이전□ 상위
□ 참여 □지원
■ 기타</td><td colspan="3">사업담당 부서</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리드
접촉정보</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인터뷰 일시</td><td>인터뷰 장소</td><td>인터뷰어명</td><td>인터뷰이명</td><td>최근 수정일</td></tr>
<tr><td>12-CA-1st</td><td>2018.07.25</td><td>서울시청
3층</td><td>임태원, 박지현</td><td>도OO</td><td>2018.07.25</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11">보유
기록물
정보</td><td>아카이브명</td><td colspan="5">공동체주택 기록화</td></tr>
<tr><td rowspan="4">주요 컬렉션
소개</td><td colspan="2">컬렉션명</td><td>구분</td><td colspan="2">설명</td></tr>
<tr><td colspan="2"></td><td>□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r><td>시정기록
연계 링크</td><td colspan="5"></td></tr>
<tr><td>보유기록물
구분</td><td colspan="5">■ 전자 □ 비전자</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유형</td><td>전자</td><td colspan="4">□ 문서 ■ 사진 ■영상 □ 음성 □ 기타 ( )</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4">□ 문서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 기타 ( )</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규모</td><td>전자</td><td colspan="4"></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4"></td></tr>
<tr><td>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보존
관리
현황</td><td rowspan="2">보유기록물
상태</td><td>전자</td><td colspan="4">업무담당자 PC보관</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4"></td></tr>
<tr><td>관리 현황</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4">협력방안</td><td>리드 요구</td><td colspan="5">□ 웹하드와 같은 온라인 저장공간
□ 사업별 사진/영상 공유
□ 파일 명명규칙 예시 기준 마련</td></tr>
<tr><td>예상 지원
방안</td><td colspan="5"></td></tr>
<tr><td>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td><td colspan="5">■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 □ 기타 ( )</td></tr>
<tr><td>수집 협의
내용</td><td colspan="5">□ 수집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_추후 협의</td></tr>
<tr><td>특이사항</td><td>아키비스트
주기</td><td colspan="5"></td></tr>
</table>

나. 케이스파일

<table>
<tr><th colspan="7">공동체주택 기록화 케이스파일</th></tr>
<tr><td colspan="2">케이스파일 식별번호</td><td>12-CA</td><td>버전 정보</td><td>v.1.0</td><td>최근수정일</td><td>2018.07.25</td></tr>
<tr><th colspan="7">소장처 인터뷰 정보</th></tr>
<tr><td>회차</td><td colspan="4"></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12-CA-1st</td></tr>
<tr><td rowspan="6">1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07.25 17:00-17:40</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서울시청 3층</td></tr>
<tr><td>인터뷰이명</td><td>도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02-2133-7706</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urbantj@seoul.go.kr</td></tr>
<tr><td>인터뷰어명</td><td>박지현</td><td>녹취파일 링크</td><td></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 공동체주택 기록화 사업을 추진한 적은 없으며, 공동체주택 사업에 대해서 기록화한 것은 백서 정도이며 올해 말 발간 예정
□ 공동체주택 플랫폼 운영(http://soco.seoul.go.kr/coHouse/index.do)
□ 플랫폼을 통해서 주택정보, 금융/제도, 커뮤니티, 용역보고서, 표준 규약 등의 정보 제공
□ 행사, 박람회, 시민아이디어 대회의사진, 영상자료 소장
□ 사진 저작권은 주택정책과 소유
□ 본청, 사업소, 출연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중 연계되는 사업별 사진/영상 공유 기능 필요</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colspan="2">□ 웹하드와 같은 온라인 저장공간
□ 사업별 사진/영상 공유
□ 파일 명명규칙 예시기준 마련</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colspan="2"></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5"></td></tr>
</table>

3.1.8.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다큐멘터리 제작)

가. 리드파일

<table>
<tr><th colspan="8">다큐멘터리 제작 리드파일</th></tr>
<tr><td colspan="2">식별번호</td><td>39
-LE</td><td>버전 정보</td><td>v.1.0</td><td>최근수정일</td><td colspan="2">2018.08.17</td></tr>
<tr><td rowspan="11">리드
정보</td><td>리드명</td><td colspan="2">다큐멘터리 제작</td><td>리드 유형</td><td colspan="3">□ 개인 □ 가문 ■ 단체</td></tr>
<tr><td>리드의
다른 이름</td><td colspan="2"></td><td>리드 영역</td><td colspan="3">■ 공공 □ 협치 □ 민간</td></tr>
<tr><td>리드 연락처</td><td colspan="2">02-2133-6436</td><td>리드 이메일</td><td colspan="3">paupau@seoul.go.kr</td></tr>
<tr><td>리드 주소</td><td colspan="2">서울시청 2층</td><td>리드 웹주소</td><td colspan="3"></td></tr>
<tr><td>리드
소개 및 연혁</td><td colspan="6">□ 2018년 언론매체 및 방송협력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진행
□ 서울시와 방송국간 협약에 따라 계약하고 방송제작
□ 서울의 보행길을 소개하는 TV다큐프로그램 방송을 통해 서울로 7071 등 주요 시정 현장과 '걷는도시 서울'의 가치와 비전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td></tr>
<tr><td>리드 대표자명</td><td colspan="6">차OO</td></tr>
<tr><td>리드 대표자
연락처</td><td colspan="6">02-2133-6436</td></tr>
<tr><td rowspan="4">리드
구성원
정보</td><td colspan="2">리드 구성원명</td><td>리드 구성원 역할</td><td>리드 구성원
연락처</td><td colspan="2">리드 구성원 이메일</td></tr>
<tr><td colspan="2">차OO</td><td>주무관</td><td>02-2133-6436</td><td colspan="2">paupau@seoul.go.kr</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3">리드 관계
정보</td><td colspan="2">리드 관계 단체/인물명</td><td>관계 범주/형식</td><td colspan="3">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 기타</td><td colspan="3">사업담당 부서</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4">리드
접촉정보</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인터뷰 일시</td><td>인터뷰 장소</td><td>인터뷰어명</td><td>인터뷰이명</td><td colspan="2">최근 수정일</td></tr>
<tr><td>39-CA-1st</td><td>2018.08.16</td><td>서울시청
2층</td><td>박지현</td><td>차OO</td><td colspan="2">2018.08.16</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7">(+)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7">보유
기록물
정보</td><td>아카이브명</td><td colspan="6">다큐멘터리 제작</td></tr>
<tr><td rowspan="3">주요 컬렉션
소개</td><td colspan="2">컬렉션명</td><td>구분</td><td colspan="3">설명</td></tr>
<tr><td colspan="2"></td><td>□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시정기록
연계 링크</td><td colspan="6"></td></tr>
<tr><td>보유기록물
구분</td><td colspan="6">■ 전자 ■ 비전자</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유형</td><td>전자</td><td colspan="5">□ 문서 □ 사진 ■영상 □ 음성 □ 기타 ( )</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5">□ 문서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 기타 (CD)</td></tr>
</table>

보유 기록물 정보	보유기록물 규모	전자	2.7GB
		비전자	
	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		
보존 관리 현황	보유기록물 상태	전자	업무담당자 PC보관
		비전자	
	관리 현황		
협력방안	리드 요구	없음	
	예상 지원 방안		
	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	■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 □ 기타 ( )	
	수집 협의 내용		
특이사항	아키비스트 주기	면담 종료 후 CD와 영상파일 인수	

나. 케이스파일

<table>
<tr><th colspan="7">다큐멘터리 제작 케이스파일</th></tr>
<tr><td colspan="2">케이스파일 식별번호</td><td>39-CA</td><td>버전 정보</td><td>v.1.0</td><td>최근수정일</td><td>2018.08.17</td></tr>
<tr><th colspan="7">소장처 인터뷰 정보</th></tr>
<tr><td>회차</td><td colspan="4"></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39-CA-1st</td></tr>
<tr><td rowspan="6">1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08.16 15:00-16:00</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서울시청 2층</td></tr>
<tr><td>인터뷰이명</td><td>차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02-2133-6436</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paupau@seoul.go.kr</td></tr>
<tr><td>인터뷰어명</td><td>박지현</td><td>녹취파일 링크</td><td></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 시민소통담당관은 다큐멘터리'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제작 총괄부서
□ 방송제작은 서울시와 KBS간 협약에 따라 진행
□ 서울시는 방송 기본자료 제공 및 촬영협조의 업무를 수행
□ KBS는 섭외,촬영 및 방송, 홍보콘텐츠 구성 등의 업무 수행
□ 방송은 2부로 구성
· 1부 : 서울로 7017 일대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진행
· 2부 : 종로한옥길(세운상가~익선동~인사동, 탑동 한옥길) 코스 및 대표명소
□ CD와 파일로 보관, 파일의 용량은 총 2.7GB(1부 : 1.36GB, 2부 : 1.34GB)
□ 라이브서울 (http://tv.seoul.go.kr)을 통해 시청가능
□ 저작권은 KBS소유, 서울시는 교육 및 비영리 배포권만 가짐
□ 면담 종료 후 방송 CD와 영상파일 인수</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colspan="2"></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colspan="2"></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5"></td></tr>
</table>

3.1.9.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시정백서 발간)

가. 리드파일

<table>
<tr><th colspan="7">시정백서 리드파일</th></tr>
<tr><td colspan="2">식별번호</td><td>09
-LE</td><td>버전 정보</td><td>v.1.0</td><td>최근수정일</td><td>2018.09.06</td></tr>
<tr><td rowspan="11">리드
정보</td><td>리드명</td><td colspan="2">시정백서 발간</td><td>리드 유형</td><td colspan="2">□ 개인 □ 가문 ■ 단체</td></tr>
<tr><td>리드의
다른 이름</td><td colspan="2"></td><td>리드 영역</td><td colspan="2">■ 공공 □ 협치 □ 민간</td></tr>
<tr><td>리드 연락처</td><td colspan="2">02-2133-6645</td><td>리드 이메일</td><td colspan="2">5greenstar@seoul.go.kr</td></tr>
<tr><td>리드 주소</td><td colspan="2">서울시청 5층</td><td>리드 웹주소</td><td colspan="2"></td></tr>
<tr><td>리드
소개 및 연혁</td><td colspan="5">□ 발간시기 : 매년 1회 상반기
□ 대상사업 : 시정운영계획, 주요공약사업 등에서 도출한 서울시 주요정책
□ 발간목적 : 과년도 시정 주요정책의 추진과정 및 성과 정리
· 서울시 주요정책을 소개해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홍보·안내
· 서울시 유일의 시정종합백서로서 공식연감 및 시정기록정보 활용
□ 최근 3년간 백서발간 현황
· 2016년
2015 서울백서 '백가지 꿈의 실현, 천만가지 행복을 현실로' 발간
민선5기 계속사업과 민선6기 대표사업의 핵심성과 정리
2014년부터 추진해온 8가지 서울시 행정혁신사례 포함
17.6cm x 24.8cm 크라운판, 2,000부
책자 및 전자책 제작
· 2017년
2016 서울백서 '사람특별시 서울, 시민이 시장입니다' 발간
민선6기 핵심정책 및 주요사업 성과 정리
17.6cm x 24.8cm 크라운판, 2,000부
책자 및 전자책 제작
· 2018년
2017 서울백서 '서울이 더 즐거워지는 100가지 이유' 발간
민선6기 주요정책의 성과와 추진실적 정리
17.6cm x 24.8cm 크라운판, 2,000부
책자 및 전자책 제작</td></tr>
<tr><td>리드 대표자명</td><td colspan="5">지OO</td></tr>
<tr><td>리드 대표자
연락처</td><td colspan="5">02-2133-6645</td></tr>
<tr><td rowspan="4">리드
구성원
정보</td><td>리드 구성원명</td><td>리드 구성원 역할</td><td>리드 구성원
연락처</td><td colspan="2">리드 구성원 이메일</td></tr>
<tr><td>지OO</td><td>주무관</td><td>02-2133-
6645</td><td colspan="2">5greenstar@seoul.go.kr</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4">리드 관계
정보</td><td>리드 관계 단체/인물명</td><td>관계 범주/형식</td><td colspan="3">관계 내용</td></tr>
<tr><td>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td><td>□ 이전□ 상위
□ 참여 □ 지원
■ 기타</td><td colspan="3">사업담당 부서</td></tr>
<tr><td></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 기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리드
접촉
정보</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인터뷰 일시</td><td>인터뷰 장소</td><td>인터뷰어명</td><td>인터뷰이명</td><td>최근 수정일</td></tr>
<tr><td>09-CA-1st</td><td>2018.08.28</td><td>전화/메일
면담진행</td><td>박지현</td><td>지OO</td><td>2018.09.06</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10">보유
기록물
정보</td><td>아카이브명</td><td colspan="5">시정백서 발간</td></tr>
<tr><td rowspan="3">주요 컬렉션
소개</td><td colspan="2">컬렉션명</td><td>구분</td><td colspan="2">설명</td></tr>
<tr><td colspan="2"></td><td>□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r><td>시정기록
연계 링크</td><td colspan="5"></td></tr>
<tr><td>보유기록물
구분</td><td colspan="5">■ 전자 ■ 비전자</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유형</td><td>전자</td><td colspan="4">□ 문서 ■ 사진 □영상 □ 음성 □ 기타 ( )</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4">□ 문서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 기타 (결과보고서)</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규모</td><td>전자</td><td colspan="4">2015년 : 66.6MB
2016년 : 258MB
2017년 : 112MB</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4">(평, m, kg 등)</td></tr>
<tr><td>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보존
관리
현황</td><td rowspan="2">보유기록물
상태</td><td>전자</td><td colspan="4">업무담당자 PC보관</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4">부서 보관</td></tr>
<tr><td>관리 현황</td><td colspan="5">전/비전자 파일 모두 사무실, 업무 담당자 PC에 보관중</td></tr>
<tr><td rowspan="4">협력방안</td><td>리드 요구</td><td colspan="5">없음</td></tr>
<tr><td>예상 지원
방안</td><td colspan="5"></td></tr>
<tr><td>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td><td colspan="5">■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 □ 기타 ( )</td></tr>
<tr><td>수집 협의
내용</td><td colspan="5">□ 수집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_추후 협의</td></tr>
<tr><td>특이사항</td><td>아키비스트
주기</td><td colspan="5">□ 업무 매우 바쁨</td></tr>
</table>

나. 케이스파일

<table>
<tr><th colspan="7">시정백서 케이스파일</th></tr>
<tr><td colspan="2">케이스파일 식별번호</td><td>09-CA</td><td>버전 정보</td><td>v.1.0</td><td>최근수정일</td><td>2018.09.06</td></tr>
<tr><th colspan="7">소장처 인터뷰 정보</th></tr>
<tr><td colspan="2">회차</td><td colspan="3"></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09-CA-1st</td></tr>
<tr><td rowspan="6">1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08-28</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전화/메일 면담 진행</td></tr>
<tr><td>인터뷰이명</td><td>지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02-2133-6645</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5greenstar @seoul.go.kr</td></tr>
<tr><td>인터뷰어명</td><td>박지현</td><td>녹취파일 링크</td><td></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 시정백서는 매년 1회 상반기에 제작
□ 2017 서울백서는 2018년 6월에 발간, 분야별 주요정책 100개로 구성
□ 책자와 e-book 형식으로 제작
□ 무상배부(본청, 시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도서관 등)와 유상판매(100부, 서울책방 위탁판매)가 이루어짐
□ 전자/비전자 파일로 사무실, 업무담당자 pc에 보관
□ 백서 내용에 향후계획 부분은 부서 사정 등에 따라 계획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 사진은 저작권과 초상권이 있음</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colspan="2"></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colspan="2"></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5"></td></tr>
</table>

3.1.10.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역사구술자료집 발간 및 구술채록)

가. 리드파일

<table>
<tr><th colspan="6">서울역사구술자료집 발간 및 구술채록 리드파일</th></tr>
<tr><td colspan="2">식별번호</td><td>17
-LE</td><td>버전 정보</td><td>v.1.0</td><td>최근수정일</td><td>2018.08.03</td></tr>
<tr><td rowspan="7">리드
정보</td><td>리드명</td><td colspan="2">서울역사구술자료집
발간 및 구술채록</td><td>리드 유형</td><td colspan="2">□ 개인 □ 가문 ■ 단체</td></tr>
<tr><td>리드의
다른 이름</td><td colspan="2"></td><td>리드 영역</td><td colspan="2">■ 공공 □ 협치 □ 민간</td></tr>
<tr><td>리드 연락처</td><td colspan="2">02-413-9537</td><td>리드 이메일</td><td colspan="2">joonseok@seoul.go.kr</td></tr>
<tr><td>리드 주소</td><td colspan="2">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서울역사편찬원</td><td>리드 웹주소</td><td colspan="2"></td></tr>
<tr><td>리드
소개 및 연혁</td><td colspan="5">□ 2009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
□ 서울역사구술자료집 발간현황
· 제1권 서울 토박이의 사대문 안 기억
· 제2권 서울 나는 이렇게 바꾸고 싶었다
· 제3권 서울 사람이 겪은 해방과 전쟁
· 제4권 사대문 안 학교들, 강남으로 가다
· 제5권 임자, 올림픽 한 번 해보지!
· 제6권 영등포 공장지대의 25시
· 제7권 미싱은 돌고 도네 돌아가네
· 제8권 꿈을 만든 사람들 희망이 된 아이들
□ 최근 3년간 사업추진 경과
· 2016년
1월 ~ 2월 구술채록 면담책임자 선정 및 구술대상자 섭외
3월 ~ 11월 서울역사구술자료 면담 및 녹취
2월 ~ 5월 제7권 발간을 위한 검독 및 교열
3월 제7권 인쇄 계약
6월 ~ 7월 제7권 편집 및 인쇄 제작
· 2017년
1월 ~ 2월 구술채록 면담책임자 공모 및 선정
3월 ~ 4월 서울역사구술채록 주제별 사전조사 및 보고서 제출
5월 ~ 9월 제8권 발간을 위한 검독 및 교열
8월 제8권 인쇄 계약
9월 ~ 10월 제8권 편집 및 인쇄 제작
5월 ~ 10월 서울역사구술자료 면담 및 녹취
11월 서울역사구술채록 최종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 2018년
1월 ~ 2월 구술채록 면담책임자 공모·선정 및 제9권 원고 의뢰
3월 ~ 4월 서울역사구술채록 주제별 사전조사 및 보고서 제출
4월 ~ 7월 제9권 발간을 위한 자료검독·교열 및 원고 수합
8월 제9권 인쇄 계약
9월 ~ 10월 제9권 편집 및 인쇄 제작
5월 ~ 10월 서울역사구술자료 면담 및 녹취
11월 서울역사구술채록 최종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td></tr>
<tr><td>리드
대표자명</td><td colspan="5">서OO</td></tr>
<tr><td>리드 대표자
연락처</td><td colspan="5">02-413-9537</td></tr>
</table>

<table>
<tr><td rowspan="6">리드
정보</td><td rowspan="3">리드 구성원
정보</td><td>리드 구성원명</td><td>리드 구성원 역할</td><td>리드 구성원
연락처</td><td>리드 구성원 이메일</td></tr>
<tr><td>서OO</td><td>주무관</td><td>02-413-9537</td><td>joonseok@seoul.go.kr</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3">리드
관계
정보</td><td>리드 관계 단체/인물명</td><td>관계 범주/형식</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서울역사편찬원</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 기타</td><td colspan="2">사업담당 기관</td></tr>
<tr><td></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 기타</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4">(+)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4">리드
접촉정보</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인터뷰
일시</td><td>인터뷰
장소</td><td>인터뷰어명</td><td>인터뷰이명</td><td>최근 수정일</td></tr>
<tr><td>17-CA-1st</td><td>2018.07.30</td><td>서울역사
편찬원</td><td>박지현</td><td>서OO</td><td>2018.08.03</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8">보유
기록물
정보</td><td>아카이브명</td><td colspan="5">서울역사구술자료집 발간 및 구술채록</td></tr>
<tr><td rowspan="3">주요
컬렉션
소개</td><td colspan="2">컬렉션명</td><td>구분</td><td colspan="2">설명</td></tr>
<tr><td colspan="2"></td><td>□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r><td>시정기록
연계 링크</td><td colspan="5"></td></tr>
<tr><td>보유기록물
구분</td><td colspan="5">■ 전자 ■ 비전자</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유형</td><td>전자</td><td colspan="4">□ 문서 ■ 사진 ■영상 □ 음성 □ 기타 ( )</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4">□ 문서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 기타 (역사자료집)</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규모</td><td>전자</td><td colspan="4"></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4"></td></tr>
<tr><td>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보존
관리
현황</td><td rowspan="2">보유기록물
상태</td><td>전자</td><td colspan="4">외장하드 보관</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4">역사편찬원 자료실 보관</td></tr>
<tr><td>관리 현황</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4">협력방안</td><td>리드 요구</td><td colspan="5">□ 물리적 저장공간</td></tr>
<tr><td>예상 지원
방안</td><td colspan="5"></td></tr>
<tr><td>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td><td colspan="5">■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 □ 기타 ( )</td></tr>
<tr><td>수집 협의
내용</td><td colspan="5">□ 수집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_추후 협의</td></tr>
<tr><td>특이사항</td><td>아키비스트
주기</td><td colspan="5"></td></tr>
</table>

나. 케이스파일

<table>
<tr><th colspan="7">서울역사구술자료집 발간 및 구술채록 케이스파일</th></tr>
<tr><td colspan="2">케이스파일 식별번호</td><td>17-CA</td><td>버전 정보</td><td>v.1.0</td><td>최근수정일</td><td>2018.08.03</td></tr>
<tr><th colspan="7">소장처 인터뷰 정보</th></tr>
<tr><td>회차</td><td colspan="4"></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17-CA-1st</td></tr>
<tr><td rowspan="6">1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07.30 11:10-12:00</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서울역사편찬원</td></tr>
<tr><td>인터뷰이명</td><td>서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02-413-9537</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joonseok@seoul.go.kr</td></tr>
<tr><td>인터뷰어명</td><td>박지현</td><td>녹취파일 링크</td><td></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서울역사구술자료집 발간 및 구술채록 사업을 진행
□ 구술채록자료를 서울역사구술자료집으로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보급
□ 구술자료의 영역을 시정사, 주제사, 생애사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채록
· 시정사 : 역대시장 시정활동, 조직변천과 주요업무, 서울시의회 활동 등
· 주제사 : 서울시 공간변화, 도시개발 및 시민생활과 관련된 주제
· 생애사 : 서울에서 50년 이상 거주한 시민, 각 구별로 2인~3인 선정
□ 2018년 구술자료집은 약 1,000부 정도 발행할 예정이며, 구술채록 시간은 95시간 예정
□ 서울역사구술자료집은 현재 8권까지 발행 (1년마다 1권씩 발행)_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http://history.seoul.go.kr/list/?u=26)를 통해 열람가능
□ 면담자를 선정하여 구술채록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CD와 녹취록 3부가 생산됨
□ 현재 CD의 내용을 외장하드로 옮겨 담는 작업을 진행 중
□ 녹취록 3부 중 1부는 열람용이며 2부는 자료실에 따로 보관
□ 구술내용은 구술자료집 발간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_다른 용도로 활용 시 구술자의 동의 필요</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colspan="2">□ 물리적 저장공간</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colspan="2"></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5"></td></tr>
</table>

3.1.11. 서울문화재단 (메모리인서울 프로젝트)

가. 리드파일

<table>
<tr><th colspan="7">서울문화재단 리드파일</th></tr>
<tr><td colspan="2">식별번호</td><td>15-
LE</td><td>버전 정보</td><td>v.1.0</td><td>최근수정일</td><td>2018.08.20</td></tr>
<tr><td rowspan="11">리드
정보</td><td>리드명</td><td colspan="2">서울문화재단</td><td>리드 유형</td><td colspan="2">□ 개인 □ 가문 ■ 단체</td></tr>
<tr><td>리드의
다른 이름</td><td colspan="2">메모리인서울 프로젝트</td><td>리드 영역</td><td colspan="2">■ 공공 □ 협치 □ 민간</td></tr>
<tr><td>리드 연락처</td><td colspan="2">02-3290-7141</td><td>리드 이메일</td><td colspan="2"></td></tr>
<tr><td>리드 주소</td><td colspan="2">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서울문화재단</td><td>리드 웹주소</td><td colspan="2">http://www.sfac.or.kr/memoryinseoul/</td></tr>
<tr><td>리드
소개 및 연혁</td><td colspan="6">역사가 되는 목소리, 예술이 되는 스토리'를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서울문화재단의 기억관련 사업. 메모리인서울프로젝트는 빠른 변화속에 사라져가는 서울의 기억을 사람들의 구술, 목소리로 듣고 정리해 미래 세대에 전하고자 기획되었다. 2013년부터 16년까지 총 4기의 기억수집가를 선발해 소양교육을 받은 후 수집활동을 진행했다.</td></tr>
<tr><td>리드
대표자명</td><td colspan="6"></td></tr>
<tr><td>리드 대표자
연락처</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4">리드 구성원
정보</td><td colspan="2">리드 구성원명</td><td>리드 구성원 역할</td><td>리드 구성원
연락처</td><td colspan="2">리드 구성원 이메일</td></tr>
<tr><td colspan="2">장OO</td><td>팀장</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김OO</td><td>담당자</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4">리드 관계
정보</td><td colspan="2">리드 관계 단체/인물명</td><td>관계 범주/형식</td><td colspan="3">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 기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 기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4">리드
접촉정보</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인터뷰
일시</td><td>인터뷰
장소</td><td>인터뷰어명</td><td>인터뷰이명</td><td>최근 수정일</td></tr>
<tr><td>15-CA-1st</td><td>2018.5.29</td><td>서울문화
재단 사무실</td><td>임태원, 박지현,
전미정</td><td>장OO, 김OO</td><td>2018.6.26</td></tr>
<tr><td>15-CA-2nd</td><td>2018.8.20</td><td>서울문화
재단 사무실</td><td>임태원, 박지현</td><td>장OO, 김OO</td><td>2018.8.20</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able>

<table>
<tr><td rowspan="5">보유
기록물
정보</td><td>아카이브명</td><td colspan="3">서울문화재단</td></tr>
<tr><td rowspan="4">주요 컬렉션
소개</td><td>컬렉션명</td><td>구분</td><td>설명</td></tr>
<tr><td>메모리인서울 프로젝트</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연도별 생산자 목록]
2013년 약 439건, 2014 년 약 756건,
2015년 약 834건, 2016년 약 118건

· 수집 관련 활동 : 메모리버스,
콘텐트 삽화, 웹툰 제작, 도시게릴라
현장 인터뷰, 이동식스튜디오 공모전,
팟캐스트 오픈, 삼풍백화점 붕괴
창작판소리 공연, 메모리인한강 전시,
메모리인서울프로젝트 전시, 이동식
스튜디오 운영 등
·기획 주제 : 충무로(13년), 삼풍백화점/
동대문/월드컵 (14년), 전통시장/
여성생애사/종로3가(15년), 외국인이
기억하는 서울/피맛골 이야기/오래된
상점 및 장인/1997년 IMF(16년)</td></tr>
<tr><td>서울을 모아줘</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박물관도시 프로젝트로 사진, 책, 교복 등
개인적·사회 적 가치를 지닌 물품들과
정보, 이야기를 수집함</td></tr>
<tr><td colspan="3">(+)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7">보유
기록물
정보</td><td>시정기록
연계 링크</td><td colspan="3"></td></tr>
<tr><td>보유기록물
구분</td><td colspan="3">■ 전자 ■ 비전자</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유형</td><td>전자</td><td colspan="2">■ 문서 ■ 사진 ■ 영상 ■ 음성 □ 기타 (　　)</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 문서 □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 기타 (　　)</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규모</td><td>전자</td><td colspan="2">구술 위주 오디오자료, 5개의 외장하드(1개당 2TB), 파일 목록 정리된 상태
(2018년 초반).
2000여 건의 구술 기록 및 인터뷰이 현장사진
(전문 사진가의 촬영은 아니므로 활용의 한계 있음)

□ 2013년
계획서 88개/동의서287개/기록지128개/음원136개/기타126개
□ 2014년
계획서 18개/동의서473개/기록지445개/음원439개/기타378개
□ 2015년
계획서 85개/동의서512개/기록지597개/음원594개/기타505개
□ 2016년
계획서 88개/동의서113개/기록지118개/음원118개/기타113개</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평, m, kg 등)</td></tr>
<tr><td>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td><td colspan="3"></td></tr>
</table>

<table>
<tr><td rowspan="3">보존
관리
현황</td><td rowspan="2">보유기록물
상태</td><td>전자</td><td>5개의 외장하드(1개당 2TB), 컴퓨터 내에 보관</td></tr>
<tr><td>비전자</td><td></td></tr>
<tr><td>관리 현황</td><td colspan="2">□ 메모리스서울 홈페이지(http://www.sfac.or.kr)에서 콘텐트 제공.
홈페이지 서비스 종료 예정임.
□ ‘서울을 모아줘’ 수집기록은 서울시민생활사 박물관으로 이관함.</td></tr>
<tr><td rowspan="4">협력방안</td><td>리드 요구</td><td colspan="2">□ 해당 사업들이 종료되고 담당자가 없어지면서 해당 기록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서울문화재단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기록이 축적되나 사업 수행 위주여서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유실되고 있음
□ 사업이 종료되고 담당자가 없어 데이터의 장기적인 관리가 힘듦
□ 이관을 위한 저작권, 개인정보 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자문이 필요함
□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td></tr>
<tr><td>예상 지원
방안</td><td colspan="2">위탁관리, 위탁관리를 위한 법적 자문 시행</td></tr>
<tr><td>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td><td colspan="2">□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 □ 기타 ( )</td></tr>
<tr><td>수집 협의
내용</td><td colspan="2"></td></tr>
<tr><td>특이사항</td><td>아키비스트
주기</td><td colspan="2">□ 사업 결과는 담당자가 직접 관리하며, 사업 종료 또는 담당자가 교체되면 산출물 관리가 되지 않음</td></tr>
</table>

나. 케이스파일

<table>
<tr><th colspan="7">서울문화재단 케이스파일(접촉파일)</th></tr>
<tr><td colspan="2">케이스파일 식별번호</td><td>15-CA</td><td>버전 정보</td><td>v.2.0</td><td>최근수정일</td><td>2018.06.26</td></tr>
<tr><th colspan="7">소장처 인터뷰 정보</th></tr>
<tr><td>회차</td><td colspan="4"></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15-CA-1st</td></tr>
<tr><td rowspan="5">1차</td><td>인터뷰 일시</td><td>2018.5.29
16-17시</td><td>인터뷰이명</td><td>장OO, 김OO</td><td>녹취록 링크</td><td></td></tr>
<tr><td>인터뷰 장소</td><td>서울문화재단
3층 회의실</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td></tr>
<tr><td>인터뷰어명</td><td>임태원,
박지현,
전미정</td><td>녹취파일
링크</td><td>https://drive.google.com/open?id=1VGAJOOElfhvEir5yb8dLz1TgUpmglmNU</td><td>사진 링크</td><td>https://drive.google.com/open?id=1qIDj5Fp6lWSXsthaSagHIIilZUWR-Pwc</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 회의 내용
1) 현재 상황 : 5개의 외장하드, 파일 목록 정리된 상태(2018년 초반).
데이터 유지에 대한 불안감. 현재 사업은 폐지 상태. 아카이브 홈페이지 살아있어 문의가 있음.
업무협약 좋고 자료 이관을 적극적으로 원함.
*2017년 행정감사. 시이원. 축적된 자료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함.
당시 본부장님이 향후 긴밀하게 서울기록원과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 답변해놓은 상황.
2) 우려 사항 : 법적 해석에 대한 우려. 저작권, 개인정보활용 등.
이관에있어서 법적자문에 대한 부분 체크 필요.
"밖에서 보는 거랑 현장에서 관리를 하는 거랑 차이가 있고 열악하게 보관되어 있는 상황.
기록원이 해주시는 게 제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3) 앞으로의 일정
(문화재단) 자료 리스트 보내주기로, 재단 내부 협약에 대한 논의와 검토
-> (서울기록원) 자료 리스트 확인 후 목록 양식 샘플, 협약서 양식 샘플 보내기로, 법적 자문을 해결하기로 함.

□ 이슈
1) 앞으로 메모리인서울 프로젝트뿐 아니라 재단의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를 연결하는 협약진행.
2) 재단의 자치구 문화재단 사업들(결과보고, 영상 등 자료), 서울 전역의 문화활동 관련된 기록의 공유로 확장. 아카이브가 문화로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진행해보면 어떨까 제안.
3) 예술의 사회적가치 확산. 그 중 하나가 416 기억저장소, 아티스트나 활동가는
현장이 너무 긴박하기 때문에 아카이브할 여지가 없음. 서울문화재단재단이 아카이브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아카이빙만을 위한 사업을 하기는 애매함. 전문적아카이빙 시스템이 없음.
4) 문화재단과 기록원의 파트너십 관계 구축 제안. 문화재단의 아카이빙은
3-5년 주기로 사업이 없어지면 기록이 다 사라진다는 점. 걱정.</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colspan="2">□ 메모리인서울 이관
□ 서울문화재단과의
업무협약</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colspan="2">□ 메모리인서울 이관
□ SDA와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5"></td></tr>
</table>

3.1.12. 금천문화재단

가. 리드파일

<table>
<tr><th colspan="7">금천문화재단 리드파일</th></tr>
<tr><td colspan="2">식별번호</td><td>42
-LE</td><td>버전 정보</td><td>v.1.0</td><td>최근수정일</td><td>2018.8.17</td></tr>
<tr><td rowspan="6">리드 정보</td><td>리드명</td><td colspan="2">금천문화재단</td><td>리드 유형</td><td colspan="2">□ 개인 □ 가문 ■ 단체</td></tr>
<tr><td>리드의 다른 이름</td><td colspan="2"></td><td>리드 영역</td><td colspan="2">□ 공공 ■ 협치 □ 민간</td></tr>
<tr><td>리드 연락처</td><td colspan="2">02-809-8240</td><td>리드 이메일</td><td colspan="2">gcfac@naver.com</td></tr>
<tr><td>리드 주소</td><td colspan="2">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9층</td><td>리드 웹주소</td><td colspan="2">http://gcfac.or.kr/</td></tr>
<tr><td>리드
소개 및 연혁</td><td colspan="5">□ 소개
'내 마음의 문화발자국'
이 슬로건 아래 금천문화재단은 문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활성화 여건 조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하여 2017년 7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은 복합문화공간 금나래아트홀을 통한 예술향유 기반조성,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도시재생, 건강한 생활예술지원을 통한 일상 속 문화예술 활성화 등 미래가치를 가진 금천문화특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연혁
2015.11 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설립
2016.01 금천문화재단 TF팀 설립
2017.01 금천문화재단 조례 제정
2017.06 금천문화재단 법인등기
2017.07 금천문화재단 발족, 금천구립도서관(4개소) 위탁
2017.08 금천문화재단 출범식
2017.09~ 문화사업 - 생활문화거버넌스 25,
공연사업 – 연극 '이등병의 엄마'
2017.10~ 문화사업 – 지역문화진흥사업 – 도시성장 프로젝트 : 스무살 금천 (우리마을 문화통장)
공연사업 – 평창문화올림픽 '월드컬처콜라주'
2017.11~ 문화사업 – 지역문화진흥사업 – 빈집프로젝트
공연사업 – 춤으로의 여행
공연사업 – 예술의 전당 공연실황_SAC on Screen (오페라 '마술피리')
2018.02~ 문화사업 – 지역문화진흥사업 – 빈집프로젝트
공연사업 – 춘향이의 첫날밤
2018.04~ 문화사업 – 생활문화거버넌스 25
공연사업 – 2018 문화가 있는 날_작은 음악회 <금천아트리지 1>
2018.05~ 문화사업 – 지역문화진흥사업 – 2018 우리마을 문화통(通)장
공연사업 – 댄싱뮤지엄,
우리은행이 함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음악회,
2018 문화가 있는 날_작은 음악회 <금천아트리지 2>
2018.06~ 공연사업 - 움직이는 맵 – 젊음의 금천, 꿈꾸는 금천
2018 문화가 있는 날_작은 음악회 <금천아트리지 3>
2018.07~ 공연사업 – 서울튜티앙상블 춤으로 만나는 음악ㅇ야기
소나기
2018 문화가 있는 날_작은 음악회 <금천아트리지 3></td></tr>
<tr><td>리드 대표자명</td><td colspan="5">유OO</td></tr>
<tr><td>리드 대표자
연락처</td><td colspan="5">bleueazur17@gmail.com</td></tr>
</table>

<table>
<tr><td rowspan="6">리드 정보</td><td rowspan="4">리드 구성원 정보</td><td>리드 구성원명</td><td>리드 구성원 역할</td><td>리드 구성원 연락처</td><td>리드 구성원 이메일</td></tr>
<tr><td>유OO</td><td>대리</td><td></td><td>bleueazur17@gmail.com</td></tr>
<tr><td>김OO</td><td>프로젝트 매니저</td><td></td><td>munhwatongjang@gmail.co</td></tr>
<tr><td>하OO</td><td>부매니저</td><td></td><td></td></tr>
<tr><td colspan="4">(+)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3">리드 관계 정보</td><td>리드 관계 단체/인물명</td><td>관계 범주/형식</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 기타</td><td colspan="2"></td></tr>
<tr><td></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 기타</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4">(+)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4">리드 접촉정보</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인터뷰 일시</td><td>인터뷰 장소</td><td>인터뷰어명</td><td>인터뷰이명</td><td>최근 수정일</td></tr>
<tr><td>42-CA-1st</td><td>2018.6.19</td><td>금천마을 공동체 지원센터</td><td>임태원, 박지현, 전미정, 이원영</td><td>유OO, 김OO, 하OO</td><td>2018.6.20</td></tr>
<tr><td>42-CA-2nd</td><td>2018.8.8</td><td>금천마을 공동체 지원센터</td><td>임태원, 박지현, 이원영</td><td>유OO, 김OO, 하OO</td><td>2018.8.17</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5">보유 기록물 정보</td><td>아카이브명</td><td colspan="4">금천문화재단</td></tr>
<tr><td rowspan="3">주요 컬렉션 소개</td><td>컬렉션명</td><td>구분</td><td colspan="2">설명</td></tr>
<tr><td>2018 우리마을 문화통(通)장</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colspan="2">지원사업명: 서울문화재단 2018 자치구 지역문화 네트워크·프로젝트
내용 : 금천의 지역문화를 예술가와 금천구민이 함께 발견하고 만들어 나가는 지역밀착형 문화예술프로젝트
기간 : 2018년 6월 ~ 12월
대상 : 금천구 주민 활동가, 지역예술가 등
거점공간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금천마을예술창작소 어울샘, 독산1동 마을활력소, 박미사랑마을회관</td></tr>
<tr><td>금천문화링크</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colspan="2">지원사업명: 서울문화재단 2018 자치구 지역문화 네트워크·프로젝트
내용 :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예술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온/오프라인 미디어로 기록, 금천구의 자원들을 신선하고 흥미롭게 수용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기간 : 2018년 7월 ~ 12월
결과물 : 온라인플랫폼 (7월 개설 예정), 오디오/영상 (온라인 포스팅 첨부), 책자 (12월 제작 예정)</td></tr>
<tr><td colspan="4">(+) 추가 가능</td></tr>
<tr><td>시정기록 연계 링크</td><td colspan="4"></td></tr>
</table>

보유 기록물 정보	보유기록물 구분	■ 전자 ■ 비전자	
	보유기록물 유형	전자	■ 문서 ■ 사진 ■ 영상 □ 음성 □ 기타 ()
		비전자	■ 문서 □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 기타 (리플렛)
	보유기록물 규모	전자	문서(회계서류, 공문서, 사업별 서류로 약 2000개 이상, 300GB 이상) 사진 약 300장(100GB 이상) 영상 문화사업 아카이빙 영상, 공연영상 (100GB 이상)
		비전자	아카이빙 책자 사업별 최소 10권, 포스터 및 리플렛 등
	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		
보존 관리 현황	보유기록물 상태	전자	핸디소프트, 개인 외장하드, 컴퓨터 내에 보관
		비전자	사무실 책장에 보관
	관리 현황	사무실, 창고에 말려 보관되어 있음.	
협력방안	리드 요구	1) 자치구 문화재단 내 공유 자료 플랫폼 (예: Dropbox 등) : 개인별 컴퓨터,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어 서로 공유하기 어려움, 사업담당자/PM 변경 혹은 퇴직 시 인수인계 수월, 관련 업무 진행자 공유 자료 참고 2) 아카이빙 구축 가이드라인/팁 제공 : 아카이빙 구축 고민들을 정리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공되면 좋을 것 같음	
	예상 지원 방안		
	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	□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 □ 기타 ( )	
	수집 협의 내용		
특이사항	아키비스트 주기		

나. 케이스파일

<table>
<tr><th colspan="7">금천문화재단 케이스파일</th></tr>
<tr><td colspan="2">케이스파일 식별번호</td><td>42-CA</td><td>버전 정보</td><td>v.2.0</td><td>최근수정일</td><td>2018.8.10</td></tr>
<tr><th colspan="7">소장처 인터뷰 정보</th></tr>
<tr><td>회차</td><td colspan="4"></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42-CA-2nd</td></tr>
<tr><td rowspan="4">1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6.19</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td></tr>
<tr><td>인터뷰이명</td><td>유OO,
김OO,
하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bleueazur17@gmail.com</td></tr>
<tr><td>인터뷰어명</td><td>임태원
박지현
전미정
이원영</td><td>녹취파일 링크</td><td>https://drive.google.com/open?id=1DQHj_iQi8SBAt5vl4jATetXvYNJHxgdO</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참가단체 소개]
금천문화재단 유OO 대리 (금천문화재단은 작년 7월에 설립. 본격적 사업을 운영하며 크고작은 문화의 일을 기록하고 싶어서 참여. 하나의 금천구의 열심히 일하는 청년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금천문화재단 하OO 부매니저 (이번 달부터 업무 시작함. 금천에 처음이라 금천을 알아가고 싶음)
금천문화재단 김OO 네트워크 프로젝트 매니저 (지역아카이브에 관해 정보를 얻고 싶음)

[기록활동 고민]
유OO: 작년에 출범해서 공식적으로 3개의 출판물이 나왔다. 계속 (출판물이) 발간이 되고, 공연 포스터도 쌓인다. 재단의 실적이기도 하지만 금천구에서 유치한 실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쌓여가는 자료 속에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에 고민이 있다.
전미정 : 전담인력이 없어서 더 업무를 맡아야하시는거죠?
유OO : 네. 금천구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자료를 만들 수도 있다. 얘기를 더 들어봐야하는 부분도 있어서 공유가 필요하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전미정 : 공연관련 영상이나 사진 등이
유OO : 지금 그게 자리를 차지하고 다 말려 있다. 그런 것이 아쉽다.
전미정 : 데이터 공간이 필요하시겠어요.
유OO : 네, 필요합니다. 저희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것도 있는데, 찾아보면 찾기가 힘들다. 검색어가 딱 맞아야하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 섞이다보니까.

이원영 : 어떤 지원사업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남OO : 라디오 같은 서울시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지원받고, 마을교과서는 교육청&구청의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으로,
이OO : "탑골이야기" 구청 문화체육과와 도서관이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보자 했던 것 같고, 공모사업은 아니었다.
남OO : 은행나무도서관은 자비로 하신 것 같고. 지원 받은 것은 기관의 로고가 들어있다. 은행나무도서관은 10년 넘은 사설도서관으로 소식지도 발행한다. 마을센터에서 발행하는 자료들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는다.
유OO ; 서울문화재단에서는 기록이 될 만한 내용을 담은 결과물을 만들 때는 공모사업을 진행한다.</td></tr>
</table>

<table>
<tr><td rowspan="2">1차</td><td>리드 요구사항</td><td colspan="2">□ 향토자료를 찾기 어려움. 한곳에 자료가 모였으면 함
□ 영상파일을 포함해 무제한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한 온라인저장공간 (구청의 공공서버 등)
□ 기록물을 만들기까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매뉴얼
□ 다양한 지원사업과 기록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사이클
□ 기록물 생산을 위한 교육과 작업공간, 기자재(카메라, 편집장비 등) 대여 등의 서포트
□ 기록에 대한 의미, 중요성, 활용방안 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colspan="2">□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한 서버 제공 가능 확인</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4">2차 면담 진행</td></tr>
<tr><td rowspan="4">2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8.8</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td></tr>
<tr><td>인터뷰이명</td><td>유OO, 김OO, 하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bleueazur17@gmail.com</td></tr>
<tr><td>인터뷰어명</td><td>임태원
박지현
이원영</td><td>녹취파일 링크</td><td>https://drive.google.com/open?id=1tl0UMt4m79GHalOYYDRbQDgU0hhdQkSo</td><td>사진 링크</td><td>https://photos.app.goo.gl/Rr6vkpcrHx5XLLHR8</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예상지원방안 안내]
박지현:
1) 자료보관장소 > 서울기록원은 물리적인 저장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디지털장소로 연계하도록 구축을 하는 단계. 확실하는 '보존기관의 검색서비스'는 가능.
임태원: 디지털아카이브다. 웹하드와 같은 저장공간. 폴더를 정리없이 올렸다 내렸다하는 거라면, 디지털아카이브는 정해진 규격대로 입력하고, 행망 안에 있어서 자유롭게 등록하는 게 힘들고 절차가 필요한 게 있다.
남OO: 절차가 복잡하면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될 것
임태원: 웹하드를 새로 운영하는것도 고민하지만 용량의 문제, 데이터 서버를 증설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다.
남OO: 조직체 소수의 결정에 따라. 내 자료가 영원히 할만큼 가치가 있나?는 물음표. 그럼에도 저장공간이 필요하다는 건,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많은 데이터는 이용하기가 힘들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을 안에서 공유하고 활용하면 좋겠다. 홈페이지는 이제 만들었는데, 잘 활용이 되나 싶다. 솔직히 '밴드'가 활성화되어 있어, 1000명이 넘는 주민이 소통이 한다. 밴드를 통해서 자신들의 활동이나 행사를 홍보하는 역할, 지역의 문제나 현안을 문제제기를 한다. 지난 자료가 아카이빙이 안되고, 자료가 사이즈가 축소가 되어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접근성"도 중요하다. 더 많은 자료를 공유하려면 홈페이지의 서버 용량을 키워야 하는 예산 문제가 있다.
이OO: 자체서버 운영할 수 있는, 마을 단위로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
임태원: 디지털아카이브는 웹하드나 밴드처럼 일하면서 쓰는 용도가 아니라 자료를 보존하는 용도다.
남OO: 내 자료가 훌륭하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
임태원: 민간에서 판단해야한다. 기록원이 판단하지 않는다.</td></tr>
</table>

2차	주요 인터뷰 내용	2) 매뉴얼(가이드) > 매뉴얼/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기획 서울시의 민간기록관리매뉴얼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남OO: 두꺼우니까 내가 급한 부분만 본다. 아카이브가 주업무가 아니라 제대로 보지 않았다. 3) 민간기록연구사/기록관리협의체 > 3개년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진행할 것 4) 기록작업공간/기자재대여 > 공간은 어려우나, 기자재 대여(카메라, 편집장비 등)는 가능 유OO: 어떻게 기자재를 대여받나? 남OO: 우리동네 공구보건소 동별로 설치가 가능한가? 은평 기록원으로 가야하나? 여유가 된다면 우리 동네 아카이브 대여소들이 설치되면. 미디어센터와 협의해서 배치할 수도 있을 거다. 임태원: 기자재에 혼란이 있었다. 편집장비가 아니라 보존물품이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보존상자/보존제품의 제공/ 대형스캐너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캔을 대신한다든지. [기록물 활용에 관한 저작권/초상권 등의 문제] 남OO: 민간기록 수집 조례가 있나? 임태원: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수집 조항이 있다. 향토자료수집이라는 조항을, 기록원에서 민간 기록 수집에 대한 조항이 넣을 것. 이OO: 서울시조례인가? 지자체에도 이런 활동을 요청, 권고하고, 지자체도 필요하구나 각인이 필요하지 않나. 구 차원에서, 공공은 보존 연한을 정한다. 민간은 기록연한이 취사선택을 해서, 무엇을 기록에 남길 것인가를 본다면. 지역 단위에서 선정 위원회를 만들 것인가? 알음알음할 게 아니라, 민간기록물지정위원회 등이 만들어질 근거가 필요하다. 중요한 건 원본사진인데, 개인이 공공에게 과연 내놓을 것인가? 유OO: 자치구별로 보존을 고민할 것인지? 문화재단도 구별로 12~3개가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DB를 어떻게 관리하는냐도 고민이 된다. 서울문화재단에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데, 뿌린 공모를 어떻게 묶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 문화재단 내의 물리적인 공간이 없어서 포스터가 말려있다. 각 연도별로 공연 자료들이 모아져있는데, 언젠가는 모아져서 파기가 된다. 시작하는 재단이 준비를 잘 해서 잘 모아놓으면 좋겠다. 각 담당자들이 DB이 하지만, 한계가 생길 것이다. 이제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 서울문화재단에서 공모하는 것도 현재 문화정책에 따라 만들어진다. 자치구 문화자원 사업, 문화재단 공모사업 등을 통해 이 시기에는 이러한 문화정책이 있었고, '이 시대의 것이 만들어지나'를 볼 수 있는데. 사업이 끝나면 그걸로 끝이 난다. 디지털아카이브에 올라가는 것에 판단기준, 저작권에 대해서, 공익성이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타켓팅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어서, 교육이 먼저 있으면. 절차가 많이 되는 것이 되는 것에 어디든 담당자가 생겨야할 것이라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유롭게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의 문제가 있다. 공연백서는 공개를 위해서 만드는 데, 공식적으로 개재를 할 때 저작권이나 초상권에서 어려움이 있다. 남OO: 공동체센터도 공모사업, 네트워크사업, 축제 등 다양하게 한다. 동영상이든 사진을 모으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으고 있지 않다. 서울 전체적으로는 사업계획서 정도가 공유되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센터 직원이 같이 공유하는 톡방에서 홍보전단 정도 자랑질 하는 수준에서 공유되는 수준이라, 이전 비슷했던 사업을 계획이든 결과보고서를 쓸 때 활용도 가능할 텐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박지현: 사적기록이 공적기록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 민간 단체들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많았다. 법적자문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 결과를 공유하겠다. 임태원; 애초의 사업계약에 2차 저작에 대해서 조항이 있다. 기록원에서 수집할 때의 자료 활용 동의서 서식을 공유해드리겠다. [아카이빙 프로젝트 활동과 자료를 찾는 어려움] 김OO: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하는데, 해방촌마을에 자료집이 있다고 해서 받고 싶어서 메일을 보냈는데. 회신이 없다. 참고할 만한 사업들이 궁금한데 어디에서 무엇을 진행하는지도 모흔다. 남OO: 영역을 넘어서 괜찮은 사업이라면 활용하면 좋겠다는 자료들이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김OO: 공연홍보 마케팅의 자료를 어떻게 찾아야할까. 모아져 있는 곳이 없으니 인스타 등으로 후기를 찾게 된다.

2차	주요 인터뷰 내용	박지현: 서울기록원은 "플랫폼"의 역할을 원한다. 저기 단체와 연락해보고 싶다, 그 단체에 연락을 해서 연계를 하고 싶은 마음도. 네트워크를 통해 단체마다 참고/중복되는 사업이 많아 연결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다. 임태원: 각 활동단체를 만나면, 대표/활동 내용을 정리를 해나갈거다. 온라인 공개되어 서로 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김OO: 활용할 자료, 유용한 자료가 많았으면 좋겠다. 예술경영위원회도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남OO: 기록원에서 디지털아카이브화 하려고 하는 기록은 무엇인가? 임태원: 마을공동체(지역공동체) 기록이다. 시민 스스로한 기록활동. 삶의 터전과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것을 남기고자 한다. 남OO: 네이버처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올리는 것이 가능한지, 평범한 것인지, 스페셜한 것을 담고자 하는지?임태원: 서울기록화하려면 큰 서울 단위로는 접근이 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는게 우선 필요하다. 아쉬운 건 편하게 이용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방법으로 찾아갈 것이다. 남OO: 지역도서관에 한 서가를 마을에 내놔라, 시흥도서관에서는 방통대 교재 서가가 따로 있다. 모든 도서관에 비치하라는 게 구 하나를 내줘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해보고 이렇게 하니 마을아카이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이OO: 개인이 갖고 있거나 구청 어딘가에 처박힌 자료들을, 도서관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행정은 시보, 구보, 의회보 등을 만들며 자료화하는데, 민간에서 어디까지 자료로 볼 것인가? 어디에 있는가 등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금천에서 만들어진 '책자'를 취합하면, 금천에서 만드는 책자들이 모아서 만드는 것은 어떨까? 임태원: 마을도서관은 마을아카이브보다 생기기 쉬울 것 같다. 도서관과의 협의는, 기타 문화기관과 어떻게 협력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다. 서울을 기록화한다는 것이 기록만, 아카이브만 가지고 가능한 건 아니다. 여러 문화 연구기관에서 서울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러 기관과의 협력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아카이브를. 향후 2년, 3년 가게 되면서 운영체계를 확장해나갈 것이다. 박지현: 예상지원방안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것 같아 죄송한 마음. 앞으로 서울기록원과 협력하는 단체로서 단계적으로 의논해나갈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자 함. 당장은 예상지원방안이 별론데 생각할 수 있어도, 추후에는 만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정해나갈 수 있다. 남OO: 협력네트워크 구성의 단위는? 분야가 정해져있나? 박지현: 지금 고려대상은 자생적으로 기록화활동을 하는 단체다. 크게 마을공동체, 마을미디어, 독립출판사 등을 고려하고 리스트를 계속 만들어가고 많다. 기준에 대해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다.

<table>
<tr><td rowspan="3">2차</td><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3">[기록물 보관]
유OO: 기록물을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가?
임태원: 기록관이나 단체가 준비가 될 때까지 위탁관리가 가능하다.
남OO: "전당포"네.
임태원: 금천구의 기록이 금천에 있어야 의미가 있다.
이OO: 이러한 고민들이 있다는 것. 기록하는 것과 보존하는 것이 기록활용하는 것과 다르다. 기록은 어떻게 활용은 어떻게 할건지를 같이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서울시의 지자체의 차원에서 할 건지를.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분명이 있고, 생산말고도 '기록물을 공유'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한다. 구행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할 것이냐.
임태원: 협약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 서울기록원이 시민기록, 시민사회의 기록이 생산되고 아카이브가 되는 근거와 수요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예산을 달라고. 자치구 단위에서 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자 한다. 방향을 유도하고,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각하고 있다.

남OO: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든 뒤에, 자극 없이 구에서 움직일까? 구에서 만들 때 참고가 될 텐데, 그러한 자극이나 촉매제가 없으면 구 의원이 움직일까?
임태원: 협력의 층위가 다양하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미디어지원센터, 문화재단가 주로 자체 네트워크를 가지고, 많은 지역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기관과 '진하게'. 협력모델을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 당장 물리적인 보관공간을 지원하기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수요로서) 제2서고를 만들 수도,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많이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금천마을공동체기록관]
남OO: 8월말까지 공간을 사용하고, 9월 초중순에 리모델링할 예정. 센터는 독산2동 옛날청사로 잠시 이주. 자료전시공간으로 회의실을 사용할 예정. 자료보관장소를 별도로 만들어야하는데, 대대적으로 할 수 없다. 2층 센터사무실, 마을공동체 공유사무실로 꾸미고, 회의실은 '금천1번가' 주민들이 마을 의제를 상시발굴소(공론장)을 만들 예정(행정안전부).

/
남OO: 앞으로 만들어질 기록관에서 기록물 대여/기록관리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
임태원: 도서 등이 여러권이 있다면 대출이 되나, 1-2권인 경우는 대출이 어려울 것이다.
남OO: 기록관 운영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 TF팀이 구상하는 단계로, 전문가가 아니지만, 활동가들인지라 비전문가로서 막연한 부분이 있다.
임태원: 주요안건을 보내주시면, 가능한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겠다.</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디지털아카이브로 공유할 자료는 어떻게 선별해야하는가?
□ 기록물 활용하며 생기는 저작권, 초상권 문제에
□ 공공의 기록, 민간의 기록이 한번에 보일 수 있는 공간/백서 등이나 이를 모을 수 있는 조례</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매뉴얼 및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기획 (향후년도)
□ 저작권/초상권 관련 서류양식 공유
□ 조례 개정 등 장기적인 방법을 찾아가고 있음</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3"></td></tr>
</table>

3.1.13. 성북문화재단

가. 리드파일

<table>
<tr><th colspan="8">성북문화재단 리드파일</th></tr>
<tr><td colspan="2">식별번호</td><td>41
-LE</td><td>버전 정보</td><td>v.1.1</td><td>최근수정일</td><td colspan="2">2018.7.26</td></tr>
<tr><td rowspan="11">리드
정보</td><td>리드명</td><td colspan="2">성북문화재단</td><td>리드 유형</td><td colspan="3">□ 개인 □ 가문 ■ 단체</td></tr>
<tr><td>리드의
다른 이름</td><td colspan="2"></td><td>리드 영역</td><td colspan="3">■ 공공 □ 협치 □ 민간</td></tr>
<tr><td>리드 연락처</td><td colspan="2">02-2038-4901</td><td>리드 이메일</td><td colspan="3">master@sbculture.or.kr</td></tr>
<tr><td>리드 주소</td><td colspan="2">서울시 성북구
아리랑로12길 4 (돈암동)</td><td>리드 웹주소</td><td colspan="3">https://www.sbculture.or.kr/</td></tr>
<tr><td>리드
소개 및 연혁</td><td colspan="6">□ 성북문화재단은 성북구민을 위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내의 구민회관, 여성회관, 씨네센터, 도서관 등 24개의 문화시설 관리와 생활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사업의 결과물을 성북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성북문화재단 발행한 문서, 영상, 음성, 포스터, 웹툰, 보도자료, 성북역사문화자원 등의 자료를 서비스함.
□ 성북구민을 위한 문화정책 수립, 문화시설 관리,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주민과 관련된 자료가 쌓임
□ ‘성북사람책도서관’ 팟캐스트와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함
□ '16 협동조합 ‘성북신나’와 함께 정릉 스카이아파트 철거 기록수집 및 전시 추진.
□ ‘성북사람책도서관’은 성북구청, 성북구립도서관,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협업</td></tr>
<tr><td>리드 대표자명</td><td colspan="6"></td></tr>
<tr><td>리드 대표자
연락처</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5">리드 구성원
정보</td><td colspan="2">리드 구성원명</td><td>리드 구성원 역할</td><td>리드 구성원
연락처</td><td colspan="2">리드 구성원 이메일</td></tr>
<tr><td colspan="2">박OO</td><td>지역문화협력팀</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5">리드 관계
정보</td><td colspan="2">리드 관계 단체/인물명</td><td>관계 범주/형식</td><td colspan="3">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성북신나/박OO</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기타</td><td colspan="3">정릉 스카이아파트 전시 기획</td></tr>
<tr><td colspan="2"></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기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기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4">리드
접촉정보</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인터뷰
일시</td><td>인터뷰
장소</td><td>인터뷰어명</td><td>인터뷰이명</td><td colspan="2">최근 수정일</td></tr>
<tr><td>41-CA-1st</td><td>2018.7.26.</td><td>성북문화재단
공유도서관</td><td>임태원, 이원영</td><td>박OO</td><td colspan="2">2018.7.26.</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7">(+) 추가 가능</td></tr>
</table>

<table>
<tr><td rowspan="9">보유
기록물
정보</td><td>아카이브명</td><td colspan="3">정릉스카이아파트 기록물</td></tr>
<tr><td rowspan="3">주요 컬렉션
소개</td><td>컬렉션명</td><td>구분</td><td>설명</td></tr>
<tr><td>정릉스카이아파트
기록물</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정릉 스카이아파트 기록물은
서울문화재단
<2016 정릉예술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생산/수집한 자료. 포스터, 영상, 전시 등의 결과물이 있음.</td></tr>
<tr><td></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td></tr>
<tr><td colspan="3">(+) 추가 가능</td></tr>
<tr><td>시정기록
연계 링크</td><td colspan="3"></td></tr>
<tr><td>보유기록물
구분</td><td colspan="3">■ 전자 ■ 비전자</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유형</td><td>전자</td><td colspan="2">■ 문서 ■ 사진 ■ 영상 □ 음성 □ 기타 ( )</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 문서 □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 기타 ( )</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규모</td><td>전자</td><td colspan="2">정리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파악되지 않음.</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4 BOX</td></tr>
<tr><td>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보존
관리
현황</td><td rowspan="2">보유기록물
상태</td><td>전자</td><td colspan="2">PC, 웹하드, 클라우드 서비스</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성북문화재단 공유도서관 보관되나 파악이 어려움</td></tr>
<tr><td>관리 현황</td><td colspan="3">□ 박물류는 공유도서관 창고에 박스에 담아 보관하고 간행물류는 공유도서관 서가에 보관
□ 물리적·전자적 보관 공간 및 체계적 보존·관리체계의 부재로 계속 유실되고 있는 상황
□ 성북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sbculture.or.kr/) 자료실에서 보유기록에 대한 검색 제공. 영상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음성은 팟캐스트를 통해 서비스</td></tr>
<tr><td rowspan="3">협력방안</td><td>리드 요구</td><td colspan="3">□ 성북신나, 성북문화재단이 함께 한 프로젝트로, 스카이아파트 기록물 이관 관련 협약은 성북신나와 함께 하였으면 함.
□ 성북문화재단 내부의 기록물 보관/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음. 체계적인 보관 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한 상황.
□ 서울기록원과의 협력을 위한 중간관리자 추가 면담을 요청.</td></tr>
<tr><td>예상 지원
방안</td><td colspan="3">정릉 스카이아파트 기록물 임시보관</td></tr>
<tr><td>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td><td colspan="3">□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 □ 기타 ( )</td></tr>
<tr><td></td><td>수집 협의
내용</td><td colspan="3"></td></tr>
<tr><td>특이사항</td><td>아키비스트
주기</td><td colspan="3"></td></tr>
</table>

나. 케이스파일

<table>
<tr><th colspan="7">성북문화재단 케이스파일(접촉파일)</th></tr>
<tr><td colspan="2">케이스파일 식별번호</td><td>41-CA</td><td>버전 정보</td><td>v.1.0</td><td>최근수정일</td><td>2018.07.26</td></tr>
<tr><th colspan="7">소장처 인터뷰 정보</th></tr>
<tr><td>회차</td><td colspan="4"></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41-CA-1st</td></tr>
<tr><td rowspan="4">1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07.26 15:00-16:00</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성북문화재단</td></tr>
<tr><td>인터뷰이명</td><td>박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td></tr>
<tr><td>인터뷰어명</td><td>임태원
이원영</td><td>녹취파일 링크</td><td>https://drive.google.com/open?id=13Owl6wlrwpWZwp8hjzatHCNUBRoo-LeG</td><td>사진 링크</td><td>https://photos.app.goo.gl/Hou8kofixKP5u36P7</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정릉 스카이아파트 기록물 맥락]
박OO: 서울문화재단 https://www.jungle.co.kr/magazine/24770
"2016 정릉예술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성북문화재단과 성북신나가 주관해 진행함. 도면 수집, 글쓰기, 사진찍기 등 스카이아파트를 배경으로 12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서 자기 프로젝트를 함. <율리안나>, 철거과정을 기록한 다큐 등 2개의 영상도 함께 촬영함. 프로젝트는 구글드라이브를 통해 공유함. 디지털파일은 구글드라이브와 삐용과 로샨의 컴퓨터(외장하드)에 각각 원본 보관 중.

[협약 관련]
임태원: (협약서 내용을 설명함.) 스카이아파트 기록물 원본과 목록을 이관받으나, 현재 목록이 없는 상태로 우선 이관 후 기록원에서 목록을 작성할 예정. 그 이후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협약시 공유할 것.
이원영: 법률팀을 거치는 등 성북문화재단의 절차가 따로 있나?
박OO: 성북문화재단이 물품 (이관과 관련해) 협약을 맺는 것은 처음. 협약과 관련된 문서와 사례를 남기는 것으로 중요하다고 생각. 법률팀도 처음인 일이라 우선 '이러한 행정절차로 이렇게 할 수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것. 협약 시에 성북문화재단의 이름으로만 가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음. 성북신나와 성북문화재단이 함께 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함께 이름이 들어가야할 것. 물론 문화재단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오래가는 것도 고려하지만, 앞으로 스카이아파트 관련 기록물을 이후에 쓸 가능성은 성북신나에 더 많다. 올해도 정릉 교수단지를 배경으로 기록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
임태원: 3자간 업무협약으로 진행을 해도 된다. 관련한 사항을 성북신나, 성북문화재단 담당자에게 함께 보내겠음.
박OO: 미리 로샨에게 언지를 해두겠음.

이원영: 디지털파일도 원본에 포함되어 함께 이관하면 좋음.
박OO: 사라질 것이 우려되어 그것도 좋다. 디지털 파일 용량은 대략 10-11GB 정도 됨. 디지털파일도 이관해서 기록원에서 보관하면 좋으나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정리해서 드려야하나?
임태원: 관련 기록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정리를 해서 주면 좋다.
박OO: 정리를 하면서 나도 누가 찍은 사진인지 헷갈리는 것들도 생긴다. 또 디지털 파일 정리방식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임태원: 정리할 때 한 번 찾아오겠음. 섣불리 관리방식을 제안할 수 없으니 기존의 구글드라이브 형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우선 읽기 전용으로 공유권한을 열어주면 살피겠음.</td></tr>
</table>

<table>
<tr><td rowspan="3">1차</td><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3">[성북문화재단 기록관리의 어려움/필요한 지원]
박OO: 새로 기록물이 계속 생산되는데, 보관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1) 이전 기록물을 제대로 보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계속 사라지는 것들이 생기고,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실무자들이 기록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성북문화재단은 220명의 인력이 있으며, 23-24개의 구민회관, 여성회관, 씨네센터, 도서관 등 시설관리를 함께 하기 때문에 사업 인력은 많지 않음) (2) 디지털 파일을 어떻게 보관해야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 물질들은 어떻게 보관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배운 적이 없다. (3) 현재 프로젝트별로 관리하지만, 사업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담당자가 사라지면 기록도 사라진다. 문화재단 차원에서 기록을 모으기도 하지만, 지출문서, 행정문서 위주로 사업계획서라도 남아있으면 다행이다. 올해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재단 5-6년치의 사업을 정리했는데, 그동안 360개 사업을 했다. 각 사업마다 사업명, 주최, 주관, 사업담당자, 일정만 확인해서 정리하는데 이틀 이상이 걸렸다. 인트라넷을 다 뒤졌지만 어려움이 있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사업 마무리하면서 각 사업명, 사업내용, 초기예산, 실집행예산, 주최, 주관, 지원기관 등을 한 번 정리하면 좋겠다고 생각, 내부적으로는 팀별로라도 외장하드에 사업문서를 모으자는 이야기를 했지만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4) 담당자마다 저장하는 방식이 달라 효용가치가 없을 때도 있다. 그런 아카이빙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다.
임태원: 이와 관련해 내년도에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해 나갈 수 있다. 또 내년부터 아카이빙 관련 컨설팅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다방면에서 도움을 드릴 방법을 생각할 것.
박OO: 그래도 성북문화재단은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많아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자유롭고, 담당자의 자율성이 크다. 이 부분과 관련해 팀장,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박OO: (5) 결과물도 제대로 보관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올해 홈페이지 사업을 하면서 사업마다 자료를 자료실에 업로드함. 지하 공유서고 한 켠에 있지만 누가 가져가도 모르는 상황.
임태원: 이후 생산되는 기록물을 기록원에 보관하는 것도 방법일 것.
박OO: 재단 발간물을 기록원에 모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1년에 한 번 개별 사업의 결과물 pdf 자료나 실물 3-5부 정도를 기록원에 전달, 기록원에서 제공한 아카이빙 양식에 따라서 사업 결과물을 정리해나가면 도움이 될 것.
임태원: 이후 생겨나는 기록물에 대한 관리 대행에 관한 협약을 진행해도 좋을 것.
박OO: 아카이빙이 체계적으로 되면 실무자로서 정말 좋을 것. 이와 관련해 팀장, 본부장님과 논의해보겠음.
임태원: 보고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소개서와 협약 내용을 메일로 공유하겠음.
박OO: 함께 미팅일정을 잡으면 좋을 것.
임태원: 일정을 협의해서 함께 정하기로.</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성북신나, 성북문화재단이 함께 한 프로젝트로, 기록물 이관 관련 협약은 성북신나와 함께 하였으면 함.
□ 성북문화재단 내부의 기록물 보관/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음. 체계적인 보관 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한 상황.</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3자간 협약 진행(성북문화재단, 성북신나-서울기록원)
□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이후 생산될 기록물에 대한 보관/관리에 대한 컨설팅 등을 계획중임.</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3">□ 3자간 협약으로, 성북신나, 성북문화재단 담당자가 함께 협약함. 관련 일정 조율 필요.
□ 성북문화재단 아카이브를 위한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기록물 보관/관리 어려움을 듣고, 기록원의 지원방안을 고민하는 자리 필요. 일정 조율 필요.</td></tr>
</table>

3.2. 협치영역 면담 내용

3.2.1. 서울혁신센터

3.2.2.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3.2.3.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3.2.4.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3.2.1. 서울혁신센터

가. 리드파일

<table>
<tr><th colspan="7">서울혁신센터 리드파일</th></tr>
<tr><td colspan="2">식별번호</td><td>18-LE</td><td>버전 정보</td><td>v.1.0</td><td>최근수정일</td><td>2018.6.16</td></tr>
<tr><td rowspan="11">리드 정보</td><td>리드명</td><td colspan="2">서울혁신센터</td><td>리드 유형</td><td colspan="2">□ 개인 □ 가문 ■ 단체</td></tr>
<tr><td>리드의 다른 이름</td><td colspan="2">서울혁신파크</td><td>리드 영역</td><td colspan="2">□ 공공 ■ 협치 □ 민간</td></tr>
<tr><td>리드 연락처</td><td colspan="2">070-4771-0039</td><td>리드 이메일</td><td colspan="2">hello@innovationpark.kr</td></tr>
<tr><td>리드 주소</td><td colspan="2">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통일로 684</td><td>리드 웹주소</td><td colspan="2">https://www.innovationpark.kr/</td></tr>
<tr><td>리드 소개 및 연혁</td><td colspan="5">□ 舊질병관리본부 물품 수집 및 정리 사업 (2015-2016) : 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 등으로 약 50여 년 간 사용된 서울혁신파크 일대에 남겨진 도면, 서류, 물품 등의 기록물을 수집하고 수집물 사진촬영,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사업을 진행함. 수집물을 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 '역사자료실'을 통해 서비스함
□ 안녕3동 프로젝트 (2015) : 서울혁신센터 중소건물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철거 예정인 3동(1965-2016)의 마지막을 사진과 영상 등으로 기록하고 추억하고자 진행되는 프로젝트. 전시, 웹사이트를 운영함.</td></tr>
<tr><td>리드 대표자명</td><td colspan="5">김OO</td></tr>
<tr><td>리드 대표자 연락처</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4">리드 구성원 정보</td><td>리드 구성원명</td><td>리드 구성원 역할</td><td colspan="2">리드 구성원 연락처</td><td>리드 구성원 이메일</td></tr>
<tr><td>김OO</td><td>협업파트장</td><td colspan="2"></td><td></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5">리드 관계 정보</td><td>리드 관계 단체/인물명</td><td>관계 범주/형식</td><td colspan="3">관계 내용</td></tr>
<tr><td></td><td></td><td colspan="3"></td></tr>
<tr><td></td><td></td><td colspan="3"></td></tr>
<tr><td></td><td></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4">리드 접촉정보</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인터뷰 일시</td><td>인터뷰 장소</td><td>인터뷰어명</td><td>인터뷰이명</td><td>최근 수정일</td></tr>
<tr><td>18-CA-1st</td><td>2018.5.3.</td><td>서울혁신 센터 미래청</td><td>임태원, 박지현</td><td>김OO</td><td>2018.6.16.</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4">보유 기록물 정보</td><td>아카이브명</td><td colspan="5">舊질병관리본부 기록물</td></tr>
<tr><td rowspan="3">주요 컬렉션 소개</td><td>컬렉션명</td><td>구분</td><td colspan="3">설명</td></tr>
<tr><td>舊질병관리본부 기록물</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colspan="3">2015-2016년 서울혁신파크 일대에 남겨진 질병관리본부 물품을 수집하고 정리하였음.</td></tr>
<tr><td></td><td></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r><td>시정기록 연계 링크</td><td colspan="5">-</td></tr>
</table>

<table>
<tr><td rowspan="6">보유
기록물
정보</td><td>보유기록물
구분</td><td colspan="2">■ 전자 ■ 비전자</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유형</td><td>전자</td><td>■ 문서 ■ 사진 □ 영상 □ 음성 □ 기타 (　　)</td></tr>
<tr><td>비전자</td><td>■ 문서 ■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 기타 ( )</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규모</td><td>전자</td><td>문서 및 사진의 경우, 10GB 이내</td></tr>
<tr><td>비전자</td><td>도면 107종
서류 155종
물품 81종
5톤 컨테이너 분량임.</td></tr>
<tr><td>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보존
관리
현황</td><td rowspan="2">보유기록물
상태</td><td>전자</td><td>□ 업무 담당자 PC 및 외장하드에 보관</td></tr>
<tr><td>비전자</td><td>□ 수집한 비전자기록은 홍보관에 보관 했으나 홍보관 재오픈에 따라
보존공간이 매우 부족해짐</td></tr>
<tr><td>관리 현황</td><td colspan="2">□ 홈페이지의 '아카이브'탭에서 사진(박물 포함), 영상, 간행물, 프로젝트 산출물을
서비스하고 있음</td></tr>
<tr><td rowspan="4">협력방안</td><td>리드 요구</td><td colspan="2">□ 보관 공간의 부재, 담당자의 퇴직 예정 등으로 긴급한 기록 이관을 요구함</td></tr>
<tr><td>예상 지원
방안</td><td colspan="2">□ 기록의 위탁 보존 및 관리</td></tr>
<tr><td>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td><td colspan="2">□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 □ 기타 (　　)</td></tr>
<tr><td>수집 협의
내용</td><td colspan="2">□ 舊 질병관리본부 물품 인수 및 임시보관과 관련하여 서울혁신센터와
본청의 관리·감독 부서인 사회혁신담당관, 서울기록원 간의 협조 공문을 통해 처리함</td></tr>
<tr><td>특이사항</td><td>아키비스트
주기</td><td colspan="2">케이스파일 부재</td></tr>
</table>

나. 케이스파일

<table>
<tr><th colspan="7">서울혁신센터(접촉파일)</th></tr>
<tr><td colspan="2">케이스파일 식별번호</td><td>18-CA</td><td>버전 정보</td><td>v.1.1</td><td>최근수정일</td><td>2018.06.16</td></tr>
<tr><th colspan="7">소장처 인터뷰 정보</th></tr>
<tr><td>회차</td><td colspan="4"></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18-CA-1st</td></tr>
<tr><td rowspan="5">1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05-03</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서울혁신센터 미래청</td></tr>
<tr><td>인터뷰이명</td><td>김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td></tr>
<tr><td>인터뷰어명</td><td>임태원
박지현</td><td>녹취파일 링크</td><td></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 舊질병관리본부 유류품 관련
- 현재 서울혁신파크 홍보관에 보관 중이며, 6월 중 홍보관을 새로 오픈하는 관계로 별도의 보관장소 시급
- 홍보관의 보존환경이 좋지 않아 일부 기록물들은 보존처리 필요
□ 舊질병관리본부 기록화 사업 결과물 공유 관련
- 2016년 기억발전소가 수행한 '서울혁신파크 과거 수집물 아카이브 콘텐츠 정리 및 디지털 DB프로젝트 용역사업' 결과 공유 가능
□ 협약 추진관련
- 서울혁신센터가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실과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구조여서 협약대상자 입장정리가 필요</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colspan="2">□ 舊질병관리본부 유류품은 선별을 통해 홍보관 전시에 활용하고 나머지 유류품 이관 희망</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colspan="2"></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5">협약 및 舊질병관리본부 기록물 인수</td></tr>
</table>

3.2.2.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가. 리드파일

<table>
<tr><th colspan="7">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리드파일</th></tr>
<tr><td colspan="2">식별번호</td><td>43
-LE</td><td>버전 정보</td><td>v.1.0</td><td>최근수정일</td><td>2018.7.17</td></tr>
<tr><td rowspan="11">리드 정보</td><td>리드명</td><td colspan="2">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td><td>리드 유형</td><td colspan="2">□ 개인 □ 가문 ■ 단체</td></tr>
<tr><td>리드의
다른 이름</td><td colspan="2"></td><td>리드 영역</td><td colspan="2">□ 공공 ■ 협치 □ 민간</td></tr>
<tr><td>리드 연락처</td><td colspan="2">02-809-8826</td><td>리드 이메일</td><td colspan="2">goldmaeul@gmail.com</td></tr>
<tr><td>리드 주소</td><td colspan="2">서울 금천구 은행나무로 45</td><td>리드 웹주소</td><td colspan="2"></td></tr>
<tr><td>리드
소개 및 연혁</td><td colspan="5">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금천구 내의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을 운영하며 관련 업무기록을 생산 및 보관함. 금천IN, 마을인교육 등 마을아카이브에 관심을 둔 마을공동체와 금천구마을아카이브TF, 금천구마을공동체기록관을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고민 등을 이야기하였음.
재작년(2016) 좌담회형태로 출발했고, 금천IN, 금천문화재단, 금천마을방송국, 마을인교육, 산아래문화학교, 시흥5동마을신문, 은행나무도서관 등의 지역의 단체와 활동가들과 함께 아카이브TF를 운영함. 마을기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2017년 5월에는 금천구청 로비에서 마을공동체 축제의 일환으로 '마을아카이브 전시회를 진행함.</td></tr>
<tr><td>리드
대표자명</td><td colspan="5">안OO</td></tr>
<tr><td>리드 대표자
연락처</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리드 구성원
정보</td><td>리드 구성원명</td><td>리드 구성원 역할</td><td>리드 구성원
연락처</td><td colspan="2">리드 구성원 이메일</td></tr>
<tr><td>남OO</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10">리드 관계
정보</td><td>리드 관계 단체/인물명</td><td colspan="2">관계 범주/형식</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금천IN/이OO</td><td colspan="2">□ 이전 □ 상위
■ 참여 □지원 □ 기타</td><td colspan="2" rowspan="8">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마을공동체기록관, 아카이브를 논의함.</td></tr>
<tr><td>금천문화재단/
유OO, 김OO, 하OO</td><td colspan="2">□ 이전 □ 상위
■ 참여 □지원 □ 기타</td></tr>
<tr><td>금천마을방송국/이OO</td><td colspan="2">□ 이전 □ 상위
■ 참여 □지원 □ 기타</td></tr>
<tr><td>시흥5동마을신문/장OO</td><td colspan="2">□ 이전 □ 상위
■ 참여 □지원 □ 기타</td></tr>
<tr><td>마을인교육/오OO</td><td colspan="2">□ 이전 □ 상위
■ 참여 □지원 □ 기타</td></tr>
<tr><td>산아래문화학교/임OO</td><td colspan="2">□ 이전 □ 상위
■ 참여 □지원 □ 기타</td></tr>
<tr><td>은행나무도서관</td><td colspan="2">□ 이전 □ 상위
■ 참여 □지원 □ 기타</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리드
접촉정보</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인터뷰
일시</td><td>인터뷰
장소</td><td>인터뷰어명</td><td>인터뷰이명</td><td>최근 수정일</td></tr>
<tr><td>01-CA-1st</td><td>2018.6.19</td><td>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td><td>임태원, 박지현, 전미정, 이원영</td><td>안OO, 남OO</td><td>2018.6.20</td></tr>
<tr><td>01-CA-2nd</td><td>2018.8.8.</td><td>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td><td>임태원, 박지현, 이원영</td><td>남OO</td><td>2018.8.10.</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9">보유
기록물
정보</td><td>아카이브명</td><td colspan="5">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td></tr>
<tr><td rowspan="4">주요 컬렉션
소개</td><td colspan="2">컬렉션명</td><td>구분</td><td colspan="2">설명</td></tr>
<tr><td colspan="2"></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r><td>시정기록
연계 링크</td><td colspan="5"></td></tr>
<tr><td>보유기록물
구분</td><td colspan="5">■ 전자 ■ 비전자</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유형</td><td>전자</td><td colspan="4">■ 문서 ■ 사진 ■ 영상 □ 음성 □ 기타 ()</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4">■ 문서 □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 기타 ( )</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규모</td><td>전자</td><td colspan="4"></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4">(평, m, kg 등)</td></tr>
<tr><td>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보존
관리
현황</td><td>보유기록물
상태</td><td>전자
비전자</td><td colspan="4"></td></tr>
<tr><td>관리 현황</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4">협력방안</td><td>리드 요구</td><td colspan="5"></td></tr>
<tr><td>예상 지원
방안</td><td colspan="5"></td></tr>
<tr><td>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td><td colspan="5">■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 □ 기타 ( )</td></tr>
<tr><td>수집 협의
내용</td><td colspan="5"></td></tr>
<tr><td>특이사항</td><td>아키비스트
주기</td><td colspan="5">□ 마을공동체활동을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함께 금천구 마을아카이브TF를 2017년 운영
□ 마을공동체의 중간지원조직으로 금천구 내의 마을공동체 활동/담당자에 빠삭함</td></tr>
</table>

나. 케이스파일

<table>
<tr><th colspan="7">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케이스파일</th></tr>
<tr><td colspan="2">케이스파일 식별번호</td><td>43-CA</td><td>버전 정보</td><td>v.2.0</td><td>최근수정일</td><td>2018.8.10</td></tr>
<tr><th colspan="7">소장처 인터뷰 정보</th></tr>
<tr><td colspan="2">회차</td><td colspan="3"></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43-CA-2st</td></tr>
<tr><td rowspan="4">1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6.19</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td></tr>
<tr><td>인터뷰이명</td><td>안OO,
남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02-809-8826</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td></tr>
<tr><td>인터뷰어명</td><td>임태원
박지현
전미정
이원영</td><td>녹취파일 링크</td><td>https://drive.google.com/open?id=1DQHj_iQi8SBAt5vl4jATetXvYNJHxgdO</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사업소개]
서울기록원의 기록화 사업을 어떤 걸 기록하느냐를 쉽게 설명드리면, 서울시민의 기억과 기록을 모아 역사를 총체적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 단체를 만나고 있어요. 금천구에는 관심이 많은 단체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성북이라든지 용산구 해방촌이라든지 마을기록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지역이 있다. 기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단계별 문제, 도움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록원에서 민간기록이 우선순위는 아니다. 공공영역의 행정기록을 우선적으로 기록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향을 넓게 잡아 시민기록, 시민기록활동을 중시하고 있다. 지역의 단체나, 오랫동안 활동한 단체와 지역주민이 기관(서울기록원)과 만나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각자 어떤 식의 기록활동을 해오셨는지, 혹은 앞으로 뭘 하고자 하는 데 뭐가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안 풀려서 답답한 부분을 가볍게 이야기하는 자리로 생각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안면을 트고 이후에 각 단체별로 따로 찾아뵙고 연락을 드려 그러한 부분을 깊이 있게 이야기해나갈 생각이다. 현재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서울문화재단'의 사업도 이관을 하는 것처럼, 참조하실 만한 사항도 생길 수 있고 각 조직 단위에 연결할 부분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기록원을 많이 이용하면 될 것 같다. 체크리스트는 기록을 해온 단체를 대상으로 뽑은 것이다. 작년에 생긴 곳은 쌓인 기록보다는 '어떻게 기록할까'에 대해 고민할 거고, 오래된 금천in의 경우는 고민의 깊이가 다를 것 같다.

[단체별 소개]
이OO : 모였던 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동네에서 기록에 대해서 우리의 마을기록을 어떻게 할지를 재작년에서부터 시작했다. 좌담회 형태로 진행했다. 민간단체로는 어렵고,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마을기록, 아카이브를 할 건지를 회의를 소집하며 센터장님과 함께 작년 내내 아카이브TF팀을 운영했었다. 여기서 은행나무도서관 한 팀이 더 있다.
남OO : 마을공동체기록관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를 하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취합하기에는 너무 많으니 어떤 공간의 한정적이기 때문에 온라인에 저장하는 매체 자료도, 웹하드를 누구의 명의로 해야하느냐, 누군가 센터에서 한다면 센터의 이름을 해서 웹하드 등 저장공간을 가지고 있을 때, 현재는 마을인교육에서 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이 위탁운영기관이 바뀌면 지속가능한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조직이 바뀌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뀔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다. 자료의 수집뿐 아니라 수집된 자료를 가공하든,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접근성을 편하게 재가공할 것인가, 혹은 전시회를 통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 작년에 구청로비에서 아카이브전시회를 했었다. 올 11월에 마을공동체기록관을 개관을 할 예정이라 센터 전체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전체가 아닌 한 부분에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른 사업비를 받아서 한 것이다. 자료가 보존가치가 있을까 하는 고민도 있다.</td></tr>
</table>

1차	주요 인터뷰 내용	이OO : 하나는 전근대사,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의 자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출처가 불명확하고, 고생해서 만든 자료를 찾아가는 과정이 후대에서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점은 누가 어떻게 기록하고 보존할 거냐. 두 가지 고민이 있어서 모였고, 몇 가지 제안이 있었다. 모으는 소유권은 누가, 활용하면 저작권은 누가 가져가지 간 것이었다. 그러면 자료를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민간의 흥망성쇠가 크잖아요. 구청의 기록관리사가 와서 설명도 해주었지만, 민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부분들이 고민됐다. 민간의 자료가 어떤 게 있고 이걸 어디로 모아야하는 거냐 어떻게 보존할 거냐에 대해 고민이 되는 거죠. 구청도 구청장 바뀌면 홈페이지가 바뀌어 찾기 힘든 것처럼 이걸 민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민이었어요. 구청장을 만나 이야기했던 건 구립도서관 하나에라도 마을자료를 모아놓으면 (한 서가 정도라도) 주민들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있었다. 작년 12월 이후로는 리모델링 중심으로 흐르고 있어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천마을신문의 경우는 저장방식은 종이신문과 pdf 인쇄본과 중앙도서관의 납본을 한다. 저희가 망해도 중앙도서관에 남아있겠죠. 남OO : 중앙도서관에는 남아있는데 금천구에 없죠. 이OO : 납본이 의무가 아니고, 구청에서도 어떻게 구청도서관에서 구독도 안 하나? 이런 이야기도 한다. 라디오금천 같은 경우는 mp3로 저장되고 있다. (팟빵 같은 서버하는 데가) '설마 망하겠어' 했는데, 두 번 망하더라고요. 아이블로그하고 포딕스하고. 찾으면 될 텐데. 체계적으로 저장이 안 된 게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만난 인터뷰와 음악 방송 가운데 사람만난 것이 기록성이 있다. 이런 걸 민간에서만 가지고 있는데, (민간의 단체가) 활동력이 떨어진 뒤에는 자료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남OO : 라디오뿐 아니라 마을공동체에서도 마을공동육아 자료집을 만들고 하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접을래" 하면 이 자료가 없어지는 거죠. 각자 흩어져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데, 단체가 문을 닫으면 (기록이) 없다. 집중적으로 보관하는 기관이 없다. 이OO : (금천마을방송국의 프로그램 주기) 지금은 유튜브(youtube)에 한 달에 한 번씩 '마을의 소소한 이야기'라고 해서 금천구의 10개 마을을 돌아가면서 영상을 올린다. 작년에는 인물을 주로 했다면 올해는 역사로 컨셉을 달리 해서 업로드한다. 구청홈페이지나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간을 해서 주기적으로 올리면 좋지 않겠나. 햇수로 4년, 작년에 정식으로 개국했다. 인원이 바뀌다보니 힘들었다. 초창기인원이 가면 되는데, 중간중간 떨어져나가니까 다시 새로운 교육을 받아서 해야하니까. 외장하드는 없고 밴드에 몇 년에 출품했던 자료를 올린다. 1년 3개 정도를 미디어센터 지원받아서 작품을 만든다. '금천의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라는 첫 편은 지도상으로는 금천구인데 안 보이는 땅을 취재했는데, 구청에서는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호산나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호산나가 철폐한다고 했을 때 정신이 없어서 '많은 자료를 이걸 다 언제 옮겨' 하다가 경고를 몇 번 날리던데 다 없어진 적이 있다. 밴드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밴드하고 유튜브만 믿고 있다. 전미정 : 원본상태에서 보관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이OO : 그렇다. 웹하드 관리방법을 체계적으로 하면 좋겠다. 남OO : 망하지 않는 온라인 저장공간을 주세요. 이OO : 물리적으로 찾아와서 보는 공간, 안정적인 웹공간이 필요하다. '기록/자료이 어디에 가면 다 있다'는 것을, 구청의 공공서버라든가. 어디까지 담을 수 있는지가 고민. 영상파일까지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는가? 임태원 : 데이터센터에 서버증설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 (건물을 짓는 것보다 쉽다) 법의 보호를 받아 망하진 않는다. 이OO : 시장이 바뀌면 몰라요. 전미정 : 다들 그런 불신이 있다. 공공이 있더라도 믿을 수 없다는 게 깔려 있다. 남OO : 민간에서 활동하는 기록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OO : 구청기록관리사와 이야기했을 때. '기록사를 늘리고, 학예사를 채용해 로드맵을 만들어야하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전미정 : 구 단위로 결정하려면 시와 구의 인력예산을 쓰는 일이라 엮여있겠죠? 남OO : 구에서 공공의 기록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또 민을 지원하는 기록관리사가 있으면 어떨까 장OO : 마을신문 28호까지 발행했다.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이가 편집자로 시작해서 (현재) 고2가 된 아이가 계속 하고 있다. 저는 취재를 하고. 편집위원을 동네 사람들이 하고. 별로 크게 어려운 게 없다. 지면으로 모아놓은 게 있고, 인터넷 넷판을 만들어 올리기도 하고 밴드에도 올리고. 외장하드나 컴퓨터도 보관하고 있다. 활자신문의 지면이 부족하다보니 다 못 싣는 문제나, 글씨를 키워달라는 요구도 있다. 전미정 : 기록물 보관보다는 제작의 지원이 필요하신 건가요? 장OO : 그렇다. 지금도 웹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공유나 오픈의 (거부감은) 전혀 없다.

1차	주요 인터뷰 내용	O○O: 센터를 마을도서관, 기록관 등으로 만들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기록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온라인에서도 기록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천구의 향토사, 마을의 이야기를 보려고 할 때 볼 데가 없고, 흩어져있다. 이야기가 회자되면서 가산도서관, 독산도서관을 시흥도서관으로 마을자료를 모은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다. 편히 볼 수 있는, '보편타당한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한다. 또 하나는 지역의 향토사를 볼 수 있는 전시공간, 시흥행궁전시관이라든지 향토사박물관일라든지, 이를 연계한 학예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문화유산 자원 위주로 자료를 보려고 하면 너무 없어서 필요하다. 공간에 대한 필요성에 절실하게 느껴진다. 내가 쉽게 가서 있어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주민센터에 막상 세워놓으면 안 볼 수도 있지만 자료가 한 곳에 모여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미정 : 성북에서도 새로운 공간을 찾아가는 적응시간이 필요하다. 잘 되고 있는 데에 한 코너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서 아카이브나 지역협동조합을 준비하는 단계다. 협의체 내에 도서관장, 도서관 사서분이 참여해 실제 진행할 때는 절차가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뭘 세우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활성화된 공간을 잘 쓰면 오가는 사람이 더 접근하기가 편하고. O○O :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이 '탑골이야기' 책자를 만들었어요. 주민들하고 도서관 관계자가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거기서 전시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책만 할 것이 전시관으로 기능도 충분할 거라 생각이 든다. 이○O : 저 탑이 얼마 전에 해제가 됐다. 문화재가 아니라서. 향나무 500년 보호수로 정비해야지 해놓고, 실제로 탑까지 정리를 해버렸다. (탑에 대한 기록이 없다.) 저거를 문화재 신청을 했겠죠. 신청했다가 안 됐을 거라 했는데 그 자료를 못 찾았다. 아무도 모른다. 서울시에 알아봤을 때는 심의를 한대요. 심의회의록을 일일이 찾아봐야한다는 건 '그건 못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다. 그렇게 사라지는 기록물이 많다는 것. 지정되어 있는 사각지대의 기록물이 많다는 것. 기록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본 것이 오래 되지 않았고, '청년허브에 아카이브 교육'을 받았는데 너무 어렵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2-3번 가다가 너무 어려웠다. 저렇게는 못해. 사실 진짜 실전, 높은 기술이 아닌 실전에서 할 수 있는 팁, 출판물/영상에 관해서 팁을 만들어주셔서 좋을 것. 하다못해 '파일명은 이것만 하자'든가. 기록물 생성하는 것에 있어서 기록물 만드는 데 다들 힘을 쏟고 기록물 만들고 끝이 난다. 기록물을 만들기까지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까지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 요즘에 카톡과 밴드를 기록물을 저장하는 데 이미지의 사이즈가 200kb로 줄고, 며칠이 지나면 사라진다. 블로그도 며칠 지나면 다 압축된다. O○O : 그런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힘들다. 이○O : 핸드폰으로 많이 찍으니까 빨리 삭제한다. "카톡에 있어", "페북에 있어"라고 하는데 그게 원본이 아니다. 나중에 인쇄용으로 쓸만한 사진이 없는 경우가 있다. 활동하는 분들이 그런 팁들이 전해주는 것이 기록물을 만드는 것의 역할이 있어야되지 않겠는가. 전미정 : 원본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보관 스토리지(저장공간)에 대한 필요가 올 것. O○O : 전시장이나 문학관에 가면, 박경리 소설 쓰며 남긴 종이가 쌓여있다. 이걸 버릴 거냐 말 거냐. 자료 그대로 전시로 했는데, 이걸 치우지도 못한다. 기록자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과정에서 생겨난 부속자료를 어떻게 할거냐. 기록물이라는 게 범위나 개념의 한정도 둬야할 것이다. 저희가 작년에 마을 기록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했던 게 포스터를 모아서 전시를 했다. 전시해놓고 나면 괜찮고. 모아놓을 자료는 한정적이고. 그걸 하는 공공기관이 있어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도서관이든 전시관이든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O : 민간이 합쳐서 기록물심의위원회를 만들든, 공간이 한정적이라면 1년에 2번, 분기에 한 번이든 민간단체에서 모으는 과정도 필요,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의를 통해 <2017년 기록물>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마을공동체에도 의무교육이 있는데, 기록에 있어서도 최소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현재 우리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임태원 : 서울을 기록화하는 시민의 기억을 모으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그에 대한 전략에 맞춰서 해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는데 올해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거다. 작년 사업은 수집기록화 주체가 서울기록원이고 시민들이 객체가 된다. 민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저희가 짠 틀로 수집하는 거라 맥락을 모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관련된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올해는 기록화주체를 시민과 활동가로 생각하고, 기록원을 철저히 지원하고 인프라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다. '활동하는 분들이 어떤 문제점과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도와드리는 것을 정리하고 있다. 협의체를 만들 생각 있다. 협의체는 크게 서울기록원, 각 구 단위의 기록연구사(1인 기록관, 표준기록관리시스템과 담당자 한 명 있는 수준)가 포함된다. 서울기록원 25개 자치구를 돌아다니며 각 지역의 자료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이뤄지는 게 맞다. 대신 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차	주요 인터뷰 내용	이OO : 기록물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주로 행정, 공공기록에 관한 관리 조례잖아요. 남OO : 그런데 대부분 어기고, 어겨도 법적 제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상황이잖아요. 이OO : 구 단위 행정기록 말고. 협의체보다는 구조를 뜯어고쳐서 민간기록을 넣어서 구의 정식 위원회 형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의무적으로 만드는 게 좀 더 공신력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남OO : 조례에 위원회를 명시하고 구 단위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오OO : 기초자치단체 조례가 연결이 되어야 한다. 시범으로 금천 구의회에 요청해서 만들죠. 임태원 : 마침 서울기록원에서 조례 제·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별도의 서울기록원과 구청과의 협의체인데, 이걸 통해서 구청과 협력해 해나갈 것이다.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적극 건의하겠다. 임OO : 지금 [닮다] 3호까지 나온다. 가을 중에 4호를 예상하고 있다. 예산을 아직 못 받았다. 상반기 하반기 책이 나오는데, 마을의 활동하는 포스터를 모아서 실었다. 금천구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었구나 생각했다. 이OO : 동네 만들어진 건 지원사업이 있어야 한다. 기록물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모사업이 많아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잡지를 하나의 단체와 회의와 사비를 들여 만들기는 어렵다. 같이 사이클이 만들어져야 하는 게 있다. 전미정 : 지원사업이 다양한 조직에서 내려오니, 비슷한 주제나 예전에 한 컨텐츠를 새로운 단체가 재상산하는 경우가 있다. 중구난방 얕은 접근만 하다 끝나는 느낌이 든다. 이미 이런 게 있으니 이런 걸 바탕으로 하면 좋다든지. 남OO :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없어서 그렇다. 이OO : 기록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데, 기록의 방법. 영상편집이나 녹음 (교육도 필요하다) 전미정 : 마을미디어센터에서 하지 않나? 이OO : 비슷한 영역인데 없다. 서울미디어지원센터가 구마다 있거나 권역별로 있지 않은 상태다. 남OO : 미디어센터가 지원하는 범위는 미디어활동단체 위주다. 기록물을 생산하는 건 마을활동을 하면서 생산되는 거다. 그러니까 대상의 폭이 넓은 데 한정적이다. 이OO : 기자재가 열악하다. 편집장비, 카메라가 열악하고, 개인공간에 있으면 아무에게나 오픈할 수가 없다. 편집실이 있다면 청소년도 참여해서 할 수 있을 거고. 기록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공간이나 기자재 대여에 대한 서포트가 필요하겠다. 유OO : 작년에 출범해서 공식적으로 3개의 출판물이 나왔다. 계속 (출판물이) 발간이 되고, 공연 포스터도 쌓인다. 재단의 실적이기도 하지만 금천구에서 유치한 실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쌓여가는 자료 속에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에 고민이 있다. 전미정 : 전담인력이 없어서 더 업무를 맡아야하시는거죠? 유OO : 네. 금천구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자료를 만들 수도 있다. 얘기를 더 들어봐야하는 부분도 있어서 공유가 필요하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전미정 : 공연관련 영상이나 사진 등이 유OO : 지금 그게 자리를 차지하고 다 말려 있다. 그런 것이 아쉽다. 전미정 : 데이터 공간이 필요하시겠어요. 유OO : 네, 필요합니다. 저희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것도 있는데, 찾아보면 찾기가 힘들다. 검색어가 딱 맞아야하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 섞이다보니까. 오OO :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어떻게 할거냐. 공연 이야기하니까 공연실황중계 다 올릴 수는 없을 거고 짧은 소개는 올릴 수 있겠지만. 기록물 관리에서 저작권 문제도, 개인이 저작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 특히 교과서 작업할 때 공공의 기록은 출처만 밝힌다든지. 공용서체(인쇄가 가능한 서체로만)를 사용한 것도 있다. 남OO : 영상과 팟캐스트 라디오를 제작할 때 음원이나 저작권에 대한 고민도 있다. 전미정 : 금천에서 다른 곳보다 활성화, 관심이 있는 편인가? 이OO : 애초에는 향토를 접근하며 1800년대 후반-1900년대 초반의 금천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기억을 정리하는 거죠. 하지만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것에 대한 음성이든 기록이 필요하겠다는 고민이고. 마을과 학교가 어떻게 작업을 함께 할 것인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하다보니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다. 남OO : 어르신 당사자의 욕구도 컸다. 작년 라디오사업을 해서 그분들의 재미있게 기억을 담아보자해서 라디오금천에서 작업을 했다.

<table>
<tr><td rowspan="2">1차</td><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3">오OO : 마을활동을 하며 기록에 대해 관심이 커졌다.
전미정 : 현재의 기록을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마치 골동품처럼 자료를 모으는 곳도 있고. 수장고에 대한 요구가 특별히 없어서 인상적이었다.
남OO : 마을공동체기록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지역의 도서관 하나를 특화시켜서 한 서가에 그게 있다는 걸 대안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조례, 위원회 생각을 했던거고.

임OO : (마을기록을 생산한 사람에게) 원고료가 약소해서 고민이다.
남OO : 그럼에도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면 행복해하십니다. 부탁할 때 어렵고 미안하다.

남OO : 라디오 같은 서울시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지원받고, 마을교과서는 교육청&구청의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으로 진행했다. 은행나무도서관은 자비로 하신 것 같고. 지원 받은 것은 기관의 로고가 들어있다. 은행나무도서관은 10년 넘은 사설도서관으로 소식지도 발행한다. 마을센터에서 발행하는 자료들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는다.
이OO : "탑골이야기" 구청 문화체육과와 도서관이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보자 했던 것 같고, 공모사업은 아니었다.
유OO ; 서울문화재단에서는 기록이 될 만한 내용을 담은 결과물을 만들 때는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이OO : 내 기록이나 동네의 이야기를 도서관에서 보면 동네에 대한 애정으로 표현이 될 것이다. 마을교과서도 동네를 알라고 한 것.

이원영 : 기록물의 양은?
이OO : 금천인은 종이 신문은 179호까지 나왔고. (취재를 다녀온 사진은 엄청 날 것) 영상자료, 사진 자료도 다 TB 단위다. 정리가 안 된 자료들이다. 웹에는 많이 올리게 된다. 선별 안해 그대로인 자료도 있고 영상도 있고. 한 호당 평균적으로 700MB가 나온다. 큰 행사 영상은 GB 단위로 넘어가는 거다. 홈페이지로 티스토리 블로그를 자체가 GB가 넘는다.
임OO : 방과후 수업으로 사진기록수업을 했다. 하나의 사진첩이 만들어지고 전시회도 진행했다. 사진책을 학교별로 2-3권을 보관하고, 원본은 보관하지 않다. 사무실에 보관하고 2년 동안 20권 정도된다. 지금도 2개 학교를 하고 있다.

임태원: 금천 말고 다른 지역의 기록활동과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지?
남OO : 마을미디어지원센터 해마다 네트워킹파티, 축제도 하잖아요.</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향토자료를 찾기 어려움. 한 곳에 자료가 모였으면 함
□ 영상파일을 포함해 무제한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한 온라인저장공간 (구청의 공공서버 등)
□ 기록물을 만들기까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매뉴얼
□ 다양한 지원사업과 기록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사이클
□ 기록물 생산을 위한 교육과 작업공간, 기자재(카메라, 편집장비 등) 대여 등의 서포트
□ 기록에 대한 의미, 중요성, 활용방안 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 마련</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한 서버 제공 가능 확인</td></tr>
</table>

<table>
<tr><td rowspan="6">2차</td><td>합의사항</td><td colspan="5">2차 면담 진행</td></tr>
<tr><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8.8</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td></tr>
<tr><td>인터뷰이명</td><td>남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02-809-8826</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td></tr>
<tr><td>인터뷰어명</td><td>임태원
박지현
이원영</td><td>녹취파일
링크</td><td>https://drive.google.com/open?id=1tl0UMt4m79GHalOYYDRbQDgU0hhdQkSo</td><td>사진 링크</td><td>https://photos.app.goo.gl/Rr6vkpcrHx5XLLHR8</td></tr>
<tr><td colspan="6">주요 인터뷰 내용

[예상지원방안 안내]
박지현:
1) 자료보관장소 : 서울기록원은 물리적인 저장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디지털장소로 연계하도록 구축을 하는 단계. '보존기관의 검색서비스'는 가능.
임태원: 디지털아카이브다. 웹하드와 같은 저장공간. 폴더를 정리없이 올렸다 내렸다하는 거라면, 디지털아카이브는 정해진 규격대로 입력하고, 행망 안에 있어서 자유롭게 등록하는 게 힘들고 절차가 필요한 게 있다.
남OO: 절차가 복잡하면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될 것
임태원: 웹하드를 새로 운영하는것도 고민하지만 용량의 문제, 데이터 서버를 증설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다.
남OO: 조직체 소수의 결정에 따라. 내 자료가 영원히 할만큼 가치가 있나?는 물음표. 그럼에도 저장공간이 필요하다는 건,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많은 데이터는 이용하기가 힘들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을 안에서 공유하고 활용하면 좋겠다. 홈페이지는 이제 만들었는데, 잘 활용이 되나 싶다. 솔직히 '밴드'가 활성화되어 있어, 1000명이 넘는 주민이 소통이 한다. 밴드를 통해서 자신들의 활동이나 행사를 홍보하는 역할, 지역의 문제나 현안을 문제제기를 한다. 지난 자료가 아카이빙이 안되고, 자료가 사이즈가 축소가 되어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접근성"도 중요하다. 더 많은 자료를 공유하려면 홈페이지의 서버 용량을 키워야 하는 예산 문제가 있다.

이OO: 자체서버 운영할 수 있는, 마을 단위로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
임태원: 디지털아카이브는 웹하드나 밴드처럼 일하면서 쓰는 용도가 아니라 자료를 보존하는 용도다.
남OO: 내 자료가 훌륭하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
임태원: 민간에서 판단해야한다. 기록원이 판단하지 않는다.

박지현:
2) 매뉴얼(가이드) > 매뉴얼/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기획

박지현:
3) 민간기록연구사/기록관리협의체 > 3개년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진행할 것
4) 기록작업공간/기자재대여 > 공간은 어려우나, 기자재 대여(카메라, 편집장비 등)는 가능
유OO: 어떻게 기자재를 대여받나?
남OO: 우리동네 공구보건소 동별로 설치가 가능한가? 은평 기록원으로 가야하나? 여유가 된다면 우리동네 아카이브 대여소들이 설치되면. 미디어센터와 협의해서 배치할 수도 있을 거다.
임태원: 기자재에 혼란이 있었다. 편집장비가 아니라 보존물품이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보존상자/보존제품의 제공/ 대형스캐너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캔을 대신한다든지.</td></tr>
</table>

2차	주요 인터뷰 내용	[기록물 활용에 관한 저작권/초상권 등의 문제] 남OO: 민간기록 수집 조례가 있나? 임태원: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수집 조항이 있다. 향토자료수집이라는 조항을, 기록원에서 민간 기록 수집에 대한 조항이 넣을 것. 이OO: 서울시조례인가? 지자체에도 이런 활동을 요청, 권고하고, 지자체도 필요하구나 각인이 필요하지 않나. 구 차원에서, 공공은 보존 연한을 정한다. 민간은 기록연한이 취사선택을 해서, 무엇을 기록에 남길 것인가를 본다면. 지역 단위에서 선정 위원회를 만들 것인가? 알음알음할 게 아니라, 민간기록물지정위원회 등이 만들어질 근거가 필요하다. 중요한 건 원본사진인데, 개인이 공공에게 과연 내놓을 것인가? 유OO: 자치구별로 보존을 고민할 것인지? 문화재단도 구별로 12~3개가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DB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고민이 된다. 서울문화재단에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데, 뿌린 공모를 어떻게 묶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 문화재단 내의 물리적인 공간이 없어서 포스터가 말려있다. 각 연도별로 공연 자료들이 모아져있는데, 언젠가는 모아져서 파기가 된다. 시작하는 재단이 준비를 잘 해서 잘 모아놓으면 좋겠다. 각 담당자들이 DB이 하지만, 한계가 생길 것이다. 이제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 서울문화재단에서 공모하는 것도 현재 문화정책에 따라 만들어진다. 자치구 문화자원 사업, 문화재단 공모사업 등을 통해 이 시기에는 이러한 문화정책이 있었고, '이 시대의 것이 만들어지나'를 볼 수 있는데. 사업이 끝나면 그걸로 끝이 난다. 디지털아카이브에 올라가는 것에 판단기준, 저작권에 대해서, 공익성이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타켓팅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어서, 교육이 먼저 있으면. 절차가 많이 되는 것이 되는 것에 어디든 담당자가 생겨야할 것이라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유롭게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의 문제가 있다. 공연백서는 공개를 위해서 만드는 데, 공식적으로 개재를 할 때 저작권이나 초상권에서 어려움이 있다. 남OO: 공동체센터도 공모사업, 네트워크사업, 축제 등 다양하게 한다. 농업상이는 사진을 모으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으고 있지 않다. 서울 전체적으로는 사업계획서 정도가 공유되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센터 직원이 같이 공유하는 톡방에서 홍보전단 정도 자랑질 하는 수준에서 공유되는 수준이라, 이전 비슷했던 사업을 계획이든 결과보고서를 쓸 때 활용도 가능할 텐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박지현: 사적기록이 공적기록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 민간 단체들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많았다. 법적자문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 결과를 공유하겠다. 임태원; 애초의 사업계약에 2차 저작에 대해서 조항이 있다. 기록원에서 수집할 때의 자료 활용 동의서 서식을 공유해드리겠다. [아카이빙 프로젝트 활동과 자료를 찾는 어려움] 김OO :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하는데, 해방촌마을에 자료집이 있다고 해서 받고 싶어서 메일을 보냈는데. 회신이 없다. 참고할 만한 사업들이 궁금한데 어디에서 무엇을 진행하는지도 모른다. 남OO: 영역을 넘어서 괜찮은 사업이라면 활용하면 좋겠다는 자료들이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연결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다. 임태원: 각 활동단체를 만나면, 대표/활동 내용을 정리를 해나갈거다. 온라인 공개되어 서로 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김OO: 활용할 자료, 유용한 자료가 많았으면 좋겠다. 예술경영위원회도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남OO: 기록원에서 디지털아카이브화 하려고 하는 기록은 무엇인가? 임태원: 마을공동체(지역공동체) 기록이다. 시민 스스로한 기록활동. 삶의 터전과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것을 남기고자 한다. 남OO: 네이버처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올리는 것이 가능한지, 임태원: 서울기록화하려면 큰 서울 단위로는 접근이 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는게 우선 필요하다. 아쉬운 건 편하게 이용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방법으로 남OO: 지역도서관에 한 서가를 마을에 내놔라, 시흥도서관에서는 방통대 교재 서가가 따로 있다. 모든 도서관에 비치하라는 게 구 하나를 내줘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해보고 이렇게 하니 마을아카이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이OO: 개인이 갖고 있거나 구청 어딘가에 처박힌 자료들을, 도서관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행정은 시보, 구보, 의회보 등을 만들며 자료화하는데, 민간에서 어디까지 자료로 볼 것인가? 어디에 있는가 등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금천에서 만들어진 '책자'를 취합하면, 금천에서 만드는 책자들이 모아서 만드는 것은 어떨까? 임태원: 마을도서관은 마을아카이브보다 생기기 쉬울 것 같다. 도서관과의 협의는, 기타 문화기관과 어떻게 협력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다. 서울을 기록화한다는 것이 기록만, 아카이브만 가지고 가능한 건 아니다. 여러 문화 연구기관에서 서울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러 기관과의 협력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아카이브를. 향후 2년, 3년 가게 되면서 운영체계를 확장해나갈 것이다. 박지현: 예상지원방안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것 같아 죄송한 마음. 앞으로 서울기록원과 협력하는 단체로서 단계적으로 의논해나갈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자 함. 당장은 예상지원방안이 별론데 생각할 수 있어도, 추후에는 만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정해나갈 수 있다. 남OO: 협력네트워크 구성의 단위는? 분야가 정해져있나? 박지현: 지금 고려대상은 자생적으로 기록화활동을 하는 단체다. 크게 마을공동체, 마을미디어, 독립출판사 등을 고려하고 리스트를 계속 만들어가고 많다. 기준에 대해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다.

<table>
<tr><td rowspan="4">2차</td><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3">남OO: 어떤 네트워크가 소통이 될지, 많으면 어려울 수 있을 때. '중질'을 모으되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다. 서울기록원 활용설명서를 만들면 좋겠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어로 초등학교 고학년도 알 수 있는 수준으로, 멋진 단어를 쓰고자 한다면 순화된 말을 괄호로 달아주면 좋겠다.
임태원: 등록할 가치가 있는지를 선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 긴급하게 보존을 위한문서함 등을 제공할 것이다. 지금까지 모여진 자료는 '활용'할 때 주로 문제가 되는데, 보존관리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OO: 기록하는 것과 보존하는 것이 기록활용하는 것과 다르다. 기록은 어떻게 활용은 어떻게 할건지를 같이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서울시의 지자체의 차원에서 할 건지를.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분명이 있고, 생산말고도 '기록물을 공유'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한다. 구 행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할 것이냐.
임태원: 협약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 서울기록원이 시민기록, 시민사회의 기록이 생산되고 아카이브가 되는 근거와 수요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예산을 달라고. 자치구 단위에서 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자 한다. 방향을 유도하고,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각하고 있다.
남OO: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든 뒤에, 자극 없이 구에서 움직일까? 구에서 만들 때 참고가 될 텐데, 그러한 자극이나 촉매제가 없으면 구 의원이 움직일까?
임태원: 협력의 층위가 다양하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미디어지원센터, 문화재단가 주로 자체 네트워크를 가지고, 많은 지역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기관과 '진하게'. 협력모델을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 당장 물리적인 보관공간을 지원하기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수요로서) 제2서고를 만들 수도,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많이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td></tr>
<tr><td colspan="3">[금천마을공동체기록관]
남OO: 8월말까지 공간을 사용하고, 9월 초중순에 리모델링할 예정. 센터는 독산2동 옛날청사로 잠시 이주. 자료전시공간으로 회의실을 사용할 예정. 자료보관장소를 별도로 만들어야하는데, 대대적으로 할 수 없다. 2층 센터사무실, 마을공동체 공유사무실로 꾸미고, 회의실은 '금천1번가' 주민들이 마을 의제를 상시발굴소(공론장)을 만들 예정(행정안전부).
/
남OO: 앞으로 만들어질 기록관에서 기록물 대여/기록관리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
임태원: 도서 등이 여러권이 있다면 대출이 되나, 1-2권인 경우는 대출이 어려울 것이다.
남OO: 기록관 운영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 TF팀이 구상하는 단계로, 전문가가 아니지만, 활동가들인지라 비전문가로서 막연한 부분이 있다.
임태원: 주요안건을 보내주시면, 가능한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겠다.</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디지털아카이브로 공유할 자료는 어떻게 선별해야하는가?
□ 기록물 활용하며 생기는 저작권, 초상권 문제에
□ 공공의 기록, 민간의 기록이 한 번에 보일 수 있는 공간/백서 등이나 이를 모을 수 있는 조례</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매뉴얼 및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기획 (향후 년도)
□ 저작권/초상권 관련 서류양식 공유
□ 조례 개정 등 장기적인 방법을 찾아가고 있음</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3">마을공동체기록관 개관 및 운영과 연계하여 · 협력·지원체계에 상호 긍정적이며 현재 협력·지원 방안 구체화 및 3차 면담을 앞두고 있음</td></tr>
</table>

3.2.3.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가. 리드파일

<table>
<tr><th colspan="8">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리드파일</th></tr>
<tr><td colspan="2">식별번호</td><td>49
-LE</td><td>버전 정보</td><td>v.1.0</td><td>최근수정일</td><td colspan="2">2018.7.11</td></tr>
<tr><td rowspan="15">리드
정보</td><td>리드명</td><td colspan="2">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td><td>리드 유형</td><td colspan="3">□ 개인 □ 가문 ■ 단체</td></tr>
<tr><td>리드의
다른 이름</td><td colspan="2"></td><td>리드 영역</td><td colspan="3">□ 공공 ■ 협치 □ 민간</td></tr>
<tr><td>리드 연락처</td><td colspan="2">02-385-2642</td><td>리드 이메일</td><td colspan="3"></td></tr>
<tr><td>리드 주소</td><td colspan="2">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317호</td><td>리드 웹주소</td><td colspan="3">http://www.seoulmaeul.org/</td></tr>
<tr><td>리드
소개 및 연혁</td><td colspan="6">□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결과 간행물,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관리하며 공모사업 아카이브 구축 중임
□ 매년 서울마을박람회를 진행하며 마을공동체 전시를 추진함
□ 마을 아키비스트 양성과정을 지원하며, 마을 아키비스트를의 기고를 받아 웹진을 발행
□ 2013년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시범사업을 수행하고「마을공동체 기록관리 매뉴얼」작성·배포함</td></tr>
<tr><td>리드
대표자명</td><td colspan="6">박OO</td></tr>
<tr><td>리드 대표자
연락처</td><td colspan="6">02-352-7471</td></tr>
<tr><td rowspan="4">리드 구성원
정보</td><td colspan="2">리드 구성원명</td><td>리드 구성원 역할</td><td>리드 구성원
연락처</td><td colspan="2">리드 구성원 이메일</td></tr>
<tr><td colspan="2">박OO</td><td>지역지원실장</td><td>02-352-7471</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5">리드 관계
정보</td><td colspan="2">리드 관계 단체/인물명</td><td>관계 범주/형식</td><td colspan="3">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4">리드
접촉정보</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인터뷰
일시</td><td>인터뷰
장소</td><td>인터뷰어명</td><td>인터뷰이명</td><td colspan="2">최근 수정일</td></tr>
<tr><td>49-CA-1st</td><td>2018.7.11</td><td>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사무실</td><td>임태원, 박지현</td><td>박OO</td><td colspan="2">2018.7.11</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7">(+) 추가 가능</td></tr>
</table>

<table>
<tr><td rowspan="9">보유
기록물
정보</td><td>아카이브명</td><td colspan="3">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td></tr>
<tr><td rowspan="4">주요 컬렉션
소개</td><td>컬렉션명</td><td>구분</td><td>설명</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3">(+) 추가 가능</td></tr>
<tr><td>시정기록
연계 링크</td><td colspan="3">-</td></tr>
<tr><td>보유기록물
구분</td><td colspan="3">■ 전자 ■ 비전자</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유형</td><td>전자</td><td colspan="2">■ 문서 ■ 사진 ■ 영상 ■ 음성 ■ 기타 (웹사이트)</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 문서 □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 기타 (리플렛)</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규모</td><td>전자</td><td colspan="2"></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td></tr>
<tr><td>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보존
관리
현황</td><td rowspan="2">보유기록물
상태</td><td>전자</td><td colspan="2">□ 홈페이지에서 역대 마을박람회 자료(기사, 사진, 동영상) 제공</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 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물리적 보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td></tr>
<tr><td>관리 현황</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4">협력방안</td><td>리드 요구</td><td colspan="3">□ 신문, 잡지, 발간물, 연구자료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나 일부에 그쳐 전체 DB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아카이빙, 큐레이팅 등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자 교육 지원이 필요함
□ 마을공동체 활동 및 결과 기록의 전시 공간 등이 필요함</td></tr>
<tr><td>예상 지원
방안</td><td colspan="3"></td></tr>
<tr><td>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td><td colspan="3">■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 □ 기타 ( )</td></tr>
<tr><td>수집 협의
내용</td><td colspan="3">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진행</td></tr>
<tr><td>특이사항</td><td>아키비스트
주기</td><td colspan="3"></td></tr>
</table>

나. 케이스파일

<table>
<tr><th colspan="7">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케이스파일(접촉파일)</th></tr>
<tr><td colspan="2">케이스파일 식별번호</td><td>49-CA</td><td>버전 정보</td><td>v.1.0</td><td>최근수정일</td><td>2018.07.11</td></tr>
<tr><th colspan="7">소장처 인터뷰 정보</th></tr>
<tr><td>회차</td><td colspan="4"></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49-CA-1st</td></tr>
<tr><td rowspan="5">1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7-11 11:00-12:30</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 1층 카페</td></tr>
<tr><td>인터뷰이명</td><td>박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td></tr>
<tr><td>인터뷰어명</td><td>임태원,
박지현</td><td>녹취파일 링크</td><td></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소개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민·관 협력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
·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지원, 마을공동체 특화사업 운영, 마을지원활동가 교육,마을활동가 상호교육, 찾아가는 마을 상담, 정책과제 연구, 뉴스레터 발간,
캠페인 및 박람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
· 2013년 마을공동체 기록관리 매뉴얼 발간
마을공동체 기록의 정의·특성을 설명.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업무로 전자기록 관리/수집/관리(분류, 기술, 보존)/활용 (공개, 서비스, 열람·대출)을 제시
마을별 기록관리 사례를 유형별로 모아 정리·작성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발전모형 제시

□ 기록물 생산·관리현황
· 뉴스레터·정책웹진 발행(현재 발간물을 발행하여 제공·관리하고 있으나, 이 외의 관리는 힘든 상황)
· 마을단체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각 단체에서 관리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http://www.seoulmaeul.org) 통해 역대박람회 자료(기사, 사진, 동영상 등) 열람가능</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colspan="2">□ 사진자료의 초상권 문제해결
□ 온/오프라인 저장공간
□ 시민기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뉴딜일자리 의견제시</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colspan="2"></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5"></td></tr>
</table>

3.2.4.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가. 리드파일

<table>
<tr><th colspan="7">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리드파일</th></tr>
<tr><td colspan="2">식별번호</td><td>40-LE</td><td>버전 정보</td><td>v.1.0</td><td>최근수정일</td><td>2018.6.16</td></tr>
<tr><td rowspan="11">리드 정보</td><td>리드명</td><td colspan="2">서울마을미디어
지원센터</td><td>리드 유형</td><td colspan="2">□ 개인 □ 가문 ■ 단체</td></tr>
<tr><td>리드의
다른 이름</td><td colspan="2"></td><td>리드 영역</td><td colspan="2">□ 공공 ■ 협치 □ 민간</td></tr>
<tr><td>리드 연락처</td><td colspan="2">02-3141-6390</td><td>리드 이메일</td><td colspan="2">mediact@maeulmedia.org</td></tr>
<tr><td>리드 주소</td><td colspan="2">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9길 52 (창전동5-5)
동복이세빌딩 3층</td><td>리드 웹주소</td><td colspan="2">http://maeulmedia.org/</td></tr>
<tr><td>리드
소개 및
연혁</td><td colspan="6">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는 마을 단위의 잡지, 신문, 팟캐스트, 라디오 등의 형태의 미디어 사업을 지원함. 연간 지원사업과 마을미디어에서 생산되는 콘텐츠를 전수조사해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 일부 공간에 실물 자료를 보관 중임. 서울마을미디어
지원센터의 지원사업 결과로 생산되는 기록물이나 서울시의 마을미디어 활동콘텐츠들이 기록되는 통합DB 구축을 하고자 함.</td></tr>
<tr><td>리드
대표자명</td><td colspan="6"></td></tr>
<tr><td>리드 대표자
연락처</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4">리드 구성원
정보</td><td>리드 구성원명</td><td>리드 구성원 역할</td><td colspan="2">리드 구성원
연락처</td><td colspan="2">리드 구성원 이메일</td></tr>
<tr><td>김OO</td><td>팀장</td><td colspan="2"></td><td colspan="2">kjhyun84@gmail.com</td></tr>
<tr><td>권OO</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grimzaeye@mediact.org</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5">리드 관계
정보</td><td>리드 관계 단체/인물명</td><td>관계 범주/형식</td><td colspan="4">관계 내용</td></tr>
<tr><td></td><td></td><td colspan="4"></td></tr>
<tr><td></td><td></td><td colspan="4"></td></tr>
<tr><td></td><td></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리드
접촉정보</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인터뷰
일시</td><td>인터뷰
장소</td><td>인터뷰어명</td><td>인터뷰이명</td><td>최근 수정일</td></tr>
<tr><td>40-CA-1st</td><td>2018.7.11</td><td>서울
마을미디어
지원센터</td><td>임태원, 박지현,
이원영</td><td>김OO, 권OO</td><td>2018.7.11</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9">보유
기록물
정보</td><td>아카이브명</td><td colspan="5">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td></tr>
<tr><td rowspan="4">주요 컬렉션
소개</td><td colspan="2">컬렉션명</td><td>구분</td><td colspan="2">설명</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r><td>시정기록
연계 링크</td><td colspan="5">-</td></tr>
<tr><td>보유기록물
구분</td><td colspan="5">■ 전자 ■ 비전자</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유형</td><td>전자</td><td colspan="4">■ 문서 ■ 사진 ■ 영상 ■ 음성 ■ 기타 (웹사이트)</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4">■ 문서 □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 기타 (리플렛)</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규모</td><td>전자</td><td colspan="4">외장하드 3개 분량. 구체적으로 파악은 어려움.</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4"></td></tr>
<tr><td>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보존
관리
현황</td><td rowspan="2">보유기록물
상태</td><td>전자</td><td colspan="4">웹진「마중」발간 및 지원사업 결과물 등의 전자기록은 외장하드 3개에 보관함.</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4">지원사업 결과물로 포스터, 리플렛, 신문, 도서 등의 자료는 센터 창고에 보관하고 있음.</td></tr>
<tr><td>관리 현황</td><td colspan="5">□ 홈페이지에서 센터발간물, 라디오/팟캐스트, 신문/잡지,
영상 콘텐트를 서비스하고 있음
□ 센터발간물 이외에는 각 참여 단체 콘텐트의 링크를 제공</td></tr>
<tr><td rowspan="4">협력방안</td><td>리드 요구</td><td colspan="5">□ 온라인 저장 공간 제공
□ 통합DB 구축 관련 컨설팅
□ 기록 실무에 대한 교육 지원
□ 지속적인 협력</td></tr>
<tr><td>예상 지원
방안</td><td colspan="5">□ 신문, 잡지, 발간물, 연구자료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나 일부에 그쳐 전체 DB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다양한 유형의 자료가 쌓이는데 전자적 보존·관리체계가 없어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 아카이빙, 큐레이팅 등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자 교육 지원이 필요함
□ 기록활동 외의 미디어활동, 주민활동도 협력대상에 포함되길 희망함</td></tr>
<tr><td>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td><td colspan="5">■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 □ 기타 ( )</td></tr>
<tr><td>수집 협의
내용</td><td colspan="5">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진행</td></tr>
<tr><td>특이사항</td><td>아키비스트
주기</td><td colspan="5"></td></tr>
</table>

나. 케이스파일

<table>
<tr><th colspan="7">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케이스파일(접촉파일)</th></tr>
<tr><td colspan="2">케이스파일 식별번호</td><td>40-CA</td><td>버전 정보</td><td>v.1.0</td><td>최근수정일</td><td>2018.07.11</td></tr>
<tr><th colspan="7">소장처 인터뷰 정보</th></tr>
<tr><td>회차</td><td colspan="4"></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40-CA-1st</td></tr>
<tr><td rowspan="4">1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7-11 11:00-12:30</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회의실</td></tr>
<tr><td>인터뷰이명</td><td>김OO, 권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td></tr>
<tr><td>인터뷰어명</td><td>임태원
박지현
이원영</td><td>녹취파일 링크</td><td>https://drive.google.com/open?id=1NS_9KzaoReXYWftucxmU-VpnSLQPvoqX</td><td>사진 링크</td><td>https://drive.google.com/open?id=199iLnT1M2K186XRJmYs0sgbN5qAOjWi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활동]
권OO: 리플렛으로 잘 정리. 마을미디어는 마을 단위에서 잡지, 신문, 팟캐스트, 라디오 형태를 지원. 마을 소통통로가 되기도 하고 주민들의 피로연, 커뮤니케이션의 권리증진을 목적. 2016년 기준의 103개 마을미디어보다 더 많아졌고, 올해는 76개 단체 지원. 컨텐츠 수는 2017년 기준 3500여 개 만들어짐. 꾸준히 늘어감. 2011년 처음 시작했다. 컨텐츠, 연구자료에서 아카이빙큐레이팅이 잘 되지 않는다. 콘텐츠 유통과 표출이 중요한 과제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단체에 어떤 자료와 콘텐츠가 있는지 조사한다. 온라인의 구글시트로 신청을 받고, 홈페이지를 통해 pdf 제공. '마을 제작 라디오'가 팟빵/팟캐스트 형태가 가장 많다. 오프라인 잡지와 신문 배포. 많으면 1000호, 잡지는 지역 거점들에 배포하는데 온라인 디지털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들이 통합돼 DB가 되어있지 않아 검색이 되지 않는다. 영상은 유튜브가 기준.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성북TV Tbroad 등으로 송출된다.

[기록화사업 소개]
박지현: 서울기록원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모으고 관리하자는 취지.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서울기록원은 2019년 4월, 디지털아카이브는 9월에 베타오픈 예정.
임태원: 많은 유형을 찾아가고 있다. 마을방송국, 신문 등의 마을미디어를 타켓.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원을 받는 기록화활동,
권OO: '기록과 기억을 모으는 활동을 모은다'라는 말이 어렵다.
임태원: 기록에만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면 맥락이 끊겨서, 기록을 생산한 맥락을 잘 아는 활동의 주체(단체/개인)에 초점을 맞춰서 협력해서 진행하자는 것.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록물을 보존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어려운 점,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권OO: 우리가 가진 시스템이나 홈페이지를 검토해주면 좋을 것. 유큐브 채널, 홈페이지가 주다. "표출" 어떻게 사람들이 보게 하느냐. 서울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표출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과 만나게 되나?
임태원; 그렇지는 않을 것. 서울디지털아카이브 포탈 들 다양한 홍보 방식을 고려해야한다.</td></tr>
</table>

1차	주요 인터뷰 내용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기록물 보관/관리] 권OO: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자료를 관리. 온라인에서는 1) 독자적으로 마을공동체에서 올리는 것, 센터에서는 어떤 콘텐츠가 생산되는지, 목록과 소개 정도를 전수조사 진행. 2) 홈페이지를 통해 센터의 발간물, 단체 정보(링크를 통해 단체에 들어가서 보도록), 마을에서 만드는 발간물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보여지는 것. 진정한 아카이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접근성이 낮다. 사람들이 보기 좋게 되어 있지 않다. DB 구축하는 담당자를 만났지만 노가다를 통한 접근. 시멘틱을 만드는 것이 제대로 분류할 수 있고 가치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한다. 또 DB 내용을 홈페이지로 연동하는 것도 어려웠다. 센터의 예산과 인력이 없어서 '장기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오프라인 1) 잡지 등의 실물 자료.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기록물 관련 요구사항] 권OO: 잡지를 만드는 단체는 각 기사별로 주제, 지역 등으로 컨텐츠에 접근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호별 pdf는 일일이 검색해야하기 때문에. 지역의 몇몇 사람에게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깝고. 어떻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까? 공공도서관이나 지역단체에 오프라인에 비치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려고 하나, 어려움이 있다. 전시도 하면 좋겠는데 어력이 없다. 임태원: 올해 안에 당장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올해는 수요 조사 차원에서 찾아뵙는 것. 그에 따른 유형별 요구사항을 서울기록원의 대응전략을 따른 틀이 만들어질 예정.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가능. 단체의 발간물에 해당하는 온라인 전시도 가능. 개관전시 이후 시민기록활동의 전시 공간으로 내어드릴 생각도 있다. 디지털아카이브도 약간 커스토마이징을 거쳐서 단체에서 사용하는 오픈소스로 개발 중. 다양한 연계프로그램 또한 기획하고 있어 시민기록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활동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권OO: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금천라디오&금천마을미디어에서 7-80대 금천 지역 어르신을 인터뷰했으나,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어려웠고, 이후 활용되기 어려웠던 것도 있다. 오프라인 매체의 DB화도. 여러 단체 활동가들에게 수업/강의/교육을 해주면 좋겠다. 기술적인 것뿐 아니라 큐레이팅, 아카이빙에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다. [기록물 이관에 관한 논의] 김OO: 마을기록활동이 30%, 그 외의 나머지 70%는 주민들의 문화활동, 좋아하는 음악을 이야기하는 취미활동 식의 활동이 많다. 그러한 것도 기록원에 수집하는 자료에 포함하는지? 컨텐츠를 지역소식, 커뮤니티(지역주민 소통프로그램), 문화예술, 교양정보로 구분. 지역소식과 커뮤니티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서울 차원의 기록이기보다는 서울 시민의 활동으로 봐야할 것 같다. 건강정보, 취미활동은 애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손동유 선생님을 초청해 강의도 하고, 그러한 고민도 가지고 있다. 임태원: 수집범위도 정의를 다시 내려야하는 상황이라, 활동이 추가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할 것. 마을/공간 기반의 활동, 사람/공동체 기반의 활동 외에. '주제별 기록활동(헤비메탈에 관한 대화)'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할 것. [보관물의 양/방식] 김OO: 영상은 유튜브로 업로드하고 있어서. 서버를 '라이브서울' 서울시 스트리밍 서버에 올렸는데 1000개 음원 이상이 잘린다고 해서. 안정된 서버에 대한 고민도 하고있다. 대략적으로 음원(라디오프로그램) 하나의 5MB라고 하면, 평균 잡아 5GB 이상. 권OO: PC 하나를 공용 폴더로, 넘치면 외장하드로. 백업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용량도. 유실되는 부분에 걱정. 정기적으로 동기화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2.5세대 외장하드부터. 3개 정도. 김OO: 단체 각각의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는 것. 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는 모으고 있지 않다. 서버 용량 문제나 자료를 수집하는 역량의 문제로 잘 안되고 있다. 제휴를 한다면 기록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고, 이관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권OO: 지원사업 결과물인 영상. 인쇄매체를 서울도서관에 낸 이후의 일부 자료. 단체 내의 필요에 따라 pdf형태로 모은다. 센터발간자료(마을미디어 교재, 지역별 콘텐츠를 모아 소개하는 책자, 마을미디어 대표활동가 인터뷰, 애뉴얼리포트 등)는 pdf 형태&실물로. 신문/잡지를 한 부만 남기고 버린다든지 계속 축소가 된다. 창고방 하나에 보관하지만.

<table>
<tr><td rowspan="3">1차</td><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3">[아카이브 홈페이지 소개]
권OO: 홈페이지 내 '서울마을미디어 지도' > 마을미디어를 지역/매체별 검색' 작업을 했다. 어떻게 마을 지역 소식을 전할 수 있을 지. facebook 피드를 넣어서 계속 소식을 제공하자. 단체별 관리할 페이지를 제공할 예정.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콘텐츠. 너무 많아 관리가 어렵다. 매체별로 모았다면, 자치구, 추천콘텐츠, 센터발간물 등으로 나눠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콘텐츠 섬네일도 잘 안보이고.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는 바로 들을 수 있지 않아 링크만 공유되어 팟빵으로 다시 접속해야한다. "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쉬움"
김OO: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파일과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어렵다. 제휴협력의 예를 들어 서울기록원 홈페이지 내의 '마을미디어' 섹션을 만든다거나. 우리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로 연결하는 것인지? 어떤 자료를 선별해야하는지? 고민이 된다. 사진자료는 명확해 시민들이 매력있게 보일 것 같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처럼.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체계]
권OO: 2013년 미디액트에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운영. 서울시의 마을미디어활성화 사업을 참여하는 중간지원조직.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가 있어서 명확한 사업이 제시되었다면, 이후사업에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방식.
김OO: 위탁이 아니라 보조사업자 지원의 형태로 1년에 한 번씩 선정작업을 거친다.
김OO: 미디액트, 마을미디어 지원 제작교육. 영화 제작.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등의 역할.
권OO: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서울기록원 협력작업도 필요하고. 저희가 매개가 되어 서울기록활동하는 단체들과 연결을 시켜드리고 거기에 특화된 데이터를 작업하는 게 가능할 것. 금천아이엔의 구로노동자인터뷰 등.
김OO: 데이터를 직접 모으는 역할을 하나?
임태원: 하려고 했으나 저희의 역량상 힘들겠다. 잘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역할.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각지에서 기록활동하는 것을 지원해 기증, 위탁 받은 자료에서 컬렉션 구축하는 정도.
권OO: 서울데이터서버를 사용하는지?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도 활용이 가능한지.
박지현: 양재 데이터 서버를 사용한다. 알아보겠다.</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각 기사별로 주제, 지역 등으로 컨텐츠 접근 방식.
□ 기록물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 고민. 오프라인 배포 및 전시 등.
□ DB화를 위한 지속적 협력
□ 아카이빙 분류, 큐레이팅, 기술, 효율적인 방법 등에 대한 강의
□ 기록원의 데이터서버 이용</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디지털아카이브 포탈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홍보방식 고민
□ DB화를 위한 관리자 교육 및 전문인력 파견
□ 수집범위에 대한 고민
□ 데이터서버 활용에 대한 정보 확인</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3"></td></tr>
</table>

3.3. 민간영역 면담 내용

3.3.1. 마을에숨어

3.3.2. 해방촌마을기록단

3.3.3. 디자인스튜디오 203

3.3.4. 정릉마을기록주민이야기마당

3.3.5. 사진아카이브연구소

3.3.6. 금천구마을아카이브TF

3.3.7. 성북신나&성북문화재단

3.3.8. 창신숭인도시재생협동조합

3.3.9. 기억발전소

3.3.10.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3.3.11. 매거진충무로

3.3.1. 마을에숨어

가. 리드파일

<table>
<tr><th colspan="7">마을에숨어 리드파일</th></tr>
<tr><td colspan="2">식별번호</td><td>21
-LE</td><td>버전 정보</td><td>v.1.0</td><td>최근수정일</td><td>2018.8.8.</td></tr>
<tr><td rowspan="9">리드
정보</td><td>리드명</td><td colspan="2">마을에숨어</td><td>리드 유형</td><td colspan="2">□ 개인 □ 가문 ■ 단체</td></tr>
<tr><td>리드의
다른 이름</td><td colspan="2"></td><td>리드 영역</td><td colspan="2">□ 공공 □ 협치 ■ 민간</td></tr>
<tr><td>리드 연락처</td><td colspan="2">031-774-3243</td><td>리드 이메일</td><td colspan="2">hideinmytown@gmail.com</td></tr>
<tr><td>리드 주소</td><td colspan="2">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35 동부빌딩 2층</td><td>리드 웹주소</td><td colspan="2">https://www.facebook.com/hibyeDCAPT
http://www.hibyedcapt.com-</td></tr>
<tr><td>리드
소개 및
연혁</td><td colspan="5">[마을에숨어]는 "안녕, 둔촌주공아파트" 시리즈의 편집장 이○○가 조직한 강동구 둔촌동을 근거로 한 단체의 이름이자, 출판사의 이름이며, 공간의 이름이다.

"안녕, 둔촌주공아파트" 프로젝트는 둔촌주공아파트에 거주한 주민들의 기록을 수집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카이브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하고 수집한 기록을 기초로 단행본을 출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재개발을 통해 주민이주 과정에서 2018년 지금까지 둔촌주공아파트 동네 고양이가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임인 "둔촌냥이" 프로젝트 역시 진행하고 있다.

[마을에숨어]가 참여한 전시는 "아파트 인생사"(서울역사박물관, 2014/4-2014/6), "도서관, 독립출판, 열람실"(국립중앙도서관, 2015/2-2015/3), "공동의 리듬, 공동의 몸"(일민미술관, 2017/9-2017/12) 이 있다.

또한 이들이 출판한 단행본은「안녕, 둔촌주공아파트 첫번째 이야기」(2013/5/31),「안녕, 둔촌주공아파트 두번째 이야기」(2013/10/15),「안녕, 둔촌주공아파트 세번째 이야기」(2015/1/5),「안녕, 둔촌X가정방문」(),「집밖-동네안」(),「최소한의 집」(2016/11/22),「아파트 숲」(2016/11/21)이 있다. 또한 "집의 시간들(A Long Farewell,)"이란 영상을 제작해 출품했다.

이들의 활동은 임준하(2017)의「아파트 키즈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장소애착과 기억 - 둔촌 주공아파트 사례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와 같은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td></tr>
<tr><td>리드
대표자명</td><td colspan="5">이OO</td></tr>
<tr><td>리드 대표자
연락처</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4">리드 구성원
정보</td><td>리드 구성원명</td><td>리드 구성원 역할</td><td colspan="2">리드 구성원
연락처</td><td>리드 구성원 이메일</td></tr>
<tr><td>안OO</td><td>아카이브팀장</td><td colspan="2"></td><td>realgc51@gmail.com</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able>

<table>
<tr><td rowspan="9">리드
정보</td><td rowspan="9">리드 관계
정보</td><td>리드 관계 단체/인물명</td><td>관계 범주/형식</td><td>관계 내용</td></tr>
<tr><td>둔촌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 기타</td><td>조합-서울기록원 간 기록물 수집 협약시 마을에숨어 안근철이 무료 알선. 마을에숨어 아카이브팀장으로서 둔촌주공아파트의 물품 / 문서 기록을 정리</td></tr>
<tr><td>문화디자인지원사업</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 기타</td><td>2014, 플레이스 안녕 둔촌, 3권 발간/기린미끄럼틀 불꽃놀이</td></tr>
<tr><td>강동구청</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 기타</td><td>2016, (지원사업명 현재 불명), 100-200만원 지원, <아파트숲> 프로젝트에 사용</td></tr>
<tr><td>서울NPO지원센터</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 기타</td><td>2017, 미트쉐어프로젝트, 100만원, <스탬프투어>에 사용</td></tr>
<tr><td>서울혁신센터</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 기타</td><td>2017,사회혁신X리빙랩프로젝트, 3900만원 지원, <둔촌주공아파트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에 사용</td></tr>
<tr><td>정OO</td><td>□ 이전 □ 상위
□ 참여 □지원
■ 기타</td><td>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프로젝트 공공건축가</td></tr>
<tr><td colspan="3">(+)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4">리드
접촉
정보</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인터뷰
일시</td><td>인터뷰
장소</td><td>인터뷰어명</td><td>인터뷰이명</td><td>최근 수정일</td></tr>
<tr><td>21-CA-1st</td><td>2018.4.18.</td><td>마을에숨어
사무실</td><td>원종관, 임태원,
소준철</td><td>안OO</td><td>2018.7.1.</td></tr>
<tr><td>21-CA-2nd</td><td>2018.6.27</td><td>마을에숨어
사무실</td><td>임태원, 전미정,
소준철</td><td>이OO, 안OO</td><td>2018.8.8.</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11">보유
기록물
정보</td><td>아카이브명</td><td colspan="4">둔촌주공아파트</td></tr>
<tr><td rowspan="4">주요 컬렉션
소개</td><td>컬렉션명</td><td>구분</td><td colspan="2">설명</td></tr>
<tr><td>안녕, 둔촌주공아파트</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colspan="2"></td></tr>
<tr><td>둔촌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colspan="2">물품(10000) : 159종
테이프(11000) : 55종
문서(20000) : 6종</td></tr>
<tr><td colspan="4"></td></tr>
<tr><td>시정기록
연계 링크</td><td colspan="4">-</td></tr>
<tr><td>보유기록물
구분</td><td colspan="4">■ 전자 ■ 비전자</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유형</td><td>전자</td><td colspan="3">■ 문서 ■ 사진 ■ 영상 ■ 음성 □ 기타 (　　)</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3">■ 문서 □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 기타 ( )</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규모</td><td>전자</td><td colspan="3">둔촌주공아파트에서 수집한 개인 작업자에 모두 분산되어 모으는 작업을 하지 않아 파악이 어려움</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3">물품(10000) : 159종
테이프(11000) : 55종
문서(20000) : 6종</td></tr>
<tr><td>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td><td colspan="4"></td></tr>
</table>

보존 관리 현황	보유기록물 상태	전자	□ 개별 작업자가 분산하여 외장하드, 드롭박스를 통해 저장함
		비전자	□ 마을에숨어, 재건축사업 조합 사무실을 통해 보관함
	관리 현황	□ 네이버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사진 및 영상 등을 서비스하고 있음	
협력 방안	리드 요구	□ 둔촌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기록이 대부분 폐기됨에 따라 '마을에숨어'팀에서 잔여 기록에 대한 위탁관리를 시급히 요청함 □ 카세트테이프 등의 마이그레이션 작업 수행	
	예상 지원 방안	□ 둔촌주공아파트 수집기록물과 관리사무소 보관 기록의 위탁 보존 (※둔촌아파트 기념관 개관시 반환)	
	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	□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 ■ 기타 ( )	
	수집 협의 내용	□ 현재 보관공간이 곧 없어지는 경우로 일정 기간 보존관리를 대행하여 향후 위탁자가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 □ '마을에숨어'와 협력하여 수집한 둔촌주공아파트 수집기록에 대한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함	
특이 사항	아키비스트 주기	□ 공기관과 함께할 때 민간단체가 함께 할 때 명확한 메리트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였음 □ 또한 공동이 소유하고 있던 물품을 새롭게 활용하고자 할 때 소유권이나 저작권, 변환, 없애도 되는지 등에 대한 기준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함	

나. 케이스파일

<table>
<tr><th colspan="7">마을에숨어 케이스파일(접촉파일)</th></tr>
<tr><td colspan="2">케이스파일 식별번호</td><td>21-CA</td><td>버전 정보</td><td>v.1.0</td><td>최근수정일</td><td>2018.07.19</td></tr>
<tr><th colspan="7">소장처 인터뷰 정보</th></tr>
<tr><td>회차</td><td colspan="4"></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21-CA-2nd</td></tr>
<tr><td rowspan="4">2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06-28</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마을에숨어 사무실</td></tr>
<tr><td>인터뷰이명</td><td>이OO,
안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hideinmytown@gmail.com</td></tr>
<tr><td>인터뷰어명</td><td>임태원,
박지현,
전미정
소준철</td><td>녹취파일 링크</td><td></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소준철 : 전시 가능한 데이터. ①행정문서가 한 그룹. ②마을에숨어에서 워크숍에서 수집한 주민들의 기억, 작가가 기록한 작업 ③이OO 개인의 기록 ④안OO 수집 중인 유물/도면
이OO : 답답한 점. 개인의 기록은 묶여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내가 생각한 둔촌은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데... 진짜 잘 찍는 사람이 남겨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 작가가 개입한 작업도 있었다.
안OO : 행정과 시민 사이에. 관리사무소 기록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 중간쯤 되는 것 같다. 없어졌지만 살려놓은 게 있다. 완전 시민스럽지도 않고 딱딱한 행정도 아닌데. 그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조합과 어떻게 풀어낼지.
전미정 : 부동산을 가진 주민 입장에서 없애려는 것이 상식적이라 생각. 전시를 할 수 있는 꼼수를, 보여지는 방식에 있어서 싫은 내용을 어떻게 가려서 기술적으로 풀어내는가. 해석을 전시에서 두각. 각주 처리의 일부로 사용해 주인공처럼 보이지 않게 하면 되지 않을까.
소준철 : 아파트에서 방송할 때 기록을 남길까. 어떻게 할까? 시-구-동-관리사무소-아파트로 내려가는 게 원칙.
이OO : 멘트는 대본이 확실히 있고. 그걸 낭독했던 것으로 안다. 녹음된 파일은 있다.
소준철 : 중앙 정부에서 아랫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아파트 방송.
이OO : 국기게양에 대한 것은 있었다.

이OO : 디지털아카이브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함. 만들기 전에 왜 먼저 받아가는가?
임태원 : 목록이 필요하니까. 이용해주신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OO : 업로드도 직접 할 수 있다고 했던 것 같다. 관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참여를 할지 말지 확정은 아니다. 만들어지는 걸 보고 하겠다.
임태원 : 유물에 대한 목록을 정리해야함
이OO : 위탁하는 것은 목록을 넘기는 건 확인.
임태원 : 민간에서 기록하는 분들을 찾아뵙고 어떤 기록을 하는지 정리하고 정책수립, 프로세스도 만들어야 하는 단계. 유형을 찾고 범주화해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를 정리하는 단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 목록관련해서는 전시 얘기랑 하다보니 잠깐 혼선. 수집차원에서만 말씀드리면. 이런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데. 맘에 들면. 필요하면 등록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서 목록을 제시하면 됨.
이OO :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임태원 : 디지털아카이브. 9월 오픈 예정. 시스템에 샘플로 수집기록물을 등록을 해보려고 한다. 오픈하고 나서 기존의 수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는데...
전미정 : 전시팀에서건 기획하면 온라인 전시도 연결되나요?
임태원 : 기록화(수집)사업의 문제가 전시, 온라인 사업과 모두 연결되어 있음</td></tr>
</table>

2차	주요 인터뷰 내용	이OO : 네트워크에 꼭 껴야한다는 의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디지털아카이브를 만들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그걸 구축하는 걸 위해서 껴있는 건. 그것도 일일수도 있고. 원종관 님을 만나보면 같이 큐레이팅을 하고 그러면 다르긴 하지만 국가기록원 등 공기관에서 하는 거에 꼭 껴야하는가. 불신. SNS나 이런 게 너무 많고. 여기에 끼는 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임태원 :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이OO : 장기적인 건 의미가 있겠네요. 임태원 : 사설 보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보존의 장점. 플랫폼은 소통을 위한 채널이지. 아카이브를 염두에 둔 서비스는 아니다. 저절로 옛날 건 삭제된다던지. 기록원은 아카이빙을 염두에 둔 시스템이라는 차별점. 이OO : 구현한 걸 보여주는 샘플이 필요? 저희가 여력이 안된 것 같다. 전미정: 민간아카이브에서 둔촌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 소준철 : 시민기록이라는 샘플이 둔촌의 방식으로 확산한 것. 대표적이라고 생각. 여러 유형 가운데 주민기록, 공간에 대한 기억을 기록화하는 과정을 봤을 때 동의. 이OO : 시민단체나 시민을 봤을 때 전문가와 시민을 구분하는 관점. 전문가스럽지 않은 시민이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의미가 있음. 일반시민이 만들어내는 기록은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 우리가 시민 안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 모임. 애매함. 소준철 : 전문가와 시민의 구분. 아니다. 독특한 아파트라는 공간. 서울에서의 공간에 대한 기억을 모으는 작업에 초점. 어떤 사람은 공간, 어떤 사람은 사건, 어떤 사람은 생애만 모으는 사람이 있는데. 공간의 기억을 잘 구축한 사례라고 이해. 이OO : 공공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바라본 게 아닐까? 소준철 : 시민의 대표가 둔촌만 있어도 아니고, 공간의 입장으로 보고 있다. 전미정 : 기록원은 기관의 기준의 맞춰서 민간의 활동을 욱여넣지 않는다. 소준철 : 다양하게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이전에 했던 다른 기관과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이OO : 지금 세팅은 공공기관이 이럴 수 있구나. 좋았어요. 조직이 바뀌면 껴있는 민간 조직이 힘들어질 것. 임태원 : 서울시의 공공아카이브로 서울시의 기록도 다루지만 시민의 기록과 기억을 남기려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취지. 기관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전미정 : 둔촌아파트를 주제로 마을에숨어로 진행한 사업이나 작업 리스트, 연혁 이OO : 깔끔한 기록이 없다. 전시팀에서 작업한 게 그나마 정리된 자료. 덜어냈으면 싶은 것과 날짜 확인해서 공유하겠음. 전미정 : 기록물의 형태 이OO : 사진, 영상, 음성, 문서가 있지만, 문서는 조합 소유. 조합이 시에 기부채납을 할 거지만 과정에는 조합 소유. 책을 만들기 위한 레코드, 녹취록은 있다. 문서라니까 페이퍼여야 할 것 같다. 전미정 : 같은 문서여도 형태가 다양하다. 동 단위 결과보고서 문서도, 원고도 다양하다. 임태원 : 텍스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OO : 텍스트는 다 있다. 현수막은 둔촌주공아파트에 있는 걸 근철님이 수집했고, 저희건 게시판에 부착한 포스터는 찾으면 있을 것. 도면은 관리사무소 건데, 스캔 받아놓은 것이 있다. 디지털이 많고 책이 있고, 중간과정에 만들 때 가제본이 있다. 그런 것보다는 게시판에 붙었던 것이 좋을 것. 안OO : 입주자 대표 회의록은 분실했는데 카세트테이프는 있다. 틀어보니 안 나온다. 보존처리하면 나올 수 있다고는 하는데.

<table>
<tr><td rowspan="3">2차</td><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3">임태원 : 실물로 주시면
안OO : 그런데 소유가, 역사박물관할 때 쓰라고 한 건데
소준철 : 소유가 있다가 '니들 맘대로 해'라고 했을 때는 쓰면 조심해야 한다.
전미정 : 전시 때 액자나 판넬은?
이OO : 있는 것들이 있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다.
전미정 : 보유기록물의 양은? 평, m, 박스 몇 개?
이OO : 모두 분산되어 있고, 어디까지를 생각하는 건지 모르고, 모아봐야 알 것.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파트에서 나온 건 크지만 저희가 만든 건 책으로 엮은 것, 큰 지도 몇 개, 스탬프투어의 스탬프는 보관을 위탁할 정도가 아니다.
소준철 : 사진은 몇 장?
이OO ; 사진은 일상적으로 찍어서 정말 모른다. 제 사진뿐 아니라 받은 것, 더 받을 수도 있다.
전미정 : 저장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은가?
이OO : 저장공간이 요즘 싸다.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드롭박스도 쓴다. 준열(작업자) 씨가 찍는 건 파일이 큰데 준열씨의 외장하드가 있다. 그걸 하나로 모으지는 않는다.
전미정 : 외장하드 몇 테라가 몇 개인지 알면 디지털 데이터의 양을 가늠하도록 체크가 가능한가?
이OO : 쉽지 않을 것. 중복된 게 없이 정리하고, 라야 씨 영상도 최종파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OO : 수집이라는 말을 바꿔주세요. 진행되는 것이 수장고로 가서 잘 보존되었으면. 우리가 하기는 버거운 변환, 하지만 소유권이 애매한 상황이다.
임태원 : 활용의 문제는 나중에 풀면 되는데, 보존은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된다.
이OO : 후대를 위해 변화를 하면 좋을 것. 활용은 못 하더라도. 사실 녹취를 한다고 해서 현장에 누가 있는지의 사전정보 없이 정리한 게 스토리가 될까 고민. 조합이나 관리사무소의 기록이 여럿의 기록이다. 막 없애도 되는지에 대한 관리 기준. 몇 년간 버리면 안 되는 등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공동의 기록물이 무슨 의민지 생각해야한다.</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수집물의 보존이나 변환이 버거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함.
□ 둔촌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기록물이 대부분 폐기되었음. 이 가운데 직접 수집하여 남긴 수집기록물의 위탁관리를 요청함.
□ 임시 보관 등을 위해서는 공동의 저작물을 수집하였을 때, 새롭게 활용하고자 할 때, 혹은 없애고자 할 때 저작권이나 소유권이 애매한 상황이라 이 부분이 가능한지 고민이 됨.</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마이그레이션
□ 둔촌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사업조합 위탁보존 관리 진행</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3">기념관 설립 이전까지 기록 이관 및 위탁 보존</td></tr>
</table>

3.3.2. 해방촌마을기록단

가. 리드파일

<table>
<tr><th colspan="7">해방촌 마을기록단 리드파일</th></tr>
<tr><td colspan="2">식별번호</td><td>19
-LE</td><td>버전 정보</td><td>v.1.0</td><td>최근수정일</td><td>2018.7.19</td></tr>
<tr><td rowspan="11">리드
정보</td><td>리드명</td><td colspan="2">해방촌 마을기록단</td><td>리드 유형</td><td colspan="2">□ 개인 □ 가문 ■ 단체</td></tr>
<tr><td>리드의
다른 이름</td><td colspan="2">HBC 아카이브</td><td>리드 영역</td><td colspan="2">□ 공공 □ 협치 ■ 민간</td></tr>
<tr><td>리드 연락처</td><td colspan="2"></td><td>리드 이메일</td><td colspan="2">heogilsu@gmail.com</td></tr>
<tr><td>리드 주소</td><td colspan="2">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2가 신흥로 97-2, 2층 (신흥시장내)</td><td>리드 웹주소</td><td colspan="2">-</td></tr>
<tr><td>리드
소개 및
연혁</td><td colspan="5">□ 2016년 해방촌마을기록단을 시작. 기획단 구성. 수집단 모집의 과정을 거침.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해방촌에 관심이 있는 사람'. 기획단이 수집단이 기록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길잡이 역할을 함.
□ 기록물의 저장 및 보관에 관한 비용과 안전성에 관한 문제, 기록 방법에 관한 교육의 부재, 아카이빙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에 관한 버거움, 안정적인 기록물, 기록활동, 전시등과 같은 공간확보에 관한 어려움 등을 이야기.
□ 해방촌 마을기록단 1기 (2016.06 ~ 2017.02) : 기획단(13명), 수집단(25명)
□ 해방촌 마을기록단 2기 (2017.02~현재) : 기획단(9명)

□ 대표자 허OO의 약력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졸업, 현 건축도시대학원(석사과정 중) 해방촌에서 6년 째 거주 중.
(결혼 후 아이 둘, 부인 : 해방촌 마을기록단 심OO) 지역민으로서의 도시 기록에 대한 관심, 사라져가는 공간에서 기록이 지닌 힘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작업 진행. 생계를 유지하는 일로서 불가능. 건축설계 등의 일도 병행.</td></tr>
<tr><td>리드
대표자명</td><td colspan="5">허OO</td></tr>
<tr><td>리드 대표자
연락처</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4">리드 구성원
정보</td><td>리드 구성원명</td><td>리드 구성원 역할</td><td>리드 구성원
연락처</td><td colspan="2">리드 구성원 이메일</td></tr>
<tr><td>심OO</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기록단원1기(20여명)
기록단원2기(10여명)</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5">리드
정보</td><td rowspan="5">리드 관계
정보</td><td>리드 관계 단체/인물명</td><td>관계 범주/형식</td><td colspan="3">관계 내용</td></tr>
<tr><td></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 기타</td><td colspan="3"></td></tr>
<tr><td></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 기타</td><td colspan="3"></td></tr>
<tr><td></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 기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리드
접촉정보</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인터뷰
일시</td><td>인터뷰
장소</td><td>인터뷰어명</td><td>인터뷰이명</td><td>최근 수정일</td></tr>
<tr><td>19-CA-1st</td><td>2018.5.23</td><td>해방촌
신흥시장
스튜디오
정미소</td><td>전미정</td><td>허OO</td><td>2018.07.19</td></tr>
<tr><td>19-CA-2nd</td><td>2018.8.28</td><td>해방촌
신흥시장
스튜디오
정미소</td><td>전미정</td><td>허OO, 심OO</td><td>2018.8.28.</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11">보유
기록물
정보</td><td>아카이브명</td><td colspan="5">해방촌 마을기록단</td></tr>
<tr><td rowspan="3">주요 컬렉션
소개</td><td colspan="2">컬렉션명</td><td>구분</td><td colspan="2">설명</td></tr>
<tr><td colspan="2"></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5">□기록물은 기수별로 정리된 상태</td></tr>
<tr><td>시정기록
연계 링크</td><td colspan="5">-</td></tr>
<tr><td>보유기록물
구분</td><td colspan="5">■ 전자 ■ 비전자</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유형</td><td>전자</td><td colspan="4">■ 문서 ■ 사진 ■ 영상 ■ 음성 □ 기타 ( )</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4">■ 문서 ■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 기타 (시장 축소 모형 1)</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규모</td><td>전자</td><td colspan="4">□ 총 약 280GB
(최종파일) 외장하드 : 241GB, 네이버클라우드 : 17GB
(과정기록파일) 노트북 드라이브 : 10GB</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4">□ 해방촌 마을기록단 발행책자 : 총8부
자료집 : 4부, 구술집 : 2부, 최종보고서 : 1부, 전시 팜플렛 : 1부

□ 비전자 기록물 용량 : 우체국 상자 5호 2개 정도
문서, 도서, 도면, 전시자료(족자), 포스터, 현수막 모두 해당</td></tr>
<tr><td>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td><td colspan="5">□ 네이버 클라우드 정리 사진
(https://drive.google.com/open?id=17-iv9uc5y-4OkxQFMR7pe2U6bySfNw43)</td></tr>
<tr><td rowspan="3">보존
관리
현황</td><td rowspan="2">보유기록물
상태</td><td>전자</td><td colspan="4">□ 지도, 사진 등의 이미지 파일
□ 활동, 아카이빙 영상 기록 파일
□ 관련 문헌 등의 서류
□ 자료집, 구술집 등의 가공 자료 등의 보유/생산 자료는 외장하드,
네이버클라우드, 노트북을 통해 저장함. 드라이브 용량 모자라서 VR과
영상자료는 이동식디스크에 보관중임.</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4">□ 사무실(4평), 네평학교(4평) 규모의 공간 보유
□ 박물자료, 책자자료는 사무실에 보관. 항온항습X
2층에 수도가 터져서 물이 문턱만큼 찼던 적이 있음.
자료가 젖지는 않았고. 보관 공간은 천정 다 뜯어 목재만 무성한 상태.</td></tr>
<tr><td>관리 현황</td><td colspan="5">별도의 관리 인력은 없음</td></tr>
</table>

협력방안	리드 요구	□ 기록활동시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일괄로 요청받아 통합처리지원, 컨설팅. □ 오프라인 마을기록전시 공간을 지정하여 대여, 위탁운영함으로서 "기록"을 통한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창구 개설(도시재생사업내 마을박물관, 지역공공도서관, 일선학교등과 연계) □ 해당 기록물들의 성격을 들어낼 수 있도록 편집 등 기록가공과정을 교육, 역량강화지원 또는 코디네이터단체 위탁운영 □ 기록물들(박물류를 포함) 스캐닝 등 디지털데이터파일로 변환해 공유, 돌려주는 방식, 서버로 저장 □ 기록장치 렌탈, 관리운영교육 □ 가공물로 출판시 비용지원 □ 서울사람' 등과 같은 서울시 기록매체(매거진, 영상물 등) 컨텐츠 제작시 해당지역의 민간기록단체등에 비상시적으로 위탁해 진행 : 다양성, 수용성을 높여 주민 체감을 높이는 일 □ 다음, 네이버 맛집 지도와 같은 형식으로 (마치 서울시 공공성지도, 서울시 미래유산처럼)서울시 기록지도를 만들어 주민들과 소통하는 창구가 기록원 홈페이지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 □ 지도에는 위치기반(핀이 표식), 각 지역기록단체들의 기록내용들을 통합 홈페이지에 공지(기록단체명기) ex.커뮤니티 아카이빙 맵 : 해방촌 마을기록단 홈페이지와 유사한 방식
	예상 지원 방안	
	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 ■ 기타 ( )
	수집 협의 내용	기록사업과 기록활동에 대한 가능한 지원과 서울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한 커뮤니티 형성 등 지원에 대한 기대와 요구 사항이 명확함. 단체 내부 구성원의 사전 협의가 끝난 상황에서 2차 면담 진행함. 협약의 구체적인 항목이 비교적 빨리 정리되었고 문서에 대한 합의와 확인 단계만 남겨놓은 상태임.
특이사항	아키비스트 주기	1차 미팅 당시 신흥시장 2층에 위치한 설계사무소 스튜디오 정미소에서 만남. 해방촌마을기록단 활동을 하기 이전의 배경(문화도시연구소) 설명. 해방촌 지역조사를 비롯해 지역연계 기록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6년째 해방촌에 주민으로 기록활동 진행. 2차 미팅을 할 때는 전에 사용하던 사무실이 아니라 200여 미터 떨어진 공간으로 이사해있는 상태였음. 이유는 기존 건물주의 아들이 가게를 한다는 명목으로 공간을 빼달라고 했음. 도시재생지가 상업공간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그곳에 오래도록 거주하던 원주민/입주민이 이주를 해야하는 상황(젠트리피케이션)이 잦은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함.

나. 케이스파일

<table>
<tr><th colspan="7">해방촌 마을기록단 케이스파일(접촉파일)</th></tr>
<tr><td colspan="2">케이스파일 식별번호</td><td>19-CA</td><td>버전 정보</td><td>v.1.0</td><td>최근수정일</td><td>2018.07.19</td></tr>
<tr><th colspan="7">소장처 인터뷰 정보</th></tr>
<tr><td>회차</td><td colspan="4"></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19-CA-2nd</td></tr>
<tr><td rowspan="4">1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5.23 16:00-18:30</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해방촌 신흥시장 스튜디오 정미소</td></tr>
<tr><td>인터뷰이명</td><td>허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heogilsu@gmail.com</td></tr>
<tr><td>인터뷰어명</td><td>전미정</td><td>녹취파일 링크</td><td>https://drive.google.com/open?id=1UcRjbhEcjxF3jdcY24cCl2uNWX_DX3Si</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전미정 : 그럼 기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허OO :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기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당시의 2014년 자료인데. (방문용 응답지가 정리된 파일을 보여 줌) 담당자가 누구고, 여기에 운영한 지 얼마나 됐고 시시콜콜한 거 다. 건강상태. 마을 공동시설 이용하는 것.
전미정: 이런 질문이나 항목은 어떻게 정리했는지?
허OO : 이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이때 했던. 문화도시연구소라는 곳에 다녔다. 지역연구하는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근무를 여기에서 했고. 집짓기 봉사활동을 계속 해왔음. 2006년부터. 처음에는 태백 철암에서 활동을 했던 것이 시초가 되어서 폐광지역에서 재생하는 사업. 2002년도에 시작된 활동. 이걸 하며 독거노인 집들을 할머니들 만나고 했던 바탕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가공을 해서 면담카드를 만듬.
전미정: 실측도 하셨네요.
허OO : 네. (당시 조사자료) 2014년도에 7월에 한 번에 다 한 자료. 당시 시장의 모든 게 담긴 것. 70% 정도 될 것. 왜냐면 면담을 거부한 분도 계셨기 때문에.
전미정: 이 면담을 진행하는 건 누가했는지? 참여하는 분들?
허OO : 학생들. 건축도시 베이스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자원봉사단. 그 농촌집짓기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친구들인 거죠.

전미정: 요즘 대학생들 바쁘잖아요. 자기 삶이 힘든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친구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활동을 하는 게 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나요?
허OO : 음. 그게 이제 어... 돈을 주거나 그런 건 없죠. 과거에는 아예 도움 될 게. 자기 추억? 자기 뜻. 자존감 같은 걸 수도 있고. 2002년도나 이럴 때는. 저는 2005년 학생일 때 참여. 돌아서 생각해보면, 자존감 같은 것. 보통 여유 있는 친구들은 방학 때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은 안 되고. 뜻 깊은 일을 해보고 싶은데 그런 고민을 할 때 가짓수(선택의 폭)가 많지 않다. 표면적으로 정리되거나 단편적으로, 이미지로 나오는 작업들은 해봐도 직접 손으로 뭘 해보고, 만들어보고. 자기 일, 전공과 관련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은 많지 않으니.
전미정: 대표님은 전공이?
허OO : 저 건축학과 나오고 지금은 건축도시대학원 석사과정 중. 제가 아는 교수님이 계셔서 교수님 보고(갔어요). 세월호 때 건축가가 모형을 만든 일이 있었다. 세월호 사고 나자마자 구조 중일 때 바로 모형을 만든 분이 계시다 조성룡 건축가. 현재 은사님. 처음 알게 된 건 단원고 앞에 공원에 '학교 가는 길'이라는 프로젝트로 기억하는 구조물/쉼터를 건축가들이 만들었음. 지역조사도 하고. 조성룡 교수님이 했음. 그때 저도 한 건물을 참여. 쉼터를 만들었는데 알게 되어서. 심OO 씨와는 부부 관계. 농촌집짓기를 하면서 만났다. 구체적, 용기를 내서 하는 건 심OO 씨가 더 힘이 있다. 추진력. 저는 어른이 되버려서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고, 뭔가 의심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림 씨는 안 그렇고. 서로 조합. 보완도 되고. 해방촌 와서 두 아이를 낳고 살고 있다.
전미정: 진짜 동네 주민 맞네요.</td></tr>
</table>

1차	주요 인터뷰 내용	전미정: 보니까 대표님은 일관적인 된 데가 있네요. 일관적으로 사회와 연결되는 일을 하신 거네요? 관심사가 그러신가요? 허OO : 그게,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체성이 뭐지, 내가? 이런 생각이 든다. 나도 궁금. 밥벌이로 건축설계도 하지만 반절은 다른 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론을 내린 게. 결과적으로 그걸 내가 한다 안한다는 그 의도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구분이 안 됨. 이미 그걸 하고 있거나. (웃음) 이미 한다고 했거나, 이런 상황이더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냥 그런 놈이구나. (웃음) 그게 일관성이라면 일관성.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능력이 다하는 부분을 그냥 사는 거 같다. 요즘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전미정: 해방촌 마을기록단이 있다. 마을탐구생활도 있고, 여러 개로 하시는 일이 섞여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록단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조직들이 갖춰진 것인지? 허OO : 원래는 네평학교로 시작. 마을과의 접점은 네평학교로 시작했죠. 전미정: 그게 몇 년? 허OO : 2014년. (아까 보여준 파일을 가리키며) 2014년 실측 작업을 하면서. 인문사회조사를 하면서 하게 됐고. 그때 네평학교를 얻어서 그걸 개보수 후에 주민들과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죠. 비어있게 만든 것. 그러고 나서 1년 반 정도 걸린 거 같다. 마을 분들이 "야 니들 왜 불 켜놓고 갔어?" 이러면서 불을 꺼주고 알아서 챙겨주는 게 1년 반. 산지 6년 되었으니까 주민이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 외의 일들. 따로 수행하고 있다. 이해관계를 가진 건 하나도 없고.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 돈이 걸리거나 하면 안 되니까 구분 짓는 중이다. 심OO 씨와는 부부 관계. 농촌집짓기를 하면서 만났다. 구체적, 용기를 내서 하는 건 심OO 씨가 더 힘이 있다. 추진력. 저는 어른이 되버려서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고, 뭔가 의심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림 씨는 안 그렇고. 서로 조합. 보완도 되고. 해방촌 와서 두 아이를 낳고 살고 있다. 전미정: 진짜 동네 주민 맞네요. 전미정: (기록원 민간기록화 활동 협력네트워크에 대한 설명) 소소하게 보관용 박스를 지원하거나, 교육을 한다던지 등등. 관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단체의 눈높이가 다른데 수혜 주듯 하면 안되고 뭐가 필요한지, 단계별로 어떻게 적합한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게 되었고, 사람을 만나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민간과 일을 진행할 때 일방적으로, 공공의 입장 위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기록 쪽에서도 공공이 관심이 있는 자료들은 가져가고 인수하거나 하는 방식. 그러고나서 그 자료를 일반인이 활용하려면 문턱이 높아서 사용하기 어렵고, 그랬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기록원은 본래 자료가 생산된 맥락을 인정하고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고 일괄적인 인수방식이 아니라 연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사업이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끝나고 난 다음, 이후에 협약을 맺으려고 한다. 단체마다 협약의 내용도 달라질 것. 협약서의 구체적 항목까지 정리해나갈 기대를 가지고 있다. 오늘은 1차 미팅, 의견을 듣고 인터뷰 정리 후 협약은 기록원 분들과 진행할 예정임 전미정: 해방촌마을기록단 아카이브,라고 하면 될까요? 허OO : 네. 그럼 될 것 같아요. HBC 아카이브는 영어 표현이라서요. 공식표현은 해방촌 마을기록단. 저는 이 기록을, 시작을.. 사실은 해방촌 재생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미정: 언제 지정되었죠? 허OO : 2015년이요.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공공에서 민간의 영역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표현이, 많이 다르다. 재생사업이 딱 그렇거든요. 재생사업하면 이미 잘 갖춰진 공동체를 도와줘서 육성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뭐에 가깝냐면 행정적으로 가깝거나, 쉽게 컨택이 되거나... 그런 곳을 위주로 커뮤니티를 다시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요. 아니면 기존의 것을 잠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재생사업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을 지원해준다는 것. 복합적인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랑 동일한 것 같아요. (이런 재생사업이) 이게 오히려 파괴시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잘 활동되는 거를 오히려 파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인제 자립심을,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을 깨는 것일 수도 있어요. 수혈을 계속 하다보면. 지금 또 청년들에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도 사실 한계가 (보이는데) 그런 과정에서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1차	주요 인터뷰 내용	전미정: 청년일자리창출사업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허OO : 네. 계속 지원해주고.. 이런 재생사업도. 주민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들. 접수 받아서 쉽게 돈을 주거든요. 그 단기간에는 이게 활동이 되요. 근데 그게 끝나잖아요? 그럼 그것도 사라져요. 이게 (지원이 끝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바탕이 아니라. 재생지역이라는, (그리고) 재생사업 내에 어떤 괄목할, 비주얼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일로 간다는 거죠. 소식지 1권 만들고 행사사진 1컷 찍히는. 그리고 마을축제 하는데 한 5명 모였는데, 한 컷 찍으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많이 있다. 이게 인제 중간에서 실무자에 대한 영역도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공공에서 민간에, 아까 수혜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무언가를 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한다. 장기적으로 봐야되고. 자립적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돈보다 더 중요하다. 금전적인 거, 그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 오히려 지금 부족한 게 뭔데. 민간에서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가치있다고 판단되는 게 무엇인지 진단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 말씀처럼 진단형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부족한 부분을 조금만 채워져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거로. 지원을 통해서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것. 주치의처럼. 치료해주는 것? 그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치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 공적인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지나간 후에 이관이든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희도.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거든요. 1차 기록화 작업 결과물을 전시나 출판의 형태 등을 활용해 관객, 주민과 공유하고 거기에서 2차 기록물이 재생산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실행 가능성은 현재 인력이나 상황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전미정: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요? 아니면 다른 의미에서의 한계? 허OO : 저희는 뭐 딱. 우리는 그냥 주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일상의 수준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즐겁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러다보면 그게 뭐랄까. 그게 기록에는 결국엔 시간을 가지는 거고, 그게 어떤 공감대 형성되는 가치가 생기려고 하려면은 그래도 최소한의 체계적인 관리방법이거나, 이거를 소통하는 방식. 이게 뭐, 어떤 형태든 다른 분들에게 공유하는 방식 이런 거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전미정: 공유하는 방식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해방촌에서 기록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살고 계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록한 걸 나눠주는 방식.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허OO : 네. 나눠주는 방식. 그리고 같이 전미정: 표현하면서 그게 또 다시 피드백이 오가는 허OO : 그렇죠. 그분들도 쉽게 기록을, 코멘트하면서 또 기록을 할 수 있는. 형태는 다르더라도. 이런 어떤 방법. 시도는 했어요. 홈페이지도 만들려고 하고, 지도를 보면서 그 위치에 이야기를 산재해놓고 그걸 클릭하면 거기에 대한 기록과 이야기가 딱 뜨고, 그럼 자기가 위치기반이든 뭐든 해서 기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참여가가 참가할 수 있게.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 허OO : 저는 기록을 한다는 건 결국 어떤 관점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기록되니까 저는 이게 기록이라는 게 결국에는 권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지역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권리. 전미정: 기록이 권리가 된다. 예를 들면 이곳의 주민이든 대표님이든 기록을 만들거나 모으거나 정리한 사람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권리를 갖는다? 허OO : 네. 지금은 주민을 구분하잖아요. 건물주 아니면 주민이 아니죠. 행정적으로 가면 그래요. 권리라는 이해관계가 생기는 시점에 가면 주민은 다 건물주예요. 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전미정: 젠트리피케이션도 그 맥락이겠네요. 허OO : 네.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것도 그 부분인 건데,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물론 그게 뭐 싸워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변해갈 수 있는 힘은 될 수 있다고 봐요.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배제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마을에서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어, 그런 힘은 적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계속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공공에서는 별로 안좋아하죠. (웃음) 왜냐하면 행정에서는 이런 사업이 잡음이 없고 잘 진행되어야 되는 거 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부각되거나 그런 문제점을 도드라지게 하는 기록 활동을 하게 되면 공공에서는 탐탁치않아 하죠. 전미정: 기록이 갖는 성향이 그런 문제점을 자꾸 드러낼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니까 그렇겠네요.

1차	주요 인터뷰 내용	허OO : 기존에는 재개발 재건축이면 확 밀고 확 생기잖아요? 그것도 문제죠. 그런데 그때는 기록이라는 게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일시적으로 정리해버리니까. 공사팀이 사전사후 찍듯이 일시적인 기록사업. 그런데 지금은 (도시재생의 차원) 그 여파가 다 마을로 왔잖아요. 그게 돈으로 따지면 아파트에 투자했던 재개발 시절의 돈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지역으로 오는 거예요. 재생사업과 결합이 되어서 그래서 마을이 변해가는데, 이게 단순간에 확 변하는 게 아니고 야금야금 변하는데. 차라리 정체성이 있다가 내가 나는 뭐였었는데 사라지거나 하면은 변한 거잖아요.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이건 야금야금 변해서 결국엔 그 성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워지기는 하는데 서서히 지워지거나 바뀌거나. 이게 상황이에요. A에서 B로 바뀌면, 아예 다른 게 되잖아요. 그럼 그냥 포기해요. 아. 그래. 저기가 뭐였지. 아파트 들어섰구나.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내가 예전에 갔던 길, 골목은 슴슴하게 있어요. 그때 할머니들하고 평상에서 우리가 얘기했지 그 할머니 돌아가셨나? 그런 얘기하는데 좋든 좋지 않든 기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섞여서 있으니까 아쉬운 거예요. 근데 그 아쉬움은 자기의 아쉬움인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가지고 있던 그 시기의 그 기억.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건 그래도 집단기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방촌이라고 하는. 그건 일시적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거에 대한 공통의 기억 느낌 분위기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집단기억) 변화되는 게 보이니까. 그에 대한 안타까움은 서로 결은 다르더라도 느껴지는 거죠. 전미정: 해방촌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가 찾아왔을 때랑 1년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 사이에 아까 계속 너무 많이 바뀐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가장 큰 변화인가요? 일단 나가야 하는 게 가장 큰 변화겠네요. 허OO : 일단 (저희도) 나가는 게 해방촌 마을기록단이 현재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가 계약종료 시점부터 아들이 곱창음식점을 한다고 하여 오는 9월이면 마을기록단 사무실을 빼야하는 상황임 큰 변화죠. (웃음) 일단 편의점이 오거리 근방 300미터 안에 일곱 개가 생겼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오거리 기준 300미터 이내. 이게 보인다. 연예인들이 시장에서 집을 사고. 노홍철이랑 정엽. 이 앞에 케이크 집도 정엽 건물이다. 그 여파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백종원의 맛집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TV에 나오더라. 신흥시장 안에만 3개를 잡아서 하고 있다. 그니까 저도 그 프로그램을 처음 봐가지고. 백종원이 마을을 대상으로 한 건 처음 봤다. 그 프로그램에서 한 곳은 연예인(황치열)이 팝업 진행하는 데 본래는 가게는 아니었는데 전세세입자였는데 본래 있던 분은 쫓겨남. (<환경정의>에 2017년 10월 기고한 원고를 보여줌, '투기적 도시화'를 실재하게 만든 도시사회정책,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대해 비판적 문제제기를 한 짧은 컬럼 첨부파일 참조) 허OO : 나가게 하잖아요. 초반에 이분들은 20면 이상 사셨던 분들. 2014년 인터뷰이. 적어도 10년~20년 장사하던 분들. 워낙 정체된 장소. 돈이 안 되니까 쫓아내더라도 대항력이 별로 없는. 본래 있던 분들이 원래 없기도 했고, 20년 동안 넘게 살아도 월세, 전세 하나도 안 올렸고 잘 해줬으니까. 전세보증금을 안올렸다.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면 그냥 조용히 나간다. 계시던 분들 중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꽤 됨. 해방 이후 자리 잡은 거니까 40년 50년 장사한 분들이라. 전미정: 기록원에서 이런 일을 할 때도 참 조심해야겠어요. 허OO : 네. 원칙을 잘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양식을 다시 보며) 이 내용은 제가 잠깐 봤는데, 일단은 용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기록원에서는 이렇게 쓰겠지만, 이게 리드? 기록대상? 접촉자? 이건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한참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설명해드림) 전미정: 또 눈에 걸리는 게 무엇이 있던가요? 허OO : 기록적 가치에 대한 부분은... 전미정: 먼저 보내드린 이유가 생산된 기록의 유형이 어떠한지, 그런 거는 아시니까 실제 현장조사 문서도 있을 수 있고, 용역사업하면서 프로젝트별로 생산된 문서가 있을 수도 있고, 도면도 실측도면과 옛날 자료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단체마다 다를 것. 수집만 해놨지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 디지털 파일도 폴더 정리의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1차	주요 인터뷰 내용	허OO : 저희도 이거에 두 달은 회의를 계속했던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동안 모은 거. 그리고 저희는 기록을 각자 했었으니까. 전미정: 기록을 각자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허OO : 저희는 시스템이 기획단이 있고, 기록단이 있다. 기획단은 기록단으로 소속된 분들이, 참여자가 기록을 잘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 이를테면 저희 뭐 60대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그럼 이분이 기록을 하려면 생소하잖아요. 그럼 기록의 방법을 알려드리거나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알려드리고. 어떤 기록을 하고 싶다고 하면, 관련된 분을 만나게 해주거나. 공통되게 있으면 그런 분을 초빙해서 강연을 해주거나.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배경이 있거나 하면 알려드리고. 하는 게 기획단의 역할. 기록단에 배정자들이 기획단에 있는 거죠. 도시/인문/인물/장소, 이렇게 나눠 있으면 하고싶은 걸, 각각의 주제를 맡은 기록단이 있는 것. 그래서 정리도 그 기획단이 정리를 하되 기록하신 분이 정리할 수 있는 저희가 체계를 만들어드리고 직접 거기에 저장할 수 있게 했거든요. 전미정: 그럼 그건 동일하겠네요. 폴더는? 허OO : 네. 폴더 내용은 동일하다. 내용만 다른 형식이죠. 클라우드를 썼어요. 네이버 클라우드. 전미정: 혹시 폴더 트리를 볼 수 있나요? 허OO : 그거요? 하 그게... 전미정: 근데 별도의 관리인력은 없으시죠? 허OO : 없어요. 전미정: 그럼 이 기록단이 클라우드에 자료를 올리거나 하는 건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허OO : 보관된 자료가요? 전미정: 기획단, 기록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계속 클라우드에 자료를 올리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허OO : 아니오. 기록단은 기술은 끝났고. 이제 2기로 지금 모인 분 10분이세요. 이분들과는 얘기를 하는 중인데, 그 내에서 교육 분과하고 몇 가지 분과를 만들었어요. 역할을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 기록을 하는 건 멈춘 상태에요. 전미정: 작년에 1기들이 한 기록을 또 새롭게 해석해야.. 허OO : 그렇죠. 이게 수익사업이 필요하더라고요. 교육분과도 그렇고. 강의요청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럼 교육분과가 가서 하고 그걸 가지고 공동수익으로 생각하고. 탐구생활 같은 경우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역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걸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고, 그 사이에서. 저 저희가 다른 일 해봐도. 지원사업을 거의... 기록단 하면서 지원사업을 처음이었는데. 그 뒤에 네평학교에서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때도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걸 했는데 금액은 작은데 저희하고 잘 맞았다. 정산도 복잡하지 않고 개입 하려고 하고 그런 게 문화재단은 적더라고요. 취지와 목적을 잘 반영해주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로 제안을 하게 된 거고. 수림씨도 저도 계속 하고 싶어 했던 거라서. 저걸로 인해서 수익사업을 생각하고 있죠. 전미정: 그런데 기획단이나 기록단이나 이걸 본업으로 하시지는 않잖아요? 허OO : 없죠. 그렇게는 해서도 안 되고. 전미정: 그럼 주로 뜻 있고 여유도 있는 분들이 하시나요? 허OO : 저희는 주말에 만나요. 주중에는 일을 하시고 주말에 만난다. 동네 분들 위주. 아닌 분도 계세요. 근처에 사는 분도 있고, 여기 있다가 후암동으로 간 분도 계시고. 이것도 참 안타까운 거죠. 정주권이 없으니까. 커뮤니티는 기본적으로 정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2년 뒤 다른 데로 가야되는데 뭐. 여튼.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뭐 어떤 분은 다큐멘터리PD도 있고. 오히려 그분은 본인 업 쪽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없다. 신기했어요. 특이한 분. 마을연구자. 주부.. 다양합니다.

1차	주요 인터뷰 내용	허OO : 네평학교. 월세 10만원이거든요. 4년 동안 10만원만 내고. 전미정: 그게 가능해요? 허OO : 건물주가 제주도 분이세요. 서울의 변화를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그 돈 내고 있을 수 있죠. 저희가 이렇게 관리가 잘 안되요. 전미정: 이외에 다른 형식의 자료들이 있나요? 허OO : 그 외에는 관련된 책자들. 예를 들면 용산과 관련된 책이랄지, 그런 거예요. 네평학교에 본래 다 들어가있던 책들인데. 수해를 맞아서. 전미정: 언제쯤 공사가... 허OO : 해야되는데, 이번에 탐구생활 진행하려면 빨리 수리해야죠. 저희가 몸으로 떼워서 해요. 그냥 무인 책방처럼 두는 거예요. 전미정: 없어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허OO : 신기한 게 안 없어져요. 한 권 없어졌는데, 저희가 직접 만든 거 하나 가져가셨더라고. 그 외에는 없어진 거 없어요. 거기에 저금통이 하나 있거든요. 차 갔다 놔요. 그럼 거기에 500원 이상. 넣을 수 있게. 방명록 있고. 저희는 재생사업에 보면 마을박물관 사업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 하면요. 이게 이제 뭐랄까? (매우 망설이며 말함)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평학교만 운영할 수 있는 비용. 그것만 되도 계속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엄청난 비용을 들어서 건물 짓고 전시관처럼 하지 않더라도. 전미정: 이런 의지를 가진 단체가 거기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도시재생처럼 지원을 해주는 게 있다니가 단기 기획처럼 몰려들었다가 하게 되면 지속이 안 되니까. 혹시 해방촌처럼 우리랑 비슷한 열정으로 작업하는 팀이라고 느낀 곳이 있었나요? 허OO : 분명히 있을텐데. 경기도 쪽에 좀 있는 거 같아요. 안산도 그렇고. 소소한. 이건 문화 쪽 관련된 거 같고, 이건 재생 느낌이 많이 나지만 그래도 그나마. 없는 얘기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자립적인 활동하는 곳들. 경기도에도 좀 있는 것 같다. 안정리 마을재생프로젝트. 문화기획자들이 본 서(西)수원. 전미정: 기록단이 가진 기록이 다양할텐데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허OO : 저희가 활동계획서를 받아요. 기록단(기록하는 사람). 자기 활동 계획. 수집 주제와 대상, 수집 방법 도구, 툴은 뭘로 사용하겠다. 뭐 이런 계획. 뭐뭐를 하겠다. 그럼 저희가 필요한 게 뭐냐를 받아서 지원해주는 거죠. 1. 활동계획서 : 기록단 사람들이 정리. 수집 주제/대상, 주제 선정 이유, 수집 방법, 도구 등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면 기획단에서 지원/제공 2. 지도 사진 VR자료 등 물품 (함지박, 시장에서 쫓겨나던 분들이 주신 것. 625에 썼던 함지박, 풍로, 옛날 물건) 그걸로 기록한 사람은 없지만 수집된 것은 있음 (네평 학교에 있음) 3. 시정자료 모두가 비상근이다. 기록하는 방법 이게 다다. 사진. 그나마 손을 놓을 수 없는 게 지도 위에 쓰고 공사 상황 기록하고. 국가기록원에서 받아온 자료가 있다. 해방촌 관련한 시정자료도 있다. 4. 면담카드 실측도면은 선물해드리기도 함. 이거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너희는 뭐 먹고 살아? 뭐하려고 해? 박원순의 아이들이라고 생각. 서울시에서 돈 받고 하는 줄 안다. 장사를 하라고. 뭐 하러 하냐고. 5. 공간 그 자체(네평학교) 이걸(기록물) 관리하려고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누구나 잘 볼 수 있게 하는 것. 공간 하나 비워놓고 저런 기억이나 기록으로 채우는 활동을 지속. 중소기업. 브랜딩이나 컨설팅을 해주는 거. 라디오 방송에 나왔다. 그 시스템을 지속할 수 있는, 지속하기 위한. 뭐가 부족한지 진단하고 채워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필요한 것일 것. 그게 돈은 아니다.

<table>
<tr><td rowspan="3">1차</td><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3">전미정: 해방촌 마을기록단에서 필요로 하는 도움이 있을까요?
허OO : 민간에서 기록할 때 자문이 필요하다.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편협되게 가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문도 필요할 것 같다.
표현해서 전달하려는 입장이다보니. 공감을 얻어내기 위한 방식에 대한 자문도 필요하다. 기록하는 대상 자체를, 어떤 의도가 생기면 그 관점에서 기록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치우치지 않게 하는 어떤 단계. 기록단하면서 제일 힘든 것. 너무 민주적이어서. 기준이 없는 게 자율성, 통제안됨의 장점이 단점이기도 하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의견수렴도 쉽지 않고. 그에 대해서. 스스로 기준을, 다수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개인 관심사로 가는데 가치판단을 누가 할 것인가. 대표가 한다. 이러면 안 되니까. 도시재생지역 지정되자마자. 기록물의 중요한 카테고리가 되어버린 것. 저것은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다. 2014년 사진은 찾아볼 수도 없고, 이야기도 없고. 공공영역에서 기록하지도 않는다. 잡지가 그런 형태로 하기는 함. 순수하게 하기도 하지만 상업/홍보용으로 쓰이는 게 더 많고. 공적으로 민감하거나 공공영역/행정에서 좋아하지 않는 아이템을 다루지는 않는다. 그 내용이 편파적일 수밖에 없이 가다. 퍼블리싱되야하고 비용을 받아야 하고. 누가 기부를 해주나. 지원금으로 하는 경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활동을 할 때도 활동비로 돈을 주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활동을 증빙할 것인가. 활동공유회를 통해서 공유를 하면 그 달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형식이었으니.... 그럴 때마다 기준/원칙을 뭘로 할까. 이율배반적인 고민. 근데 그렇게 안하려고 하니까 힘들더라.

전미정: 해방촌 마을기록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록물이 있을까요?
허OO : 가치있는 기록물이요?
전미정: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뭘 들고 나갈 것인가...
허OO : 그렇네요.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저는 사라지는 모든 게 가치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가 기록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가치가 아니지만 가치가 만들어져버렸다. 시장도 시장이지만 108계단 사라졌다. 구의원 공약했던 것. 해방촌하면 계단이라고 했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라져버렸다. 사라지기 전에 측량, 실측을 하거나 그런 게 없었다. 그렇게 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사라지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시장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저분들이 그렇게 내몰림을 당할까? 설마. 젊은친구들이 여기까지 소비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다. 네평학교 할 때 시장이 오래된 상가. 공동화. 상행위 자체가 없이 차상위계층이 월 10만원 내고 주거지로 쓰던 곳.</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저장/보존 스토리지 지원
NAS 이런 거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드라이브도 괜찮더라. 1년에 연 사용료 낸다. 사용료 지원.
□ 자료 지원
책자 등의 지원. 공공도서관에 보내듯이. 지역 아카이브에 비치할 수 있는 책자.(장소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제작한 지역의 기록물은 지역 사람이 보기 어려운 구조. 이런 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
□ 적정수준의 자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고민이 된다. 민간영역의 기록화 활동에서 필요한 기준이란 무엇일까? 매번 달라지는 상황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토로. 민간에서 기록할 때 자문이 필요하다.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편협되게 가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문도 필요할 것 같다. 표현해서 전달하려는 입장.</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3"></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2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8.28</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해방촌 신흥시장 스튜디오
정미소</td></tr>
<tr><td>인터뷰이명</td><td>허OO
심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heogilsu@gmail.com</td></tr>
<tr><td>인터뷰어명</td><td>전미정</td><td>녹취파일 링크</td><td></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심OO : 기록단에서 정리한 내용을 말로 설명해드리는 게 나을 거 같다.
허OO : 회의를 하다보니까 카테고리가 생겼다. 기록을 할 때 필요한 것. 지원받았으면 좋겠는 점. 홈페이지 얘기도 있어서 그 부분까지. 세 가지로 이야기 나누었다.
1. 기록할 때 공공데이터가 필요할 때가 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할 때 접근 자체가 어렵고 통제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누가 컨설팅을 해주면 좋겠다. 동주민센터에 협조요청을 하면 임의단체나 민간단체는 도움 받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지원받으면 좋겠다.

2. 오프라인 마을 기록 전시 공간을 지정하여 대여받거나 위탁 운영하면 좋겠다. 기록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창작 관련 활동은 많이 있는데 다른 여타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꿈이다. 지역에서 너무 많은 비슷하거나 중첩되는 프로젝트가 많으니 이중삼중 하기보다 한 쪽에 힘을 싣어주면 좋겠다. 괄호에 표시한 건 이를 테면... 도시재생에서는 마을박물관을 앵커 시설로 세우는데 위탁받거나.. 지역의 공공도서관, 경기도는 좋은 재단이 많던데 그런 관계와 연계를 시켜주거나. 일선 학교라는 거는. 심OO 씨가 하고 있는 '탐구생활' 지역교육기록지. 방학 때 통합교과 내에서 지역을 공부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드는 연결을 하거나 하면 좋겠다. 지역 건축학교를 할 때 미술과 연계했는데, 지역기록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요소를 지리수업이나 사회수업과 연결하거나 전시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 큰 장소나 이런 걸 대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지역 안에서. 예를 들면 재생사업의 앵커시설이나. 도서관이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을 대여받고 싶다는 것.
3. 기록을 할 수 있는 성격이 드러날 수 있게 교육하거나 지원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코디네이터 위탁. 이 단체가 기록하는 단체에 가서 기록물을 보고 컨설팅해주고. 그러는 게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

박지현 :행정박물을 위한 공간이 있기는 하다. 박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님
허OO : 박물류 포함해서 큰 지도가 있다. 파일링 하려면 어렵다. 스캔서비스. 너무 큰 박물이나 촬영을 하거나 스캔을 해주는 서비스
박지현 :그건 가능할 거 같아요.
허OO : 장치, 렌탈. 가공물 출판시... 비용 지원. 마지막에 어떤 분이 영상 작업하는 분인데 아이디어가 뭐냐면, 서울사람이라는 매체가 있는데 지역의 서울의 얘기를 끄집어 낼 때 풀뿌리로 활동하는 단체가 중간자 역할을 수행한다거나, 보통 연예인이 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좀 거칠게라도 하면 체감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심OO : 단체 스스로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매체(잡지, 웹사이트 등). <서울사랑> 등을 제작할 때 마을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단체들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td></tr>
</table>

2차	주요 인터뷰 내용	허OO : 홈페이지에서 어느 정도 구현은 했지만 못한 게 있다. 뭐냐면요. 기록원에서 모임할 때도 언급했던 건데 지도들이 맛집 지도만 있다. 포털 사이트도 맛집으로만. 1-2년 사이에 지도가 업그레이드 됐는데 거의 맛집 공화국이라고 말할 정도. 서울시에 공공성 지도라고 공무원들만 보는 지도가 있다. 건축물 공공용도 구분하고 땅, 공개공지. 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 공공시설을 지도에 뜨는 게 있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려는 데에서 아이디어가. 지역 지도가 있는데 저희가 기록하는 게 뜬다. 맛집 뜨듯이. 클릭하면 기록 내용을 볼 수 있고. 마을 주민들도 기록을 할 수 있는 거로 했고. 그렇게 기록으로 채워진 지도. 이거를 만들기는 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박지현 :대답할 수 있는 부분. 내용상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내용. 1. 공공데이터 통합처리 지원은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다. 사업담당자가 한 명이라 인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살펴가며 진행해보겠다. 문의를 받을 수 있는 서버 구축 등으로 해결 가능할 것. 2. 전시 공간의 필요성. 기록원에 사서가 있어서 공공도서관과 연계 가능한 지점을 찾아갈 계획. 불광동 서울기록원 일부 구역을 전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음. 허OO : 결국엔 이게 정보잖아요. 기억 기록도. 젊은 층이 접근하기 쉽고. 나이든 분들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하지만 전시와 영상을 틀어드리면 오프라인에서 보여주는 게 참여율이 훨씬 더 높더라. 이게 같이 가야할 것 같다. 박지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청에 협조를 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3. 기록가공 과정 교육, 역량 강화, 코디네이터 위탁 운영 등은 내부적으로 논의. 기록가공 과정, 기록물 관리에 대한 교육은 요구가 많아서 교육 준비 중이다. 기록방식 지원에서 스캐닝 장비, 탈산 소독 장비를 구입 중인 단계. 그 장비 활용한 지원이 가능.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가능. 기록장치 렌탈이라는 게 외장하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OO : 그렇죠. 외장하드. 카메라. 기자재 그런 쪽이죠. 쉽지는 않을 거 같긴 한데. 박지현 :다른 단체도 많이 요구하시는데 아직... 보존용품은 대여해줄 수 있다. 저번에 임 주무관님이랑 얘기했는데 기록물 담을 수 있는 상자, 보존 항균제도 있거든요. 보존용품은 대여 가능. 비용 지원은 과장님, 원장님과 더 얘기해봐야할 부분이다. 콘텐츠 제작도 저희도 생각해봤는데. 한 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사업 연계로 생각하는 중. 아카이브 지도를 만들고 싶다. 기록원에서 만들고 이런 부분을 요청하면 표시할 수 있게 협력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허OO : 서울시 미래유산지도도 있잖아요.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고. 박지현 :반영을 저희 쪽에서 하고. 허OO :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코디네이터 교육과 지도 합치면. 홈페이지 내에 기록단체가 권한이 있고 그걸 하면 폼이 생기고. 쉽게 퍼블리싱까지 담을 수 있는 걸 하고. 별도로. 출력만 하면 책이 나오게. 손쉽게 나오는 무언가. 그랬더니 반대 의견이 너무 동일한 형식의 기록지가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요. 심OO : 홈페이지 운영, 퍼블리싱이 약하다보니까 통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다. 박지현 :장기적으로 봐야할 것 같다. 정말 하고 싶은 사업. 심OO : 그래서 저희가 펼쳐본 이야기는 가짓수가 여러 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협약서에 담아볼 수 있을까요. 박지현 :협약서 상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있나요? 허OO : 개인정보보호 의무인 거죠? 의무 조항에서 어떤 것에 대한 위반인지 명확하지 않은 거 같다. 어떤 협약 사항이 정해지면 위반이 생길 수 있다는 건지... 허OO : 현재 단체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박지현 :저희는 단체를 등록했냐 안했냐보다는 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요. 앞으로 제가 계속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될 거 거든요.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대학연계도 생각하고 있는데... 허OO : 저희 했었어요. 숙명여대. 대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지역에 대한 공부가 실제 자신의 공부와 매치가 되면 좋다고 생각. 미국에서는 대학이 지역을 거의 먹여살리잖아요. 지역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table>
<tr><td></td><td></td><td colspan="3">심OO :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수 있다. 마을 어른들이 마을 기억을 직접 풀어낼 때. 그게 가장 감동적이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필요에 의하든, 학업이든, 수집이든 목적에 따른 요구와 대응은 늘 있는 일이라 별 반응이 없는데. 전시를 시장 안에서 할 때 그 감동. 어르신들. 반응. 그게 남달라서. 그런 공간에 대한 요구다. 큰 공간 멋진 공간을 원하는 게 아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너무 예상되는 사람들. 지역의 작은 공간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일상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기록 공간. 이분들이 늘 대상. 개체가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풀어낸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볼 수 있는 장소가 부족. 이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 개체가 아니라. 항상 소비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마주할 수 있는 공간.
박지현 :기준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기록관리의 기준이라던지. 뭘 선별해야하는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기록 매뉴얼이 나오기는 했는데 뭐가 문제였고 고쳐야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알고 싶어요.

허OO : 양식 참조는 많이 했죠.
심OO : 그런 갈증이 있을 무렵. 그거라도 만나서 다행. 겁을 주는 문서였다. 항목 자체가. 너무 어렵다. 어딴 부분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중요도에 대한 평가를 읽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것도 챙겨야하고 저것도 챙겨야하고. 개인정보. 기록정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니까. 저희도 그걸 다 받았어요. 인터뷰이에게 구두로라도 녹음으로 받고. 필요한가 했지만 필요하긴 하더라. 사실 그걸 매뉴얼을 받고 저희가 쓸 수 있게끔 중간단계. 마을연구자협동조합의 박사님. 질적연구를 주로 하는 분인데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저희에게 맞게 바꿔주셨어요. 그 기간 1/3을 스터디. 과정 속에서 만들었거든요..
아카이빙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한 부분을 5강 정도로 하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자료 활용, 사진 촬영, 지도 활영, VR 매체 활용. 자기가 각각 했던 방법론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강의를 만들어서 할 생각. 이것의 시작점이 바로 그때였다. 인터뷰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은 지금도 갈증이 있고. 시행착오를 통해 정리한 것 자체가 저희의 성과라고 생각. 그거라도 없었으면 더 많이 헤맸을 것.

박지현 :하지만 조금은 딱딱하지 않고 쉽게 만들면 좋겠다.
심OO : 사실 본지가 너무 오래되서 세부적인 건 생각이 잘 안나지만...
박지현 :10월 기록원 일정에. 10월 이후. 활동하는 분들 모시고 워크숍 개최 예정. 참여해주세요.</td></tr>
<tr><td rowspan="2">2차</td><td>리드 요구사항</td><td>□ 기록활동에 필요한 컨설팅 제공
□ 공공데이터 서비스 제공
□ 오프라인 전시 공간 위탁 및 대여를 통한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창구 개설
□ 기록 관리 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
□ 코디네이터 단체 위탁□운영 지원
□ 소장기록 디지털화 지원
□ 기록 관련 장비 대여
□ 출판 시 비용지원</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3">□ 상호 간 포괄적인 수준의 지속적인 협력을 체결하기로 함.</td></tr>
</table>

3.3.3. 디자인스튜디오 203

가. 리드파일

<table>
<tr><th colspan="8">디자인스튜디오 203 리드파일</th></tr>
<tr><td colspan="2">식별번호</td><td>32
-LE</td><td>버전 정보</td><td>v.1.1</td><td>최근수정일</td><td colspan="2">2018.7.17</td></tr>
<tr><td rowspan="12">리드
정보</td><td>리드명</td><td colspan="2">디자인스튜디오 203</td><td>리드 유형</td><td colspan="3">□ 개인 □ 가문 ■ 단체</td></tr>
<tr><td>리드의
다른 이름</td><td colspan="2">스트리트 h, street h</td><td>리드 영역</td><td colspan="3">□ 공공 □ 협치 ■ 민간</td></tr>
<tr><td>리드 연락처</td><td colspan="2">02-323-2569</td><td>리드 이메일</td><td colspan="3">heyko@ds203.com</td></tr>
<tr><td>리드 주소</td><td colspan="2">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92-3 태원빌딩 3층</td><td>리드 웹주소</td><td colspan="3">https://street-h.com/</td></tr>
<tr><td>리드
소개 및 연혁</td><td colspan="6">2003년 5월 디자인스튜디오203 설립
2009년 6월 홍대문화 로컬 매거진 <스트리트 h> 창간
2011년 6월 <스트리트 h> 2년 기념전 '안녕들 하십니까?'
2012년 203인포그래픽연구소 설립
2013년 1월 <스트리트 h> 전시 '응답하라 90's'
2014년 6월 <스트리트 h> 5주년 기념전 '아니 벌써 5년'
2018년 7월 현재, 109호 발간</td></tr>
<tr><td>리드
대표자명</td><td colspan="6">장OO</td></tr>
<tr><td>리드 대표자
연락처</td><td colspan="6">pigcky@gmail.com</td></tr>
<tr><td rowspan="4">리드 구성원
정보</td><td colspan="2">리드 구성원명</td><td>리드 구성원 역할</td><td>리드 구성원
연락처</td><td colspan="2">리드 구성원 이메일</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4">리드 관계
정보</td><td colspan="2">리드 관계 단체/인물명</td><td>관계 범주/형식</td><td colspan="3">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4">리드
접촉정보</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인터뷰 일시</td><td>인터뷰 장소</td><td>인터뷰어명</td><td>인터뷰이명</td><td colspan="2">최근 수정일</td></tr>
<tr><td>32-CA-1st</td><td>2018.6.7</td><td>디자인
스튜디오203</td><td>임태원, 박지현,
전미정, 박소진</td><td>장OO</td><td colspan="2">2018.6.21</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7">(+)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5">보유
기록물
정보</td><td>아카이브명</td><td colspan="6">스트리트 h</td></tr>
<tr><td rowspan="3">주요 컬렉션
소개</td><td colspan="2">컬렉션명</td><td>구분</td><td colspan="3">설명</td></tr>
<tr><td colspan="2">스트리트 h</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colspan="3">공간, 사람, 문화를 매개로 홍대앞의 변화를 기록함. 2009년「스트리트 h」를 창간함. 인포그래픽 포스터, 지역 지도 등의 형태로 홍대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구성함. 홍대앞의 변화를 취재한 기록과 자료를 해석하고 스토리텔링한 콘텐트를 생산함.</td></tr>
<tr><td colspan="2"></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colspan="3"></td></tr>
<tr><td>시정기록
연계 링크</td><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able>

<table>
<tr><td rowspan="6">보유
기록물
정보</td><td>보유기록물
구분</td><td colspan="2">■ 전자 ■ 비전자</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유형</td><td>전자</td><td>■ 문서 ■ 사진 □ 영상 □ 음성 ■ 기타 (웹사이트)</td></tr>
<tr><td>비전자</td><td>□ 문서 □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 기타 ( )</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규모</td><td>전자</td><td></td></tr>
<tr><td>비전자</td><td></td></tr>
<tr><td>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보존
관리
현황</td><td rowspan="2">보유기록물
상태</td><td>전자</td><td>자체 레이어드된 서버를 사용하여「스트리트 h」발행월 기준으로 저장함</td></tr>
<tr><td>비전자</td><td></td></tr>
<tr><td>관리 현황</td><td colspan="2">스트리트h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행물과 사진들을 서비스하고 있음</td></tr>
<tr><td rowspan="4">협력방안</td><td>리드 요구</td><td colspan="2">민간 기록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협력, 지원 방안</td></tr>
<tr><td>예상 지원
방안</td><td colspan="2"></td></tr>
<tr><td>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td><td colspan="2">■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 □ 기타 ( )</td></tr>
<tr><td>수집 협의
내용</td><td colspan="2"></td></tr>
<tr><td>특이사항</td><td>아키비스트
주기</td><td colspan="2"></td></tr>
</table>

나. 케이스파일

<table>
<tr><th colspan="7">디자인스튜디오 203 케이스파일</th></tr>
<tr><td colspan="2">케이스파일 식별번호</td><td>32-CA</td><td>버전 정보</td><td>v.1.0</td><td>최근수정일</td><td>2018.7.17</td></tr>
<tr><th colspan="7">소장처 인터뷰 정보</th></tr>
<tr><td>회차</td><td colspan="4"></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32-CA-1st</td></tr>
<tr><td rowspan="5">1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6.7</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디자인스튜디오203 사무실</td></tr>
<tr><td>인터뷰이명</td><td>장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pigcky@gmail.com</td></tr>
<tr><td>인터뷰어명</td><td>임태원
박지현
전미정
박소진</td><td>녹취파일 링크</td><td></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스트리트H 홈페이지]
처음에 사이트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요청했다. 보통 창업년도를 쓴다. 예를 들어, 2008년에 회사를 만들면 지금 몇 년 차인지 모호하다. 사실 홍대라는 지역적 상황을 염두 해두면 2년차와 3년차가 굉장히 다르다. 일단 3년을 넘어가야 된다. 3년이 최단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3년 넘어가면 버텼구나 생각한다. 사람들이 독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개발자에게 꼭 년차로 써달라고 부탁했다. (홈페이지)를 보면 전직이 있다. 저는 이 년차와 전직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커플이 홍대 앞에 북 카페를 간다고 한다면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다 가게 사진이 예쁘다. 누가 고의로 못 찍진 않는 이상 다 예쁘게 찍는다. 그러다보니 검색으로는 잘 모른다. 그런데 스트리트H를 보면 전직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했대와 같은 정보가 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객관식이 아니라 내 취향의 선택이 된다. 스토리텔링이 된다. 나는 그런 점이 취향의 소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런 구성을 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조사 인력이다. 대답을 안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을 다 채웠으면 한다. “SNS가 많은데 너 네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야?”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그들은 소비적인 관점에서 감상이다. 우리는 취재다. 그게 다른 점이다. DB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순정성 같은 것들이다. (SNS는)누군가의 감상평이지만 우리는 취재다. 우리가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여기 와서 하느냐라는 질문을 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홍대 앞이 좋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같이. 지금 굉장히 많이 쌓였다. 저런 것들이 블로그와 다른 점이다. 좀 가치 있는 데이터가 보존이 되어야한다는 점이다. 지금은 너무 많기 때문에 구조화하는데 있어서 허수와 데드데이터가 많다. 아르바이트 내지는 비즈니스로 대행되는 곳이 많다 보니 저희는 꼭 사람을 넣는다.

우리가 스트리트H에 처음에는 공간만 계속 얘기했는데 다 임대가 끝나 없어졌다. 그럴 때 덧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사람을 해보자고 했다. 임대차 계약이야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이 여전히 홍대 앞에 담겨져 있다면, 그 사람이 여기서 활동하고 있다면 여전히 유의미하지 않은가라는 생각. 그래서 사람을 많이 다루게 됐다. 인터뷰도 어찌 보면 다 사람이다. 사람이 제일 많다. 이런 사람이 왜 라는 것들.
또, 저희가 추구하는 방식에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인포그래픽이다. 홍대 지역을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들여다본다. 1월 달부터 3월, 9월, 11월에 어떤 것들이 벌어지는가. 매달 바뀐다. 이런 비슷한 카테고리를 모아서 주택에 짓는 이색공간이란 주제로 한 것이 있다. 저희가 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키워드 태깅이다. 그래야 더 잘 찾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저희가 사이트를 올리고 있지만 일손이 없어 키워드 태깅까지는 못하고 있다. (스트리트 H를 보며)또 이거는 작은 공간의 면적이지만 동네 큰 서점의 베스트셀러 순위이다. 교보문고는 알다시피 사재기가 있다. 하지만 이 것은 이 동네의 베스트셀러를 보여준다. 이런 점이 작지만 큰 거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중앙시장에서는 쌀가게가 몇 개 있고, 곡물을 기준으로해서 판매추이를 보면서, 평면적으로 보지 말자는 이야기다.</td></tr>
</table>

1차	주요 인터뷰 내용	[조사 방식] 다 발품으로 지도를 만든다. 지금은 4명이 4/1로 나눠서 하고 있다. [스트리트 H에 쌓인 데이터 활용방안] 문제는 비용이다. 저희는 예산이 있다면 즐겁게 많은 것들을 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가 다른 곳에서 벌어서 만든 것이라 사이트도 간신히 만들었다. 예를 들면,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하는데 라이트 스타일 앤 도시 세미나를 했다.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면 홍대 앞 잡지를 2009년에 창간했다. 사람, 공간, 지역을 모토로 가고 있고, 홍대 앞이 어떤 곳일까 하는 생각이었다. 홍대입구역이 84년도에 생겼다. 그때까지는 밑 동네를 갈 필요가 없었다. 신촌로터리에서 7-1, 361번이 홍대 앞에서 내렸기 때문에 합정이나 홍대입구역은 내려갈 필요가 없었다. 2000년에는 확장이 됐다. 옛날 서교산이 있고, 다른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걷고 싶은 거리로 바뀌었다. 또, 홍대 최초의 전자카페를 안상수님이 만드셨는데 오늘 가는 부동산, 부동산 다음에 약국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하찮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최초의 자전거 탄 사람, 최초의 비행사도 외우던 시절도 있지 않나.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기록이 없다. 사진도 안선생에게 요청해서 받았지만 PC에 실렸던 것을 복사해서 스캔한 것이다. 안선생도 기록 집착적 사람인데 자신도 사진이 없더라. 놀라운 지점이다. 본인(안상수)은 저기(전자카페)는 이상하게 PC동호회, 동아리 사람들이 와서 아주 이상해졌다고 한다. 홍대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중에는 재미없다며 흐지부지 없어졌다. 급속한 변화, 기록의 부재다. 스트리트H는 다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언젠가 기억발전소에서 풀 슬라이드로 보여줄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 우리가 창간 1주년에는 아무 것도 못했다. 간신히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는데 2주년 때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전시를 했다. 종이매체 밖으로 나가서 인포그래픽으로 우리가 창간호부터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줬다. 창간 3주년 됐을 때, 트위터에 홍대 앞에 없어졌는데 아쉬운 것을 얘기해달라고 올렸다. 약도와 카테고리 별로 분류를 하니까 디지털 정보가 굉장히 이모셔널한 정보로 바뀌더라. 데이터와 정보는 다르다. 데이터는 구조화되고 이전이다. 저는 인포그래픽 정보 강의를 할 때는 데이터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구조화 됐을 때 말 한다고 말한다. 데이터가 쌓여만 있어서는 절대 소비되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 어떤 정보나 기술이 있어도 역할이 있다. 소비될 수 있고 사람과 엮일 수 있는 정보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많은 시도들을 했다. 그게 인포그래픽으로 가게 될 수 밖에 없었다. 적은 지면에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려면. 이 정보를 리스트화하면 A4 반 페이지 정도다. 하지만 A4 반 페이지는 어떤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수 없다.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작가의 시선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이 보여 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레코드 포럼에서 우여곡절도 있었다. 우리가 2012년 1월 정도에 올렸다. 레코드 포럼에 기분 좋게 배포 하려했지만 사장이 누구 허락 받고 그랬냐고 말하더라. 지인 변호사는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어느 날 가게가 팔려서 닫았더니 사람들이 다 슬퍼했는데, 한쪽에서 단독 주택을 카페로 하는 사장이 우리와 같이 해볼까라는 제안을 해 1층으로 옮겼다. 그렇게 미담으로 퍼졌다. 험담을 하진 않았지만 이번을 통해서 함께 사는 동네 라는걸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1차	주요 인터뷰 내용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다. 우리 그림을 우리가 홍보하는데 써도 되냐고 해서 50만원내고 사용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안한다고 하더라. 근데 지나가다보니 붙여놨더라. 그런 말 안했다면 얼마든지 쓰시라고 했을텐데 너무 얄미웠다. 알고 보니 상처 받은 사람이 많더라. 최근에 어떤 상징성을 얻어서 서교성당 있는 곳에 음악 관련 단체건물에 들였는데 결국 나갔다. 그래도 우리가 사진도 찍고 쓰니까 생각난다. 연필로 다 하나하나 그렸다. 사진에는 없는 어떤 서정성이 있다. 풍속화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싶었다. 다양한 캠페인, 전시를 의뢰받기고 했다. 포스터 겸 표지 시도도 했는데 메시지를 던질 사람들에게 지원해라 공고했다. 그 중에 인기 있던 것을 사용했다. 이 것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군대에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에 안그래픽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됐다. 그때 홍대 앞 지하에 작업실을 뒀다. 디자인과 미대니까 작업실을 크래프트지로 도배를 했다. 안그래픽스에서 문양지 포스터가 큰 게 하나 나와서 작업실에 붙였다. 후배들은 청화대라고 불렀다. 그 생각이 나서 포스터를 시작했다. 정말 가난한 청춘이 아직도 홍대 앞에 반 지하, 고시원 한 공간에 붙어서 위로가 된다면 마음으로 시작했다. 되게 반응이 좋았다. 2013년 창간 4주년 때는, 연남동이 뜬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곳곳 사진 찍고 다 취재했다. 연남동 정말 홍대가 아닌데, 홍대 앞을 행정구역이 아니라 문화중심으로 판단하고 다루자 라고 생각했고 연희동, 망원동도 다뤘다. 아까 지도를 통해서 보여줬지만 구역이 바뀐다. 심지어 행정구역도 바뀌었다. 연남동은 서대문구였다가 마포구로 넘어왔다. 표지 크기는 창간호 때부터 포스터 사이즈가 나와서 커버대신 했다. 표지가 너무 장식적이고 정보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표지를 없애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표지가 없다보니 포스터가 접혀서 스트리트 H인 것을 모르겠다는 생각에 2014년에는 표지조차도 정보다라고 해서 홍대 앞 문화 시설이 있는 건물들을 다뤘다. 맨 왼쪽에는 AA가 두번째는 땡스북스가 있던 자리다. 그리고 2014년부터 사람을 다루기 시작했다. 텍스트와 사진으로만 다루면 4페이정도 되는 정보량을 1페이지로 정리했다. 5주년 때는 홍대 앞 랜드마크, 인디밴드 역사를 다뤘다. 표지를 멋진 건물은 더 이상 없고, 이제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피노키오를 다뤘다. 2017년부터는 확 텄다. 정말 재밌고 걸어놓고 싶은 정보를 만들자, 판매하는데 있어서 판매가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자는 생각이었다. 포스터는 그렇게 변해갔다. 6주년에는 세계음식점, 홍대 앞을 지나가는 버스를 다뤘다. [인포그래픽 테마가 매달마다 변화, 팀 구성원들이 연구자 역할을 하나] 인포그래픽은 디자이너를 쥐여 짜서 한다. 올릴 때 중간과정을 올리는데 굉장히 힘들지만 제가 생각하는 디자이너는 단순한 역할로서 그래픽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연남동처럼 망원동을 다룬 적 있다. 망원동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다. 또, 우리 창간호에 실렸던 카페들은 어떻게 됐나를 다뤘고 오른쪽 단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다뤘다. 문화 생산자 23인에게 물었다. 떠날거냐 남을거냐는 인터뷰도 했다. 한 사람만 빼고 다 남겠다고 했다. 창간호 지도는 상수동을 그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지금은 지도가 굉장히 넓어졌다. 왼쪽에 동진시장까지 되어있다. 합정에서부터 망원 쪽도 어느 정도 더 넓어졌고. 홍대라는 지역이 굉장히 넓어졌다. 지도 데이터를 잘 연결해서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서비스해도 좋을 듯. 우리가 구상한 것을 모두 스트리트H에서 갖고 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비전은 독립포털 미디어면 좋겠다. 네이버가 동네 샅샅이는 다 모르지 않나. 이런 것들을 다른 동네에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데이터를 파는 회사이고 싶다. 지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점이 포탈 같은 경우는 6개월에 업데이트를 한번 할까 말까라 지도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진다. 우리는 한 달 동안 변하니까 놓치는 것이 있어도 그래도 빠르다. 홍대 앞은 변화가 굉장히 잦다.

1차	주요 인터뷰 내용	[공공기관이 사기업과의 협업 시 고려할 점] 오른쪽 아래 하이서울이라고 워터마크 박힌 것이 있다. 우리는 일단 홍대에 관련된 것은 다 다운받고 있다. 하지만 출처가 어딘지 알 수가 없다. 저도 많이 찍지만 어쨌든 보이면 저장한다. 홍대 학보사와 연결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홍대 OB들은 아는 아저씨가 있다. 호미화방 옛날 사진도 있고. 학보사가 의외로 학교 내부만 많이 찍는다. 그냥 사진만 있으면 모른다. 이야기가 없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캡션이나 스토리를 써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진 한 장만 있어서는 그냥 마포구일 뿐이다.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예를 들면 거리를 지나가면 여기가 뭐였고, 다 생각나는데 그게 언제까지 일지는 모른다. 연대 김영창 교수와 이미 신촌은 너무 안 남아있으니까, 버츄얼 리얼리티로 레이어드를 만들면 어떠냐고 이야기 했다. 그 곳에 가서 앱을 키면 무엇이고 무엇이 있었다고 만들면 어떠냐. 과거 형태로 머물러선 안 된다.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야한다. 그 것도 옛날 사진이 있어야 가능하다. 패스트 앤 프레젠트라고 옛날 사진을 놓고 현재를 겹치게 보이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 것도 옛날 사진이 많이 없어 길게 못했다. 그래도 있는 사진만 갖고 있어도 할 수 있다. 독해가 돼야 되고 공부가 되면 안 된다. 이야기가 있고 재미가 있어야 스며들 수 있다. [인포그래픽 비용] 사이즈와 밀도에 따라 다르다. 정보에는 시간, 공간, 관계가 다 있다. 기억발전소라는 것도 시간과 공간,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기억발전소가 시작한 순간, 기억발전소를 몇 년 간 해왔냐는 양적 시간이 있다. 주제선정이 중요하다. 3차에 걸쳐서 디벨롭을 시킨다. 발굴/취합하는 단계, 분석 및 구조화 단계, 컨셉 및 시각청식단계가 있다. 실제 쓰이는 곳이 어디냐. 포스터냐, 도큐먼트냐, 화면이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내러티브 다이어그램이라는 단계를 쓴다. 실제 판형에다 쓰이는 곳에 앉혀본다. 내러티브 다이어그램은 사진은 X, 동그라미 세모 네모는 뭔가를 그릴 거다는 의미. 정보의 양, 레이아웃, 구조를 판단한다. 만약에 마인드맵을 끝내고 나서 1주일,2주일 후에 그려서 보여주면 소통에 트러블이 있다. 그래서 디벨롭 시킨다. 이상하게 검토자가 자기 취향을 검토하는 점이 많다. 다리 보는데 손톱을 왜봐 식이다. 디자인이나 개발 쪽에서는 애써서 해놨는데 고치자고 하면 마음이 상한다. 피아노음을 맞추는 것과 같다. 내러티브 다이어그램 단계에서는 상처를 안 받는다. 심지어 색깔도 중성으로 한다. 정보의 양을 봐야한다. 구조 순서가 잘 되어있는지, 마인드맵과는 다르게 크고 작음이 있다. 레이아웃을 다 하면 디자이너가 멋져질 단계다. 어쨌든 소통. 단계별 목적에 적합한 판단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서울대 바이오 유전자 조작과도 똑같은 단계를 취했다. 어려운 것들도 단순화시키고 차근차근하면 잘된다. 스트리트H는 왜 이 볼륨이냐면 창간하고 나면서 최소 10년은 돈 안 벌고 해야 하는데 그럴 려면 그에 맞는 볼륨을 만들어야 했다. 볼륨은 작지만 정보는 많기 때문에 인포그래픽을 하는 거고. 마포구청의 소식지가 너무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이런 것을 해줘야 한다. 연세춘추도 컨설팅을 했는데 이제는 대학이 교문을 울타리로 나누면 안 된다. 옛날에 시민들이 먹고사니즘에 집중하느라 정치를 참여하지 못해서 대학생들이 그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교주변까지 끌어안는 대학신문이 되어야 한다. 홍대 동문회지를 개선해야겠다고 찾아왔는데 너무 재미없는 동정만 다 있는거다. 교내소식은 하나도 궁금하지 않다. 오히려 그녀와 처음 갔던 카페는 아직도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넣어야한다. 그게 동문이지. 기관에서 의외로 미디어라는 형식에 갇혀서 자꾸 인사말, 취임사 기관장들 이야기를 넣는다.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소식지를 만들어도 서울시, 그때를 아십니까? 해서 식민지 말기에 서울시내 지도와 현재를 비교하는 그런 것을 해야 한다. 이런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한다. 연대에서도 학보사 사진을 다 뒤져서 만들고 싶다 했다. 예산만 갖고 오면 만들어준다고 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수원 화성행차 같은 것이다. 그냥 보면 멋있고 그림인데 그건 계획이다. 액자 속의 그림 말고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역사에 대해서 고민하는 점은 우리가 점으로 배웠다는 점이 문제다. 맥락적이어야 한다.

1차	주요 인터뷰 내용	[서울기록원과 인포그래픽/연표 협업] 인포그래픽이 하는 회사가 몇 개 있긴 하다. 가끔 전시를 보면 인포그래픽을 제대로 하는 데가 없다. 딱히 어디서 배운 적이 없는거다. 저는 학보사 때 취재기자를 해봤던 경험이나 연합뉴스에서 그래픽 뉴스 팀을 했던 거나 등 이런 축적된 것이 있다. 기획/취재/편집/인포그래픽까지 이어지는, 실무에서 축적됐다. 오히려 정보성이 가장 중요하다. 텍스트 의존도가 낮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독해가 아니라 직관적 이해가 돼야 한다. 매력적이어야 한다. 텍스트가 없었을 때 시각정보가 제대로 되는가를 봐야한다. 안 그러면 삽화일 뿐이다. 사십대 전업주부여성이 이해가 돼야한다는 점이다. 보고, 재밌고,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점이 가장 큰 부분이다. [10년 동안 홍대지역 역사를 남겨왔다. 원소스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저희는 서버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레이어드 되어있는 서버를 두 번 째 교체해서 쓰고 있다. 전 컴퓨터 1세대나 다름없어서 굉장히 그런 걸 신경 많이 쓴다. 외장하드 갖고는 안 된다. 서버도 레이어드가 되어있어야 한다. 스트리트H 발행월호로 기준으로 저장되어있다. 사진이름을 일단 장소로 해놓았다. 그런 것도 사실은 더 이미지 DB에 대해서 생각 많이 했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 하지 못했다. 뉴욕여행사진도 10만컷이 넘어서 연도별로 분류하려고 했지만 엄두가 안 났다. 구글도 앨범에 사진 장수가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안타깝다. 국내에서 만든 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인터페이스가 후지다. 편리성이 없다. DB구조화가 키워드가 달라야하는데 키워드들이 재미가 없다. 네이버에서 검색에 대한 제안을 해달라고해서 한 적이 있다. 네이버는 가다보면 막다른 골목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중간으로 언제든지 환승역 같은 스페이스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이순신으로 검색하면 이순신으로 끝나는데 임진왜란 등과 같이 맥락적으로 가야하는데 그냥 쭉 갈 뿐이다. 자꾸 점으로만 끝날 뿐이다. 이순신을 검색했을 때 시대적인 상황과 한중일 관계, 유럽 쪽에서는 어떤 상황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봐야하는 것이다. 동시대가 나라마다 다르니 괴리감이 크다. 한국 사회만 바라보다보니 좁다. 그래서 예산만 있다면 역사를 시각화하고 싶다. 전문가 영역 말고 일반, 시민 영역으로 확산되게끔 해야 한다. 조직이름은 스튜디오 이공삼공이다. 소소북스는 나중에 만들었다. 이런 콘텐츠 생산은 소소북스가 주가 되게끔 하고 있다. 감히 이야기하자면 한동네에서 해가는 곳은 외국에도 없다. 모션 인포그래픽도 한다. 예산이 있으면 (인포그래픽을) 작은 판형에 얇은 책으로 만들고 싶다. 휴대가 가능하게. OO메뉴얼 시리즈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를 따자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으면 다 나오지만 그럴 시간이 없을 때, 4-5000원으로 다 포함된 책을 사면 다 정보가 있는 책을 만든다는 것이다.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여. 작은 사이즈로 하면 핸디하니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이 것 자체가 기록이 되는 것이다. 텍스트 위주가 아니라 인포그래픽 위주로 시각적으로 쉽게. 충분히 경쟁력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유투브 검색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본다. 텍스트는 가짜정보가 많다. 유투브는 그래도 찍어야 되는 노력이 있어서 일단 허수정보가 걷어진다고 본다. 다 검색하기는 찾기가 귀찮다. 노력 대비 시간이 아깝다. 종이매체의 장점들에 대해 생각해본다. 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기록원에서 많은 정보가 디지털로 되겠지만 그걸 미래를 위해서 남겨지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사람들이 과거의 정보를 현재에서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물성적인 접촉이 생겨야한다. 그걸 모니터로 봐라, 검색해서 봐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보여주게끔 만들고 싶다.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을지] 예산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명함서비스 중에 리멤버라고 있다. 데이터가 락인 되는 점이 별로다.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게끔, 안으로 갖고 있는 것이 유출사고도 나고. 저는 캠카드를 쓴다. 캠카드는 캠스캐너의 다른 버전이다. 리멤버처럼 데이터를 업로드화하면 그 것을 정제화 해준다던지, 키워드나 태킹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 스토리지는 지원해주면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그 이상이 돼야한다. 우리가 모아놓은 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공공재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다. 그게 제일 클 것이다.

<table>
<tr><td rowspan="3">1차</td><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3">거점별로 하나씩 스트리트H같은 곳이 있으면 좋겠다. 포탈이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도 그 때 그 때 되고. 이 아카이빙하는 포맷이나 형식, 기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짜야할 것이다. 보완, 의견들이 필요하면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보완하고. 옛날엔 도서카드 한 장으로 모든 책을 찾고 정보를 전달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작은 정보인가. 지금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작가, 요약, 표지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러한 링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식들이 계속 디벨롭이 돼가지만 어쨌든 무대포로 갖다 놓는다고 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쌓아가는 여건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인포그래픽을 할 때에도 기획 단계부터 듣기라도 해야 한다. 그러면 기획, 서치도 달라진다. 강의할 때도 그렇지만 그리지 못하게 한다. 학생의 경우에 마인드맵으로는 하다가 시각적일 때는 자신 마음대로 하게 된다. 그러니 모든 것을 그리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인드맵단계까지는 텍스트만 서치하라고 한다. 그래도 눈에 띄겠지만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시각레퍼런스를 찾아라. 단계별로 레퍼런스 서치가 달라야한다.
기록원에서 다 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계에서 나를 불러야한다. 전시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라서 주로 공간을 다루는 데에서 예산을 쓰는데 그래서 인포그래픽 예산에 잘 안준다. 외국 레퍼런스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라 말한다. 그러면 톤앤매너, 룩앤핏에 맞지 않는다. 서울시 레퍼런스는 없다. 다른 뉴욕 런던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다르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예산과 전문인력 지원
□ 키워드나 태깅 같은 것이 가능한 데이터 아카이빙</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지도 데이터를 잘 연결해서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서비스해도 좋을 듯.</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3"></td></tr>
</table>

3.3.4. 정릉마을기록주민이야기마당

가. 리드파일

<table>
<tr><th colspan="7">정릉마을기록주민이야기마당 리드파일</th></tr>
<tr><td colspan="2">식별번호</td><td>23
-LE</td><td>버전 정보</td><td>v.3.0</td><td>최근수정일</td><td>2018.8.10</td></tr>
<tr><td rowspan="11">리드
정보</td><td>리드명</td><td colspan="2">정릉마을기록
주민이야기마당</td><td>리드 유형</td><td colspan="2">□ 개인 □ 가문 ■ 단체</td></tr>
<tr><td>리드의
다른 이름</td><td colspan="2">정말기록당</td><td>리드 영역</td><td colspan="2">□ 공공 □ 협치 ■ 민간 (공동)</td></tr>
<tr><td>리드 연락처</td><td colspan="2"></td><td>리드 이메일</td><td colspan="2"></td></tr>
<tr><td>리드 주소</td><td colspan="2">별도의 사무실 없음</td><td>리드 웹주소</td><td colspan="2"></td></tr>
<tr><td>리드
소개 및 연혁</td><td colspan="6">전미희 대표가 이끈 정릉마을기록사업단은 2012년부터 논의해 2015년 정기모임을 통해 정릉을 기록하고 '버스종점이야기'(2013), '정릉의 기억과 기록'(2014), '정릉마을한바퀴'(2017) 등을 프로젝트를 진행했음. 올해 초에는 정릉마을기록사업단이 주축이 되어 체계적인 마을 기록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지역 아카이브에 대해 자발적 관심을 가진 마을코디네이터였던 최연희, 성북문화재단, 청수도서관, 협동조합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소 등 주민과 단체, 기관이 협력해 정릉마을아카이브주민네트워크를 꾸림. 주민 위주의 아카이브를 만들어가기 위해 현재 발굴되었거나 발행되고 있는 기록 정보를 수집하며, 정릉의 연표를 포함한 전시회 및 이벤트 등을 기획하고 있음.
올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으며, 주민들이 마을 기록을 발굴할 수 있는 강좌를 운영하고, 보람일자리사업인 50+기록가를 통해 정릉마을을 기록하고자 함. 정말기록당에게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기록은 상호소통되며 만들어지는, 고착되지 않은 역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관심 있는 걸 하고 작업을 종횡으로 보고 마을의 기록으로 추출될 만한 걸 모으는 마을 아카이브의 정의와 과정을 실험하고 있음.</td></tr>
<tr><td>리드 대표자명</td><td colspan="6">정릉마을기록사업단</td></tr>
<tr><td>리드 대표자
연락처</td><td colspan="6">전OO</td></tr>
<tr><td rowspan="9">리드 구성원
정보</td><td colspan="2">리드 구성원명</td><td>리드 구성원 역할</td><td>리드 구성원
연락처</td><td colspan="2">리드 구성원 이메일</td></tr>
<tr><td colspan="2">최OO</td><td>전 마을코디네이터</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임OO</td><td>청수도서관 사서</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김OO</td><td>정릉도서관 사서</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박OO</td><td>성북문화재단 지역
문화협력담당</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한OO</td><td>정릉2동
마을계획단장</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이OO</td><td>아카이빙네트워크연
구소 연구원</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3">리드 관계
정보</td><td colspan="2">리드 관계 단체/인물명</td><td>관계 범주/형식</td><td colspan="3">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50플러스재단</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 기타</td><td colspan="3">50+기록가 양성과정에 참여, 모집함.</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able>

<table>
<tr><td rowspan="5">리드
접촉정보</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인터뷰 일시</td><td>인터뷰 장소</td><td>인터뷰어명</td><td>인터뷰이명</td><td>최근 수정일</td></tr>
<tr><td>23-CA-1st</td><td>2018.5.29.</td><td>정릉도서관
휴카페</td><td>박지현, 전미정,
장대환, 박수연</td><td>최OO</td><td>2018.6.26</td></tr>
<tr><td>23-CA-2nd</td><td>2018.6.29.</td><td>청수도서관</td><td>박지현, 이원영,
장대환, 박수연</td><td>전OO, 최OO</td><td>2018.7.4.</td></tr>
<tr><td>23-CA-3rd</td><td>2018.8.1.</td><td>정릉동 카페</td><td>임태원, 박지현,
이원영</td><td>전OO, 최OO</td><td>2018.8.10.</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11">보유
기록물
정보</td><td>아카이브명</td><td colspan="5">정말기록당 아카이브</td></tr>
<tr><td rowspan="4">주요 컬렉션
소개</td><td colspan="2">컬렉션명</td><td>구분</td><td colspan="2">설명</td></tr>
<tr><td colspan="2"></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r><td>시정기록</td><td colspan="5"></td></tr>
<tr><td>보유기록물
구분</td><td colspan="5">■ 전자 ■ 비전자</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유형</td><td>전자</td><td colspan="4">■ 문서 ■ 사진 ■ 영상 ■ 음성 □ 기타 (　　)</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4">■ 문서 ■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 기타 (　　)</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규모</td><td>전자</td><td colspan="4">사진, 문서 10000 여 종. 용량은 160 GB</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4">책자, 출력물(결과자료집), 액자 외에 물건은 없음. 본래 돌려드림. 판넬(전시용), 녹취자료(인터뷰 자료, 한글), 사진(직접 촬영), 스캔본(pdf, jpg), 영상(편집본, 원소스)</td></tr>
<tr><td>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보존
관리
현황</td><td rowspan="2">보유기록물
상태</td><td>전자</td><td colspan="4">□ 기록들은 주민들이 각자 보관하고 있거나 마을코디네이터, 마을기록가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음
□ 마을코디네이터의 개인 PC에 자료가 많이 모여 있으며, 편의상 연도별, 프로젝트별로 구분하여 정리함</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4"></td></tr>
<tr><td>관리 현황</td><td colspan="5"></td></tr>
<tr><td>협력방안</td><td>리드 요구</td><td colspan="5">□ 조례 차원에서 자치구가 주민들의 기억과 기록을 모으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함. 공공의 기억이나 기록이 공유되는 데 있어서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찾기가 힘듦.
□ 사적기록이 공적기록이 될 때의 염려되는 사항, 특히 '개인정보' '저작권' '초상권' 등에 대한 법적 이슈 (기록을 만들고 소비하는 주민들의 활동을 뒷받침해줄 지원이 필요함. 기록을 만들고 가공하였을 때의 저작권을 획득하는 절차는 무엇인지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음. 조례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개인정보, 저작권 등을 알려주는 교육이 있으면 함)
□ 기록매개자, 기록자문단의 필요성 (마을기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주민과 기록가를 연결하는 기록매개자나 민간기록을 함께 기록하고 풀어나갈 자문단이 필요함.)
□ 지역기록프로그램 및 교육 (기록을 더 잘하기 위해 시니어들이 어려워하는 문서 제작 등에 대한 교육이나 기록물 정리방법이나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나 교육이 필요함)
□ 기록활동을 이어갈 공간 부족 (자료를 보관하는 장소, 모임이나 행사, 전시를 진행할 공간이 필요함)</td></tr>
</table>

협력방안	예상 지원 방안	
	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	■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 □ 기타 ( )
	수집 협의 내용	
특이사항	아키비스트 주기	□ 협력, 지원 관계에 대해 상호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협력,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음

나. 케이스파일

<table>
<tr><th colspan="7">정릉마을기록주민이야기마당 케이스파일</th></tr>
<tr><td colspan="2">케이스파일 식별번호</td><td>23·CA</td><td>버전 정보</td><td>v3.0</td><td>최근수정일</td><td>2018.8.2</td></tr>
<tr><th colspan="7">소장처 인터뷰 정보</th></tr>
<tr><td>회차</td><td colspan="4"></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23·CA·3rd</td></tr>
<tr><td rowspan="4">1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5.29</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정릉도서관 1층 휴카페</td></tr>
<tr><td>인터뷰이명</td><td>최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td></tr>
<tr><td>인터뷰어명</td><td>박지현, 전미정, 장대환, 박수연</td><td>녹취파일 링크</td><td></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전미정 : 최OO 선생님 소개. 동사무서에서 근무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동네 기록을 수집 정리하는 일을 하시다가 그게 직업이 된 것. 마을 코디네이터. 아키비스트는 아니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서 마을일을 하고 적극적, 자발적으로 일을 스스로 만드는 스타일. 일부러 이 동네로 이주하고, 마을결혼식도 하시고. 애착이 있고 동네 아카이브를 하는 분. 마을 네트워크를 가지고 꾸준히 진행. 개인이면서 단체도 아니고 애매하기는 한데 누구보다 활동의 방식이나 행보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

전미정: 일을 그만두신다고 들었다, 그 얘기부터 듣고 싶다.
최OO: 제가 3년 째. 더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일이 더 이상 확장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관내에 중학교가 없어서 조치했던 일들이 기계적인 행정 단위 구분을 때문에 지탄을 받게 되고. 정책은 시랑 구에서 만들어서 동네에 하라고 주는 식인데, 이 선생님은 계속 기왕이면 주민 자치를 위한다면 어차피 일은 동네에서 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일정과 상관없이(예를 들면 선거철에 총회를 하라고 하면 할 수 없는데 총회를 위에서 정해서 알려주는 식) 일정을 잡는다든지...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려면 주민들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예를 들어 행사를 하려면 엄마들은 오전이 좋은데, 직원들이 오전에 행사를 준비하기 어려우니까 오후 2시쯤 계속 준비하고....)

행정은 수십 년간 행정 편의를 위주로 행해왔지만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주민에 맞춰야 해요. 자꾸 제가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역할. 함께 일하는 분들도 불편해지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고, 공무원으로서 내부에서 해보려고 했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제안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껍데기만 해서 일정을 맞추느냐, 내용을 다 채우고, 알맹이를 챙기기 위해 일정과 행정을 조정할 것이냐. 저희는 후자를 택했는데 저 때문에 위에서도 골치가 아픈 거지. 결과물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가 행정 위주 일정에 맞춰서 보여져야 하는데... 공무원의 룰에서 저만 자꾸 벗어나니까, 꼭 독립운동처럼 할 이유는 없는데 불합리에 대항하고 반대하다보니까 공무원도 주민도 같이 힘들어졌다. 정책으로 정해졌으니 그냥 해라. 너는 공무원이니까 해라. 공무원 신분 때문에 수행할 수밖에 없더라. 그럼 나는 공무원을 안하겠다. 공무원으로 이 일을 하는 건 더는 못하겠다. (성북구 찾동 사업과 관련된 내용 이야기. 담당자 1명이 3개 동을 맡아서 진행했다가 1인 1동으로 진행한 이야기.)

최OO : 아카이브 사업도 동에서 싫어해요.
전미정 : 왜 싫어하죠?</td></tr>
</table>

1차	주요 인터뷰 내용	최OO : 시나 구는 괜찮지만, 아카이브 사업(리소스북 2017년 지원사업(서울시 시정참여예산)으로 마을 책자 <정릉 마을 한 바퀴>와 책자 작업을 진행하며 수집한 자료를 모아 정리한 <리소스북>, 마을 지도를 제작함. 기획 '정릉 마을 한 바퀴' 주민실행위원회_정릉2동 마을계획단)은 동에서 싫어한다. 이게 4개 동 내용이 다 나왔거든요. 주민이 정릉2동만 살지 않았어요. 동네 애들은 어디에 살던 능으로 소풍을 갔고요. 청수장에 소풍을 가기도 하고. 모든 애들이 이 동네에 추억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어요. 네 개 동으로 하는 게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어요. 주민들이 정릉의 모든 동네 얘기를 담다보자고 했던 거죠. 시나 구에서는 좋아하죠. 정작 동에서는 싫어하는 거에요. 우리 동 것만 하는 게 아니라서 싫어했음. 그러나 주민들은 한 동에서만 기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변 동과 연계가 다 되는데.... 이해하기 어려움. 전미정 : 그런데 그만 두신다고 하니 걱정이 된다. 최OO : 아니에요. 아카이브는 계속 할 거니까요. 하지만 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된다. 자료들이 모두 컴퓨터에 있다. 행정 시스템에서 옮길 수 없으니, 메일로 일일이 옮기는데 한계가 있고. 만 몇 천개가 되더라, 만들었던 자료를 D드라이브에서 C드라이브로 옮기면서 보니까 용량은 160GB. 사진, 영상, 한글 문서 등. 사진은 1~2메가 수준이고 영상이 용량이 클 것. 이 자료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그만두지 말까 잠시 고민할 만큼 고민이다. 전미정 : 이게 관에서 생산된 자료니까 리스트업, 출판용 자료도 함께 인가요? 최OO : 다 포함이에요. 해당 자료들이 기밀은 아니어서. 완성본은 가지고 있지만 기획단계부터의 자료를 함께 모으려면 이메일로 500mb씩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음. 기획안부터 세트로 필요. 현재는 편의상 연도별로 구분해놓음. 사실 연도별로 끊어놓은 걸 새로 분류 정리해야 함. 하지만 완료한 것을 정리하려면 프로젝트별로 기획단계~완성단계로 정리 작업은 필요. 최대한 그만두시기 전까지 최대한 프로젝트 별로 정리하고, 정리 못 할 것 같은 것은 고민 중. 이메일로 보낼까 함. 제가 계약직. 이 자리는 후속으로 할 계획이 없어서 이후에 후임이 없어요. 동(사무소)에 있는 누군가가 받아야 하는데 다들 제 눈을 피하고 계시죠. 다 인수인계를 할 필요는 없고요. 예산 쓴 작업은 3년 이내에는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누가 보던 폴더를 열면 전후사정, 영수증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있게 인수인계용으로 따로 정리를 해서 둘 예정. 사진. 고민이에요. 내가 봤을 땐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다른 사진을 쓸 수도 있잖아요. 최OO : 우리 동네는 역사문화 자원이 많은데 성북동과 달리 우리 동네는 왜 없느냐. 해서 이 사업을 한 김에(2017년) 활동했던 단위들, 교수단지, 성북신나, 왕사모, 우리동네 능말 같은 곳들. 이미 잘 알고 있는 단위들인데. 이 분들의 활동이나 소개도 내용에 담으려고 했다. 동네는 관계망이다. 잘 아는 게 장땡. 의미고 뭐고. 잘 얼굴 알고. 이웃이 제일 중요. 정릉 마을에 아카이빙하는 민관단체를 묶어놓은 네트워크. 각자 활동하시는 분은 많은데 서로 잘 모르셨음. 지금까지도 선생님이 네트워크이 주축이 되고 있음. 네트워크에서 이 선생님께서 공공기관이고/인맥(정치, 종교, 의견이 달라도 서로 얼굴 보고, 아는 사이라는 것이 매우 도움되고 주민들과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었음) 대신 일을 좀 줄이기 위해서도 활동단체들의네트워크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지속적으로 모임도 갖고 있음. 3년째 정말넷 지속되고 있음. 이렇게 되니까 주민단체들이 활동하기 쉽다.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각자 활동하는 자료를 좀 모아 보자는 의견이 많았음. 그래서 리소스북 만들 때 예산,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했던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1차	주요 인터뷰 내용	자꾸 만나고 워크숍을 하다보니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기록이 뭔지는 좀 알겠어. 그런데 내가 기록사업을 할 때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한두번 만난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서 기록하라고 할 수는 없겠다. 중간에 실무자가 필요함. 예를 들어 · 문화재단, 도서관, 복지관, 마을 코디네이터같은 축이 될 수 있는 사람 · 기록 전문가(손동유 박사님 같은 분) · 커뮤니티 맵핑이라던지, 다른 데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짤지 이야기를 해보자. 논의 중. 그런데 비용 받지 않고 자원봉사로 참여한다는 건 제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그래서. '협치; 시민협력플랫폼'은 민간과 민간이 협력하는 과정(주로 회의대관, 회의 수당, 다과비)을 지원해주는. 그분들이 기록작업 자체는 지원이 안되지만, 무엇을/어떻게 기록할지 논의를 하는 건 도와줄 수 있다고 함. 플랫폼 사업이 그런 거래요.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주민이 온다면 회의비 정도는 지원해주기로. 그래서 현재 지원 신청해서 5회 차로 잡아둠. (회의록 내용) 일단 정릉의 마을 아카이브를 어떻게 할 거냐. 시기, 방법, 주체 등. (1~3차 회의록) '정말기록당'은 정릉마을기록주민이야기마당의 줄임말. 3월에 했던 3차례의 워크숍 때 워크숍 부르는 명칭으로 줄여서 만듬. 모임 이름이 아니라 사업 이름. 정릉마을아카이브주민네트워크 정도가 모임 이름이 될 것. . 전미정 : 정릉의 마을기록은 최OO라는 사람에게 깔대기처럼 가는데. 자료 소스가 있는 곳. 단체나 조직이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만 두신다는데 어떻게 정리해야할까요? 최OO : 그렇지 않아도 그런 논의가 있었다. 내가 그만두면. 너 없으면 안된다, 할 줄 알았는데. 일단 민간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그만 둔다고 해서 이 사업, 각자 민간에서 아카이빙하던 활동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걱정마라. 마음이 편했다. 근데 기록 작업은 지금처럼 하면 된다. 드러나거나 출판이 안 되어서 그렇지. 블로그에 올리고 찾아보면 다양한 자료가 있을 것. 마을기록으로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관심 있는 걸 하는데 그게 모아보니 마을기록이 되더라. 마을 기록을 위해서 모든 기록을 모으자! 이게 아니고. 마을기록자도 마을 기록을 할 사람을 모으세요. 이게 아니라 각자 작업을 하고 싶은 걸 하려고 모이세요,해서 그분들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종횡으로 봤을 때 마을의 기록으로 추출될 만한 걸 모으고. 지금은 실험하는 단계. 우리도 마을 아카이브 뭔지도 몰라요. 일단 하는 거지. 정말넷은 매우 느슨한 단체이고 회원제가 느슨함, 회의도 한달에 한 번 말고는 아카이브는 조직이 없을 수는 없겠다 생각하여, 마을 기록에 관심있는 정말넷에 하위 그룹으로, 전OO 대표님(동네언니), 최OO 선생님 두 분이 아카이브 핵심 조직으로. 현재 단체 명이 따로 있지는 않음. → 아카이브는 조직화를 어떻게 할까? 정말넷(정릉 4개동 느슨한 네트워크) -> (최OO, 정말마을기록사업단 전OO 대표) · 정말마을기록주민네트워크 · 대부분 지원 사업이라, 저작권이 개인에게 있지는 않다는 이슈, 다만 비상업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음. 따라서 코디네이터선생님께도 이 기록들이 위임된 것이 아님. · 실무자, 각 단체들에서 개인 신분으로 참여하자(왜냐면 단체 신분으로 오면 결재가 필요하니까, 개인 신분으로 나오되 각 기관에서 네트워크 역할 할 사람)

<table>
<tr><td rowspan="4">1차</td><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3">최OO : 6/20 발간식 할 예정
1부 책자 작업 소개
2부 3~5월 활동보고회(연표 전시, 각 단위에서 모을 수 있는 자료를 위주로 관객 참여형 연표)
전시 : 정릉 연표 전시 (현재 하면서, 그 연표에 개인의 기억을 표시할 수 있는–김포의 사례 참고) ·위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위의 개인들과 워크샵(8강 이상) 할 예정, 동시에 기록화도 가능함.
주민참여에서는 주민을 옛날 이야기해주는 소스 제공자 정도로 생각한다. 구술/사진 수집으로 끝. 하지만 주민이 소스제공자만으로 남게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주민 공론장의 가능성을 보자. 아카이브는 뭐고, 기록에 대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보고. 그러나 나중에는 정말넷이 사회적 협동조합처럼 되는 것이 그림으로 그리고 있음.
아카이브를 만들어놓고 골동품되는 게 아니라. 주민위주의 아카이브가 필요. 우리 동네엔 이런게 있으니 제도를 만들고, 기왕이면 사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현재 성북구청에서 시스템 용역주고 있는데, 정작 주민이 원하는 주제, 관심 있는 주제와 동떨어지는 사업. 그러면 결국 주민이 아카이브 사용 안하게 됨.
주민 공론장을 하겠다고 하니까, 구청과 문화원이 긴장함. 성북구 아카이브 공론장이라고 하니까 반발이 심했다. 훈수 두고, 목소리 큰 사람의 애기만 담길 것이라고. 그래서 공론장을 만들겠다고 하니, 정릉에서 아카아브는 잘 하시도록하고, '성북구 아카이브'를 위한 공론장을 정릉에서 개최하는 것을 약간 밥그릇 싸움처럼 느껴지셨나 봄.

최OO : 1년에 1번 출간(예산 제한으로) 처음에는 아카이브, 기록 작업에 관심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그 다음 사람이 받아서, 인터뷰위주로 성격이 좀 바뀌었고, 한 번 더 발간자가 바뀌면서 그 분은 정말 다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 정말 미디어 성격의 잡지로. 이렇게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현재 6년째 발간 중이지만 성격이 달라졌음. 그래서 기록과 미디어 조직을 좀 분리하게 됨. 능말 잡지에서는 미디어 역할하고 있으니, 7번의 사업에서는 미디어 성격은 빼자.

· 성북동보다 정릉이 외부에서 들어오기 어렵다. 왜냐면 성북구는 이미 만들어진 거점이 많고 외부에서 보기 쉬움. 그런데 외려 정릉 내부는 내부적으로 단편적이고 깊은 소스는 많은데, 이를 모으기가 쉽지 않음. (리소스)
· 그래서 이소스를 한 데 크게 모으는 사람. (기억 매개자. 발굴자, 리스트업, 업데이트, 네트워크) – A. 이부분을 / 질문자: 이 부분을 주민이 가장 잘 할 수 있으나, 기록원에서 이 사람의 역할 및 전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
· 그리고 기록원과 같이 어떤 식으로 정리해라,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3·4개가 필요할 듯. 이 3·4개의 리스트가 있어야 할 듯.
· 영락교회 사례는 아카이브 지식이나 스킬이 없으면 듯.
· 지속적으로 중간에 정보들을 잡아다가 프로젝트 사업을 과정을 작업해주는 사람이 필요.
· 국민대, 서경대 등 : 전사 작업, 기록 작업은 대학교와 연계해서 지역계획을 해라해서, 인터뷰도 하고, 안전지도도 만들고 등등.
· but 마을 아카이브, 신택리지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례. 서울시에서 관계망조사를 했는데, 정릉 것은 잘못되어서 폐기함.

아카이브, 기억도 자꾸 어르신 기억을 위주로 짠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13살짜리 아이의 5년간의 기억이 더 정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포섭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여전히 어르신들의 사라지는 기억을 빨리 빨리 수집하자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르신 위주가 되고 있음.</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3">2차 면담 진행</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2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8.8</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청수도서관</td></tr>
<tr><td>인터뷰이명</td><td>전OO, 최OO, 임OO, 김OO, 박OO, 한OO, 이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td></tr>
<tr><td>인터뷰어명</td><td>박지현, 이원영, 장대환, 박수연</td><td>녹취파일 링크</td><td></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정말기록당 소개]
· 성북구에 구립도서관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주로 기부체납해서 만든 공간들임)
· 정릉에서는 작은 모임들이 많은데, 모일 장소가 부족해서 주로 도서관, 카페 등의 빈 공간, 빈 시간을 이용해야 함 -> 공간 확보의 어려움
· 주기적으로 현재까지 1주일에 1번, 아무리 늦어도 2주에 1번정도의 회의체를 3월부터 이어오고 있음. 지난번 1차 인터뷰 때 회의록을 공유해드림.
· 정말기록당은 '정릉 마을 기록 주민 이야기 마당'의 줄임말로, 우리의 이름처럼 쓰는 것
· 목적은 정릉의 마을기록, 마을아카이브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네트워크 형성하여 활동하는 것
· 눈에 보이는 하나의 사업이 있는 것이 그래도 모이기 좋아서, 일단 주민교육을 하나를 잡음. 원래 정릉 기록 마을계획단에서 예산을 받은 것이 있어서 그 일부 떼어주셨음. 9월부터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소와 8강짜리 주민교육 진행 할 것
· 그외에도 '50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하나 더 교육 받는 것이 있는데, 여기 계신 몇 분이 받으실 예정. 그리고 그 교육을 받으시는 주민들(시니어)도 올해 하반기에 실제 기록 작업을 할 예정
· 올해 3월~4월에 3번의 주민워크샵을 진행했음. 당시 재단이나 문화원 관계자 외에도 일반 주민들도 많이 왔었음. 오늘의 회의는 그때 나왔던 의견들,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서 체계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관계자 회의같은 개념.

· 여기 모인 기관 중에 현재 청수도서관은 정릉에 살았던 문학가 문학인에 대해서도 모으는 일을 하는데 그부분과 관련해서 채워주시면서 함께 하고 계심
· 성북구는 성북문화원이랑 MOU를 맺어서 마을아카이브라는 것 자체를 모으고 서비스하기 위한 틀을 갖추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심

박지현 : · 최OO 선생님 가지고 계시던 성북구/정릉/마을 기록자료들은 후임에게 인수인계 해주고 오신건지?
최OO :
· 마을 기록관련해서 생산 및 수집했던 기록들은 일단 정릉 2동의 일로 한 것은 아니어서 일을 그만두면서 후임에게 주고 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음. 그리고 거기에 남긴다해도 관리가 될 것 같지 않았음. 이것 중에서 디지털 파일들을 압축해서 올린 것들이 있는데, 안 열리는 것 같아서 현재 확인해봐야 함.
· 성북구 문화원에서 성북구의 기록을 일제히 모으고 있는데 이를 알고 계시는가? 그것도 서울기록원에 포함 될 수 있는 기록같은데. 지금 성북구 문화원에서 어떤 수준까지 모으는지는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았는데, 현재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성북 문화원이 보유한 것이 가장 방대함. 올해 5천만원짜리 사업으로 진행중이고 올해 안에 정리해서 서비스하려고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목표했던 서비스까지는 올해 안에 구현 안 될 것 같음.
· 성북구는 주최는 주민들이 했어도, 예산이 문화원에서 나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원에 그런 기록들이 많음. 서울기록원에서는 현재 성북구의 이런 상황을 알고계신지.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td></tr>
</table>

2차	주요 인터뷰 내용	· 기록을 노출하는 방식과 거기서 생기는 법적 권리 이슈는? · 기록을 만든 사람과 발굴해서 외연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저작권이나 소장권이 어떻게 되는것인가? · 서울기록원에 기록을 올릴 때 각자 기록방을 따로 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겹칠 것 ·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공통된 키워드가 있으면, 서로 모아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정릉'이라는 키워드 아래 모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전OO : · 그런건 서울시니까 행정단위로 시>구>동으로 분류하시면 되지 않을까 최OO : 그리고 사업소개서에 있는 '공공'의 의미가 단순히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게 아니고 더 넓은 범위면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을 것 전OO : 공공이니까, 서울기록원에 공공재로서 올린다고 하면 상업적 목적 외에 공개/비공개, 재사용 등의 이슈는 각 개인들과 협의해서 하는것 맞나? 최OO : · 주민들, 기록 제공자들은 처음에 좋은 뜻이니까 동의를 해줄 수 있음. 그러나 나중에 틀어져서 문제가 붉어지거나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대처해야 함. · 개인들 간에 그러한 상표등록, 저작권 문제 등이 발생 법적인 이슈, 법적 공방이 생길 수 있음 · 법적 공방이 생겼을 당시에도 서울시, 성북구 등에 알렸는데도 개인 간의 소송에 아무 조치도 못해줬다. 해당 기관은 그 사업이 끝난 상황이니 대응 할 것이 없다 하더라. · 처음에 수집할 때는 개인적으로 소통하면서 동의해주셨는데,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음. · 서울기록원 안에 모아져있는 기록에 대한 저작권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즉, 소스 제공자들이 책임을 지게 개인적인 차원으로 돌리지 말고, 그에 대한 법적 이슈는 기록원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가 되어야 할 것. 소장 및 무단 활용(?)에 대한 책임은 서울기록원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주민들 개인간에 법적 소송이 되면 주민 차원에서 소송을 대응하기가 어려움 ex) 문화재를 박물관에 기증할 때 그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보존 및 관리의 책임이 박물관에 있는 것처럼 최OO : 현재 기관들의 지역 연표를 모으고 있음. 내가 살았던 나의 생의 순간들이 지역의 역사 안 에서는 이렇게 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가으로. 이런 사업할 때도 기관들이 갖고 있는 자료(이건 넘기기 쉬운데), 주민들끼리 혹은 연구자들이 2차로 생산한(논문 등)의 자료들의 저작권, 활용 가능의 범위, 책임 소재 등등 전OO : ·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중재하는 like 조정위원회 – 민감 사안에 대해 · 노출되기 전의 단계에서는 가감 없이 수정하고 받고(작성자 및 서울기록원 단계에서/비노출 상태) ·> 그 후 서울기록원이 승인하면 노출되는 시스템이 좋을 것 같음 ex)오마이뉴스 · 모임 거점이 되는 곳의 데이터 환경 개선도 가능한지? · 서울 와이파이 있긴한데, 오늘 청수도서관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도 와이파이 잘 안되고 불편

<table>
<tr><td rowspan="3">2차</td><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3">[정말기록당 회의]
· 마을 단위 연표에 개인의 역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전시 기획함.
· 그를 통해 주민들에게 '마을기록'이 마을에 살았던 유명 인사나 대단한 문헌들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이야기가 연결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자 함
· 기본적으로 전시/교육 공간 등이 섭외 어려움
· 연표 전시 방안 1) 7월에 실내장소 섭외하여 진행 or 2) 8월(문화바캉스)/9월초/10월초 장터에 현장으로 나가서 행사할 때 나오시는 주민들 의견도 듣고 연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 사업비로는 저작물을 만드는 출판비, 디자인비 등을 예산으로 받고, 그 저작물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최OO 선생님 -> 박OO 선생님께 의견제시)

[스카이아파트 기록자료 보관 및 협약추진관련]
박OO : 스카이아파트 문짝 등의 각자 개인이 보관하기 힘든 부피나 크기가 큰 기록자료들의 보관이 힘들어서 부피 큰 것은 다 버렸음
최OO : 디지털 자료의 공간보다 그런 실물 자료의 보관을 위한 수장고 필요하다는 얘기가 이것과 연결됨. 이게 더 급할 수도.
이원영 :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박OO : 협의 좋음. 협약하면 서울기록원에 아예 넘길 생각. 스카이아파트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게 된 것은 성북신나와 한번 빠작 수집해보자는 얘기가 나와서 하게 된 것. 현재 재단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정리방법
□ 소스를 가진 주민과 중간에서 정리를 하고 매개해줄 역할이 필요함
□ 직접 기록활동을 할 사람은 교육을 해 줄 사람
□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
□ 파일의 재분류, 업데이트하고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
□ 학교와 연결. 학생들에게 지역계획을 하도록. 기록을 해주는 것
□ 온오프라인 수장고
□ 행정문건 이외에는 자료가 없음
□ 시민에게 공개된 자료도 일반인이 찾을 수가 없음
□ 기록관이 문제가 아니라 수장고가 필요</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3"></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3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8.1</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정릉동 카페</td></tr>
<tr><td>인터뷰이명</td><td>전OO, 최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td></tr>
<tr><td>인터뷰어명</td><td>임태원,
박지현,
이원영</td><td>녹취파일 링크</td><td></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1)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기록원의 지원 방안 설명
·기록물 정리방법/기준 관련 가이드 및 교육 가능
·주민과 연계할 매개자의 역할 수행 가능
·지역기록프로그램 및 교육 제공 가능
·온오프라인 수장고 중 SDA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연계가능, 교육 및 활동공간에 대해서는 고민 필요.
·기록 관련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자문 가능

2) 정말기록당 최OO 선생님의 요구사항
·자치구에서 주민들의 기억/기록을 모으고, 자치구에서 발간한 결과물들을 공유하는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함. (조례 차원에서 가능하면 좋겠음)

최OO: 사적기록이 공공기록이 될 때 염려되는 사항들이 많다. 사적기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도 그렇고, 가공하거나 다른 사업과 연계할 때의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례가 있으면 좋겠다. 특별기록조례든. 실제로 말하고 만들고 소비하는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뒷받침해줄 자치구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의 형태로 가게 되면 마을미디어사업과 같이 현장기록 중심의 활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마을기록'이 무엇인지, 기록한 결과물을 서울기록원으로 보내라는 등 내용이 담긴 기록 조례가 필요하다.

·기록을 수집한 뒤에 가공할 때 개인정보 보호, 가공한 뒤에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려움. 관련된 절차를 알려줬으면 함.

최OO: 마을기록은 상호소통되며 만들어지는, 고착되지 않은 역사인데 개인의 기록을 찾기도 힘들 뿐더러 지자체에서 만든 기록은 찾기가 힘들다. 또 기록한 뒤에 공공의 기억이 되기 위해서 공유될 때,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보존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공한 뒤에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해 알지 못해 항상 어렵다. 마을기록을 함께할 자문단이 꾸려졌으면 함.

최OO: 주민들이 마을기록을 하기 위해 주변의 대학이나 은퇴한 교수, 민간기록 담당자 등 함께 기록하고 풀어나갈 자문단이 있었으면 함. 구체적으로 시니어들이 어려워하는 문서 제작 등을 대학생들이 알려준다든지, 기록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다.

3) 정말기록당(정릉마을아카이브주민네트워크)의 활동
·올해 초 결성. 기관은 장소와 교육프로그램 기획을 함께하고, 주미들은 정릉 마을 기록을 발굴하는 활동을 함. 본격적으로 9월부터 활동 예정. 8주 간 주민기록활동강좌, 50+기록가와 함께 정릉마을을 기록하고자 함.
·전신인 정릉마을기록사업단은 2012년부터 논의해 2015년 정기모임을 결성해 활동함. 정릉을 기록하기 위한 주민과 단체(기관)이 함께 모여 판을 키운 것이 정릉마을아카이브주민네트워크다. 정말기록당(정릉마을주민이야기마당)은 정릉마을아카이브주민네트워크를 꾸려가기 위한 실무진모임임.</td></tr>
</table>

<table>
<tr><td rowspan="2">3차</td><td>리드 요구사항</td><td>□ 민간영역의 기록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 개인정보, 저작권, 초상권 등 법적 이슈 해결
□ 기록매개자, 기록자문단의 운영
□ 지역기록 프로그램 운영
□ 교육 지원
□ 기록활동을 위한 공간 지원</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3">□ 자체적인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기록원의 보존□관리 및 서비스 제공 보다는 협력□지원을 통한 기록활동을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민간의 지역기반 기록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희망함</td></tr>
</table>

3.3.5. 사진아카이브연구소

가. 리드파일

<table>
<tr><th colspan="7">사진아카이브연구소 리드파일</th></tr>
<tr><td colspan="2">식별번호</td><td>39
-LE</td><td>버전 정보</td><td>v.1.1</td><td>최근수정일</td><td>2018.8.2.</td></tr>
<tr><td rowspan="11">리드
정보</td><td>리드명</td><td colspan="2">사진아카이브연구소</td><td>리드 유형</td><td colspan="2">□ 개인 □ 가문 ■ 단체</td></tr>
<tr><td>리드의
다른 이름</td><td colspan="2"></td><td>리드 영역</td><td colspan="2">□ 공공 □ 협치 ■ 민간</td></tr>
<tr><td>리드 연락처</td><td colspan="2"></td><td>리드 이메일</td><td colspan="2"></td></tr>
<tr><td>리드 주소</td><td colspan="2">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td><td>리드 웹주소</td><td colspan="2">https://www.facebook.com/fotoarchives/</td></tr>
<tr><td>리드
소개 및 연혁</td><td colspan="5">□ 한국 근대 사진 아카이브의 구축을 위해 2004년 설립된 연구소로 근대 관련
사진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류, 정리하여 DB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전시
및 출판 콘텐트 기획을 하고 있음
□ 지역아카이브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옛 사진을 수집하고 현재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정리함
□ 주제별로 사진을 수집하여『다쉬브(d'Archive)』자료집을 발행</td></tr>
<tr><td>리드
대표자명</td><td colspan="5">이OO</td></tr>
<tr><td>리드 대표자
연락처</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4">리드 구성원
정보</td><td colspan="2">리드 구성원명</td><td>리드 구성원 역할</td><td>리드 구성원
연락처</td><td>리드 구성원 이메일</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4">리드 관계
정보</td><td colspan="2">리드 관계 단체/인물명</td><td>관계 범주/형식</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4">리드
접촉정보</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인터뷰
일시</td><td>인터뷰
장소</td><td>인터뷰어명</td><td>인터뷰이명</td><td>최근 수정일</td></tr>
<tr><td>39-CA-1st</td><td>2018.6.15</td><td>사진
아카이브
연구소</td><td>전미정, 원종관</td><td>이OO</td><td>2018.6.20.</td></tr>
<tr><td>39-CA-2nd</td><td>2018.8.2.</td><td>사진
아카이브
연구소</td><td>전미정, 원종관</td><td>이OO</td><td>2018.8.2</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4">보유
기록물
정보</td><td>아카이브명</td><td colspan="5">사진아카이브연구소</td></tr>
<tr><td rowspan="3">주요 컬렉션
소개</td><td colspan="2">컬렉션명</td><td>구분</td><td colspan="2">설명</td></tr>
<tr><td colspan="2">다쉬브 d'Archive</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colspan="2">사진아카이브연구소에서 수집□구축해온 근대 사진 아카이브에서 주제별로 엮어낸 사진 자료집으로, 현재 2호까지 발간됨.</td></tr>
<tr><td colspan="2">통일로 열두고개</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colspan="2">은평구마을사진아카이브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됨. 2016년 5월 '사진으로 본 통일로 이야기' 전시를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함.</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able>

보유 기록물 정보	시정기록 연계 링크		
	보유기록물 구분	■ 전자 ■ 비전자	
	보유기록물 유형	전자	■ 문서 ■ 사진 □ 영상 □ 음성 □ 기타 ( )
		비전자	□ 문서 ■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 기타 ( )
	보유기록물 규모	전자	280GB
		비전자	2상자
	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		
보존 관리 현황	보유기록물 상태	전자	외장하드와 웹하드로 관리함.
		비전자	경매 등을 통해 자료수집을 지속 중. 이경민 소장 사저와 사진아카이브 연구소 사무공간에 정리, 비치되어 있음. 비전자기록은 사무실에 보관함.
	관리 현황		□ 일제강점기 시절 근대사진 목록은 15,000여 건, 해방 이후는 약 50,000건 □ 전시 카달로그는 1,200종. 그 외에 근현대를 아우르는 빈티지 사진, 엽서, 사진첩, 졸업앨범, 잡지, 책자 등 목록화 되지 않은 실물 자료가 많음 □ 물리적 공간이 확보. 사진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보존공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조건을 갖추기 어려움
협력방안	리드 요구		□ 사진이라는 매체의 특수성, 사진아카이브를 할 때 고려할 부분들에 대해 제안함 □ 서울기록원의 차별화를 위해 사진이라는 매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언 □ 아카이브 작업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일상속 개인들이 아카이브를 할 수 있는 '아카이브 문화 확산의 캠페인'이 필요할 것을 제시함
	예상 지원 방안		
	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		■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 □ 기타 ( )
	수집 협의 내용		□ 협력, 지원 관계에 대해 상호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협력,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음
특이사항	아키비스트 주기		□ 물리적 보존공간이 부족한 경우이며, 단순히 공간을 제공받는 것이 아닌 지원을 통해 기록을 정리하고 서비스 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입장임

나. 케이스파일

<table>
<tr><th colspan="7">사진아카이브연구소 케이스파일</th></tr>
<tr><td colspan="2">케이스파일 식별번호</td><td>39-CA</td><td>버전 정보</td><td>v.2.0</td><td>최근수정일</td><td>2018.8.10</td></tr>
<tr><th colspan="7">소장처 인터뷰 정보</th></tr>
<tr><td colspan="2">회차</td><td colspan="3"></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39-CA-2nd</td></tr>
<tr><td rowspan="4">1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6.15</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사진아카이브연구소 사무실</td></tr>
<tr><td>인터뷰이명</td><td>이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td></tr>
<tr><td>인터뷰어명</td><td>전미정
원종관</td><td>녹취파일 링크</td><td></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사진전문자료관을 기록원의 특장점으로 활용한다면?]
사진은 메타미디어적 성격이 강하다. 특정 매체의 기능도 있지만 모든 것을 사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사진의 가치는 점점 커지고, 그걸 본 곳이 역사박물관이다. 사진컬렉션을 엄청 하고 있다. 입체경 사진도 그렇고. 온전한 한 셋트를 1억 주고 사왔더라. 그 예산으로 컬렉션을 한다는 것은 활용도도 높고 대중들에게 이해도 쉽고. 도시사박물관의 입장도 있지만. 개항이후로 근현대사까지. 근대의 역사와 사진의 역사를 동일하게 보는 것도 있다. 연구나 활용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김달진 선생처럼 특수박물관을 떠나서 사진전문자료관을 서울기록원 안에 두는 것도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사라져가는 개인과 기관의 것들을 당연히 맡겨야 하는 것으로 가야하고.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계 가능하고. 상호간에 좋다. 연구소를 떠나서 대의적으로 해야 한다. 중앙대에서 했던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2002년? 2005년?). 서울역사박물관에서도 이번에 그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그 작업을 연구소 연구용역으로 하고 있다. 최인호씨가 찍고 내가 메타데이터 정리를 했다. 서울시정자료 책을 이북으로 서비스 한 게 있고 그 즈음에 또 다르게 서비스 중이다. 문화역284에서도 소장한 자료를 DB자료로 만든 게 있고 보고서 1000p를 만들었다. PDF로 출력하면 보고서 만들기 편하다고 누가 그래서 그렇게 할까 싶음. 상설콘텐츠를 꾸며달라고 하는데 제안을 해도 팀장이 관심없어 한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하기가 어려운데... 상설이면 그 기관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가야하는데 이슈가 드러나는 것만 챙기려고 한다. 그걸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아카이브를 하려면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개인의 기념사진에도 그런 요소들이 많이 담긴 것이 사진. 사진계도 이렇게 하지 않음 현황파악도 못할 것 같다.

[기대하는 지원 내용]
민간에서 사진관련 아카이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기록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 '조건 없는 수장고(오프라인)'가 가장 중요하다. 중대에서 했던 것도 디지털 아카이브, 하지만 15년 뒤라 열릴지가 의문. 디지털 파일이 몇 년간 가능한 지 확인된 바 없다. 중앙대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의 경우 수정본까지는 백업본이 내게 있다. 당시 컷당 4~50메가 정도로 다운받았다. 큰것들은 한 40메가.
혁신파크 연구소 자료, 집에 있는 것은 인문사회학 자료, 콜렉션도 좀 있고. 기록원과 작년에 이야기 할 때 개인 수장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일종의 기탁) 기관입장에서는 왜 이 사람이어야 하느냐. 공정성에 떨어져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집에 있는 빈티지 사진들은 집에서 변색, 퇴색이 일어나고 있다. 느리게 지연. 사진을 위한 보존 시스템을 갖추기 쉽지 않을 듯.
사진적 근대유산 가치. 선진국은 다 확보하고 있는데. 사진만의 전용수장고는 없다. 대부분 사진 미술관은 미술작품 중심의 항온항습. 매체마다 별도의 접근방신이 있을 것. 아마 국립사진박물관이 생기지 않음 안 될 듯.
국가 단위의 행정자료가 25개 구마다 얼마나 쏟아져 나올까. 철을 열기 전엔 모른다. 교통과에서 디지털붐이 일어서 3장의 CD로 만들었는데 세 개 중 하나가 작동이 안 되고. 서울사진아카이브도 웹상에 있는 거지 실물자료가 없다.</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1차</td><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3">[소장 목록 및 규모]
중대에서 했던 것은 목록은 만들었다. 15000건 정도 해방이전. 해방이후는 저작권문제가 있지만 5만 건.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내가 갖는 것으로.
연구소에 있는 전시 카달로그 1200종.
개인 컬렉션은 빈티지 사진, 엽서, 사진첩 자료가 꽤 됨. 졸업앨범 등...

[기록관리에 있어 담당자 & 부서 변동의 위험성]
다만 거기도 담당자가 바뀌면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느냐. 아시아문화전당도 김선정씨가 몇 만권을 가지고 왔다가 담당자 바뀌니 다 가지고 가라고... 서울기록원도 그 안에 타이틀이 있어야 그 기능을 가지고 계속 간다. 사진전문 아키비스트의 활동이 필요하다.

[분류 및 메타데이터 정리의 특수성]
물리적으로 타이핑하는 것 때문에 충분히 사유하고 이해할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다. 기록원과 자료를 공유하고 기록원에서 목록화를 해주면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방식? 하지만 원론적으로 그러한 도움이 오히려 일을 돕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분류와 목록화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들여 박사학위 연구자가 목록을 만들고 메타 데이터를 채우는 이유가 있다. 그걸 수집하고 분류하고 아카이브 하지 않으면 자기 것으로 소화시킬 수 없다.
리드
-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다름
- 분류를 누가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짐
- 아이디얼한 학문(이상주의적)

[사진 아카이브의 특수성]
사진 아카이브에 놓치기 쉬운 것. 사진은 메타미디어이기 때문에, 메타학을 전공해야한다. 당장 어류사진, 어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알 수 없다. 민속사진, 민속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음 무당이 액션을 취하고 있어도 해석할 수 없음. 학제간 연구가 되어야 한다. 사진기록학. 사진기록학을 기록관리 차원에서만 이야기 되고 있지만 사진아카이브는 새로운 종류의 학문이다. 고등과학원에서 융복합하려고 하는데 핵심이 됨.
일본은 동경대 석사과정에서 90년대 후반에 협동과정을 운영했다. 동경대 사료편찬소에서 제국주의 시대 유리건반들이 있는데 고사진(올드포토)을 대상으로 한 아카이빙을 한학기 과목으로 진행을 프로젝트 식으로 했다. 거기에 당연히 일본근대사, 사진기록학, 사진재료학, 일본사진사, 서양사진사가 인접학문에 들어있다. 그러기에 분류&활용이 가능. 조각조각 깨진 유리건판의 경우 전문 업체와 함께 복원. 이후 3D로 만들어 산업에 활용.

같은 사진도 전공 분야마다 기록을 달리 읽는다. 학술연구와 병행이 되어야 함. 단순하게 그런 것을 보존하는 형태를 넘어서 해석의 작업으로 넘어가는 것을. 한 장의 사진에서 스물 몇 개의 메타를 뽑아내는 작업을 함. 인화지 자체의 역사성(물성)이 있더라도 메타 정보가 없음 기록학에서 치지 않음
명성황후 사진 한 장으로 전공자마다 메타를 읽는 게 다르다. 두 장이 있을 때 두 개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또 나타남. 프린트를 못했더라도, 시대성으로 읽어야한다.(최광호) 맥락 속에서 프린트가 어떤지 나와야 한다. 맥락을 읽으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다. 사진은 기록적이지만, 기록적인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걸 뒷받침해주는 메타데이터가 있어야 함. 민속박물관에서는 예전에 유족이 콜렉션을 기증하면 민속학만 불렀는데 이제 분야별로 부른다. 건축사, 복식사학, 사진학 등...

현재는 A라는 관점으로 메타데이터와 분류로 했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는 B라는 관점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맥락을 읽어야 알 수 있다.

사진아카이브의 표준은 불가능하다. 통합DB는 넌센스. ex.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경우 정부수립 이후를 주로 하고 이데올로기적 표상이 되는 것을 주로 모음. 서울역사박물관과 다름. 각 기관의 입장을 적어주고 취사선택하여 활용하게끔 하는 방식이 필요.</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3">2차 면담 진행</td></tr>
</table>

2차	인터뷰 일시	2018.8.2.		인터뷰 장소	사진아카이브연구소 사무실	
	인터뷰이명	이OO	인터뷰이 연락처		인터뷰이 이메일	
	인터뷰어명	전미정 원종관	녹취파일 링크		사진 링크	
	주요 인터뷰 내용	아카이브 사업 지속성의 중요성 원종관 : 지난번에 인터뷰 내용을 봤다. 궁금한 점도 생기고 그전에 뵙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해서 같이 만나자고 요청을 했었다. 전미정 : 기록원에서 세운 계획을 공유해주시면.. 원종관 : 예산과랑 예산 확보 중. 내년에는 전시와 관련된 연구를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예정. 기록화사업도 계속 진행할 예정, 나머지는 행정기록 이관하는 사업 진행 예정. 가장 중요한 사업은 행정기록의 카달로그 만드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 관리자는 빛이 안나는 사업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잘 인덱싱하고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시민기록에서는 얼마나 많은 소장처와 관계를 맺고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찾고 하는 것. 단순화 시키면 그렇습니다. 정리해준 사안 중에 사진아카이브연구소와 함께 할 일은 무엇일까? 기록원이 물리적 소장공간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 (아시아문화의전당의 좋지 않은 사례도 들었고) 이OO : 아시아문화의전당 아카이브 사례는 지속이 안되고 업데이트도 안되고 활용도 안되고. 홈페이지도 무겁게 작동이 되고 있음. 애써 구축하면 썸네일이나 구체적 내용이 보여 지는 후속작업이 필요한데 초기 버전으로 되어 있음. 사실 그런 것들. 위에 관리자가 바뀌어도 지속사업으로 계속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음. 미술 쪽 미술아카이브 관련된 노력. 상명대 이인범 선생. 리움의 한국근대미술사자료실에서 작업 김철효 선생. 김달진연구소 김달진 선생 등. 하다가 중단되고. 리움도 '행복한 미술' 사건 이후로 한국근대미술사자료실 자체가 없어졌다. 대기업에서도 그 주제와 무관한 일로도 영향에 의해서 없어질 수 있다는 것 충격. 아르코 시각미술 소위 활동을 했을 때 한참 아카이브 필요성 이야기하고 하면서 미술소위 차원에서 미술아카이브에 대한 국제 심포지움 이런 거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선행 활동에 대한 공유를 하려고 연락을 하고 세미나 요청했는데, (아카이브를 자체적으로 하던 측에서는) 자꾸 (외부 상황에서 의해서) 엎어지고 하니 패배의식이 팽배. 해서 뭐하냐. 또 사라질텐데... 이런 의식이 만연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서울기록원도 차기 시장이 누구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영향받을 것이 걱정. 어쨌든 그 전에 할 수 있는 만큼의 역할을 해야 할 것. 디지털아카이브의 한계 이OO : 예전에 학진 프로젝트로 진행한 거긴 한데 민중생활사연구단. 전국 11-12개 기관의 컨서시움으로 중급과제로 했던 것. 영남대 전북대 두 학교의 좌장이 지역의 70대 이상 구술 인터뷰를 통해서 구술 자료집을 내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학진 기금에 의존하다보니 5-6년차에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던 것 같다. 각자 연구한 자료를 각자의 기관, 학교로 찢어서 가져가는 상황이 되면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웠던 상황. 개별 구술자료집 100 몇 십 권 나오고... 모범사례로 느껴졌는데 10년을 채 지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속이 되면 엄청난, 문화인류 지역사 일상생활사의 보고가 될 텐데 그게 안 되어서 아쉬움. 원종관 : 3층에 시민기록물 서고. 그런 의도로 만든 것. 기록원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보존해야하는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 이OO : 2001년. 중앙대 산자부 산학협동기관 DCRC 디지털콘텐츠 리소스센터. 디지털콘텐츠의 확산과 활용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 기초 리소스 원천 데이터를 구축하는 일을 시작한 것. 초기라 시행착오가 많았음. 영상, 만화 매체별로 많았다. 사진도 그 중 하나. 사진 같은 경우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해방 이전 사진을 대상으로 디지털아카이브를 진행. 근대사진 아카이브. 그걸 BK사업으로 (이경민) 진행. 선행 사례도 없고 저도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음. 사실 디지털은 대안이 못된다. 차안 정도다. 제대로 사진아카이브를 한다고 할 때 원본필름, 인화된 자료를 함께 소장하는 것이 중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자료를 구할 수 없어서 생각한 것이 조선총독부에 발행된 책자에 수록된 사진을 스캔해서 사진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다. 대부분 그런 책들이 관심이 많이 생겨서 소장자도 많이 늘어났다. 그때부터 근대사 자료 수집붐이 일어서 경매사이트가 신장을 할 정도로 많은 컬렉터가 생겼다. 지금은 저도 못 구할 정도. 낙찰이 어려울 정도.				

2차	주요 인터뷰 내용	학교에서도 아카이브라는 게 투자만 하는 거다. 데가 나거나 산업적으로 누가 구매를 하거나 하는 시장은 미미한 상태. 공공성을 갖고 해야 하는데 모든 평가가 경제논리로 하다 보니 DCRC는 빵점이었던 것. 사양사업의 모델을 DCRC 책임자들이 가져오다보니 그 사업이 하락. 4-5년 노력을 했는데, 디지털아카이브는 모 아니면 도. 켜면 있고 끄면 사라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형태 아닌가. 결국엔 실패. 디지털아카이브가 그런 부침이 너무 크다. 일본 같은 경우 90년대 초중반 디지털 붐. 동경대 동경사료편찬위원회. 메이지 전후 중요한 자료. 처음에는 디지털화하는 쪽에 투자했는데 디지털에 대한 보장, 수명 등을 검증하기 어려우니까 업계에서는 100년 보존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100년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영인본, 복본을 원본처럼 만드는 쪽으로 선회했다. 복본을 두 벌을 만들고 하나는 보존본, 하나는 활용본. 그게 어떻게 보면 정석이 아닐까. 우리나라의 특수성. 전쟁 나고 사라진 자료가 많다. 정상적 절차를 밟으며 보존하기 어려움. 오히려 역으로 디지털이 갖고 있는 속성. 휘발성 때문에 5*7이라도 아날로그로 프린트를 해놓아야하지 않나. 개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연구소뿐만 아니라 아시아문화의전당도 디지털로만 해놨는데,, 후속작업이 이루어지려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적인 예로 신문사 디지털아카이브 도입. 2000년대 초반. 경향신문. 남북회담이 열린 시기. 그 중요한 사진들이 1메가가 안 되는 데이터만 남아있는 거다. 경향신문이 어렵다보니 디지털 관련된 정책이 세워지지 않음. 서울기록원에 대한 기대 이OO : 교통과. 교통현황, 도로, 시스템관련된 자료를 꾸준히 찍어옴. 그걸 디지타이징 작업을 했다는 것. CD3장에 담았다고 자랑을 하더라. 그런데 복본이 없어서 3장 중 하나가 안 열리더라. 원본은 없고. 그렇게 저렇게 사라지는 중요한 자료가 많을 거라는. 아무런 대책 없이. 사라지는 거. 개인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 쉽게 전달해주는 그런 운동. 아카이브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것 고민 필요. 원종관 :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당시 교통과, 기록관리라는 개념이 없었고 저희는 기록관리를 하겠다. 시스템. 하려는 단계라서 좀 다른 상황. 이OO : 보존연한이라는 게 참 안 좋은 것 같다. 3년. 10년, 폐기... 사진은 그때 아니면 찍을 수 없는데... 개발 전의 모습 찍어놓는 것 사라지더라. 그런 것을 법제화해서. 기록원이던 역사박물관이던 이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우리 연구소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개인이 관리하기는 어려움. 연구소도 작년부터 관리를 위한, 연구소 차원에서 할 수는 없지만 필요성을 알리는 방법이 무얼까. 작은 사진자료집을 주제별로. 2만여 종의 자료에서 주제별로 뽑아서 5-60쪽 규모의 책자로 발행. 그런 걸 통해서라도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 할 수 있는 노력들은 그런 식의 노력. 전체 자료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식의 서비스와 설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두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엄밀한 의미의 아카이브가 필요. 원종관 : 웹사이트나 SNS는 유통 파이프라인이고, 기록원은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문제라서.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 작년부터 설계하면서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 2중 스토리지 백업 중. 그 부분에서는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차선까지는 보장하고 있다. 들어오는 자료뿐만 아니라 사진자료에 대한 관심 필요 이OO : 역박은 공유는 못하나? 원종관 : 힘의 차이. 목록도 공유를 안 해줌. 이OO : 서울사진아카이브 사이트는 기록원에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원종관 : 그 원본 자료가 다 역박에 있음. 최인호 쌤은 열려있지만 기관 차원에서 공유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더라. 이OO : 그 자료의 확보가 필요할텐데... 서울역사박물관 > 근현대서울사진 아카이브 카달로그. 해방 이전 고문헌 자료를 디지타이징 작업을 했다. 문화역서울284에서도 얼마전에 연구소에서 용역을 받아서 서울역 관련된 자료 정리 사업을 했고. 그런데 역박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더라. 도자기 하나 구하는 가격으로 방대한 사진자료를 구하는데, 전시효과나 관객에게 공유하는데 더 많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서울기록원 본래의 목적이 있겠지만 시민 참여를 계속 끌어오기 위해, 대중적 이미지를 만들어가려면 사진이 좋은 매체가 아닐까. 사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2차	주요 인터뷰 내용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소가 작업했던 사례도 가능하겠고. 어려움 중 하나는 사진, 사진전문가라고 저에게 의뢰를 하지만 사진 하나하나를 정확히 읽어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사진이야말로 여러 분야의 협업이 필요한 사업. 그걸 완벽히 맞추기는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 요즘은 민속박물관, 개화기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의 후손들이 다양한 유품을 정리하는데 다양한 분야 전문가. 역사, 건축, 사진 등. 서로 다른 시각으로 해석. 그걸 합칠 때 온전한 해석이 가능. 생산 맥락에 따라서 기본적인 메타 정보는 있겠지만. 협업, 학제간 연구, 융복합. 사진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활발하게 풀어내기 좋다. 사진계 안에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게 아카이브다. 원종관 : 역박에서 하는 정도의 연구조사사업에 대해서는 아카이브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저기까지는 못할 것이다. 저기까지 하는 게 우리의 영역일까 라는 질문이 있다. 소극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기록원은) 아카이브는 인프라에서 충실히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버겁긴하다. 자료의 해석은 학술팀이 별도로 맡아서 해야할 것. 사아연과 협력할 지점이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밑바탕. 기본적 메타데이터 정리가 기록원에서 할 수 있고 다른 문화기관이 쓸 수 있게 전파하고 소개하는 게 우리 일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 역박에서 제안을 받거나 하지는 않으셨나요? 이OO : 뭐 역박에서 알아서 잘하는데 뭘 원종관 : 그런데 전시를 다니다보면 저, 유심히 보게되는데. 사진아카이브연구소가 출처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제안을 많이 받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OO : 기관에서 확보한 게 당연히 많고. 제가 어떻게 보면 먼저 작업한 것들. 소소한 자료들을 노출을 시켜서 그런 거지 더 좋은 자료는 기관에 많고 역박, 대박. 자료수집 심의할 때 가면 짧은 순간에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업의 목적이나 공개여부 이런 것 때문에 노출이 안되어서 그렇지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본다. (연구소에서) 역박 작업한 거는 자료과에 예산이 남아서 회계연도 안에 써야해서. 다른 과에서 할 일을 그과에서 한 거지. 그렇게 해 놓으면 계속 후속사업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든 거라서. 기회가 되면 더 해야겠죠. 자료는 쌓이고 넘치니까. 원종관 : 역박은 디지털로 신경을 많이 쓰나요? 이OO : 원래 최인호씨 혼자 있다가 아카이브실을 따로 만들었음. 물론 정직원 충원은 아님. 알바를 써서 단기간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도 사진가 한 명이 있던 거랑 사진아카이브실을 따로 만든 것은 큰 차이. 그만큼의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한다는 뜻. 앞으로 그런 역할이 커지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기존의 박물관의 관행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만 하더라도. 중요한 3만 8천여 점의 유리건판이 있는데 전문 학예사가 없는 거야. 그거는 자기들의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 갖고는 있는데. 얼마 전에 공개는 했다. 작업은 90년대 후반에 삼성 쪽에서 들어와서 목록화 작업은 다 했고 디지타이징 작업을 삼성 쪽에서 1~2년에 걸쳐서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시민담론 자료가 많다보니까 공개했을 때 파장 때문에 자료의 공개는 10년 이상 묻혔다.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를 했다. 이미지는 크게 볼 수는 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연구가 개인이나 학술단체에서 이루어질 것. 지역사 활용에도 도움. 많은 연구 리소스로 쓰일 수 있을 것. 그때 처음으로 유리건판 사진전을 한 적이 있다. 고궁사진전이라고. 학예팀이 한 게 아니고 김영민 씨가 주도한 전시. 이 친구도 사진 내용을 모르니까 나를 많이 괴롭혔다. 유리건판, 유리원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리건판이라고 써라. 김영민 작가도 일본에서 사진보존 공부한 사람이지만 기존의 올드 포토그라피를 수복하고 보존과학의 측면이 아니라 새로운 상품을 만들 때 얼만큼 노광을 하고 기타 등등 테스트를 하는 거라서 초기의 사진을 관리하는 건 어렵지만 용산으로 옮기면서 내진설계 되어 있는 모빌랙에 유리원판을 보관. 활용의 측면에서는 아직 아쉬운 상태지만 그래도 다행.

2차	주요 인터뷰 내용	서울기록원과 사진아카이브연구소 ① 원종관 : 그런 작업을 저희랑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다. 근거는 예산입니다. 세 가지. 1. 물리적 공간 2. 디지털아카이브에 디지타이징된 파일의 안정적 보관 3. 연구사업. 두 번째 디지털 탑재는 이슈가 많지 않을 수 있으나 1, 3은 공정한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서로에게 필요할 것. 이런 사례가 있었나? 생각해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공간 확보에 대한 것, 연구사업의 사례 이OO : 할 수는 있는데, 사진전공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의 정보. 한자, 일어, 영문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또 생산맥락, 민속, 인류, 보고 등. 그런 쪽의 이해를 갖춘 스탭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갖추기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것. 단순하게 의뢰받아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할 수 있는데 내용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방법도. 있음. 역박의 경우 이순우 선생이 사진 하나하나의의 해제를 요청. 그렇게 제한적 협업을 하기도 했음. 필요하면 그렇게 가능. 원종관 : 전문적 연구를 처음부터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 제가 상상하는 모델은. 예전에 사진아카이브연구소에서 만들어놓은 디지털 파일을 서울기록원 디지털아카이브에 탑재하고, 일부는 외부에 콜렉션으로 정보를 올리고. 나머지를 디지타이징하고 경과를 보면서 추후 사업으로 연계해나가는 것. 처음부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그걸 하면 너무 좋은데 그걸 할 만한 예산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싶고. 디지털파일은 시스템.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중 보존이 필요한 것 서고입고.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 이OO : 올해가 정말 걱정되는 해. 이렇게 더워서 개인 소장하고 있는 사진들. 괜찮을까? 94년 최인진 한국사진사연구소에 있을 때. 그때 연구소도 열악한 환경. 창문 맞은 편 철제 캐비넷. 직접적으로 태양광. 캐비넷 앞에 물이 흐른 흔적. 왜 그러지? 물이 잇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필름이 들어있는 파일을 열어보니 녹아서 물처럼 떨어진 거다. 성득영 선생 한국전쟁 당시 필름, 이석재 선생 해방공간 리얼리즘 계열 사진들. 통째로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한국 사진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그렇게 귀중한 자료를 원로 작가, 선배작가 등에게 빌려오고. 했는데 환경이 없는 상태에서 모아놓는 것은 죄악. 제게 기증하려는 분도 있는데 제가 받을 수 없다는 생각. (기록원이 그런 자료들을 보존해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내용) 사진의 범주가 넓다. 모든 분야에 연결.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일단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해와야겠지만 사진 쪽 사진문화사, 사진예술사의 흐름을 자료를 통해서 읽어갈 수 있는 일이라서. 사실 미술 쪽에서 공간이 있어서 그런 작업을 하고는 계신데, 거기는 미술자료. 사진자료는 빠져있다. 미술로서의 사진으로만 다루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더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전시 끝나면 소장자들에게 대여한 자료를 돌려줄 때, 다시 끄집어내기 쉽지 않거든. 그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버려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론화 해서 공공기관에서 확보하면 좋겠다는 희망도 있다. 그런데 다른 기관들과의 변별성이라던지 사진계에서 필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런 거라 더불어 말씀드린 것. 행정기록 위주의 사진자료 해석과 연구 전미정 : 그런데 어쨌든 서울기록원은 행정기록 중심. 오히려 저는 행정에서 생산된 사진에 대한 해석과 연구.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건 연구소에서 불가능해요? 이OO : 나야 개인적으로는 도시과, 건축과 사진에 관심이 많음. 지금도 연구소에서 사진수업 들었던 분들이랑 지역아카이브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모습도 찍지만 그 지역의 흔적들을 찾아서 같이 보여주는 작업을 하고 있음. 그럴 때 구청이나 시청, 국가기록원에서 자료를 검색해서 현재의 사진과 함께 자료집을 엮어내는데. 그 도시과나 이런 쪽에서 생산된 사진들이 유용하게 쓰임. 그런 자료의 파악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90년대 초부터 도시경관기록화사업 5년 주기 작업. 그게 방대한데 그걸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원종관 : 접촉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넘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거긴 따로 조직이 있는 거라서요. 이OO : 그런데 자료집이나 사진집 내고 끝이 더라고요. 초기 사이트가 있는데 다음 사업 때 또 바뀌고. 웹사이트도 사업주체가 변할 때마다 바뀌는 것 같다. 개발주체와 사업주체는 달라도 결과물이 지속적으로 함께 보여지게 해야하는 것 아닌가.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 도시경관기록화 사업. 최근에는 인천에서도 하던데. 건축사무소가 그런 수주를 받아서 지역사진가와 한 팀을 이뤄서 찍었더라. 올해로 두 번째. 아무래도 공개입찰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사진의 퀄리티가 들쑥날쑥. 지역을 나눠서 찍는데 너무 편차가 있어서 차라리 그렇게 하기보다 주제별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건물만 찍는다, 뭐만 찍는다. 생산단계에서 다 일임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을 만들고 그것을 전문가의 사전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찍어야할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며 기획해야할 것.

2차	주요 인터뷰 내용	사진아카이브 관련 허브로서 서울기록원 전미정 : 서울기록원에서 사진아카이브연구소와 연결하려는 욕구는 무엇일까? 원종관 : 사진과 관련된 연구를 해 온 조직이 있는데, 보존환경이 좋지 않으니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싶다는 게 기본. 연구를 하거나, 정책문서나 이런 데서 분석하는 건 두 번째 문제. 그건 미묘한 지점에서 합의가 필요. 이 콜렉션의 사진을 분석한다. 이런 건 연구소의 니즈도 맞아야 한다. 인프라 제공에 있어 도움을 드리겠다. 이게 제일 크다. 이OO : 지속적인 수집도 필요한 부분이다. 실물자료를 기록원에서 확보한다는 의미가 크다. 문화역서울284처럼. 서울역 관련된 자료만 누군가 모았더라.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졌다. 그런 식의 콜렉션이 같이 가야 협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을 것. 제가 수집한 것이라고 해봐야 기관 소장보다는 미천할 수밖에 없음. 기관마다 그런 것을 서로 경쟁적으로 수집하려고 하는 추세. 원종관 : 저희는 소장이 목적이 아니에요. 선생님께 기대하는 건 선생님이 사진아카이브에서 일을 하시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기증하고 싶다고 할 때 사회적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긴급하게 보존하거나 나중에 좋은 환경에 보존하는 것이 보장되면. 출처를 밝혀내고. 사진아카이브에 관련된 지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게 목적이고 선생님이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록원과 공유하고 소개해주시면 같이 만나서 당장 보관하는 등의 목표를 하고 싶은 것. 이OO : 콜렉션도 필요하지 않나요? 원종관 : 갖고 있는 게 중요하죠. 사실 저희는 구매예산은 없어요. 그게 약점. 적어도 그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보존하는 일을 저희가 하겠다. 한 점의 자료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진아카이브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콜렉션 구매하는 기관들은 많지만 사진계의 지도를 그리는 기관은 없다고 생각. 이OO : 사진아카이브. 민박 김시덕 선생. 결국에는 잘 만들고. 대박에서도 얘기하는데, 각 박물관의 사진아카이브를 하는 담당자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 그런 허브 역할을 하면 좋죠. 디지털 시대에 허브로서의 역할만 하더라도. 원종관 :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이OO : 저희도 걱정은 하는데 해결이 안 되서 저지르기는 하는데. 초상권 문제가 가장 어려움. 버려지는 사진첩의 구입. 계속 개인의 입장에서 하기 어려움. 아카이브연구소만 생각하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 연구소 운영은 궁극적으로는 허브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중간역할로 생각해서 두루두루 말씀드린 거고, 시작은 그렇게 하면서 다른 연구를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매체마다 보존이 다른데. 보존환경이 어찌되는지? 원종관 : 저온서고. 항공사진이 있어서. 일반문서고, 저온서고. 대표적으로 보존환경이 두 가지. 이OO : 중박 김영민 담당자 보존에 관련된 매뉴얼이 있을 것. 매체별 보존방법. 국내 실정에 딱 부합하는 것은 아닌데. 국가기록원도 기록물 보존 관리 기준이 분리되어 있음. 집집마다 있는 자료는 최소한의 보존환경 확보를 위한 제시도 필요할 것 같다. 공청회 같은 것. 칸나앨범이 사진 보존의 역적. 접착액이 사진에 스며들어서 수복이 불가능. 그거는 복원의 가능성이 없음. 떼내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옛날 사진첩은 코너링을 하고. 습자지? 기름종이로 덮고 오히려 보존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것 같다. 하는 일이 사진만 하시는 게 아니겠지만. 서울기록원과 사진아카이브연구소 ② 전미정 : 가지고 있는 자료들. 집이나 연구소에서 보존하기 어려운데, 목록이 러프하게 나온 게 있으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OO : 그건 아직은 불가능. 실물자료는 대부분 집에 있으니까. 전미정 : 아니면 책자 같은 게 기록원으로 들어가면 시민 열람이 가능한가요? 원종관 : 기록열람실에서 할 수는 있죠. 신청을 받아서. 전미정 : 이쌤. 그럼 그렇게 열람해도 괜찮은가요? 이OO : 그게 아무래도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디지털로 작업을 해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여분의 책자가 있으면 직접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구할 수 없는 것들은 쉽지 않다. 중요한 책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정말 귀중본은 복본을 만드는 게 중요한 사업 중 하나. 도서관에도 없는 자료들이 많으니까. 공개는 할 수 없지만 연구자를 위한 준비도 필요. 2년 전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원로작가전자DB사업에 사진파트로 참여해서 육명심 한 명의 작가를 전자DB를 만드는데 1년이 꼬박 소요. 한번 해놓으니까 연구자들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더라.

<table>
<tr><td rowspan="3">2차</td><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3">전미정 : 그런데 어떤 논리를 만들어야할 것 같다. 기록원은 어쨌든 시정기록 중심의 보관이기 때문에 왜 연구소의 자료가 기록원에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 설득력있는 근거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연구소에 소장된 자료들은 서울의 시민 일상사 같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걸 담고 있다는 것. 그걸 염두에 두고 협약을 맺으셔야 할 것.
원종관 : 제가 생각하는 연구사업은. 일단 물리적소장은 약속할 수 있다. 디지털에 탑재하는 것도 어떤 것을 어느 만큼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협의에 따라 약속드릴 수 있고. 연구사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미정님 얘기해주신 것처럼 하나는 행정기록 안에 있는 사진을 연구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가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시민의 삶을 밝히는 사진의 연구.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거나 조율해서 내년 사업으로는 작게라도, 베타로 일단 시작해보고 싶다. 연구예산 3천만 원 정도 생각.
이OO : 최근에 역박에서 별도에서 연구총서를 발행했다. 총서 시리즈 참조하면 좋을 것.
(참조 http://www.museum.seoul.kr/www/board/NR_boardView.do?sso=ok)

원종관 : 시정기록에 맞춰서 저런 작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OO : 시청에서 전시 형태로 한 게 많이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총서를 만들면 좋을 듯
원종관 : 디지털의 경우 내부적 협약도 필요하지만 대략의 규모. 약 2만 건을 가지고 있다. 100건만 정리가 되면 정리된 100건을 수록하고 뒤에 백엔드 보존스토리지에 가지고 있는 방법.
이OO : 어려운 게. 개인이 할 수 없는 게 인건비 문제.
원종관 : 지금 보존이 필요한 것에 대한 지원 방법을 찾겠다.
이OO : 개인적으로 소장한 책자들이 있는데 스캔을 해서 메타데이터 정리를 하고 이런 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고,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원종관 : 기록물 이관은 2019년 6월이 지나야 들어갈 수 있음. 실무적인 문제는 올해 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진행
이OO : DCRC 사이트에 올렸던 메타데이터 리스트를 먼저 드리는 건 가능. (기억발전소 체크 필</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조건 없는 오프라인 수장고 제공
□ 기록의 정리 등 지속적인 협력
□ 디지털 자료 관리 매뉴얼 제공
□ 네트워크 구축
□ 허브를 통한 통합 서비스 제공</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포괄적인 업무 협약</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3">서울기록원 디지털아카이브와 연계 가능한 목록 제공, 사진아카이브연구소가 소장한 조선총독부 시절의 자료 목록을 전달함</td></tr>
</table>

3.3.6. 금천구마을아카이브TF

가. 리드파일

<table>
<tr><th colspan="8">금천구마을아카이브TF 리드파일</th></tr>
<tr><td colspan="2">식별번호</td><td>24
-LE</td><td>버전 정보</td><td>v.2.0</td><td>최근수정일</td><td colspan="2">2018.8.10</td></tr>
<tr><td rowspan="15">리드 정보</td><td>리드명</td><td colspan="2">금천구마을아카이브TF</td><td>리드 유형</td><td colspan="3">□ 개인 □ 가문 ■ 단체</td></tr>
<tr><td>리드의
다른 이름</td><td colspan="2"></td><td>리드 영역</td><td colspan="3">□ 공공 □ 협치 ■ 민간</td></tr>
<tr><td>리드 연락처</td><td colspan="2"></td><td>리드 이메일</td><td colspan="3"></td></tr>
<tr><td>리드 주소</td><td colspan="2"></td><td>리드 웹주소</td><td colspan="3"></td></tr>
<tr><td>리드
소개 및 연혁</td><td colspan="6">□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주도로 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모여 "어떻게 마을기록을 해나갈지, 아카이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재작년(2016년)부터 지속해옴. 그와 함께 올 11월, 마을공동체기록관의 개관을 목표로 준비단계를 밟아가는 중임.
□ 2017년 5월에는 금천구청 로비에서 마을공동체 축제의 일환으로 '마을아카이브 전시회를 진행함. 현재는 9월 초중순의 리모델링을 앞두고 운영TF를 구상 중인 상황</td></tr>
<tr><td>리드 대표자명</td><td colspan="6">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td></tr>
<tr><td>리드 대표자
연락처</td><td colspan="6">안OO</td></tr>
<tr><td rowspan="3">리드 구성원
정보</td><td colspan="2">리드 구성원명</td><td>리드 구성원 역할</td><td>리드 구성원
연락처</td><td colspan="2">리드 구성원 이메일</td></tr>
<tr><td colspan="2">남OO</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10">리드 관계
정보</td><td colspan="2">리드 관계 단체/인물명</td><td>관계 범주/형식</td><td colspan="3">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금천IN/이OO</td><td>□ 이전 □ 상위 ■
참여 □지원 □ 기타</td><td colspan="3" rowspan="8">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마을공동체기록관, 아카이브를 논의함.</td></tr>
<tr><td colspan="2">금천문화재단/
유OO, 김OO, 하OO</td><td>□ 이전 □ 상위 ■
참여 □지원 □ 기타</td></tr>
<tr><td colspan="2">금천마을방송국/이OO</td><td>□ 이전 □ 상위 ■
참여 □지원 □ 기타</td></tr>
<tr><td colspan="2">시흥5동마을신문/장OO</td><td>□ 이전 □ 상위 ■
참여 □지원 □ 기타</td></tr>
<tr><td colspan="2">마을인교육/오OO</td><td>□ 이전 □ 상위 ■
참여 □지원 □ 기타</td></tr>
<tr><td colspan="2">산아래문화학교/임OO</td><td>□ 이전 □ 상위 ■
참여 □지원 □ 기타</td></tr>
<tr><td colspan="2">은행나무도서관</td><td>□ 이전 □ 상위 ■
참여 □지원 □ 기타</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4">리드
접촉정보</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인터뷰 일시</td><td>인터뷰 장소</td><td>인터뷰어명</td><td>인터뷰이명</td><td>최근 수정일</td></tr>
<tr><td>24-CA-1st</td><td>2018.6.19</td><td>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td><td>임태원, 박지현,
전미정, 이원영</td><td>안OO, 남OO,
이OO, 유OO,
김OO, 하OO,
이OO, 이OO,
장OO, 오OO,
임OO</td><td>2018.6.20</td></tr>
<tr><td>24-CA-2nd</td><td>2018.8.8.</td><td>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td><td>임태원, 박지현,
이원영</td><td>안OO, 남OO,
이OO, 유OO,
김OO, 하OO</td><td>2018.8.10.</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able>

<table>
<tr><td rowspan="10">보유 기록물 정보</td><td>아카이브명</td><td colspan="3">금천구마을아카이브TF</td></tr>
<tr><td rowspan="4">주요 컬렉션 소개</td><td>컬렉션명</td><td>구분</td><td>설명</td></tr>
<tr><td></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td></tr>
<tr><td></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td></tr>
<tr><td colspan="3">(+) 추가 가능</td></tr>
<tr><td>시정기록 연계 링크</td><td colspan="3"></td></tr>
<tr><td>보유기록물 구분</td><td colspan="3">□ 전자 □ 비전자</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유형</td><td>전자</td><td colspan="2">□ 문서 □ 사진 □ 영상 □ 음성 □ 기타 ( )</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 문서 □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 기타 ( )</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규모</td><td>전자</td><td colspan="2"></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td></tr>
<tr><td>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보존 관리 현황</td><td rowspan="2">보유기록물 상태</td><td>전자</td><td colspan="2"></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td></tr>
<tr><td>관리 현황</td><td colspan="3">금천구마을아카이브TF의 참여한 단체는 □ 마을신문 및 소식지 등의 간행물과 사진, 영상 및 마을방송국 음원 등의 기록을 생산함. 다양한 온라인의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마을방송 음원은 팟빵이나 팟캐스트에 있음</td></tr>
<tr><td rowspan="4">협력방안</td><td>리드 요구</td><td colspan="3">□ 자료와 기록 찾기, 물리적 보관 공간을 확보, 검색과 자료 관리 등의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음.
□ 민간에서 기록활동을 하던 사람이나 단체가 활동을 접으면 그 자료도 함께 사라짐.
□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서버 관리나 유지를 지속하는 일 역시 어려움. 함께 만드는 주체들이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자료가 사라지거나 용량이 압축되어 보관되고, 카테고리별 분류가 불가능해서 주고받은 자료를 재확인하거나 검색하는데 어려움.
□ 수많은 기록을 모으거나 보관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기록물 선택의 기준, 한계점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도 필요함
□ 저작권과 초상권 등에 대한 절차와 교육이 필요함.</td></tr>
<tr><td>예상 지원 방안</td><td colspan="3"></td></tr>
<tr><td>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td><td colspan="3">■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 □ 기타 ( )</td></tr>
<tr><td>수집 협의 내용</td><td colspan="3"></td></tr>
<tr><td>특이사항</td><td>아키비스트 주기</td><td colspan="3">□ 협력, 지원 관계에 대해 상호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협력,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음</td></tr>
</table>

나. 케이스파일

<table>
<tr><th colspan="7">금천구마을아카이브TF 케이스파일</th></tr>
<tr><td colspan="2">케이스파일 식별번호</td><td>24-CA</td><td>버전 정보</td><td>v.2.0</td><td>최근수정일</td><td>2018.8.10</td></tr>
<tr><th colspan="7">소장처 인터뷰 정보</th></tr>
<tr><td>회차</td><td colspan="4"></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43-CA-2st</td></tr>
<tr><td rowspan="4">1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6.19</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td></tr>
<tr><td>인터뷰이명</td><td>안OO,
남OO,
이OO,
장OO,
유OO,
김OO,
하OO,
임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02-809-8826</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td></tr>
<tr><td>인터뷰어명</td><td>임태원
박지현
전미정
이원영</td><td>녹취파일 링크</td><td>https://drive.google.com/open?id=1DQHj_iQi8SBAt5vl4jATetXvYNJHxgdO</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사업소개]
서울기록원의 기록화 사업을 어떤 걸 기록하느냐를 쉽게 설명드리면, 서울시민의 기억과 기록을 모아 역사를 총체적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 단체를 만나고 있어요. 금천구에는 관심이 많은 단체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성북이라든지 용산구 해방촌이라든지 마을기록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지역이 있다. 기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단계별 문제, 도움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록원에서 민간기록이 우선순위는 아니다. 공공영역의 행정기록을 우선적으로 기록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향을 넓게 잡아 시민기록, 시민기록활동을 중시하고 있다. 지역의 단체나, 오랫동안 활동한 단체와 지역주민이 기관(서울기록원)과 만나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각자 어떤 식의 기록활동을 해오셨는지, 혹은 앞으로 뭘 하고자 하는 데 뭐가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안 풀려서 답답한 부분을 가볍게 이야기하는 자리로 생각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안면을 트고 이후에 각 단체별로 따로 찾아뵙고 연락을 드려 그러한 부분을 깊이 있게 이야기해나갈 생각이다. 현재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서울문화재단'의 사업도 이관을 하는 것처럼, 참조하실 만한 사항도 생길 수 있고 각 조직 단위에 연결할 부분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기록원을 많이 이용하면 될 것 같다. 체크리스트는 기록을 해온 단체를 대상으로 뽑은 것이다. 작년에 생긴 곳은 쌓인 기록보다는 '어떻게 기록할까'에 대해 고민할 거고, 오래된 금천in의 경우는 고민의 깊이가 다를 것 같다.

[단체별 소개]
이OO : 모였던 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동네에서 기록에 대해서 우리의 마을기록을 어떻게 할지를 재작년에서부터 시작했다. 좌담회 형태로 진행했다. 민간단체로는 어렵고,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마을기록, 아카이브를 할 건지를 회의를 소집하며 센터장님과 함께 작년 내내 아카이브TF팀을 운영했었다. 여기서 은행나무도서관 한 팀이 더 있다.
남OO : 마을공동체기록관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를 하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취합하기에는 너무 많으니 어떤 공간의 한정적이기 때문에 온라인에 저장하는 매체 자료도, 웹하드를 누구의 명의로 해야하느냐, 누군가 센터에서 한다면 센터의 이름을 해서 웹하드 등 저장공간을 가지고 있을 때, 현재는 마을인교육에서 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이 위탁운영기관이 바뀌면 지속가능한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조직이 바뀌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뀔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다. 자료의 수집뿐 아니라 수집된 자료를 가공하든,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접근성을 편하게 재가공할 것인가, 혹은 전시회를 통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 작년에 구청로비에서 아카이브전시회를 했었다. 올 11월에 마을공동체기록관을 개관을 할 예정이라 센터 전체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전체가 아닌 한 부분에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른 사업비를 받아서 한 것이다. 자료가 보존가치가 있을까 하는 고민도 있다.</td></tr>
</table>

1차	주요 인터뷰 내용	이OO : 하나는 전근대사,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의 자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출처가 불명확하고, 고생해서 만든 자료를 찾아가는 과정이 후대에서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점은 누가 어떻게 기록하고 보존할 거냐. 두 가지 고민이 있어서 모였고, 몇 가지 제안이 있었다. 모으는 소유권은 누가, 활용하면 저작권은 누가 가져가지 간 것이었다. 그러면 자료를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민간의 흥망성쇠가 크잖아요. 구청의 기록관리사가 와서 설명도 해주었지만, 민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부분들이 고민됐다. 민간의 자료가 어떤 게 있고 이걸 어디로 모아야하는 거냐 어떻게 보존할 거냐에 대해 고민이 되는 거죠. 구청도 구청장 바뀌면 홈페이지가 바뀌어 찾기 힘든 것처럼 이걸 민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민이었어요. 구청장을 만나 이야기했던 건 구립도서관 하나에라도 마을자료를 모아놓으면 (한 서가 정도라도) 주민들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있었다. 작년 12월 이후로는 리모델링 중심으로 흐르고 있어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천마을신문의 경우는 저장방식은 종이신문과 pdf 인쇄본과 중앙도서관의 납본을 한다. 저희가 망해도 중앙도서관에 남아있겠죠. 남OO : 중앙도서관에는 남아있는데 금천구에 없죠. 이OO : 납본이 의무가 아니고, 구청에서도 어떻게 구청도서관에서 구독도 안 하나? 이런 이야기도 한다. 라디오금천 같은 경우는 mp3로 저장되고 있다. (팟빵 같은 서버하는 데가) '설마 망하겠어' 했는데, 두 번 망하더라고요. 아이블로그하고 포딕스하고. 찾으면 될 텐데. 체계적으로 저장이 안 된 게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만난 인터뷰와 음악 방송 가운데 사람만난 것이 기록성이 있다. 이런 걸 민간에서만 가지고 있는데, (민간의 단체가) 활동력이 떨어진 뒤에는 자료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남OO : 라디오뿐 아니라 마을공동체에서도 마을공동육아 자료집을 만들고 하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접을래" 하면 이 자료가 없어지는 거죠. 각자 흩어져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데, 단체가 문을 닫으면 (기록이) 없다. 집중적으로 보관하는 기관이 없다. 이OO : (금전마을방송국의 프로그램 주기) 지금은 유튜브(youtube)에 한 달에 한 번씩 '마을의 소소한 이야기'라고 해서 금천구의 10개 마을을 돌아가면서 영상을 올린다. 작년에는 인물을 주로 했다면 올해는 역사로 컨셉을 달리 해서 업로드한다. 구청홈페이지나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간을 해서 주기적으로 올리면 좋지 않겠나. 햇수로 4년, 작년에 정식으로 개국했다. 인원이 바뀌다보니 힘들었다. 초창기인원이 가면 되는데, 중간중간 떨어져나가니까 다시 새로운 교육을 받아서 해야하니까. 외장하드는 없고 밴드에 몇 년에 출품했던 자료를 올린다. 1년 3개 정도를 미디어센터 지원받아서 작품을 만든다. '금천의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라는 첫 편은 지도상으로는 금천구인데 안 보이는 땅을 취재했는데, 구청에서는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우리 마을에서는 그게 우리 땅이라 궁금한데. 금천구에서도 개입할 수 없고, 구민 입장에서는 금천구 땅이라 캠핑장 같이 공동체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했다고 생각했었다. 호산나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호산나가 철폐한다고 했을 때 정신이 없어서 '많은 자료를 이걸 다 언제 옮겨' 하다가 경고를 몇 번 날리던데 다 없어진 적이 있다. 밴드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밴드하고 유튜브만 믿고 있다. 전미정 : 원본상태에서 보관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이OO : 그렇다. 웹하드 관리방법을 체계적으로 하면 좋겠다. 남OO : 망하지 않는 온라인 저장공간을 주세요. 이OO : 물리적으로 찾아와서 보는 공간이 많지 않고, 안정적인 웹공간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기록/자료이 어디에 가면 다 있다'는 것을, 구청의 공공서버라든가. 그게 어디까지 담을 수 있는지가 고민이다. 영상파일까지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는가? 용량의 한계가 명확한데,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이 부분이 걸린다. 임태원 : 디지털은 할 수 있다. 양재 데이터센터에 서버증설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 (건물을 짓는 것보다 쉽다) 법의 보호를 받아 망하진 않는다. 이OO : 시장이 바뀌면 몰라요. 전미정 : 다들 그런 불신이 있다. 공공이 있더라도 믿을 수 없다는 게 깔려 있다. 전미정 : 성북에서도 새로운 공간을 찾아가는 적응시간이 필요하다. 잘 되고 있는 데에 한 코너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서 아카이브나 지역협동조합을 준비하는 단계다. 협의체 내에 도서관장, 도서관 사서분이 참여해 실제 진행할 때는 절차가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뭘 세우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활성화된 공간을 잘 쓰면 오가는 사람이 더 접근하기가 편하고. 오OO :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이 '탑골이야기' 책자를 만들었어요. 주민들하고 도서관 관계자가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거기서 전시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책만 할 것이 전시관으로 기능도 충분할 거라 생각이 든다.

1차	주요 인터뷰 내용	남OO : 민간에서 활동하는 기록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OO : 구청기록관리사가 와서 이야기와 이야기했을 때. '기록사를 늘리고, 학예사를 채용해 로드맵을 만들어야하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전미정 : 구 단위로 결정하려면 시와 구의 인력예산을 쓰는 일이라 엮여있겠죠? 남OO : 구에서 공공의 기록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또 민을 지원하는 기록관리사가 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요. 장OO : 마을신문 28호까지 발행했다.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이가 편집자로 시작해서 (현재) 고2가 된 아이가 계속 하고 있다. 저는 취재를 하고. 편집위원을 동네 사람들이 하고. 별로 크게 어려운 게 없다. 지면으로 모아놓은 게 있고, 인터넷 넷판을 만들어 올리기도 하고 밴드에도 올리고. 외장하드나 컴퓨터도 보관하고 있다. 활자신문의 지면이 부족하다보니 다 못 싣는 문제나, 글씨를 키워달라는 요구도 있다. 전미정 : 기록물 보관보다는 제작의 지원이 필요하신 건가요? 장OO : 그렇다. 지금도 웹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공유나 오픈의 (거부감은) 전혀 없다. 오OO: 센터를 마을도서관, 기록관 등으로 만들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기록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온라인에서도 기록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천구의 향토사, 마을의 이야기를 보려고 할 때 볼 데가 없고, 흩어져있다. 이야기가 회자되면서 가산도서관, 독산도서관을 시흥도서관으로 마을자료를 모은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다. 편히 볼 수 있는, '보편타당한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한다. 또 하나는 지역의 향토사를 볼 수 있는 전시공간, 시흥행궁전시관이라든지 향토사박물관일라든지, 이를 연계한 학예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문화유산 자원 위주로 자료를 보려고 하면 너무 없어서 필요하다. 공간에 대한 필요성에 절실하게 느껴진다. 내가 쉽게 가서 있어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주민센터에 막상 세워놓으면 안 볼 수도 있지만 자료가 한 곳에 모여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OO : 저 탑이 얼마 전에 해제가 됐다. 문화재가 아니라서. 향나무 500년 보호수로 정비해야지 해놓고, 실제로 탑까지 정리를 해버렸다. (탑에 대한 기록이 없다.) 저거를 문화재 신청을 했겠죠. 신청했다가 안 됐을 거라 했는데 그 자료를 못 찾았다. 아무도 모른다. 서울시에 알아봤을 때는 심의를 한대요. 심의회의록을 일일이 찾아봐야한다는 건 '그건 못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다. 그렇게 사라지는 기록물이 많다는 것. 지정되어 있는 사각지대의 기록물이 많다는 것. 기록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본 것이 오래 되지 않았고, '청년허브에 아카이브 교육'을 받았는데 너무 어렵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2-3번 가다가 너무 어려웠다. 저렇게는 못해. 사실 진짜 실전, 높은 기술이 아닌 실전에서 할 수 있는 팁, 출판물/영상에 관해서 팁을 만들어주셔서 좋을 것. 하다못해 '파일명은 이것만 하자'든가. 기록물 생성하는 것에 있어서 기록물 만드는 데 다들 힘을 쏟고 기록물 만들고 끝이 난다. 기록물을 만들기까지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까지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 요즘에 카톡과 밴드를 기록물을 저장하는 데 이미지의 사이즈가 200kb로 줄고, 며칠이 지나면 사라진다. 블로그도 며칠 지나면 다 압축된다. 오OO : 그런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힘들다. 이OO : 핸드폰으로 많이 찍으니까 빨리 삭제한다. "카톡에 있어", "페북에 있어"라고 하는데 그게 원본이 아니다. 나중에 인쇄용으로 쓸만한 사진이 없는 경우가 있다. 활동하는 분들이 그런 팁들이 전해주는 것이 기록물을 만드는 것의 역할이 있어야되지 않겠는가. 전미정 : 원본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보관 스토리지(저장공간)에 대한 필요가 올 것. 오OO : 전시장이나 문학관에 가면, 박경리 소설 쓰며 남긴 종이가 쌓여있다.제 책상 위에도 교정지가 정말로 많이 쌓여있다. 이걸 버릴 거냐 말 거냐. 자료 그대로 전시로 했는데, 이걸 치우지도 못한다. 기록자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과정에서 생겨난 부속자료를 어떻게 할거냐. 기록물이라는 게 범위나 개념의 한정도 둬야할 것이다. 저희가 작년에 마을 기록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했던 게 포스터를 모아서 전시를 했다. 밴드에 하나, 전단지 하나도 버릴 수 있는 건데 전시해놓고 나면 괜찮고. 모아놓을 자료는 한정적이고. 그걸 하는 공공기관이 있어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도서관이든 전시관이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OO : 민간이 합쳐서 기록물심의위원회를 만들든지, 공간이 한정적이라면 1년에 2번, 분기에 한 번이든 민간단체에서 모으는 과정도 필요하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의를 통해 <2017년 기록물>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기록물위원회도 필요하다. 마을공동체에도 의무교육이 있는데, 기록에 있어서도 최소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현재 우리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1차	주요 인터뷰 내용	임태원 : 서울을 기록화하는 시민의 기억을 모으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그에 대한 전략에 맞춰서 해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는데 올해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거다. 작년 사업은 수집기록화 주체가 서울기록원이고 시민들이 객체가 된다. 민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저희가 짠 틀로 수집하는 거라 맥락을 모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관련된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올해는 기록화주체를 시민과 활동가로 생각하고, 기록원을 철저히 지원하고 인프라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다. '활동하는 분들이 어떤 문제점과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도와드리는 것을 정리하고 있다. 협의체를 만들 생각 있다. 협의체는 크게 서울기록원, 각 구 단위의 기록연구사(1인 기록관, 표준기록관리시스템과 담당자 한 명 있는 수준)가 포함된다. 서울기록원 25개 자치구를 돌아다니며 각 지역의 자료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이뤄지는 게 맞다. 대신 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OO : 기록물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임태원 : 있다. 이OO : 주로 행정, 공공기록에 관한 관리 조례잖아요. 남OO : 그런데 대부분 어기고, 어겨도 법적 제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상황이잖아요. 이OO : 구 단위 행정기록 말고. 협의체보다는 구조를 뜯어고쳐서 민간기록을 넣어서 구의 정식 위원회 형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의무적으로 만드는 게 좀 더 공신력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남OO : 조례에 위원회를 명시하고 구 단위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오OO : 기초자치단체 조례가 연결이 되어야 한다. 시범으로 금천 구의회에 요청해서 만들죠. 임태원 : 마침 서울기록원에서 조례 제·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별도의 서울기록원과 구청과의 협의체인데, 이걸 통해서 구청과 협력해 해나갈 것이다.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적극 건의하겠다. 임OO : 지금 [닮다] 3호까지 나온다. 가을 중에 4호를 예상하고 있다. 예산을 아직 못 받았다. 상반기 하반기 책이 나오는데, 마을의 활동하는 포스터를 모아서 실었다. 금천구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었구나 생각했다. 이OO : 동네 만들어진 건 지원사업이 있어야 한다. 기록물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모사업이 많아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잡지를 하나의 단체와 회의와 사비를 들여 만들기는 어렵다. 같이 사이클이 만들어져야 하는 게 있다. 전미정 : 지원사업이 다양한 조직에서 내려오니, 비슷한 주제나 예전에 한 컨텐츠를 새로운 단체가 재상산하는 경우가 있다. 중구난방 얕은 접근만 하다 끝나는 느낌이 든다. 이미 이런 게 있으니 이런 걸 바탕으로 하면 좋다든지. 남OO :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없어서 그렇다. 이OO : 기록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데, 기록의 방법. 영상편집이나 녹음 (교육도 필요하다) 전미정 : 마을미디어센터에서 하지 않나? 이OO : 비슷한 영역인데 없다. 서울미디어지원센터가 구마다 있거나 권역별로 있지 않은 상태다. 남OO : 미디어센터가 지원하는 범위는 미디어활동단체 위주다. 기록물을 생산하는 건 마을활동을 하면서 생산되는 거다. 그러니까 대상의 폭이 넓은 데 한정적이다. 이OO : 기자재가 열악하다. 편집장비, 카메라가 열악하고, 개인공간에 있으면 아무에게나 오픈할 수가 없다. 편집실이 있다면 청소년도 참여해서 할 수 있을 거고. 기록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공간이나 기자재 대여에 대한 서포트가 필요하겠다. 유OO : 작년에 출범해서 공식적으로 3개의 출판물이 나왔다. 계속 (출판물이) 발간이 되고, 공연 포스터도 쌓인다. 재단의 실적이기도 하지만 금천구에서 유치한 실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쌓여가는 자료 속에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에 고민이 있다. 전미정 : 전담인력이 없어서 더 업무를 맡아야하시는거죠? 유OO : 네. 금천구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자료를 만들 수도 있다. 얘기를 더 들어봐야하는 부분도 있어서 공유가 필요하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전미정 : 공연관련 영상이나 사진 등이 유OO : 지금 그게 자리를 차지하고 다 말려 있다. 그런 것이 아쉽다. 전미정 : 데이터 공간이 필요하시겠어요. 유OO : 네, 필요합니다. 저희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것도 있는데, 찾아보면 찾기가 힘들다. 검색어가 딱 맞아야하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 섞이다보니까. 오OO :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어떻게 할거냐. 공연 이야기하니까 공연실황중계 다 올릴 수는 없을 거고 짧은 소개는 올릴 수 있겠지만. 기록물 관리에서 저작권 문제도, 개인이 저작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 특히 교과서 작업할 때 공공의 기록은 출처만 밝힌다든지. 공용서체(인쇄가 가능한 서체로만)를 사용한 것도 있다. 남OO : 영상과 팟캐스트 라디오를 제작할 때 음원이나 저작권에 대한 고민도 있다.

<table>
<tr><td rowspan="2">1차</td><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3">전미정 : 금천에서 다른 곳보다 활성화, 관심이 있는 편인가?
이OO : 애초에는 향토를 접근하며 1800년대 후반-1900년대 초반의 금천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기억을 정리하는 거죠. 하지만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것에 대한 음성이든 기록이 필요하겠다는 고민이고. 마을과 학교가 어떻게 작업을 함께 할 것인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하다보니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다.
남OO : 어르신 당사자의 욕구도 컸다. 작년 라디오사업을 해서 그분들의 재미있게 기억을 담아보자해서 라디오금천에서 작업을 했다.
전미정 : 금천이 정주해서 오래산 분이 많은가?
오OO : 3,4대 많은 분들이 많다.
남OO : 이주율이 적다. 학년전환기 때 이주를 하고 이후로 나가지 않으면 계속 있는 거다.
오OO : 마을활동을 하며 기록에 대해 관심이 커졌다.
전미정 : 현재의 기록을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마치 골동품처럼 자료를 모으는 곳도 있고. 수장고에 대한 요구가 특별히 없어서 인상적이었다.
남OO : 마을공동체기록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지역의 도서관 하나를 특화시켜서 한 서가에 그게 있다는 걸 대안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조례, 위원회 생각을 했던거고.

전미정 : 기록물의 가치판단이 어렵다.
남OO : 사실은 무가치한 게 없다. 신발 한 짝도 멋지게 전시하면 멋들어 보일 거다.

임OO : (마을기록을 생산한 사람에게) 원고료가 약소해서 고민이다.
남OO : 그럼에도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면 행복해하십니다. 부탁할 때 어렵고 미안하다.
남OO : 라디오 같은 서울시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지원받고, 마을교과서는 교육청&구청의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으로 진행했다. 은행나무도서관은 자비로 하신 것 같고. 지원 받은 것은 기관의 로고가 들어있다. 은행나무도서관은 10년 넘은 사설도서관으로 소식지도 발행한다. 마을센터에서 발행하는 자료들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는다.
이OO : "탑골이야기" 구청 문화체육과와 도서관이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보자 했던 것 같고, 공모사업은 아니었다.
유OO ; 서울문화재단에서는 기록이 될 만한 내용을 담은 결과물을 만들 때는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이OO : 내 기록이나 동네의 이야기를 도서관에서 보면 동네에 대한 애정으로 표현이 될 것이다. 마을교과서도 동네를 알라고 한 것.

이원영 : 기록물의 양은?
이OO : 금천인은 종이 신문은 179호까지 나왔고. (취재를 다녀온 사진은 엄청 날 것) 영상자료, 사진 자료도 다 TB 단위다. 정리가 안 된 자료들이다. 웹에는 많이 올리게 된다. 선별 안해 그대로인 자료도 있고 영상도 있고. 한 호당 평균적으로 700MB가 나온다. 큰 행사 영상은 GB 단위로 넘어가는 거다. 홈페이지로 티스토리 블로그를 자체가 GB가 넘는다.
임OO : 방과후 수업으로 사진기록수업을 했다. 하나의 사진첩이 만들어지고 전시회도 진행했다. 사진책을 학교별로 2-3권을 보관하고, 원본은 보관하지 않다. 사무실에 보관하고 2년 동안 20권 정도된다. 지금도 2개 학교를 하고 있다.

임태원: 금천 말고 다른 지역의 기록활동과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지?
남OO : 마을미디어지원센터 해마다 네트워킹파티, 축제도 하잖아요.</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향토자료를 찾기 어려움. 한곳에 자료가 모였으면 함
□ 영상파일을 포함해 무제한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한 온라인저장공간 (구청의 공공서버 등)
□ 기록물을 만들기까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매뉴얼
□ 다양한 지원사업과 기록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사이클
□ 기록물 생산을 위한 교육과 작업공간, 기자재(카메라, 편집장비 등) 대여 등의 서포트
□ 기록에 대한 의미, 중요성, 활용방안 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 마련</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디지털 아카이브 서버 제공 가능 확인</td></tr>
</table>

<table>
<tr><td></td><td>합의사항</td><td colspan="5">2차 면담 진행</td></tr>
<tr><td rowspan="4">2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8.8</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td></tr>
<tr><td>인터뷰이명</td><td>남OO
이OO
유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02-809-8826</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td></tr>
<tr><td>인터뷰어명</td><td>임태원
박지현
이원영</td><td>녹취파일
링크</td><td>https://drive.google.com/open?id=1tl0UMt4m79GHalOYYDRbQDgU0hhdQkSo</td><td>사진 링크</td><td>https://photos.app.goo.gl/Rr6vkpcrHx5XLLHR8</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예상지원방안 안내]
박지현:
1) 자료보관장소 : 서울기록원은 물리적인 저장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디지털장소로 연계하도록 구축을 하는 단계. '보존기관의 검색서비스'는 가능.
임태원: 디지털아카이브다. 웹하드와 같은 저장공간. 폴더를 정리없이 올렸다 내렸다하는 거라면, 디지털아카이브는 정해진 규격대로 입력하고, 행망 안에 있어서 자유롭게 등록하는 게 힘들고 절차가 필요한 게 있다.
남OO: 절차가 복잡하면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될 것
임태원: 웹하드를 새로 운영하는것도 고민하지만 용량의 문제, 데이터 서버를 증설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다.
남OO: 조직체 소수의 결정에 따라. 내 자료가 영원히 할만큼 가치가 있나?는 물음표. 그럼에도 저장공간이 필요하다는 건,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많은 데이터는 이용하기가 힘들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을 안에서 공유하고 활용하면 좋겠다. 홈페이지는 이제 만들었는데, 잘 활용이 되나 싶다. 솔직히 '밴드'가 활성화되어 있어, 1000명이 넘는 주민이 소통이 한다. 밴드를 통해서 자신들의 활동이나 행사를 홍보하는 역할, 지역의 문제나 현안을 문제제기를 한다. 지난 자료가 아카이빙이 안되고, 자료가 사이즈가 축소가 되어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접근성"도 중요하다. 더 많은 자료를 공유하려면 홈페이지의 서버 용량을 키워야 하는 예산 문제가 있다.

이OO: 자체서버 운영할 수 있는, 마을 단위로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
임태원: 디지털아카이브는 웹하드나 밴드처럼 일하면서 쓰는 용도가 아니라 자료를 보존하는 용도다.
남OO: 내 자료가 훌륭하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
임태원: 민간에서 판단해야한다. 기록원이 판단하지 않는다.

박지현:
2) 매뉴얼(가이드) > 매뉴얼/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기획
서울시의 민간기록관리매뉴얼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남OO: 두꺼우니까 내가 급한 부분만 본다. 아카이브가 주업무가 아니라 제대로 보지 않았다.

박지현:
3) 민간기록연구사/기록관리협의체 > 3개년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진행할 것
4) 기록작업공간/기자재대여 > 공간은 어려우나, 기자재 대여(카메라, 편집장비 등)는 가능
유OO: 어떻게 기자재를 대여받나?
남OO: 우리동네 공구보건소 동별로 설치가 가능한가? 은평 기록원으로 가야하나? 여유가 된다면 우리동네 아카이브 대여소들이 설치되면. 미디어센터와 협의해서 배치할 수도 있을 거다.
임태원: 기자재에 혼란이 있었다. 편집장비가 아니라 보존물품이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보존상자/보존제품의 제공/ 대형스캐너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캔을 대신한다든지.</td></tr>
</table>

2차	주요 인터뷰 내용	[기록물 활용에 관한 저작권/초상권 등의 문제] 남OO: 민간기록 수집 조례가 있나? 임태원: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수집 조항이 있다. 향토자료수집이라는 조항을, 기록원에서 민간 기록 수집에 대한 조항이 넣을 것. 이OO: 서울시조례인가? 지자체에도 이런 활동을 요청, 권고하고, 지자체도 필요하구나 각인이 필요하지 않나. 구 차원에서, 공공은 보존 연한을 정한다. 민간은 기록연한이 취사선택을 해서, 무엇을 기록에 남길 것인가를 본다면. 지역 단위에서 선정 위원회를 만들 것인가? 알음알음할 게 아니라, 민간기록물지정위원회 등이 만들어질 근거가 필요하다. 중요한 건 원본사진인데, 개인이 공공에게 과연 내놓을 것인가? 유OO: 자치구별로 보존을 고민할 것인지? 문화재단도 구별로 12~3개가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DB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고민이 된다. 서울문화재단에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데, 뿌린 공모를 어떻게 묶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 문화재단 내의 물리적인 공간이 없어서 포스터가 말려있다. 각 연도별로 공연 자료들이 모아져있는데, 언젠가는 모아져서 파기가 된다. 시작하는 재단이 준비를 잘 해서 잘 모아놓으면 좋겠다. 각 담당자들이 DB이 하지만, 한계가 생길 것이다. 이제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 서울문화재단에서 공모하는 것도 현재 문화정책에 따라 만들어진다. 자치구 문화자원 사업, 문화재단 공모사업 등을 통해 이 시기에는 이러한 문화정책이 있었고, '이 시대의 것이 만들어지나'를 볼 수 있는데. 사업이 끝나면 그걸로 끝이 난다. 디지털아카이브에 올라가는 것에 판단기준, 저작권에 대해서, 공익성이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타켓팅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어서, 교육이 먼저 있으면. 절차가 많이 되는 것이 되는 것에 어디든 담당자가 생겨야할 것이라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유롭게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의 문제가 있다. 공연백서는 공개를 위해서 만드는 데, 공식적으로 개재를 할 때 저작권이나 초상권에서 어려움이 있다. 남OO: 공동체센터도 공모사업, 네트워크사업, 축제 등 다양하게 한다. 동영상이든 사진을 모으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으고 있지 않다. 서울 전체적으로는 사업계획서 정도가 공유되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센터 직원이 같이 공유하는 톡방에서 홍보전단 정도 자랑질 하는 수준에서 공유되는 수준이라, 이전 비슷했던 사업을 계획이든 결과보고서를 쓸 때 활용도 가능할 텐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박지현: 사적기록이 공적기록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 민간 단체들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많았다. 법적자문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 결과를 공유하겠다. 임태원; 애초의 사업계약에 2차 저작에 대해서 조항이 있다. 기록원에서 수집할 때의 자료 활용 동의서 서식을 공유해드리겠다. [아카이빙 프로젝트 활동과 자료를 찾는 어려움] 김OO :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하는데, 해방촌마을에 자료집이 있다고 해서 받고 싶어서 메일을 보냈는데. 회신이 없다. 참고할 만한 사업들이 궁금한데 어디에서 무엇을 진행하는지도 모른다. 남OO: 영역을 넘어서 괜찮은 사업이라면 활용하면 좋겠다는 자료들이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연결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다. 임태원: 각 활동단체를 만나면, 대표/활동 내용을 정리를 해나갈거다. 온라인 공개되어 서로 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김OO: 활용할 자료, 유용한 자료가 많았으면 좋겠다. 예술경영위원회도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남OO: 기록원에서 디지털아카이브화 하려고 하는 기록은 무엇인가? 임태원: 마을공동체(지역공동체) 기록이다. 시민 스스로한 기록활동. 삶의 터전과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것을 남기고자 한다. 남OO: 네이버처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올리는 것이 가능한지, 임태원: 서울기록화하려면 큰 서울 단위로는 접근이 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는게 우선 필요하다. 아쉬운 건 편하게 이용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방법으로 찾아갈 것이다. 남OO: 지역도서관에 한 서가를 마을에 내놔라, 시흥도서관에서는 방통대 교재 서가가 따로 있다. 모든 도서관에 비치하라는 게 구 하나를 내줘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해보고 이렇게 하니 마을아카이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이OO: 개인이 갖고 있거나 구청 어딘가에 처박힌 자료들을, 도서관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행정은 시보, 구보, 의회보 등을 만들며 자료화하는데, 민간에서 어디까지 자료로 볼 것인가? 어디에 있는가 등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금천에서 만들어진 '책자'를 취합하면, 금천에서 만드는 책자들이 모아서 만드는 것은 어떨까? 임태원: 마을도서관은 마을아카이브보다 생기기 쉬울 것 같다. 도서관과의 협의는, 기타 문화기관과 어떻게 협력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다. 서울을 기록화한다는 것이 기록만, 아카이브만 가지고 가능한 건 아니다. 여러 문화 연구기관에서 서울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러 기관과의 협력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아카이브를. 향후 2년, 3년 가게 되면서 운영체계를 확장해나갈 것이다. 박지현: 예상지원방안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것 같아 죄송한 마음. 앞으로 서울기록원과 협력하는 단체로서 단계적으로 의논해나갈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자 함. 당장은 예상지원방안이 별론데 생각할 수 있어도, 추후에는 만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정해나갈 수 있다. 남OO: 협력네트워크 구성의 단위는? 분야가 정해져있나? 박지현: 지금 고려대상은 자생적으로 기록화활동을 하는 단체다. 크게 마을공동체, 마을미디어, 독립출판사 등을 고려하고 리스트를 계속 만들어가고 많다. 기준에 대해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다.

<table>
<tr><td rowspan="3">2차</td><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3">남OO: 어떤 네트워크가 소통이 될지, 많으면 어려울 수 있을 때. '중질'을 모으되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다. 서울기록원 활용설명서를 만들면 좋겠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어로 초등학교 고학년도 알 수 있는 수준으로, 멋진 단어를 쓰고자 한다면 순화된 말을 괄호로 달아주면 좋겠다.
임태원: 등록할 가치가 있는지를 선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 긴급하게 보존을 위한문서함 등을 제공할 것이다. 지금까지 모여진 자료는 '활용'할 때 주로 문제가 되는데, 보존관리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OO: 기록하는 것과 보존하는 것이 기록활용하는 것과 다르다. 기록은 어떻게 활용은 어떻게 할건지를 같이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서울시의 지자체의 차원에서 할 건지를.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분명이 있고, 생산말고도 '기록물을 공유'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한다. 구 행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할 것이냐.
임태원: 협약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 서울기록원이 시민기록, 시민사회의 기록이 생산되고 아카이브가 되는 근거와 수요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예산을 달라고. 자치구 단위에서 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자 한다. 방향을 유도하고,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각하고 있다.
남OO: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든 뒤에, 자극 없이 구에서 움직일까? 구에서 만들 때 참고가 될 텐데, 그러한 자극이나 촉매제가 없으면 구 의원이 움직일까?
임태원: 협력의 층위가 다양하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미디어지원센터, 문화재단가 주로 자체 네트워크를 가지고, 많은 지역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기관과 '진하게'. 협력모델을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 당장 물리적인 보관공간을 지원하기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수요로서) 제2서고를 만들 수도,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많이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금천마을공동체기록관]
남OO: 8월말까지 공간을 사용하고, 9월 초중순에 리모델링할 예정. 센터는 독산2동 옛날청사로 잠시 이주. 자료전시공간으로 회의실을 사용할 예정. 자료보관장소를 별도로 만들어야하는데, 대대적으로 할 수 없다. 2층 센터사무실, 마을공동체 공유사무실로 꾸미고, 회의실은 '금천1번가' 주민들이 마을 의제를 상시발굴소(공론장)을 만들 예정(행정안전부).
/
남OO: 앞으로 만들어질 기록관에서 기록물 대여/기록관리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
임태원: 도서 등이 여러권이 있다면 대출이 되나, 1-2권인 경우는 대출이 어려울 것이다.
남OO: 기록관 운영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 TF팀이 구상하는 단계로, 전문가가 아니지만, 활동가들인지라 비전문가로서 막연한 부분이 있다.
임태원: 주요안건을 보내주시면, 가능한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겠다.</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디지털아카이브로 공유할 자료의 선별기준
□ 기록물 활용하며 생기는 저작권, 초상권 문제 해결
□ 공공의 기록, 민간의 기록이 한 번에 보일 수 있는 공간/백서 등이나 이를 모을 수 있는 조례</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매뉴얼 및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기획 (향후 년도)
□ 저작권/초상권 관련 서류양식 공유
□ 조례 개정 등 장기적인 방법을 찾아가고 있음</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3">마을공동체기록관 개관 및 운영과 연계하여 · 협력·지원체계에 상호 긍정적이며 현재 협력·지원 방안 구체화 및 3차 면담을 앞두고 있음</td></tr>
</table>

3.3.7. 성북신나&성북문화재단

가. 리드파일

<table>
<tr><th colspan="8">성북신나&성북문화재단 리드파일</th></tr>
<tr><td colspan="2">식별번호</td><td>41
-LE</td><td>버전 정보</td><td>v.1.1</td><td>최근수정일</td><td colspan="2">2018.7.26</td></tr>
<tr><td rowspan="15">리드
정보</td><td>리드명</td><td colspan="2">성북문화재단</td><td>리드 유형</td><td colspan="2">□ 개인 □ 가문 ■ 단체</td></tr>
<tr><td>리드의
다른 이름</td><td colspan="2"></td><td>리드 영역</td><td colspan="2">■ 공공 □ 협치 □ 민간</td></tr>
<tr><td>리드 연락처</td><td colspan="2">02-2038-4901</td><td>리드 이메일</td><td colspan="2">master@sbculture.or.kr</td></tr>
<tr><td>리드 주소</td><td colspan="2">서울시 성북구
아리랑로12길 4 (돈암동)</td><td>리드 웹주소</td><td colspan="2">https://www.sbculture.or.kr/</td></tr>
<tr><td>리드
소개 및 연혁</td><td colspan="6">□ 성북문화재단은 성북구민을 위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내의 구민회관,
여성회관, 씨네센터, 도서관 등 24개의 문화시설 관리와 생활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사업의 결과물을 성북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성북문화재단 발행한 문서, 영상, 음성, 포스터, 웹툰, 보도자료,
성북역사문화자원 등의 자료를 서비스함.
□ 성북구민을 위한 문화정책 수립, 문화시설 관리,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주민과 관련된 자료가 쌓임
□ ‘성북사람책도서관’ 팟캐스트와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함
□ '16 협동조합 ‘성북신나’와 함께 정릉 스카이아파트 철거 기록수집 및 전시 추진.
□ ‘성북사람책도서관’은 성북구청, 성북구립도서관,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협업</td></tr>
<tr><td>리드 대표자명</td><td colspan="6"></td></tr>
<tr><td>리드 대표자
연락처</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5">리드 구성원
정보</td><td>리드 구성원명</td><td>리드 구성원 역할</td><td colspan="2">리드 구성원
연락처</td><td colspan="2">리드 구성원 이메일</td></tr>
<tr><td>박OO</td><td>지역문화협력팀</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5">리드 관계
정보</td><td>리드 관계 단체/인물명</td><td>관계 범주/형식</td><td colspan="4">관계 내용</td></tr>
<tr><td>성북신나/박OO</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기타</td><td colspan="4">정릉 스카이아파트 전시 기획</td></tr>
<tr><td></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기타</td><td colspan="4"></td></tr>
<tr><td></td><td></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4">리드
접촉정보</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인터뷰
일시</td><td>인터뷰
장소</td><td>인터뷰어명</td><td>인터뷰이명</td><td colspan="2">최근 수정일</td></tr>
<tr><td>41-CA-1st</td><td>2018.7.26.</td><td>성북문화재단
공유도서관</td><td>임태원, 이원영</td><td>박OO</td><td colspan="2">2018.7.26.</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able>

<table>
<tr><td rowspan="9">보유
기록물
정보</td><td>아카이브명</td><td colspan="3">정릉스카이아파트 기록물</td></tr>
<tr><td rowspan="3">주요 컬렉션
소개</td><td>컬렉션명</td><td>구분</td><td>설명</td></tr>
<tr><td>정릉스카이아파트
기록물</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정릉 스카이아파트 기록물은
서울문화재단
<2016 정릉예술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생산/수집한 자료. 포스터, 영상, 전시 등의 결과물이 있음.</td></tr>
<tr><td></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td></tr>
<tr><td colspan="3">(+) 추가 가능</td></tr>
<tr><td>시정기록
연계 링크</td><td colspan="3"></td></tr>
<tr><td>보유기록물
구분</td><td colspan="3">■ 전자 ■ 비전자</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유형</td><td>전자</td><td colspan="2">■ 문서 ■ 사진 ■ 영상 □ 음성 □ 기타 ( )</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 문서 □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 기타 ( )</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규모</td><td>전자</td><td colspan="2">정리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파악되지 않음.</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4 BOX</td></tr>
<tr><td>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보존
관리
현황</td><td rowspan="2">보유기록물
상태</td><td>전자</td><td colspan="2">PC, 웹하드, 클라우드 서비스</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성북문화재단 공유도서관 보관되나 파악이 어려움</td></tr>
<tr><td>관리 현황</td><td colspan="3">□ 물리적·전자적 보관 공간 및 체계적 보존·관리체계의 부재로 계속 유실되고 있는 상황</td></tr>
<tr><td rowspan="4">협력방안</td><td>리드 요구</td><td colspan="3">□ 성북신나, 성북문화재단이 함께 한 프로젝트로, 스카이아파트 기록물 이관 관련 협약은 성북신나와 함께 하였으면 함.</td></tr>
<tr><td>예상 지원
방안</td><td colspan="3">정릉 스카이아파트 기록물 임시보관</td></tr>
<tr><td>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td><td colspan="3">□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 □ 기타 ( )</td></tr>
<tr><td>수집 협의
내용</td><td colspan="3"></td></tr>
<tr><td>특이사항</td><td>아키비스트
주기</td><td colspan="3"></td></tr>
</table>

나. 케이스파일

<table>
<tr><th colspan="7">성북신나&성북문화재단 케이스파일(접촉파일)</th></tr>
<tr><td colspan="2">케이스파일 식별번호</td><td>41-CA</td><td>버전 정보</td><td>v.1.0</td><td>최근수정일</td><td>2018.07.26</td></tr>
<tr><th colspan="7">소장처 인터뷰 정보</th></tr>
<tr><td colspan="2">회차</td><td colspan="3"></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41-CA-1st</td></tr>
<tr><td rowspan="5">1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07.26 15:00-16:00</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성북문화재단</td></tr>
<tr><td>인터뷰이명</td><td>박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td></tr>
<tr><td>인터뷰어명</td><td>임태원
이원영</td><td>녹취파일 링크</td><td>https://drive.google.com/open?id=13Owl6wlrwpWZwp8hjzatHCNUBRoo-LeG</td><td>사진 링크</td><td>https://photos.app.goo.gl/Hou8kofixKP5u36P7</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정릉 스카이아파트 기록물 맥락]
박OO: 서울문화재단 https://www.jungle.co.kr/magazine/24770
"2016 정릉예술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성북문화재단과 성북신나가 주관해 진행함. 도면 수집, 글쓰기, 사진찍기 등 스카이아파트를 배경으로 12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서 자기 프로젝트를 함. <율리안나>, 철거과정을 기록한 다큐 등 2개의 영상도 함께 촬영함. 프로젝트는 구글드라이브를 통해 공유함. 디지털파일은 구글드라이브와 삐융과 로샨의 컴퓨터(외장하드)에 각각 원본 보관 중.

[협약 관련]
임태원: (협약서 내용을 설명함.) 스카이아파트 기록물 원본과 목록을 이관받으나, 현재 목록이 없는 상태로 우선 이관 후 기록원에서 목록을 작성할 예정. 그 이후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협약시 공유할 것.
이원영: 법률팀을 거치는 등 성북문화재단의 절차가 따로 있나?
박OO: 성북문화재단이 물품 (이관과 관련해) 협약을 맺는 것은 처음. 협약과 관련된 문서와 사례를 남기는 것으로 중요하다고 생각. 법률팀도 처음인 일이라 우선 '이러한 행정절차로 이렇게 할 수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것. 협약 시에 성북문화재단의 이름으로만 가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음. 성북신나와 성북문화재단이 함께 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함께 이름이 들어가야할 것. 물론 문화재단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오래가는 것도 고려하지만, 앞으로 스카이아파트 관련 기록물을 이후에 쓸 가능성은 성북신나에 더 많다. 올해도 정릉 교수단지를 배경으로 기록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
임태원: 3자간 업무협약으로 진행을 해도 된다. 관련한 사항을 성북신나, 성북문화재단 담당자에게 함께 보내겠음.
박OO: 미리 로샨에게 언지를 해두겠음.

이원영: 디지털파일도 원본에 포함되어 함께 이관하면 좋음.
박OO: 사라질 것이 우려되어 그것도 좋다. 디지털 파일 용량은 대략 10-11GB 정도 됨. 디지털파일도 이관해서 기록원에서 보관하면 좋으나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정리해서 드려야하나?
임태원: 관련 기록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정리를 해서 주면 좋다.
박OO: 정리를 하면서 나도 누가 찍은 사진인지 헷갈리는 것들도 생긴다. 또 디지털 파일 정리방식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임태원: 정리할 때 한 번 찾아오겠음. 섣불리 관리방식을 제안할 수 없으니 기존의 구글드라이브 형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우선 읽기 전용으로 공유권한을 열어주면 살피겠음.</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colspan="2">□ 성북신나, 성북문화재단이 함께 한 프로젝트로, 기록물 이관 관련 협약은 성북신나와 함께 하였으면 함.</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colspan="2">□ 3자간 협약 진행(성북문화재단, 성북신나-서울기록원)</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5">□ 3자간 협약으로, 성북신나, 성북문화재단 담당자가 함께 협약함. 관련 일정 조율 필요.</td></tr>
</table>

3.3.8. 창신숭인도시재생협동조합

가. 리드파일

<table>
<tr><th colspan="7">창신숭인도시재생협동조합 리드파일</th></tr>
<tr><td colspan="2">식별번호</td><td>08
-LE</td><td>버전 정보</td><td>v.1.1</td><td>최근수정일</td><td>2018.8.13.</td></tr>
<tr><td rowspan="13">리드
정보</td><td>리드명</td><td colspan="2">창신숭인도시재생
협동조합</td><td>리드 유형</td><td colspan="2">□ 개인 □ 가문 ■ 단체</td></tr>
<tr><td>리드의
다른 이름</td><td colspan="2"></td><td>리드 영역</td><td colspan="2">□ 공공 □ 협치 ■ 민간</td></tr>
<tr><td>리드 연락처</td><td colspan="2"></td><td>리드 이메일</td><td colspan="2"></td></tr>
<tr><td>리드 주소</td><td colspan="2"></td><td>리드 웹주소</td><td colspan="2"></td></tr>
<tr><td>리드
소개 및 연혁</td><td colspan="5">창신숭인도시재생협동조합은, 서울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으로 창신숭인도시재생지원센터(2014년 7월-2017년 12월)로 공공과 주민 간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였고, 2018년 도시재생을 '도시 관리'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역할을 만들고자 협동조합을 설립함. 기록관이나 백서를 통해 스토리텔링하여 기록의 맥락을 정리하고자 함</td></tr>
<tr><td>리드 대표자명</td><td colspan="5"></td></tr>
<tr><td>리드 대표자
연락처</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4">리드 구성원
정보</td><td colspan="2">리드 구성원명</td><td>리드 구성원 역할</td><td>리드 구성원
연락처</td><td>리드 구성원 이메일</td></tr>
<tr><td colspan="2">손OO</td><td>기획운영실장</td><td></td><td></td></tr>
<tr><td colspan="2">김OO</td><td>팀장</td><td></td><td></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4">리드 관계
정보</td><td colspan="2">리드 관계 단체/인물명</td><td>관계 범주/형식</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창신숭인도시재생
지원센터</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 기타</td><td colspan="2">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7월-2017년 12월 창신숭인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운영됨.</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4">리드
접촉정보</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인터뷰 일시</td><td>인터뷰 장소</td><td>인터뷰어명</td><td>인터뷰이명</td><td>최근 수정일</td></tr>
<tr><td>08-CA-1st</td><td>2018.7.24.</td><td>창신숭인
도시재생
협동조합</td><td>임태원, 박지현,
박수연</td><td>손OO, 김OO</td><td>2018.7.24.</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9">보유
기록물
정보</td><td>아카이브명</td><td colspan="5">창신숭인도시재생협동조합</td></tr>
<tr><td rowspan="4">주요 컬렉션
소개</td><td colspan="2">컬렉션명</td><td>구분</td><td colspan="2">설명</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r><td>시정기록
연계 링크</td><td colspan="5"></td></tr>
<tr><td>보유기록물
구분</td><td colspan="5">■ 전자 ■ 비전자</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유형</td><td>전자</td><td colspan="4">■ 문서 ■ 사진 □ 영상 □ 음성 □ 기타 (　　)</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4">□ 문서 □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 기타 (　　)</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규모</td><td>전자</td><td colspan="4"></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4"></td></tr>
<tr><td>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td><td colspan="5"></td></tr>
</table>

<table>
<tr><td rowspan="3">보존
관리
현황</td><td rowspan="2">보유기록물
상태</td><td>전자</td><td>센터 시절의 활동기록과 협동조합의 사업을 함께 관리하고 있음. 업무용으로 구글드라이브, 드랍박스, 구글포토를 이용함</td></tr>
<tr><td>비전자</td><td></td></tr>
<tr><td>관리 현황</td><td colspan="2">센터 시절의 활동기록과 협동조합의 사업을 함께 관리하고 있음 기록을 보존하고
업로드하는 일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담당자의 욕구가 크지 않고 예산이 없으면
기록을 제대로 정리, 보존되는 것이 어려움. 협동조합의 기록은 상근 직원이 2명으로 기록을 정리할 여력이 없음.</td></tr>
<tr><td rowspan="4">협력방안</td><td>리드 요구</td><td colspan="2">□ 1TB 정도의 웹하드와 같은 온라인 저장공간 제공 여부
□ 기록을 위한 동기부여 (기록을 보관 정리하는 업무는 달갑지 않음. 다량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분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마지막에 폴더에 넣었고, 사진의 경우에도 초상권의 문제로 대시민 서비스로 공개할 때는 문제가 생기고, 주민과 오갔던 기록들이 공개되어 불편한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서 '맥락'을 남겨놓는 것은 좋지만, 개별 자료들까지 남기기에는 번거롭고, 정리하기도 어렵고, 잘못 사용될 때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필요에 공감되지 않음. 기록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메리트가 무엇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음)
□ 디지털아카이브(SDA)와의 연계를 위한 동기부여 (우선 디지털아카이브가 기록을 관리한다는 것은 기록을 가공해 기념관처럼 전시를 한다는 것인지, 하드를 제공해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듦. 현재의 기록은 협동조합의 기록을 홍보의 목적으로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현재는 더 필요한 상황. 장기적으로 공공기록물을 남겨야한다는 욕구는 어떻게 생길지, 플랫폼에 맞게 재가공하는 여력이 없는 상황임)
□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운영 (현재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할 때 서울기록원과 함께 지역공동체에서 생산한 기록을 정리하는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시범사업)</td></tr>
<tr><td>예상 지원
방안</td><td colspan="2"></td></tr>
<tr><td>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td><td colspan="2">■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 □ 기타 ( )</td></tr>
<tr><td>수집 협의
내용</td><td colspan="2"></td></tr>
<tr><td>특이사항</td><td>아키비스트
주기</td><td colspan="2">1차 면담결과 협력지점을 찾지 못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 중</td></tr>
</table>

나. 케이스파일

<table>
<tr><th colspan="7">창신숭인도시재생협동조합 케이스파일(접촉파일)</th></tr>
<tr><td colspan="2">케이스파일 식별번호</td><td>08-CA</td><td>버전 정보</td><td>v.1.0</td><td>최근수정일</td><td>2018.07.24.</td></tr>
<tr><th colspan="7">소장처 인터뷰 정보</th></tr>
<tr><td>회차</td><td colspan="4"></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08-CA-1st</td></tr>
<tr><td rowspan="4">1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07-24</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창신숭인도시재생협동조합 사무실</td></tr>
<tr><td>인터뷰이명</td><td>손OO,
김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td></tr>
<tr><td>인터뷰어명</td><td>임태원,
박지현,
박수현</td><td>녹취파일 링크</td><td></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1. 협동조합 소개 및 현황
김OO : 이해한 내용으로는 민간에서 기록을 관리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면 서울기록원이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데 맞는지? 현재 기록을 저장하는 방식은 컴퓨터 하드, 외장하드, 구글드라이브, 드랍박스, 구글포토에 저장 및 관리하고 있음. 업무에 빠르게 필요한 것은 구글드라이브, 드랍박스 주로 이용, 사진은 구글포토와 드라이브 함께 이용. 현재는 조합, 협동조합의 전신인 창신숭인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기록은 하드에 보관중(법적으로는 서울시의 기록일 것). 전신인 지원센터는 서울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4년간 진행)으로 설립되어 주민과 행정의 중간자역할을 수행했음 (2014년 7월 29일에 개소하여 2017년 12월 운영 종료함) 그중에 조합에서 활동한 기록, 해설(?)활동 기록들을 관리하고 있음. 2018년 올해부터는 협동 조합만의 기록이 생산 되고 있는 상황.
박지현 : 현재 조합의 기록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손OO :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 보관. 그러나 그것은 (공공적인 의미을 작업을 하지만)기업자료에 해당됨
임태원 : 센터에서 조합으로 이어지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무엇인가요?
손OO : 도시재생 사업은 너무 짧고 제한되어있음. '도시재생'은 일종의 '도시 관리'로 보고 지속적으로 이어가야함. 그런 차원에서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만들게 된 것. 시장이 생기기 전에 만든 것. ex) 집수리 사업, 공공시설 관리, 주민들이 주차장관리도 하면서 주민들이 수익도 되고, 임대주택 등도 지역주민에게 맡기면 , 기반시설 관리 같은 것을 통으로 맡겨주시면,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2. 서울기록원 및 사업 소개에 대한 질의응답
김OO : 실무자로서 먼저 궁금한 것은 기록을 관리하신다는 것이 저희 기록을 가공해서 기념관처럼 전시한다는 것인지, 웹 하드를 주신다는 것인지, 물리적인 하드를 제공해주신 다는 것인지, 어떤 방식인건지?
박지현 : 현재 제공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구축중인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내에 온라인 저장 공간을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김OO : 그럼 자유롭게 입출력이 가능한 형태인가요?
임태원 : 웹에서 보여지는 부분을 일정부분 편집 할 수는 있지만, 자유롭게 입출력 가능한 형태는 아님.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1차 구축을 했고, 현재 2차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음</td></tr>
</table>

1차	주요 인터뷰 내용	현재 이 사업은 디지털 아카이브와는 별도의 사업인 기록화 사업이고, 기록화 사업에서 인수한 기록물을 디지털 아카이브에 등록하는 형태. SDA는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보존/관리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도 하고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외부 서비스 포탈의 개념(분류/기술, 기록물 가공하여 공개, 검색/탐색 가능) 김OO : 그럼 웹 하드 같은 것은 아니군요 그럼 우리가 행사가 있어서 사진을 수백장 찍는다고 하면, 그 사진을 다 올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사가 있었고 그 대표적인 사진 몇장을 올리고 하듯이 좀 보기 좋은 형태로 제공하는 건가. 일반 시민이 창신숭인이 궁금하면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인가. 그러면 저희가 아카이빙을 하고 싶다면, 큰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겠네요 (임: 그렇다, 아카이브를 하고 싶으시면 저희를 유투브같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됨, 기록물 등록해달라고 하시면 기록물에 대한 설명이나 맥락등을 창신숭인에 내용적인 검토를 받고 올리는 형태가 될 것, 그러면 창신숭인과 관련된 컬렉션을 사람들이 찾아 볼 수 있게 될 것, 장기적으로는 이런 기록물이 쌓이면 온라인 전시 컨텐츠로도 개발 할 수 있을 것) 3. 본 사업 및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입장 손OO : 협동조합이 민간이다보니, 기록을 보존하고 올리는 일들이 별도의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일들이고, 저희 욕구가 있지 않은 이상 딱히 예산을 주실 것 같지는 않고. 기록을 제대로 정리하고 보존하는게 쉽지 않음.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기존의 센터의 기록은 서울시에서 다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드리겠지만 그 이후에 생산되는 (조합의)기록은 기업자료이기 때문에, 무한히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박지현 : 현재 가지고 계신 어떤 기록물을 가져가려는 것은 아니고, 기록관리 활동을 하시면서 기록원이 인프라는 지원해드리고, 활동하실 때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자 함. 기록원을 통해서 기록관리/서비스/보존을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 임태원 : 서울기록원은 크게 서울시의 공공 행정문서를 관리하는 아카이브와, 지방아카이브로서 서울의 역사와 서울시민의 삶을 모으고 담는 역할을 맡고 있음 후자의 역할로서 작년에 서울기록원이 주체가 되어 수집사업을 시행했으나 그 맥락이나 내용에 대한 한계를 느낌. 또, 도처에서 다양한 기록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유의미한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음을 발견. 올해의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기록원이 주체가 되기보다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런 활동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면 되겠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됨. 그래서 현재 이런저런 분들을 다 만나 뵙고 다니고 있음. 각자 어떤 여건이신지,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시는지 등을 조사하는 차원이 더 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필요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되고, 기록원에서 이런 것들을 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정도.

1차	주요 인터뷰 내용	손OO : 저희는 상근 직원 기본이 2명이니까, 기록까지는 사실은 여력이 없다는 게 맞을 것 같고. 작년까지는 센터였으면 공공기록이라 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주민들과 하는 기록들은 공공성격의 일을 하는 거긴 하지만, 상호관계에서 얻어지는 정보라면 그쪽(주민들)의 의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올려도 되는 건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동기부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기록 욕구가 있고, 나의 개인의 삶도 남기고 싶다하면 올리는 거겠지만. 사실 저희는 차라리 블로그에 홍보글을 올렸으면 올렸지, 뭔가 공공기록물에 뭔가를 남겨야 한다는 욕구가 과연 생길까. 저희가 공공적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공공에서 기록해 두면 좋을 일이지만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는 것도, 그것도 플랫폼에 맞게 가공해서 올린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임태원 : 기록관리 하시는 분들마다 다양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틀을 짜서 여기에 맞춰달라는 것이 아니라, 각 주체들의 여건이나 요구사항에 맞춤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액션부분이 부담스러우신 것이라면, 그 부분을 우리가 담당할 수도 있다 김OO : 그게 가능할까요? 임태원 : 예를 들면 그런거죠. 협약을 맺어서 특정 시점을 정해두고 1년에 1~2번 이렇게 정해서. 그럴 때 저희는 계속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찾아오셔서 이거,이거,이거 등록했으면 좋겠다고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져가서 분류를 하고 검토/피드백을 받아서 올린다든지 그렇게 진행 하게 될 것 손OO :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민감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김OO : 그러면 계정에 따라 접근권한도 달라지는 걸까요? 우리 계정으로 들어가면 보이는데,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면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임태원 : 그래서 저희는 기증보다는 위탁 관리 형태로 접근하고 있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기념관이나 아카이브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면 다시 다 드리는 거죠 김OO : 주실 때는 무상인가요? 임태원 : 그렇죠. 저희가 수입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받게 되는 기록물에 대해 임의로 관리/처리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지현 : 저희가 지원방안들을 정리해보니 크게 5가지 지원방법으로 정리됨. 물리적/온라인 저장공간/법적자문/교육/보존처리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드릴 수 있고, 그 외에 기타 요구사항은 또 저희가 조사해서 맞게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 김OO : 사실 저희가 원하는 온라인 공간은 1TB 정도의 웹 하드를 제공해주시는 방법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은 가능하신가요? 임태원 : 웹하드는 웹하드인데, 넣었다 빼는 것이 약간 번거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빼는 것은 그냥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 넣는 것이 약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방식 인 것.

<table>
<tr><td rowspan="3">1차</td><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3">손OO : 어쨌든 일단 기록 욕구를 가진 시민이나 단체들을 찾는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것인가. 사실은 사서 일거리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 것이니까. 다들 방학때 일기 다 밀려서 마지막에 쓰잖아요. 저는 어쨌든 센터를 하면서 기록을 보관하고 정리하는게 사실은 별로 달갑지 않은 업무였어요. 한달에 한 번씩 기록들 싹 다 정리하고, 센터 막판에는 폴더로만 다 넣었지, 도저히 분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도 하고. 사진 같으면 초상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갖고는 있고, 필요하면 1-2장 쓸 수는 있겠지만 대 시민 서비스로 공개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주민들과 오갔던 기록들이 공개가 되면 불편해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정리하면서 기념관을 만들고, 백서를 만들고, 스토리텔링북을 만들면서 맥락들을 충분히 남겨놓지만, 개별 자료들까지 남겨놓기엔 너무 번거롭고, 연구자면 좋아하겠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사실 크게 (없다.) 누가 잘 정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잘못 뿌리면 위험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기록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메리트라도 있어야 그걸 빌미로라도 하지 않을까... ex) 팀장님 말씀대로 클라우드 폴더를 주든지 등. 민감한 정보일 때 바로바로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거나. 정보를 내리고 싶을 때 결재 받고 뭐 하느라 며칠씩 걸리고 그러면 분류하는 것은 해시태그 수준인가요? 돈 받고 하는 것이면 모르겠으나, 이런 방대한 기록자료를 어떻게 취미로 정리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기록을 정리하고 하는데 딱히 욕구는 없다. 주민들과 했던 일들은 또 민감할 수 있어서, 취지는 좋지만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박지현 : 센터의 기록은 어떻게 관리/정리하고 계신지?
손OO : 다 정리를 못 했음. 지원센터의 기록은 주거재생과에서 외장하드를 통째로 가지고 있는 것. 조합에서도 하나 가지고 있으나, 그걸 정리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

4. 추가 제안
김OO : 어제 회의에서 인력이 있을 때 정리하자는 의견이 있긴 했다. 그래서 혹시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것과 맞물려서 할 수 있으면 연락은 드리겠다. 그러나, 이걸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임태원 : 기록을 기반으로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관심이 있음
손OO : 맥락을 모르는 사람이 기록을 정리하고 기술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랑은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해보는 시범사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백서와 같은 형태는 되게 표면적이고, 좀 더 전문가들을 위한 기록 정리 그런 사업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기록을 정리하는 것은 시범사업을 해봐야 할 것, 여러분이 기록을 주시면 저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과연 의미있는 기록을 가진 사람들이 올 것인가. 사람과 돈이 다 들어가는 일이니까.</td></tr>
<tr><td rowspan="2"></td><td>리드 요구사항</td><td>□ 온라인 저장공간 제공
□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운영</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예산, 인력 부족으로 기록을 보존, 관리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 등을 통한 접근을 요구함</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3">1차 면담결과 협력지점을 찾지 못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 중</td></tr>
</table>

3.3.9. 기억발전소

가. 리드파일

<table>
<tr><th colspan="7">기억발전소 리드파일</th></tr>
<tr><td colspan="2">식별번호</td><td>35-LE</td><td>버전 정보</td><td>v.1.1</td><td>최근수정일</td><td>2018.7.26.</td></tr>
<tr><td rowspan="11">리드 정보</td><td>리드명</td><td colspan="2">기억발전소</td><td>리드 유형</td><td colspan="2">□ 개인 □ 가문 ■ 단체</td></tr>
<tr><td>리드의
다른 이름</td><td colspan="2"></td><td>리드 영역</td><td colspan="2">□ 공공 □ 협치 ■ 민간</td></tr>
<tr><td>리드 연락처</td><td colspan="2">02-6237-0715</td><td>리드 이메일</td><td colspan="2">memoryplant@memoryplant.ccom</td></tr>
<tr><td>리드 주소</td><td colspan="2">서울시 마포구
연남로11길 31</td><td>리드 웹주소</td><td colspan="2">memoryplant.com
facebook.com/memoryplant</td></tr>
<tr><td>리드
소개 및 연혁</td><td colspan="5">기억발전소는 사진 전문성에 기반한 전시, 출판, 교육 기획을 통해 기록문화의 지평을 넓히고 사진 중심의 개인사, 생활사 아카이브를 지향하는 사회적기업. 2011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기억을 매개로 한 전시, 출판, 교육,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진행함. 서울시청 광장 사진전 <서울광장, 희로애락을 말하다>(2013년), 서울문화재단 메모리인서울 프로젝트 <메모리인한강 : 그 강에서 보낸 시간>(2015), <메모리인서울 두번째 기획전>(2016), 서울시청 옛시장실 홍보영상(2017), GS칼텍스 50주년 기념전 <우리들의 50년>(2017) 등의 전시와 청현문화재단 여성생애사 구술채록 총서『날마다 아름다운 죽음을 살고 싶다』(2016), 지금여기에 국가폭력희생자 기록집『111:수상한 책』(2015-) 출판을 기획하였음. 시니어 사진 자서전 워크숍 <기억의 지도>(2013-현재)을 통해 인생사진책을 발간하며, 서울문화재단 지역특성화사업 '아카이브의 숲'(2016), 서울혁신센터 '구 질병관리본부 기록물 정리', 서울특별시 촛불집회기록화사업 '촛불 오딧세이'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음.</td></tr>
<tr><td>리드 대표자명</td><td colspan="5">전OO, 박OO</td></tr>
<tr><td>리드 대표자
연락처</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5">리드 구성원
정보</td><td>리드 구성원명</td><td>리드 구성원 역할</td><td>리드 구성원
연락처</td><td colspan="2">리드 구성원 이메일</td></tr>
<tr><td>이OO</td><td>매니저</td><td></td><td colspan="2"></td></tr>
<tr><td>김OO</td><td>매니저</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5">리드 관계
정보</td><td>리드 관계 단체/인물명</td><td>관계 범주/형식</td><td colspan="3">관계 내용</td></tr>
<tr><td>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td><td>□ 이전 □상위
■ 참여 □ 지원
□기타</td><td colspan="3">서울특별시 촛불기록화사업 수행</td></tr>
<tr><td>서울문화재단</td><td>□ 이전 □상위
■ 참여 □ 지원
□기타</td><td colspan="3">메모리인서울 프로젝트 연계 전시 수행</td></tr>
<tr><td>서울혁신센터</td><td>□ 이전 □상위
□ 참여 ■지원
□기타</td><td colspan="3">구 질병관리본부 기록물 정리 사업 수행</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4">리드
접촉정보</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인터뷰 일시</td><td>인터뷰 장소</td><td>인터뷰어명</td><td>인터뷰이명</td><td>최근 수정일</td></tr>
<tr><td>35-CA-1st</td><td>2018.7.26.</td><td>기억발전소</td><td>임태원</td><td>전OO, 이OO</td><td>2018.7.26.</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able>

<table>
<tr><td rowspan="9">보유
기록물
정보</td><td>아카이브명</td><td colspan="3">촛불혁명 현장수집물</td></tr>
<tr><td rowspan="3">주요 컬렉션
소개</td><td>컬렉션명</td><td>구분</td><td>설명</td></tr>
<tr><td>촛불혁명 현장수집물</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의 '촛불집회기록화사업'을 기획, 진행하면서 2016년 10월부터 2017년에 3월까지 촛불혁명 현장에서 수집한 피켓, 포스터, 깃발 등의 집회물품을 수집하였음. 촛불혁명과 태극기집회(맞불집회)의 실물자료를 회차별로 보관함. 또한 촬영한 실물자료 사진 데이터를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음.</td></tr>
<tr><td></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td></tr>
<tr><td colspan="3">(+) 추가 가능</td></tr>
<tr><td>시정기록
연계 링크</td><td colspan="3"></td></tr>
<tr><td>보유기록물
구분</td><td colspan="3">■ 전자 ■ 비전자</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유형</td><td>전자</td><td colspan="2">■ 문서 ■ 사진 ■ 영상 □ 음성 □ 기타 (　　)</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 문서 □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 기타 (　　)</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규모</td><td>전자</td><td colspan="2">1.8GB</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우체국 4-5호 박스 1개</td></tr>
<tr><td>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보존
관리
현황</td><td rowspan="2">보유기록물
상태</td><td>전자</td><td colspan="2">외장하드에 보관</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사무실에 보관</td></tr>
<tr><td>관리 현황</td><td colspan="3">별도의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td></tr>
<tr><td rowspan="4">협력방안</td><td>리드 요구</td><td colspan="3">촛불혁명 현장에서 수집한 기록물이 회차별로 구분은 하였으나, 보관을 하면서 서로 다른 모양의 자료인 피켓, 종이컵, 깃발 등을 눌리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생김. 현장에서 깨끗한 원본을 수집할 수 없어 최대한 자료를 알아볼 수 있는 수준에서 수집을 하다보니, 오염이나 스크레치 등이 있던 자료들이 대부분이 이었고, 보관장소에 항온항습 시설이 없어 여름의 습함과 더위, 겨울의 추위로 수집물이 더욱 손상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임. 촛불혁명 현장에서 수집된 기록물이 서울기록원의 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해서도 함께 서비스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음.</td></tr>
<tr><td>예상 지원
방안</td><td colspan="3">기록물 위탁관리</td></tr>
<tr><td>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td><td colspan="3">□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 □ 기타 (　　)</td></tr>
<tr><td>수집 협의
내용</td><td colspan="3">기록물 위탁관리 협약 체결 및 이관 진행</td></tr>
<tr><td>특이사항</td><td>아키비스트
주기</td><td colspan="3">□ 날짜(회차)별로 정리된 촛불집회와 맞불집회 현장에서 수집한 피켓, 깃발, 신문 등의 시위 물품과 개별 사진(jpg)이 있음.
□ 4차-7차 관련 실물자료는 없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자료를 촬영한 사진 파일로 보관하고 있음.
□ 8차-20차 관련 실물자료는 기억발전소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사진 파일이 있음.
□ 탄핵 선고 이후 발간된 신문자료도 함께 소장됨.
□ 실물의 경우는 흠집이 최소한인 물품 위주로 수집하였고, 보관을 위해 별도의 보존처리는 하지 않음. 회차별로 분류함. 사진의 경우, 개별 실물자료를 복사촬영을 진행해 책이나 전시를 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활용할 수 있음.
□ 케이스파일 부재</td></tr>
</table>

나. 케이스파일

<table>
<tr><th colspan="7">기억발전소 케이스파일(접촉파일)</th></tr>
<tr><td colspan="2">케이스파일 식별번호</td><td>35-CA</td><td>버전 정보</td><td>v.1.0</td><td>최근수정일</td><td>2018.07.26</td></tr>
<tr><th colspan="7">소장처 인터뷰 정보</th></tr>
<tr><td>회차</td><td colspan="4"></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35-CA-1st</td></tr>
<tr><td rowspan="5">1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07-26</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기억발전소 사무실</td></tr>
<tr><td>인터뷰이명</td><td>전OO
이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02-6237-0715</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memoryplant@memoryplant.com</td></tr>
<tr><td>인터뷰어명</td><td>임태원</td><td>녹취파일 링크</td><td></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 기록활동 소개
사진 전문성에 기반한 전시, 출판, 교육 기획을 통해 기록문화의 지평을 넓히고 사진 중심의 개인사, 생활사 아카이브를 지향하는 사회적기업. 2011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기억을 매개로 한 전시, 출판, 교육,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진행함. 서울시청 광장 사진전 <서울광장, 희로애락을 말하다>(2013년), 서울문화재단 메모리인서울 프로젝트 <메모리인한강 : 그강에서 보낸 시간>(2015), <메모리인서울 두번째 기획전>(2016), 서울시청 옛시장실 홍보영상(2017), GS칼텍스 50주년 기념전 <우리들의 50년>(2017) 등의 전시와 청현문화재단 여성생애사 구술채록 총서『날마다 아름다운 죽음을 살고 싶다』(2016), 지금여기에 국가폭력희생자 기록집『111:수상한 책』(2015-) 출판을 기획하였음. 시니어 사진 자서전 워크숍 <기억의지도>(2013-현재)을 통해 인생사진책을 발간하며, 서울문화재단 지역특성화사업 '아카이브의 숲'(2016), 서울혁신센터 '구 질병관리본부 기록물 정리', 서울특별시 촛불집회기록화사업 '촛불 오딧세이'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음.
□ 기록물 생산 및 보관
기억발전소의 프로젝트는 전자파일은 담당자PC와 외장하드에 백업해 보관하며, 외의 자료는 사무실에 보관함.
촛불혁명 현장수집물은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의 '촛불집회기록화사업'을 기획, 진행하면서 2016년 10월부터 2017년에 3월까지 촛불혁명 현장에서 수집한 피켓, 포스터, 깃발 등의 집회물품임. 촛불혁명과 태극기집회(맞불집회)의 실물자료를 회차별로 보관함. 또한 촬영한 실물자료 사진 데이터를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음.</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colspan="2">□ 촛불혁명 현장수집물의 위탁관리 및 이관
□ 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한 서비스 방안 마련</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colspan="2"></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5">기록물 위탁관리</td></tr>
</table>

3.3.10.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가. 리드파일

<table>
<tr><th colspan="8">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리드파일</th></tr>
<tr><td colspan="2">식별번호</td><td>50
-LE</td><td>버전 정보</td><td>v.1.1</td><td>최근수정일</td><td colspan="2">2018.7.30.</td></tr>
<tr><td rowspan="15">리드 정보</td><td>리드명</td><td colspan="2">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td><td>리드 유형</td><td colspan="3">□ 개인 □ 가문 ■ 단체</td></tr>
<tr><td>리드의
다른 이름</td><td colspan="2"></td><td>리드 영역</td><td colspan="3">□ 공공 □ 협치 ■ 민간</td></tr>
<tr><td>리드 연락처</td><td colspan="2"></td><td>리드 이메일</td><td colspan="3"></td></tr>
<tr><td>리드 주소</td><td colspan="2"></td><td>리드 웹주소</td><td colspan="3"></td></tr>
<tr><td>리드
소개 및 연혁</td><td colspan="6">□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전개된 촛불시민운동을 전개하며 회의자료, 포스터, 상 등의 사료를 생산함. 백서『촛불의 기록』발간함.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해산함.</td></tr>
<tr><td>리드 대표자명</td><td colspan="6"></td></tr>
<tr><td>리드 대표자
연락처</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5">리드 구성원
정보</td><td colspan="2">리드 구성원명</td><td>리드 구성원 역할</td><td>리드 구성원
연락처</td><td colspan="2">리드 구성원 이메일</td></tr>
<tr><td colspan="2">윤OO</td><td>사무국장</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5">리드 관계
정보</td><td colspan="2">리드 관계 단체/인물명</td><td>관계 범주/형식</td><td colspan="3">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td><td colspan="3">기록 생산 및 수집</td></tr>
<tr><td colspan="2">민주화운동기념사업
위원회</td><td>□ 이전 □상위
□ 참여 ■기타</td><td colspan="3">기록물 위탁 관리 진행</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4">리드
접촉정보</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인터뷰 일시</td><td>인터뷰 장소</td><td>인터뷰어명</td><td>인터뷰이명</td><td colspan="2">최근 수정일</td></tr>
<tr><td>50-CA-1st</td><td>2018.7.30.</td><td>서울기록원</td><td>임태원</td><td>윤OO</td><td colspan="2">2018.7.30.</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7">(+)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6">보유
기록물
정보</td><td>아카이브명</td><td colspan="6">촛불시민운동 사료</td></tr>
<tr><td rowspan="3">주요 컬렉션
소개</td><td colspan="2">컬렉션명</td><td>구분</td><td colspan="3">설명</td></tr>
<tr><td colspan="2">촛불시민운동 사료</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colspan="3">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전개된 촛불시민운동을 전개하며 회의자료, 포스터, 상 등의 사료를 생산함. 백서『촛불의 기록』발간함.</td></tr>
<tr><td colspan="2"></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 colspan="3"></td></tr>
<tr><td>시정기록
연계 링크</td><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r><td>보유기록물
구분</td><td colspan="6">■ 전자 ■ 비전자</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보유 기록물 정보</td><td rowspan="2">보유기록물 유형</td><td>전자</td><td>■ 문서 ■ 사진 ■ 영상 □ 음성 □ 기타 ( )</td></tr>
<tr><td>비전자</td><td>□ 문서 □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 기타 ( )</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규모</td><td>전자</td><td>7TB</td></tr>
<tr><td>비전자</td><td></td></tr>
<tr><td>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보존 관리 현황</td><td rowspan="2">보유기록물 상태</td><td>전자</td><td>문서 및 사진 등은 클라우드에 보관, 영상은 외장하드에 보관</td></tr>
<tr><td>비전자</td><td></td></tr>
<tr><td>관리 현황</td><td colspan="2">별도의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td></tr>
<tr><td rowspan="4">협력방안</td><td>리드 요구</td><td colspan="2">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해산 이후 5명의 공동대표와 촛불사료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기로 함</td></tr>
<tr><td>예상 지원 방안</td><td colspan="2">기록물 위탁관리</td></tr>
<tr><td>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td><td colspan="2">□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 □ 기타 ( )</td></tr>
<tr><td>수집 협의 내용</td><td colspan="2">기록물 위탁관리 협약 체결</td></tr>
<tr><td>특이사항</td><td>아키비스트 주기</td><td colspan="2">케이스파일 부재</td></tr>
</table>

나. 케이스파일

<table>
<tr><th colspan="7">박근혜정권 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회(접촉파일)</th></tr>
<tr><td colspan="2">케이스파일 식별번호</td><td>50-CA</td><td>버전 정보</td><td>v.1.1</td><td>최근수정일</td><td>2018.07.30</td></tr>
<tr><th colspan="7">소장처 인터뷰 정보</th></tr>
<tr><td colspan="2">회차</td><td colspan="3"></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50-CA-1st</td></tr>
<tr><td rowspan="6">1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07-30</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서울기록원</td></tr>
<tr><td>인터뷰이명</td><td>윤O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td></tr>
<tr><td>인터뷰어명</td><td>임태원</td><td>녹취파일 링크</td><td></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위탁기록물(촛불시민운동 사료) 인수인계
- 2017년 박근혜정권퇴진운동부로부터 수탁한 촛불시민운동 사료 실물기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 인계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회로부터 전자기록물 인수
- 마이클라우드 계정을 통해 다운로드 및 외장하드(영상기록물)를 통해 인수
- 위탁기간은 5년으로 만료 3개월 전까지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자동연장
- 디지털아카이브에 등록하여 체계적 위탁관리 수행
- 위탁기간이 종료되어도 공공목적에 따라 공개 및 서비스</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colspan="2"></td><td>기록원 제안 사항</td><td colspan="2"></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5">협약 및 전자기록물 인수</td></tr>
</table>

3.3.11. 매거진충무로

가. 리드파일

<table>
<tr><th colspan="7">매거진충무로 리드파일</th></tr>
<tr><td colspan="2">식별번호</td><td>25-LE</td><td>버전 정보</td><td>v.1.1</td><td>최근수정일</td><td>2018.8.13.</td></tr>
<tr><td rowspan="15">리드 정보</td><td>리드명</td><td colspan="2">매거진충무로</td><td>리드 유형</td><td colspan="2">□ 개인 □ 가문 ■ 단체</td></tr>
<tr><td>리드의
다른 이름</td><td colspan="2"></td><td>리드 영역</td><td colspan="2">□ 공공 □ 협치 ■ 민간</td></tr>
<tr><td>리드 연락처</td><td colspan="2"></td><td>리드 이메일</td><td colspan="2">murojang@naver.com</td></tr>
<tr><td>리드 주소</td><td colspan="2"></td><td>리드 웹주소</td><td colspan="2">https://blog.naver.com/grinet9</td></tr>
<tr><td>리드
소개 및 연혁</td><td colspan="5">□ 2013년 지역커뮤니티 독서모임으로 시작해 2015년 잡지 <매거진충무로> 창간.
충무로에 있는 인쇄소 종사자들이 모임을 조직. 충무로-을지로의 기록을 남기고자 잡지를 발행. 기록주체가 지역을 관찰하는 외부인이 아니라는 특징을 지님.
□ 인쇄거리의 기억과 역사를 남길 수 있도록 아카이브를 지속하고 싶음.
'누군가는 기록해야 한다. 이 지역이 보전되어야 한다'는 개인의 열망이 기록활동을 가능하게 함. 명맥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td></tr>
<tr><td>리드 대표자명</td><td colspan="5">이O</td></tr>
<tr><td>리드 대표자
연락처</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5">리드 구성원
정보</td><td>리드 구성원명</td><td>리드 구성원 역할</td><td colspan="2">리드 구성원
연락처</td><td>리드 구성원 이메일</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5">리드 관계
정보</td><td>리드 관계 단체/인물명</td><td>관계 범주/형식</td><td colspan="3">관계 내용</td></tr>
<tr><td>서울마을미디어
지원센터</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기타</td><td colspan="3">5~6호 지원사업 출판 사업지원금</td></tr>
<tr><td>다시세운프로젝트</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기타</td><td colspan="3">7호 도시재생 사업 연계 출판</td></tr>
<tr><td>역사도심과
주민제안사업</td><td>□ 이전 □ 상위
□ 참여 ■ 지원
□기타</td><td colspan="3">7호 도시재생 사업 연계 출판</td></tr>
<tr><td colspan="5">(+) 추가 가능</td></tr>
<tr><td rowspan="4">리드
접촉정보</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인터뷰 일시</td><td>인터뷰 장소</td><td>인터뷰어명</td><td>인터뷰이명</td><td>최근 수정일</td></tr>
<tr><td>25-CA-1st</td><td>2018.8.13.</td><td>매거진
충무로
사무실</td><td>전미정,
임태원</td><td>이O</td><td>2018.8.13.</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 추가 가능</td></tr>
</table>

<table>
<tr><td rowspan="10">보유 기록물 정보</td><td>아카이브명</td><td colspan="3">매거진 충무로</td></tr>
<tr><td rowspan="4">주요 컬렉션 소개</td><td>컬렉션명</td><td>구분</td><td>설명</td></tr>
<tr><td>매거진 충무로</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2015년 잡지 <매거진 충무로> 창간해 현재 8호까지 출판함.</td></tr>
<tr><td></td><td>□ 생산 □ 수집
□ 지원사업</td><td></td></tr>
<tr><td colspan="3">(+) 추가 가능</td></tr>
<tr><td>시정기록 연계 링크</td><td colspan="3"></td></tr>
<tr><td>보유기록물 구분</td><td colspan="3">■ 전자 ■ 비전자</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유형</td><td>전자</td><td colspan="2">■ 문서 ■ 사진 □ 영상 □ 음성 □ 기타 ( )</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 문서 □ 사진 ■ 도서 □ 도면 □ 판넬/액자 □ 포스터 □ 현수막
□ 박물 □ 기타 ( )</td></tr>
<tr><td rowspan="2">보유기록물 규모</td><td>전자</td><td colspan="2">280GB</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2상자</td></tr>
<tr><td>보유기록물 이미지 링크</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보존 관리 현황</td><td rowspan="2">보유기록물 상태</td><td>전자</td><td colspan="2">외장하드와 웹하드로 관리</td></tr>
<tr><td>비전자</td><td colspan="2">사무실에 보관</td></tr>
<tr><td>관리 현황</td><td colspan="3">□ 전문적인 기록관리시스템은 없음
□ 네이버 블로그 운영을 통해 서비스함.</td></tr>
<tr><td rowspan="4">협력방안</td><td>리드 요구</td><td colspan="3">□ 지금까지 최소 제작비 이외의 지원을 받은 적은 없음. 잡지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기대함.</td></tr>
<tr><td>예상 지원 방안</td><td colspan="3"></td></tr>
<tr><td>리드 기록물 수집 방안</td><td colspan="3">■ 미정 □ 기증 □ 위탁 □ 구매 □ 기타 ( )</td></tr>
<tr><td>수집 협의 내용</td><td colspan="3"></td></tr>
<tr><td>특이사항</td><td>아키비스트 주기</td><td colspan="3">지역기록화는 매거진 발행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속적인 발행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볼 수 있음</td></tr>
</table>

나. 케이스파일

<table>
<tr><th colspan="7">매거진충무로 케이스파일(접촉파일)</th></tr>
<tr><td colspan="2">케이스파일 식별번호</td><td>25-CA</td><td>버전 정보</td><td>v.1.0</td><td>최근수정일</td><td>2018.08.14.</td></tr>
<tr><th colspan="7">소장처 인터뷰 정보</th></tr>
<tr><td>회차</td><td colspan="4"></td><td>접촉회차별 식별번호</td><td>35-CA-1st</td></tr>
<tr><td rowspan="6">1차</td><td>인터뷰 일시</td><td colspan="2">2018-08-13</td><td>인터뷰 장소</td><td colspan="2">매거진 충무로 사무실</td></tr>
<tr><td>인터뷰이명</td><td>이O</td><td>인터뷰이 연락처</td><td></td><td>인터뷰이 이메일</td><td>murojang@naver.com</td></tr>
<tr><td>인터뷰어명</td><td>전미정
임태원</td><td>녹취파일 링크</td><td></td><td>사진 링크</td><td></td></tr>
<tr><td>주요 인터뷰 내용</td><td colspan="5">□ 기록활동 소개
• 인쇄업, 출판업 종사자들의 기록활동. 출판과 인쇄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시작. 인쇄문화를 기록으로 알리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음. 처음에는 인쇄 위주의 콘텐트를 생산했지만 발행이 지속되면서 그 범위가 더 확장된 경향이 있음. 전문가의 글이 아닌 아마추어의 시각과 열정을 담고자 함. 충무로에 애정이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담는다는 의미.
□ 기록물 생산 및 보관
• 현재 8호까지 출판. 1~4호 자비 출판. 5~6호 지원사업 출판(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사업 지원금, 7호 도시재생 사업 연계 출판(다시세운 프로젝트, 서울시 역사도심과 지원 주민제안 사업), 8호 자비 출판
• 잡지 발행부수 : 1200~2000부
• 보관 상태 : 개인 보관(사무실, 창고 등), 현재 대부분 소진된 상태. 7월호만 남아있음
• 기록 관리 : 별도의 관리 없음. 최종 인쇄 pdf만 보관 중.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의 사진, 글 등은 삭제.
• 저작권 관련 : <매거진 충무로>의 pdf 활용은 별개의 문제. 매거진 충무로 카피라이트를 표시하고 링크하는 식으로 서울기록원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것은 가능</td></tr>
<tr><td>리드 요구사항</td><td colspan="2">□ 소진된 잡지의 재인쇄 지원 가능여부 확인 부탁
□ 지금까지 최소 제작비 이외의 지원을 받은 적은 없음. 잡지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기대
□ 지역 기록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 연계 가능성 모색</td><td>기록원 제안사항</td><td colspan="2"></td></tr>
<tr><td>합의사항</td><td colspan="5">협약 가능성을 열어둠. <매거진 충무로> 실물 자료 일부와 pdf 파일 이관 결정.</td></tr>
</table>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행정국장 황인식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장 김은실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장 원종관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장 김재봉
담당자 박지현, 임태원

–

사업팀 (주식회사 기억발전소)

사업 책임
전미정 (주식회사 기억발전소 대표)

사업 참여
박소진 (주식회사 기억발전소 상임이사)
이원영 (주식회사 기억발전소 매니저)
김수진 (주식회사 기억발전소 매니저)
소준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학과 박사수료)
장대환 (명지대학교 기록관리전공 석사과정)
박수연 (명지대학교 기록관리전공 석사과정)

자문위원
안정희, 이영남, 이현정

비매품/무료
93350
9 791161 614144
ISBN 979-11-6161-414-4